

사회운동의 가부장성과  
여성주의 정체성의 형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전 회 경

# 사회운동의 가부장성과 여성주의 정체성의 형성

지도 김 현 미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0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전 회 경

# 전희경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김 행 비 

심사위원 조 순 경 

심사위원 김 호 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년 12월 일

# 목 차

|                                             |           |
|---------------------------------------------|-----------|
| 국문요약 .....                                  | v         |
| <b>제1장 서론 .....</b>                         | <b>1</b>  |
| 1절. 연구 배경 .....                             | 1         |
| 2절. 연구 목적 .....                             | 6         |
| (1) 90년대 중반 이후 여성주의 정체성이 형성된 구체적 맥락 .....   | 7         |
| (2) ‘차이’가 해석된 방식과 그것이 여성주의 정체성에 미친 영향 ..... | 9         |
| 3절. 연구 방법 .....                             | 12        |
| <b>제2장 이론적 배경 .....</b>                     | <b>17</b> |
| 1절. ‘정체성의 정치’와 매체 .....                     | 18        |
| 2절. 여성주의 정체성의 형성 과정 .....                   | 19        |
| (1) 페미니스트 의식의 일반적 특징 : 바키(Bartky)의 논의 20    |           |
| (2) 나선형적 과정 속에 놓인 페미니스트 의식 .....            | 24        |
| (3) 비교와 구분을 통한 정체화 과정 .....                 | 26        |
| 3-1) 비교하기, 구별짓기 .....                       | 27        |
| 3-2) 정의 내리는 힘과 그 효과 .....                   | 28        |
| 3절. 맑스주의의 가부장적 이론과 실천 .....                 | 30        |
| (1) ‘노동’ 개념의 협소함과 남성중심성 .....               | 32        |
| (2) “전통적 맑스주의의 계략” .....                    | 33        |
| (3) 여성억압의 ‘자연화’ .....                       | 33        |
| (4) “여성해방은 노동해방에 종속된다” .....                | 34        |
| (5)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문제들 .....                   | 35        |
| 4절. 분열된 정체성 : 서구 페미니스트들의 경험 .....           | 37        |

|                                           |           |
|-------------------------------------------|-----------|
| <b>제3장 역사적 맥락</b>                         | <b>40</b> |
| 1절. 80년대 한국 여성운동의 두 가지 흐름                 | 41        |
| 2절. 90년대 중반 이후의 새로운 문제의식                  | 44        |
| (1) '주류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의 급진화           | 45        |
| 1-1) '주류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           | 45        |
| 1-2) 실천적 가부장성과 이념에 의한 정당화                 | 49        |
| 1-3) 여성주의적 비판에 대한 '주류 사회운동'의 방어 답변        | 52        |
| 1-4) 90년대 후반 '여성주의자들'에 의한 비판의 급진화         | 54        |
| (2) '독자적' 여성주의 운동                         | 55        |
| 2-1) '대화가 여성주의자들'의 형성                     | 56        |
| 2-2)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의 형성                  | 59        |
| 3절. 여성주의 정체성의 갈등적 형성                      | 64        |
| (1) '여성주의자들'의 일반적 특성                      | 64        |
| 1-1) '주류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급진적 비판의식         | 65        |
| 1-2) 위계적 이분법에 대한 거부                       | 65        |
| 1-3) "여성문제는 설득이나 설명의 문제가 아니다"             | 66        |
| 1-4) 비위계적 조직체제에 대한 실험                     | 66        |
| 1-5) 자율성과 '실질적' 평등에 대한 옹호                 | 67        |
| 1-6) '일상의 정치'에 대한 중시                      | 68        |
| (2) 숨겨진 갈등들                               | 68        |
| <b>제4장 90년대 중반 이후 여성주의 정체성의 형성과 의의</b>    | <b>72</b> |
| 1절. 대화가 여성주의자들                            | 72        |
| (1) 사회적 배경                                | 72        |
| (2) '주류 학생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서로 다른 경험과 '내적 갈등' | 74        |
| (3) 여성주의 운동의 '독자성'에 대한 자의식                | 84        |
| (4) 학생운동에 대한 적극적 비판 : 또 하나의 길             | 87        |
| (5) 역사적 의의 :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실험들   | 98        |
| 2절.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                         | 100       |

|                                                        |     |
|--------------------------------------------------------|-----|
| (1) 사회적 배경 .....                                       | 100 |
| (2) 사회운동 경험 : 여성주의 의식 형성을 가로막는 구조들 .....               | 101 |
| (3) 누적된 경험과 기억의 회귀 :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 .....                 | 106 |
| (4) 비판의식의 급진화와 ‘공론화’ .....                             | 112 |
| 4-1) 권위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인 운동 양식 .....                        | 113 |
| 4-2) 남성중심적인 성 문화와 성 의식 .....                           | 114 |
| 4-3) 위계화된 운동이념 : “노동운동의 중심성·선차성·우월성” .....             | 115 |
| 4-4) 남성적 ‘운동가 상(像)’과 ‘운동 언어’ .....                     | 116 |
| 4-5) 언어적·물리적 폭력 및 운동권내 성폭력 .....                       | 118 |
| 4-6) 고도화된 여성 배제 메커니즘 .....                             | 124 |
| 4-7) 문제제기의 봉합 .....                                    | 130 |
| (5) 감정적 유대감으로부터의 단절 .....                              | 133 |
| (6) ‘커밍 아웃’ : <여성활동가모임>의 결성 .....                      | 135 |
| (7) 역사적 의의 :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체계적인 도전과 성찰성의 전면적 제고 ..... | 139 |

## 제5장 차이의 ‘위계화’에서 차이의 ‘맥락화’로 ..... 141

### 1절.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로 인식된 지점들 ..... 141

|                                            |     |
|--------------------------------------------|-----|
| (1) 대학가 여성주의자들 .....                       | 141 |
| 1-1) 주류 학생운동에 대한 입장 및 유대감의 차이 .....        | 142 |
| 1-2) ‘여성주의’에 대한 해석과 문화의 차이 .....           | 144 |
| (2)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 .....                    | 148 |
| 2-1)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문제의식 및 ‘감정적 거리’의 차이 .. | 148 |
| 2-2) 저항의 방법과 시점의 차이 .....                  | 153 |

### 2절. 차이의 ‘위계화’와 갈등의 증폭 ..... 155

|                                       |     |
|---------------------------------------|-----|
| (1) 대학가 여성주의자들 .....                  | 155 |
| 1-1) ‘입장의 차이’에서 ‘감정적 갈등’으로 .....      | 155 |
| 1-2) 차이의 위계화와 ‘의심받는 정체성’ .....        | 157 |
| 1-3) 지도 그리기 : 여성주의 안에서의 중심과 주변 .....  | 161 |
| 1-4) 왜 논쟁되지 않는가? : 폐쇄성과 배타성의 확대 ..... | 163 |
| 1-5) 성찰적 맹아들 .....                    | 165 |

|                                                |            |
|------------------------------------------------|------------|
| (2)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 .....                        | 167        |
| 2-1) 신뢰의 위기와 감정적 상처들 .....                     | 167        |
| 2-2) 왜 논쟁되지 않는가? : ‘우리’를 단일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 ..... | 170        |
| 2-3) 차이의 숨겨짐과 위계화 .....                        | 171        |
| 2-4) 성찰적 맹아들 .....                             | 173        |
| 3절. 차이를 ‘백락화’ 하기 .....                         | 175        |
| <br><b>제6장 요약 및 결론 .....</b>                   | <b>177</b> |
| <br>참 고 문 헌 .....                              | 182        |
| ABSTRACT .....                                 |            |

## 사회운동의 가부장성과 여성주의 정체성의 형성

80년대 이후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는 주류 사회운동의 포섭주의적·가부장적 이념구조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서 발전해 왔다. 사회운동진영과 여성운동의 관계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논쟁이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주류'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소위 '전체운동' 속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진보성"을 인정받고자 했던 여성운동이었고, 이들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단체운동'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진보'를 표방하는 사회운동이 실상 대단히 가부장적이라는 점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여성주의자들'은 주류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면서 새로운 여성주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본 논문의 관심은 이들의 여성주의 정체성이 사회운동의 오랜 가부장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페미니즘 이론에서 여성주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롭게 인식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주의 정체성이 어떤 단일하고 고정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맥락과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협상되고 재구성되는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 기대어, 나는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여성주의자들'이 한국 주류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도전과 단절을 통해 새로운 여성주의 정체성을 발전시켜 왔다고 보았다. 나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90년대 중반부터 형성된 특징적인 두 집단인 '대학가 여성주의자들'과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여성주의자들'의 비판과 실천적 도전은, 한국 맑스주의계열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이 이념의 물질적(gender-blind) 성격에서부터 남성중심적 문화 및 조직원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맞물려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냈다. 성역할분담과 남성편의적 이중도덕, 여성비하적인 성 의식과 권위주의적인 일상문화 등은 주류 사회운동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가부장적 구조이며, 특히 거대담론을 중심으로 한 이분법적 이념 구조는 여성문제를 부차적인 문제로 폄하하고 계급모순 속에 수렴시키려는 포섭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억압을 소위 '전체 운동'과 분리하여 독립적인 것으로 사고하며 기존의 '주류 사회운동'이 지니고 있는 가부장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운동 의제와 방식을 실험해 왔다.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의식과 여성주의운동의 '독자성'에 대한 자의식은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여성주의 정체성의 특수성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여성주의 운동의 '독자성'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려는 여성주의자들의 노력으로 인해 여성

주의를 가부장적 사회운동에 대한 ‘반정립’으로서 정의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주류 사회운동과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여성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고립적 상황은 여성주의에 대한 해석과 문화 등에 있어서의 ‘차이’를 제대로 표면화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여성주의 정체성의 구체적 양상은 각자의 개인사적 맥락과 조건, 그리고 운동의 경험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드러내고 논쟁하기보다는 ‘우리’라는 단일한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박이 존재했던 것이다. 16명의 사례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진정한 여성주의자’라는 위계화된 정의 방식은 배제를 낳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하나”라는 동질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각자의 경험과 조건을 오히려 탈맥락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차이’나 ‘갈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맥락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여성주의적 연대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주의자들이 한국 사회운동사 및 여성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의는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주류 사회운동에 대한 비판을 통해 여성주의 운동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자의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천적으로 매우 풍부한 전략과 담론을 창출하고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까지 정치적 실험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의 경우 주류 사회운동 내부에서의 개별화된 고립 상황에서 벗어나 여성주의 의식을 형성하고, 가부장성에 대한 저항을 점차 체계화, 집단화, 조직화해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여성주의자들’은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 및 실천적 투쟁을 통해 독자적인 여성주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는 점, 그리고 집합적 실천을 통해 세력화함으로써 전면적인 도전을 수행하고 가시적 성과를 획득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여성주의 정체성의 출현으로 평가될 수 있다.

---

■ 핵심 되는 말 :

여성주의, 여성주의자, 정체성, 주류 사회운동, 가부장성, 독자성, 차이, 위계화, 맥락화, 연대

# 제1장 서론

## 1절. 연구 배경

사회운동은 한 사회의 변동을 추동하는 중요한 집합적 행동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운동 또한 해방 이후의 현대사 속에서 사회 변화에 있어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해 왔다. 사회운동을 다루는 우리나라의 많은 이론가들은 한국 사회운동의 역사와 경험을, '70년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지면서 민족민주운동의 거대한 흐름을 이어 왔으나, 90년대 들어 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신사회운동론의 유입 등의 조건 하에서 한국 사회운동진영의 지형이 급격한 조직적·이념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1)</sup>. 당시 사회운동진영 내부에는 노동해방/민족해방을 중심으로 한 주류 사회운동의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포스트모던 세계'라는 유행을 완강히 거부하는 흐름과, 소위 '신 사회운동' 담론을 중심으로 운동 지형을 재편하려는 흐름이 경쟁적으로 공존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사회운동가들 역시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으며,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과 분열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의 이 같은 팔목할만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폭압적인 독재정권의 횡포에 대항하는 민주화투쟁과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 싸워야 했던 노동운동, 그리고 미국 등 제국주의 세력에 반대하여 '민족'의 완전한 통일과 해방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운동은 한국 사회운동사에서 특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사회운동 지형에 있어 이른바 '주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물적·담론적 위상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 여성운동 또한 이러한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전해 왔다 특히 80년대 이후 한국 여성운동이 여성문제를 전체 사회구조의 모순과 함께 총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태동시켰으며 여성운동의 대중적 기반, 더 나아가 민족민주운동의 대오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했던 90년대 초반의 인식은(이송희, 1992), 여성운동가들이 여성운동을 정의하고 위치 짓는 데 있어 소위 '전체운

---

1) 확실히 90년대 이후 여성·환경·인권·평화·장애인 운동 등, 이전까지의 사회운동이 지니고 있었던 통합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출현했으며, 그에 따라 '운동'과 '진보'의 개념 자체가 문제시되고 사회운동의 지형이 재편되기 시작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80년대 '민족민주운동' 패러다임과 90년대 중반 이후의 사회운동 패러다임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적어도 이 논문이 문제삼고자 하는 가부장적 구조에 있어서는 말이다 역사가 "현재의 입장에 입각하여 '되돌러오기'일 뿐"(우에노 치즈코, 2000)이라고 할 때, 한국 사회운동의 역사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다시 쓰여질 수 있다 이는 또다른 지면을 요구하나, 본 논문의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구체적으로는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

동'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음을 시사해 준다(이정자, 1995)<sup>2)</sup>.

하지만 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진보'를 표방하는 사회운동이 실상 대단히 가부장적이라는 점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안혜성, 1993 ; 최성애, 1994 ; 조순경·김혜숙, 1995 ; 김정은, 1998 ; 김현영, 1998 , 전희경, 1998, 1999a, 1999b, 1999c, 1999d ; 조주은 외, 1999 , 허나운, 2000) 그리고 그러한 연구들은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이 비단 활동가들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운동이 바탕한 이념의 물성적(gender-blind) 성격에서부터 남성중심적 문화 및 조직원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맞물려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후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은 9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실천 영역 속에서 형성된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한층 더 전면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세대의 여성단체운동과도 구분되고 주류 사회운동진영으로부터도 일정정도의 자율성을 획득한 이들 '여성주의자들' 중에서 본 논문이 주목하고자 하는 집단은 크게 두 집단이다. 하나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새로운 '여성주의 담론'을 확산시키고 여성주의 운동의 독자적 의제 및 운동 방식을 개발해 온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성주의 의식을 획득하고 스스로를 <여성활동가모임>으로 조직화 한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 의식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여성주의자'라는 정체성을 새로이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류 학생운동/사회운동'<sup>3)</sup>의 영향력 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그것과 단절하고 독자적인 '여성주의' 운동을 펼쳐 온 이들 '여성주의자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새로운 '여성주의' 운동이 등장하고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된 90년대 중반

---

2) 1983년에 만들어진 대표적 여성운동단체인 <여성평우회>는, 자신들의 운동 목표를 ① 남녀를 차별하는 성 차별문화 타파, ② 남녀 공동의 노력으로 남녀 모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건설, ③ 민족분단의 비극 극복과 평화로운 통일사회의 건설로 설정하고 있다(여성평우회, 1986) 즉, 80년대 여성운동은 여성문제를 독자적인 정치적 이슈로서 특화시키기보다는 그것을 계급모순이나 민족모순 등 사회구조 '전체'의 변혁과 연관지었으며, 바로 그러한 한에서 '진보적' 여성운동이라고 스스로를 명명했던 것이다. '전체운동'이라는 표현 역시 여성운동과 민족민주운동의 연속성과 민족민주운동의 포괄성을 가정하는 이 같은 인식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주류 사회운동과 여성운동 사이의 연속성과 포괄성을 가정하는 것이 90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 사회운동지형에 있어서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논문의 주요한 연구대상인 '여성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그러한 연속성과 포괄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따옴표 안에 표기하였다

3) 지식인과 학생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한국 사회운동의 역사를 볼 때, 학생운동이 일반 사회운동과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운동의 이념, 문화, 조직구조에 있어서의 가부장적 성격이라는 이 논문의 관심에 비추어 볼 때,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은 동일한 맥락에서 함께 언급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당시 20대 초·중반이었던 사회운동가 여성들 대다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혼란과 좌충 우돌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90년대에는 사회운동가들의 정체성이 ‘단일한 전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전선에 의해 복합적으로 분할되고 재구성되는 것으로서 새롭게 ‘문제화’ 되었으며, 남성적인 ‘운동가의 상(像)’을 이상화하는 ‘주류’ 사회운동의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사회운동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특히 모순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학생운동의 언저리에 몸담았다가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로 명명하게 되기까지, 나의 사회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은 이처럼 변화하는 운동지형과 경합하는 담론들 사이에서 분주한 좌충우돌을 거쳤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술한 억압과 차별, 배제와 소외의 경험은, 적어도 나에게는 주저 없이 여성주의를 자신의 정치적 입장으로 선택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운동권 여성’에서 ‘좌파 페미니스트’로, 그리고 다시 ‘여성주의자’로 좌표이동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단선적이거나 필연적인 것이 아니었다<sup>4)</sup>. 특히 나의 개인사적 경험들 중에 있었던 두 번의 중요한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변화는 맑스주의계열 사회운동가(‘좌파 운동권’)로부터 ‘여성주의자’로의 변화이다. 소위 ‘다양한 적대’와 ‘새로운 사회운동’이 기존 사회운동진영의 주요 패러다임에 도전하기 시작한 이래, ‘차이’와 ‘연대’라는 말은 많은 사회운동가들을 사로잡았고 나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비록 한 때였지만, 맑스주의계열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을 비판하면서도 그것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희망, 또는 좌파와 여성주의운동이 ‘차이에 기반한 동등한 연대’를 이룰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골몰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황스럽게도, ‘좌파 운동권’이라는 정체성과 ‘여성주의자’라는 정체성은 화기애애하게 공존할 수 없었다. 포섭주의적·가부장적 운동이념이 한국 사회운동을 지배하는 한, ‘여성문제의 중요성’을 떠드는 것은 결국 가부장적 지배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부제 역할 정도로 끝날지 모른다는 낭패감은 점점 커졌다 나와 나의 동료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너무나 쉽게 표피적인 동조로 결론지어지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4) ‘운동권 여성’, ‘좌파 페미니스트’, ‘여성주의자’ 라는 자기규정들은 사실상 그 자체가 해명되어야 할 것들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개념들이 뜻하는 바는 특수한 사회적/담론적 맥락 속에서 크게 변화해 왔으며, 그것이 개인적 자기규정의 수준에서 어떻게 범주화되는가 역시 사회운동가 여성들 각자가 서 있는 상황 및 개인사(史)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한 맥락들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나, 여기서는 나의 개인사적 맥락에 기초하여, ‘운동권 여성’은 ‘사회운동을 하고 있지만 여성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여성’으로, ‘좌파 페미니스트’는 ‘기존 맑스주의계열 사회운동과 여성주의의 접합 혹은 연대를 추구하며 또한 가능하다고 여기는 사회운동가 여성’으로, 그리고 ‘여성주의자’는 ‘여성주의를 하나의 부문운동이 아닌 그 자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이론 및 운동의 체계를 가진 정치학으로 보는 페미니스트 여성’으로 사용하였다

문제로 치부되어 기껏해야 극히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변화로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사회운동의 '진보성'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해 결코 치명적인 비판을 가할 수도,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도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좌파'와 '여성주의'의 경계에 우아하게 서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두 번째 변화는 기존의 '주류 사회운동'에 대한 비판자(혹은 "반정립")로서의 부정적(negative) 의미가 강했던 여성주의 정체성을 의문시하면서,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와 연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99년 당시 나는, 한편으로는 대학생 시절부터 함께 여성주의 운동을 해온 '대학가 여성주의자들'과도 여전히 정치적·문화적 연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이 <운동사회 내 가부장성과 권위주의 철폐를 위한 여성활동가모임>(이하 <여성활동가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비록 각자가 몸담고 있는 운동 주제는 평화운동, 국제연대운동, 정보통신운동, 노조운동, 문화운동, 환경운동 등으로 다양할지라도, <여성활동가모임>의 구성원들은 모두 '사회운동가'인 '여성'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위치는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이라는 독특하고도 강고한 억압의 경험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그것은 나의 개인사적 경험과도 어느 정도 일치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내가 속해 있던 두 집단, 즉 '대학가 여성주의자들'과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 양자 모두에서 '차이'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었던 것이다.

우선, '대학가 여성주의 집단'은 여성운동을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정치로 바라본다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독특한 문화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의 사회운동진영이 가진 그것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고, 심지어는 갈등적이기까지 했다. 이들 대학가 여성주의 집단이 설정한 의제(agenda)와 운동의 방식들은 80년대 후반 이후 여성단체의 형태로 발전해 온 이전 세대의 여성운동과도 달랐고, (소위 '민족민주운동'의 전통 위에 놓여 있는) 주류 사회운동과도 대단히

- 
- 5) 이 모임은 지난 99년 8월 진보네트워크라는 사회운동 통신망에서의 소통을 통해 결성되었다. 결성 계기는 99년 5월 메이데이를 기념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포스터에 내포된 가부장적 의미에 항의하는 자발적인 온라인 시위의 조직화였다. 이후 이들은 지난 99년 11월 14일 민중대회 때 민중운동내 성차별, 성폭력, 가부장성을 '킵'으로 상징화 한 "킵 깨기 행사"를 통하여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냈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성차별 및 성폭력 사안에 대한 활발한 문제제기 및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성원들은 노동운동/정보통신운동/평화운동/환경운동/학생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온라인 회원의 수는 2001년 1월 현재 70여 명으로, 정기모임과 온라인 회원게시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여성활동가모임>을 사회운동진영 내 가부장성에 대한 사회운동가 여성들의 자의식적인 도전과 그 조직화가 이루어진 대표적 사례라고 보고 주요 사례로 선정하였다.
- 6) '민족민주운동'은 대체로 7-80년대 한국사회운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이 용어는 맑스주의 계열 운동과 민족해방계열 운동의 양분화 및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출현으로 특징지어지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운동지형을 묘사하기에는 부적절한 말일 수도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의 사회운동지형 역시 과거 80년대 '민족민주운동'이 지녔던 가부장적 구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여지지만 80년대와 구분되는 사

상이했다. 그러나 여성단체운동 및 ‘주류 사회운동’에 대한 비판이 이들을 단일한 정체성을 가진 ‘여성주의자들’로 만들어 주지는 않았다. 특히 여성주의 운동이 ‘주류 사회운동’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과 감정은 매우 다양했는데, ‘대학가 여성주의자들’ 또한 대학 내 주류 학생운동과 끊임없이 갈등하는 가운데 형성되었기 때문에 ‘주류 사회운동(학생운동)’에 대한 입장 차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그러나 주류 사회운동의 물적·담론적 지배 속에서 여성주의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차이’는 쉽게 표면화되거나 논쟁되지 않았으며, 이는 오히려 더욱 심각한 감정적 대립과 불신, 그리고 여성주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져왔다.

다음으로,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 사이에서도 각자 서 있는 맥락과 조건, 전략의 차이는 곧 가시화되었으며, 이는 결국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애초에 이들을 <여성활동가모임>으로 결속시켜 준 것은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 의식이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발생하는 차별과 배제의 상황에 개별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여성활동가들은 특정 문제에 대한 관점이나 대응방식에 있어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즉,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의식이 <여성활동가모임>을 결속시켰다면, 각자가 살아온 개인의 차이와 사회운동 경험의 차이, 그리고 현재 놓여 있는 조건의 차이는 <여성활동가모임> 내부에 크고 작은 이견(異見)과 대립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여성활동가 모임>의 구성원들은 그녀들 개개인과 <여성활동가모임>이 사회운동진영 내에서 차지하는 고립적인 위치로 인해 이러한 ‘차이’를 특히 더 문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차이들이 그때그때 제대로 토론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심화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거기서 파생되는 감정적 대립과 상처들은 ‘여성주의 정체성’에 대한 풀리지 않는 혼란으로 이어지곤 했다.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은 나에게, ‘여성주의자’라는 정체성과 ‘여성주의’라는 정치가 더 이상 여러 가지 역규정들(반정립, negation) 만으로 정의될 수는 없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즉, “넓은 학생운동이 아닌 것, 가부장적인 노동운동/통일운동이 아닌 것, 위계화된 조직구조가 아닌 것, 물성적인(gender-blind) 이론체계가 아닌 것이 곧 ‘여성주의’이다” 라는 식의 부정적(negative) 진술이 지니는 불명료함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도대체 현재의 ‘우리’, 즉 ‘여성주의자’라는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 그것은 생물학적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인가, 운동권내 가부장성이라는 특수한 억압을 공유하는 ‘피억압 여성’ 집단의 하나인가, 아니면 보다 자율적인 ‘여성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인가? ‘우리’는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 — 성별과 운동주체와 위치와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운동권’ 모두인가, ‘여성주의자들’인가, 아니면 ‘모든 여성들’인가?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자, 이제 내에

---

회운동지형을 명시하기 위하여, 아래에서는 이러한 사회운동들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문맥에 따라 ‘한국 사회운동진영’, ‘사회운동진영’, ‘주류 사회운동’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게 여성주의 의식(feminist consciousness)의 획득을 통해 형성되는 ‘여성주의 정체성’이란 더 이상 단일한 것, 필연적인 것, 그 자체만으로 올라온 것일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그것은 다양한 맥락과 조건들 속에서 갈등적으로 재구성되며 수많은 차이의 스펙트럼을 내포하고 있는 담론과 경험의 ‘결과물’로 여겨졌다. 그렇다면 문제는 90년대 중반 이후 새롭게 등장한 ‘여성주의자’라는 정체성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그녀들 사이의 ‘어떤’ 차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시되고 있으며, 왜 제대로 논쟁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90년대 중·후반에 걸쳐 형성되어 온 ‘여성주의자들’은, ‘주류 사회운동’에 대한 입장과 여성운동의 위상에 대한 의견에서부터 각각의 여성주의자들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녀들에 의해 주조되는 문화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성과 갈등, 그리고 다양한 ‘차이들’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주의자들의 혼란은 그 자체만으로는 해명될 수 없으며, 그 맥락 — 즉 ‘사회운동의 가부장성과 여성주의의 새로운 문제의식’이라는 90년대 중반 이후의 특수한 맥락을 살펴봄으로써만이 비로소 정당하게 이해되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은 ‘사회운동의 가부장성과 90년대 중반 이후 여성주의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이론적 주제로 나를 이끌었다

## 2절. 연구 목적

이 논문은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여성주의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나는 특히 ‘주류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이라는 맥락(context)으로 인해 여성주의 정체성이 특수한 복잡성과 불안정성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본 논문의 주요 연구 참여자<sup>7)</sup>인 ‘대학가 여성주의자들’과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특히 <여성활동가모임>)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주의 정체성의 몇 가지 특징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 내가 ‘대학가 여성주의자들’과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의 형성 및 세력화 과정을 함께 하면서 얻었던 문제의식들은 본 논문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목적으로 연결되었다.

---

7) 최근 여성학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계적 관계를 극복하고 연구대상자 역시 연구의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행위자이자 주체임을 강조하는 여성학 방법론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김현정, 2000)

## (1) 90년대 중반 이후 여성주의 정체성이 형성된 구체적 맥락

한국 사회운동은 폭압적 독재와 비인간적인 자본주의적 사회 구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계적이고 가부장적인 이념, 문화, 조직원리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가부장성은 매우 뿌리깊은 것이지만 최근에 와서야 가시화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의 확산은 90년대 초반 이후 이론적 영역에서의 문제제기,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된 ‘여성주의자들’의 실천적 발언에 힘입은 바 크다. 다시 말해서,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은 그러한 직·간접적 경험을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려는 여성들에 의해 비로소 전면화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여성활동가가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게되고 그것을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으로 ‘해석’하는 과정은 그 자체 설명되어야 할 것이 된다<sup>8)</sup>. 본 논문의 주요 대상인 <여성활동가모임>과 ‘대화가 여성주의자들’은, ‘주류’ 사회운동의 가부장적 구조의 영향 아래 있던 여성들이 어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여성주의 의식을 획득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정체성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잘 보여 준다.

우선 ‘대화가 여성주의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들은 ‘주류’ 학생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을 거쳐 ‘독자적인 정치 운동으로서의 여성주의’를 표방했고, 이전의 ‘여학생운동’과 일정정도 거리를 두면서 여성주의의 독자적 의제를 개발하고 새로운 조직구조와 운동 형태를 실험함으로써 가시화·세력화해왔다. 이처럼 새로운 여성주의 운동의 등장 그 자체가 ‘주류’ 사회운동에 대한 일정정도의 비판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주의’는 주류 사회운동에 대립되는 ‘반정립’으로 의미화 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정립으로서의 여성주의’는 대화가 여성주의자들 각자가 처한 상황과 조건, 개인사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졌으며 ‘주류’ 사회운동에 대한 입장 또한 상당한 편차를 보임을 알 수 있다<sup>9)</sup>.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것을 정의할 언어와 담론을 ‘발명’하는 과정 속에 있던 이들 대화가 여성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여성주의 정체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상이한 이해는 정체성 형성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되었다.

한편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회운동진영 내부에 있는 여성은 여성

---

8) “여성의 체험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체험은 의식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지향적이며 의도적인 구성물이다 인위적으로 체험은 구성되고, 그러한 체험은 지식을 재생산한다.” (이상화, 1995 : 268)

9) 물론 이러한 논쟁이나 전략적 차이가 90년대에만 특수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조혜정의 80년대 한국여성운동 담론 분석에서도 드러나듯이(조혜정, 1993), ‘민족민주운동’을 하나의 전체 운동으로 상정하고 공동의 진보를 위해 함께 연대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여성운동은 여성문제를 보다 예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독자적인 길을 찾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페미니스트들 사이의 토론은 이미 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 논문이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90년대 중반 이후의 여성운동 지형 변화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역사적으로 이어받고 있지만, 그 과정이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제기의 폭발과 시점을 같이하면서 상호 강화해왔다는 점에서 보다 주목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주의 의식(feminist consciousness)을 획득해 가는 과정에서 사회 일반의 가부장적 구조와는 구분되는 사회운동진영 내 가부장성의 특수한 장애물에 부딪히게 된다. 그것은 바로 집단주의적·권위적 문화 및 조직원리와 '보편적 목표'를 상정하는 가부장적(paternalistic)<sup>10)</sup> 이념구조이다. 사회운동진영 내부에서도 일반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온갖 형태의 성차별과 가부장적 성별분업, 성폭력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운동은 이러한 가부장성을 은폐시키는 독특한 기제들 또한 발전시켜 왔으며, 그 핵심은 사회운동집단의 단일한 집단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당위와, '진보'라는 이름 하에 자신의 물성성(gender-blindness)을 은폐하고 문제제기를 봉합하는 논리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운동진영 내부에 있는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무성적인 '사회운동가'가 아니라) 사회운동가 '여성'으로 정체화 하게 되는 과정은 매우 분열적일 수밖에 없으며, 사회운동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기제들로 인해 여성주의 정체성의 획득은 곧 '여성주의자로서의 커밍 아웃(coming-out)'<sup>11)</sup>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위험한 '도약'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주의 의식 형성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류 사회운동진영에 몸담고 있는 이들 여성활동가들은, 여성주의자들을 낙인찍고 여성들 사이의 경쟁과 분리를 조장하는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개별화되고 고립되어 있다. 따라서 '주류 사회운동'의 직접적 영향력 하에 있으면서 동시에 여성주의자이기도 한 <여성활동가모임> 회원들의 정체성은 자신들의 이중적·모순적 조건으로 인해 독특한 복잡성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주류'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비판적으로 짚어봄으로써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정체성이 지니는 복잡성과 맥락의존성을 설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첫 번째 연구목적이다.

10) 'paternalistic'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가장(家長)적인, 온정주의의, 가족주의의'이다(『시사엘리트영한사전』 참조). 본 논문에서는 '가부장적(patnarchal)'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의 용어와는 별도로, 특정한 적대의 해결과 해방이 다른 적대들을 '포괄'할 수 있으며 또한 여타의 운동을 지배하고 '이끌어 주는' 보편성을 지닌다고 주장하는 위계적 문화 및 이념구조의 특징을 지칭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한글 표기는 '가부장적'으로 동일하지만,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할 경우 괄호 안에 영문 표기를 부가하기로 한다.

11) 동성애자운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커밍 아웃(coming-out)'의 본래적 의미에는 이성애중심적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체성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저항이자 투쟁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여기서는 사회운동가 여성들이 자신이 여성임을 드러내고 여성주의적 시각을 표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따라서 마찬가지로 그것 자체가 저항이자 투쟁이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경우 사회운동가 여성들은 가시적·비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조직 내 적대감을 감수할 결의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특히 <여성활동가모임> 구성원들 중 다수는 이 용어("커밍 아웃")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조주은 외, 1999).

## (2) ‘차이’가 해석된 방식과 그것이 여성주의 정체성에 미친 영향

이러한 문제의식은,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가 위와 같은 구체적 맥락과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기되고 이해되어 왔는가 하는 문제와 불가분하게 연결된다. 90년대 중 후반은 새로운 여성주의 정체성이 ‘발명’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다른 여성주의자들과의 ‘같음’과 ‘다름’을 일종의 좌표축으로 삼아 ‘여성주의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고 규정하려는 시도가 존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 ‘주류 사회운동’에 대한 입장<sup>12)</sup>을 둘러싼 ‘지도 그리기’는 각자의 여성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확인하며 비교하는 데 있어 커다란 축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차이’ 그 자체가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중요한 구성적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주류’ 사회운동의 가부장적 구조의 직·간접적 영향력 하에 있던 ‘여성주의자들’의 정체성은, (적어도 그것이 막 형성되어 하나의 정체성으로서 ‘발명’되어 가는 시점에서는)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의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이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러하다. 우선, 앞서 서술한 대로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이 직접적으로 여성주의 의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어떤 여성들은 ‘진보’를 표방하는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더욱 급진적인 여성주의 의식을 획득하기도 하는데, 이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 자신을 위치시켰던 이전의 여성운동과는 달리,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여성주의자들’이 소위 ‘전체 운동’으로부터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른 하나의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이 처한 사회운동 내에서의 위치가 고립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의 가부장적 구조 자체가 여성들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의문시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과 입장으로 나타나는 여성주의 정체성들 사이에서 ‘차이’라는 문제가 심각히 제기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차이’라는 단어의 의미이다.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차이의 정치학(politics of difference)’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긴 하다(임옥희 외, 1998).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차이’는 페미니즘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차이’ 그 자체는 아니다. 나는 그 보다는 오히려,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이라는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 놓

12) 주류 사회운동의 뿌리깊은 가부장성은 과연 개선 가능한 것인가? 그들이 ‘진보적’인 ‘운동진영’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은 특수한 형태의 닫힌 구조를 통해 재생산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여성운동은 다른 사회운동들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며, 여성주의의 이론적·실천적 위상은 어떻게 정립될 수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기본모순/부차적 모순”, “중심 운동/주변부 운동”, “진체 운동/부문운동”이라는 지금까지의 위계적 관계틀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사회운동들을 완전히 등가적인 관계로 재정립해야 할 것인가? — 예컨대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 9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되어 온 (넓은 의미의) ‘여성주의자들’이 고민해온 문제의식들이다

인 ‘여성주의자들’이 다양한 수위에서 드러나는 서로 간의 다름을 어떻게 ‘차이로 이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이해된 ‘차이’들이 막 형성되기 시작한 여성주의 정체성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논문이 주목하고자 했던 ‘대학가 여성주의자들’과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 양자 모두에게 있어서, “내부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모든 사례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우선, ‘대학가 여성주의 집단’은 그 형성 자체가 주류 학생운동과 끊임없이 갈등하는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류 학생운동(사회운동)’에 대한 입장 차이는 그녀들에게 있어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그러나 주류 사회운동의 물질·담론적 지배 하에서 여성주의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라는 범위(boundary)를 확정하고 방어해야한다는 요구로 인해 이러한 ‘차이’는 쉽게 표면화되거나 논쟁되지 않았으며, 각자가 놓인 조건과 입장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은 ‘차이’에 대한 성찰적 인식을 진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심각한 감정적 대립과 불신, 그리고 여성주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낳았다. <여성활동가 모임> 내부에서도 각자 서 있는 맥락과 조건, 전략의 차이는 곧 가시화되었는데, 이들의 경우는 특히 고립된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가부장성과 대면해야 하는 조건으로 인해 ‘차이들’이 쉽사리 공개적 토론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심화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 다른 형태의 ‘뒷다마들’<sup>13)</sup>과 함께 당사자들 모두에게 ‘상처를 남긴 것’으로 이해되곤 했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활동가모임>을 특징짓는 ‘운동사회 안에서 여성운동을 하는 여성활동가들’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의문스럽게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여성주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는 많은 여성주의자들에게 문제적인 것으로 남아 있고, 여성주의 운동에 대한 ‘지도 그리기’는 ‘주류 사회운동’에 대한 입장에 따라 단순화되었으며,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는 혼란 속에 방치되거나 또는 감정적 갈등으로 숨겨져 왔다.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여성주의자들’은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을 제기하였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에 의해 제한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로 다른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자’라면 “본질적으로 같다”거나 “여성주의자이므로 당연히 연대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여성주의자’라는 단어에 본질주의적 정의를 부여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고정된 성차나 선형적으로 부여된 정체성을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던 페미니즘 정치의 근원적 전제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여성주의 정체성은 사회 구조와 정치적 실천의 역동적 상호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이며, 따라서 언제나 ‘복

13) ‘뒷다마’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적 친밀감을 전제한 상태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가리킨다 이는 <여성활동가모임>의 구성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며, ‘공식화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여성억압의 생생한 체험을 일상적 언어로 풀어내갈 수 있는 ‘수다’의 일종으로 의미화되어 있다.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러한 ‘뒷다마’가 다른 여성들에 대한 것일 때 이는 서로 간의 차이가 표면화되거나 자유롭게 논쟁될 수 없음을 뜻하게 되므로 매우 문제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수(複數)의 여성주의들이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여성주의 정체성’을 확고하고 정태적인 것으로 정의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 배후에 어떤 가부장적 권력의 맥락이 놓여져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억압에 대한 해석과 저항의 전략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두 번째 연구목적은, ‘여성주의자들’이 서로 간의 ‘차이’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이 여성주의 정체성에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리고 ‘차이’가 왜 표면화되어 논쟁되지 못한 채 혼란스럽고 갈등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나는 ‘여성주의자들’이 어떤 서로 다른 맥락 속에 놓여져 있으며 그녀들 스스로가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여성주의 정체성의 복합성을 인지하고 ‘차이’를 맥락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려 한다.

본 논문이 기여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90년대 중반 이후 ‘여성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고민해 왔던 ‘여성주의 정체성’의 형성 과정이 각자가 놓인 맥락과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밝히고, 그 동안 제대로 표면화되지 않아 왔던 여성주의자들 내부의 갈등과 입장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여성주의 운동의 문제의식을 보다 발전시키고 풍부화하는데 기여한다. 둘째,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이 지닌 특수한 억압 구조를 밝히고 그에 대한 경험 이 더 이상 여성들 개인의 문제로 환원되거나 은폐되지 않도록 문제의 본질을 규명함으로써,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고 비판을 급진화한다. 셋째, 사회운동진영과의 관계 설정에 관련된 여성들 사이의 입장 및 전략의 차이가 결코 통약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차이’를 맥락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녀들 사이의 보다 폭넓은 소통과 논쟁이 필요하며 또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나는 특히 지금까지 은폐되어 온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러한 구조 속에서 여성해방을 추구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어떻게 왜곡되고 편향된 방식으로 구조되어 왔는가를 밝히는 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할 것인데, 이는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하고 해석해왔는가에 따라 ‘여성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이 상당히 다르게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묘사한 바와 같은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와 ‘갈등’, 그리고 ‘차이’가 다루어지는 독특한 양상들은 이러한 구체적 경험과 상황을 살펴봄으로써만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는 여성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서로 다른 경로들을 이해하고, 그 과정 속에 켜켜이 녹아 들어가 있는 권력 기제들의 복합성을 추적함으로써,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에 대한 훨씬 나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바로 나와 내 동료들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오늘날의 운동 — 가부장적 주류 사회운동과 여성주의 운동 — 에 대한 하나의 정치적 개입이기도 하다.

### 3절. 연구 방법

주요한 연구방법으로는 여성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 여성활동가들과 9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되어 온 ‘대화가 여성주의자들에 대한 심층면접 및 문헌 연구를 병행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성주의 정체성’은 매우 복잡적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그녀들 사이의 ‘차이’가 나타나는 맥락 또한 개인사와 각자의 구체적 상황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복잡성과 맥락들을 드러내고 체험과 의식 사이의 연관성을 해명하기 위해 이러한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특히 나는 연구자와 피연구자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연구자 자신의 위치와 관점을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서술할 것인데, 이는 지금까지 개인적이며 파편화된 체험들로만 존재해 왔던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을 드러내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형성된 정체성의 복잡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여성운동을 해왔으며 주류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한 사람의 여성주의자로서, 나는 개인사적으로 연구참여자와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며 실천적으로 공통의 논쟁 속에 있어 왔다. 이러한 공통의 경험은 본 논문의 문제의식을 낳은 중요한 기반이었으며, 이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신뢰 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라포(rapport)를 형성함으로써 지금까지 숨겨져 왔던 갈등들을 포착하고 이론화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지금까지 이론의 ‘객관성’은 연구자의 초월적 위치를 가정하는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인식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자신을 ‘지식의 주체’인 전문적 집단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은 ‘지식의 대상’으로 간주해 왔다(Ferguson, 2000) 그러나 어떠한 연구도 당대의 역사적·사회적 맥락과 정치적 지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근대적 학문체계에 근본적인 비판을 가한 것으로 평가되는 페미니즘은 이론 그 자체에 선형적으로 내재한 진리성이나 객관성을 믿지 않는다. 특히 ‘모든 앞에는 주체(인식자)의 관점이나 역사적·사회적 맥락이 개입된다’는 페미니스트 인식론의 통찰은 매우 중요하다. 즉, 하나의 이론이나 연구 성과물은 연구자의 위치(position)와 입장에 의해 제한되며, 그 사회를 분할하고 있는 권력구조에 의해 규정받고 또 그것을 규정하는 역동적인 ‘과정’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이 불가시적이고 익명적인 권위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특정한 욕구와 이해관계를 가진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며, 자신의 의식적인 편파성을 밝힘으로써, 즉 관점(standpoint)을 명확히 함으로써 오히려 이론의 올바른 객관성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이상화, 1995, 이영자, 1991) 나는 어떠한 이론이든 연구자가 선택한 ‘관점’에 영향 받으며 실천적 문제의식 및 그 역사적·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 그리고 어떤 지식의 인식론적 기반을 윤리적, 정치적 물음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 같은

페미니즘의 주장에 동의한다. 따라서 나는 연구자이자 서술자인 나의 위치를 드러냄으로써, 피연구자와 연구자가 동시에 발 딛고 서있는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많은 지식인들과 남성 사회과학자들, 그리고 남성 사회운동가들은 그들 자신이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아는 것은 구체적 상황과 경험, 그리고 감정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맥락(context)으로부터 분리된 초월적 '용시자'로서 아는 것이다. 많은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 지적해 왔듯이, 여성주의 인식론에 있어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 주체에 대한 기존의 이상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다(이상화, 1995). 따라서 나는,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정념이 개입되지 않고 이해나 관심이 개입되지 않음으로써 과학적 지식이 성립된다는 객관주의에 반대하여(Harding, 1995), 연구자와 피연구자 사이의 상호주관성과 협조적 관계를 통해 가능해지는 '체험적 분석(experiential analysis)'을 수행하고자 했다(Humm, 1995).

심층면접의 대상으로 선정한 연구참여자들은 <여성활동가 모임>의 구성원인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된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는 '대화가 여성주의자들'이다. 이들 두 집단 사이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이 두 집단을 동시에 고찰하고자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두 집단 모두 90년대 중 후반에 새로이 형성되었으며 스스로 그러한 역사적 위치를 인식하고 있다. 둘째, (여러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의 형성 과정이 90년대 중반 이후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특징적인 몇 가지 복합적 면모를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의 문제가 대두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내부의 갈등 경험이 두 집단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여성활동가모임>은 현재 70여명의 온라인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99년 8월 결성 초기부터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모임의 성격을 구성하고 활동을 주도했던 여성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한편 '대화가 여성주의자들'의 경우는 그 스펙트럼과 지역·대학·학번에 따른 분포가 매우 광범위한데, 여기서는 객관적 지표(대학, 학번 등)에 의한 대표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본 논문의 문제의식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줄 수 있는 사례들을 선택하였다. '대화가 여성주의자들'의 경우 학생운동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대학간 연대모임 활동 등을 통해 내부의 갈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고민해 왔던 이들을 선정하였으며,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의 경우 또한 오랜 동안의 주류 사회운동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성활동가모임>의 문제의식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활발히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사례를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심층면접대상자는 <여성활동가모임> 회원 6명과 대화가 여성주의자들 10명으로 총

16명이다. 대학가 여성주의자들 중 3명은 <여성활동가모임> 회원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여성주의 의식을 형성하고 여성주의 운동을 해온 주요 공간이 대학가라는 의미에서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의 사례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다. 또 <여성활동가모임> 회원 중 1명은 대학가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했던 경험 또한 있어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에 대한 사례 연구에 참고하였다. 연구자의 한계로 인하여 인터뷰 대상자는 맑스주의 계열 학생운동 또는 노동운동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성들로 한정시켰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사회운동가 또는 여성운동가로 ‘활동’하지는 않고 있지만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거나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 유사한 맥락 속에서 고민해 온 20대 중·후반의 여성들과의 심층면접도 ‘여성주의자들’의 경험의 맥락을 구성하는 데에 참고하였으며, 여기에는 연구자 자신의 경험 또한 포함된다.

90년대 들어 발표된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공식적·비공식적 문헌도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이러한 글들은 “경험된 것”으로서의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 및 연구 목적에 부합한다. 이 자료들은 ‘여성주의’ 담론 및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의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그러한 글들이 90년대 이후 다수 발표되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여성주의 운동 지형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다.

심층면접대상자 16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학가 여성주의자들

|      | 나이(학번)     | 활 동 과 정                                           |
|------|------------|---------------------------------------------------|
| 사례 a | 25세 (95학번) | 학생운동 → 여성주의모임 활동                                  |
| 사례 b | 24세 (96학번) | 학생운동 → 여성주의모임 활동 → <여성활동가모임> 회원                   |
| 사례 c | 25세 (95학번) | 학생운동 → 여성주의모임 활동                                  |
| 사례 d | 26세 (94학번) | 여성모임 활동 → 총여학생회장                                  |
| 사례 e | 24세 (96학번) | 학생운동 → 총여학생회 선거 출마<br>→ 여성주의 모임 활동 → <여성활동가모임> 회원 |
| 사례 f | 27세 (93학번) | 총여학생회 선거 출마 → 여성주의 모임 활동                          |
| 사례 g | 26세 (94학번) | 여성주의 모임 활동 → 총여학생회 활동<br>→ <여성활동가모임> 회원           |
| 사례 h | 25세 (95학번) | 학생운동 → 여성주의 모임 활동                                 |
| 사례 i | 26세 (94학번) | 학생운동 → 총여학생회 활동                                   |
| 사례 j | 26세 (94학번) | 학생운동 → 총여학생회장 → 여성주의 모임 활동                        |

\*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 (<여성활동가모임> 회원)

|      | 소 속      | 나이(학번)     | 활 동 과 정                                                                      |
|------|----------|------------|------------------------------------------------------------------------------|
| 사례 1 | 문화운동단체   | 29세 (92학번) | 고등학교때부터 맑스주의계열 운동<br>→ 대학에서 맑스주의계열 학생운동<br>→ 졸업 후 정치단체에서 활동<br>→ 문화운동단체에서 활동 |
| 사례 2 | 정보통신운동단체 | 27세 (93학번) | 대학에서 맑스주의계열 학생운동<br>→ 대학에서 여성주의 운동<br>→ 졸업 후 정보통신운동                          |
| 사례 3 | 국제연대운동단체 | 29세 (91학번) | 대학에서 맑스주의계열 학생운동<br>→ 졸업 후 정치단체에서 활동<br>→ 국제연대운동단체에서 활동                      |
| 사례 4 | 평화운동단체   | 30세 (90학번) | 대학에서 맑스주의계열 학생운동<br>→ 평화운동단체에서 활동                                            |
| 사례 5 | 환경운동단체   | 27세 (93학번) | 대학에서 맑스주의계열 학생운동<br>→ 환경운동단체에서 활동                                            |
| 사례 6 | 정보통신운동단체 | 30세 (90학번) | 대학에서 여성운동<br>→ 여성단체 등에서 자원활동<br>→ 정보통신운동                                     |

최근 들어서는 사회운동집단 및 ‘여성주의자들’의 PC통신 및 인터넷 활용도가 괄목할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논쟁도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온라인 논쟁 또한 사회운동진영의 특수한 논리구조와 그에 대한 여성들의 다양한 대응 전략들, 그리고 논쟁과 저항의 과정을 통해 여성주의적 정체성과 연대감이 형성되는 과정을 드러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 제2장 이론적 배경

여성주의 의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여성주의적 정체성이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가? 여성운동의 역사가 여성주의 의식을 획득한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음을 상기할 때 여성주의 의식 형성이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임에는 틀림없지만, 특정한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구체적 형성 과정이 어떠한가는 여전히 이론적으로 탐구해보아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서구의 경우 이 문제는 특히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sup>14)</sup>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이미 집중적으로 조명된 바 있는데, 여성주의 정체성이 문제화되고 여성주의 의식 형성이 매우 복합적인 과정임이 드러난 것도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이다. 여기서 정체성은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하여 생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놓인 복잡하게 상호 연관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맥락에 의해 구성되어지는 것으로서 개념화되었다. 본 논문이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의 영향력 하에 있는 여성들의 경우, 해당 사회운동이 주조해 내는 이념과 문화는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맥락이 된다. 특히 사회운동의 이념과 문화가 여성주의에 반하는 가부장적 성격을 띠 때, 그러한 맥락 속에 놓여져 있는 여성의 정체성이 특수한 왜곡과 분열 그리고 복합성을 띠리라는 점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정체성의 정치’의 이론적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을 간략히 개괄한 후 여성주의 의식 형성이 일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라 구체적 맥락에 따른 복합적인 과정임을 보이고, 특히 맑스주의 계열 사회운동의 영향력 하에 있는 여성들에게 있어 운동의 가부장적 성격이 ‘여성주의 의식 형성 과정’을 어떻게 한층 더 왜곡시키게 되는지를 서구 페미니스트들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14) ‘정체성의 정치’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고동현(1999)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이해의 정치’와 대별되는 것으로서 동등한 시민권 획득과 사회 문화적 ‘인정’, 혹은 특정 소수집단의 차이성 부각을 목표로 하는 정체성의 정치(들)는 사실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이론 틀을 지닌 정체성 정치의 일부일 뿐”이라고 하면서, 동일성/차이, 그리고 본질주의적 인식론 / 반본질주의적 인식론 이라는 두 가지 축에 따라 정체성의 정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동화의 정치, ② 차이의 정치, ③ 연대의 정치, ④ 해체의 정치, ⑤ 접합의 정치.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특히 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천에 있어 ‘정체성’의 문제가 논쟁적으로 제기되었던 방식에 따라, ‘보편적 시민권’을 가정하는 근대 보편주의에 반하여 (여성이라는) 특수한 정체성을 제기하고 그것이 지니는 긍정성을 재평가했던 이론과 실천에 한정하여 ‘정체성의 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1절. '정체성의 정치'와 배제

근대적 정치의 지형을 형성한 것은 권리와 자격의 동등함을 주장하는 '보편적 시민권'에의 요구이다. 그러나 개별 개인들 및 집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되고 동등한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즉 사회의 모든 정체성을 통합시키는 어떤 중심적인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가정 위에서 작동해 온 근대 정치는, 사실상 일정한 포섭과 배제의 체계를 함축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을 동등한 개인으로 취급할 것을 요구하지만, 실상은 '시민'이라는 경계 속에, 또 '재산 소유자'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차이들, 즉 계급적, 인종적, 성적 차이들을 배제한다. 평등한 존재로서의 개인에 대한 가정은 차이를 부수적인 것으로 다루게 했다. 즉, 이때 차이는 주체 개념의 일부를 형성하지도, 인정되지도 않는 것이다(고동현, 1999).

페미니즘이 정체성의 정치를 제기한 것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이다. 근대 정치에서 가정한 '보편적 시민'은 사실상 남성적 주체일 뿐이며 여성 주체는 역사와 정치 속에서 오랫동안 배제되어 왔다는 판단에 입각하여, 지금껏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주변화되어 온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간'이라는 상위 범주로 수렴시킴으로써 형해화된 평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이 지닌 특정한 정체성을 강조하고 그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억압된 정체성을 복원하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의 '정체성의 정치'가 지닌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남성적 모델에 따라 설정된 근대적 보편 주체를 비판하고 여성을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등장시킨 '정체성의 정치'는 이후 많은 비판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비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체성의 정치에서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던 차이는 ('여성'이라는) '일반화된 타자'를 구축하여(Dean, 1996) 그들만의 경험을 통합하는 새로운 공동체 구축으로 이어짐으로써 또 다른 배제의 체계를 만들어 내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소수집단이라는 자신들에 대한 정의가 역사적 산물이자 사회적 구성물이었음을 깨닫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기 위해 자신들을 하나의 인식 가능한 '사회적 사실'로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시각은 그 집단(여성)이 특정한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고정된 동일성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즉, '우리/그들'의 대비에 의해 형성된 집단적 정체성은 불가피하게 '우리'를 규정해줄 수 있는 일정 정도의 동일성을 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 새로운 공동체의 지배적 규범이 내부의 차이를 봉합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비판하는 많은 반대의 목소리들이 나타나게 되며, 새롭게 등장한 그들 '내부'의 차이들은 (여성이라는) 집합적 정

체성이 지녔던 안정성에 도전하게 된다(고동현, 1999). ‘정체성의 정치’에 대한 두 번째 핵심적인 비판은, 그것이 암묵적으로 본질주의적 가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체성의 정치’에서 ‘정체성’은 일반적으로 공통된 기원 또는 공통된 경험 구조에 기반하여 규정된다. 그러므로 역사적 조건이나 정치적 역학관계 등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 과정과는 무관하게 정체성들과 그 문화들 간의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가정한 채 ‘이미 존재하는’ 정체성들의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뿐인 셈이 된다. 결국 정체성의 내용,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사회적 힘의 복잡성과 맥락의존성에 대해서 간과한 채, 불공정하게 평가 절하된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고 회복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때 이 긍정성은 그 정체성 자체 내에 스스로 이미 내재해 있는 것으로 가정되며, 다만 추가적인 조치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우리/그들’의 대립에 의해 집합적 정체성을 정의함으로써 또 다른 배제의 체계를 배태한다는 점, 그리고 암묵적으로나마 정체성에 대한 본질주의적 가정을 승인한다는 점으로 인해 ‘정체성의 정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체성’이 과연 ‘우리/그들’의 배타적 이항대립에 기초하지 않고서도 획득될 수 있는가, 그리고 ‘정체성’이 본질주의적 가정에 근거하지 않고서도 구성될 수 있다면 그러한 정체성 형성의 구체적 과정은 어떠한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 2절.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의 복잡한 과정

결국 ‘정체성의 정치’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던 이유는, 특정한 정체성을 평가절하 해왔던 가부장적 차별과 배제의 역사가 어떠한 차이를 ‘차이’로서 구성했으며 그러한 차이를 구성한 권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정체성은 항상 권력관계 속에서 정의되고 재정의 되는 구성물이다 그렇다면 여성주의 의식 또는 여성주의 정체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며,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가? 만약 우리가 동일성에 기반한 정체성이나 본질주의적 가정을 거부하고자 한다면, 즉 ‘여성주의자’라는 정체성을 단일한 하나의 집합적 정체성으로 생각할 수 없다면, 여성주의 정체성은 얼마나 다양하며 그러한 다양성은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 바키(Bartky, 1977)와 스탠리와 와이즈(Stanley & Wise, 1993)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해 나갈 수 있는

15) 최근 페미니즘에서의 정체성 논의는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중요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주 14)에서 언급했다시피, 여기서는 논의의 명료성을 위하여 상기한 바와 같은 특징을 가진 흐름에 한정하여 ‘정체성의 정치’를 논하려 한다

매우 유용한 단초적 논의를 제공해 준다. 여기서는 이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여성주의 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힘들과 그러한 의식의 일반적 특징들을 살펴보고록 하겠다.

### (1) 페미니스트 의식의 일반적 특징 : 바키(Bartky)의 논의

페미니스트 의식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급진적으로 떨어져 나온 존재, 자신을 희생자로 바라보고 희생당함이 그녀의 세계 내적 존재를 저항, 경계심, 의심으로 결정짓는 존재의 의식이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경험 없이 노출된 채로, 그녀는 윤리적 충격과 존재론적 충격 양자 모두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도덕적 패러다임도 사라지고, 때로는 자신의 반응과 감정들조차도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악의적인 모호함의 측면으로 그녀에게 나타나는 사회적 실재에 몰두한다. 그녀는, 원래는 상당히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평범한” 사회적 상황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투쟁을 위한 기회로, 그리고 종종 그녀의 의지와 결의에 대한 소모적인 시험으로 이해한다. 그녀는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이방인이고, 그녀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 이방인이며, 그녀 자신의 인간성 속에 있는 여전히 해방되지 못한 요소들에 대한 이방인이다. (Bartky, 1977 · 437)

위의 인용문은 여성주의 의식에 대한 바키의 요약적 서술인데, 우리는 여기서 여성으로서의 일상적 경험과 통합된 몇 가지 핵심적인 묘사를 볼 수 있다.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은 심원한 개인적 변화의 경험을 내포하며, 이러한 변화는 행위와 의식 양자 모두의 변화를 포함한다. 즉, 페미니스트 의식 형성을 특징짓는 가장 포괄적이며 근본적인 것은, 자기 자신과 타인들, 그리고 세계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새로운 이해 방식은 ‘고양된 의식(raised consciousness)’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내용이기도 하다. 실제로 60년대 말 이후 여성해방운동에 있어서 ‘의식고양(consciousness-raising)’은 하나의 인과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프로그램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의식은 일차적으로 새로운 존재론 혹은 새로운 세계관으로 특징지어지며, 이처럼 ‘자신과 세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가능케 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여성들의 경험이다. 여성들의 경험은 현실(reality)을 보는 ‘다른’ 관점, 완전히 다른 종류의 존재론 혹은 세계관을 구성한다(Stanley & Wise, 1983)

그렇다면 페미니스트 의식 형성 과정의 구체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바키가 적절히 포착한 페미니스트 의식의 몇 가지 독특한 측면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고뇌하는 의식(angushed consciousness)

페미니스트 의식이 지니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의 새로움'은 무엇보다도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페미니스트 의식이 사회 질서 속에 있는 특정한 모순들에 대한 특정한 방식의 경험이라는 말은, 페미니스트가 어떤 형태의 사회적 실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미래를 향한 변화를 위해 거부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한다는 말이다"(Bartky, 1977). 그녀들은 동일한 현실을 '다르게 인식'한다. 페미니스트 의식 속에서, 이전까지 '사실(fact)'이었던 것은 '모순(contradiction)'으로 바뀐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그 자체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결합된다. 사실상 우리는 우리가 아직 성취하지 못한 것에 비추어 우리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의식은 모순적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의 변화가능성을 모색하는, 내적으로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우며 '고뇌하는 의식'으로 특징지어진다.

#### \* 희생당함에 대한 의식(consciousness of victimization)

페미니스트들은 자기 자신을 (가부장제의) '희생자'로 이해한다. 이는 우선, 여성에 대한 '명백히 부당한 대우를 가능케 하는 "외부의 낯설고 적대적인 강제력"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희생당함에 대한 의식은 즉각적이며 계시자적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실재가 진정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희생당함에 대한 의식'은 두 가지 의미에서 분열된 의식이다. 첫째, 나 자신을 희생자로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희생당했다는 약함의 의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억제되었던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강함의 의식이기도 하다. 둘째, 그러나 나 자신을 희생자로 바라보는 의식은 내가 가진 다른 특권들에 대한 의식으로 인해 불편해진다. 첫 번째 분열이 여성운동에 있어 매우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두 번째 분열은 혼란과 죄의식, 그리고 무력감을 낳는다.

#### \* 가부장제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constant exposure) 의식

자신을 성차별적 사회에서 살아가는 희생자로 이해한다는 것은 숨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나 누군가에 의해서든 공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억압이 지니고 있는 일상성과 편재성을 상기해 볼 때 이러한 특징은 쉽게 납득할 수 있다. 많

은 것들이 보이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명백한 나쁜 것들이 갑작스레 불길한 면을 드러내곤 하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실재는 믿을 수 없고 기만적인 것으로 (deceptive) 보이게 된다.

★ 이중적인 존재론적 충격(double ontological shock)

이처럼 보이는 것과는 달리 언제 어디서든 여성들에게 적대적인 강제력으로 돌변하는 현실에 대한 깨달음은 여성들에게 ‘이중적인 존재론적 충격’을 가하게 된다. 하나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서 오는 충격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비밀비재하다는 점에서 오는 또 다른 충격이다.

이 두 번째 존재론적 충격은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바이다. 우리는 여성의 삶의 경험과 분노가 다른 사람들에게 쉽사리 소통되지 않는 경우를 일상적으로 맞닥뜨린다. 사실상 ‘정확히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어떻게 우리를 억압하는가’ 하는 점은 대개의 구체적 현실 속에서 그리 명확하지 않으며,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스스로조차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렇듯 반쯤 숨겨진 성차별 체제의 무기들에 의해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얻어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묘사하기는 더더욱 어렵다”(Bartky, 1977 : 433). 페미니스트들은 때때로 사물들을 분류하는 방법을 알 수 없다는 사실에 시달린다. 그리고 이러한 불명확성은 누구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 경계심과 의심(wariness)

바키가 페미니스트 의식의 또 다른 특징으로 드는 것은 ‘의심 많고 경계하는 의식’이다. 언제 적대적 강제력으로 돌변할 지 모르는 사회적 현실의 기만적 성격에 대한 인식과 매일 매일의 일상적 삶에 편재하여 끊임없이 경험되는 다양한 차별과 배제, 소외와 억압은 세계에 대한 경계심과 의심을 낳는 것이다. 그런데 ‘경계심’은 다른 의미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감정적이고 예민하며 비합리적인 존재’, 즉 ‘이성적이고 냉정하며 합리적인 존재’인 남성의 타자(the Other)로서 구성된 여성이라는 위치로 인해, 여성들은 분노나 괴로움을 느껴도 감정표현을 억제하거나 개인적으로 감수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 감정 표현을 억제하거나 조심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계’ 역시 페미니스트 의식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계심은 페

미니스트 경험에 있어 어느 정도 상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정도는 각각의 페미니스트들의 삶에 존재하는 다른 요소들의 작용에 의존한다

#### \* 윤리적 딜레마에 처한 의식

사회적 실재가 가진 기만적 성격의 폭로는 사회 환경이 페미니스트 경험 속에 나타나는 방식에 있어 또 다른 변형을 동반한다. 겉으로는 결백해 보이는 그토록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굴종을 강제하기 위한 고안물인 것처럼, 수많은 “평범한” 상황들은 체제에 대항하는 투쟁의 기회들로 변형된다. 이전에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일상적 상황들을 ‘기만적 현실’로 이해하게 되면서, 그러한 상황 자체가 페미니스트로서 행위할 수 있는 기회이자 일종의 시험으로 인식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는 시험의 압력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시험들에서 실패할 경우, 그녀는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부끄러움”(Bartky, 1977 . 435)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잘 대처한’ 것이고 무엇이 ‘실패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조차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페미니스트들은 일종의 윤리적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종교의 지배에서 벗어난 근대인이 자신의 도덕률을 스스로 구성해야 했던 것과 유사하게,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된 규범을 비판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이후 불안정한 자기 성찰적 과정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는, 그녀가 딜레마를 빠져나가려는 순간 가까운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초래하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점에서 한층 복잡해진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의식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애매한 윤리적 상황” 혹은 “윤리적 양가성”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는 되풀이되는 회의(懷疑)를 초래하며, 페미니스트들은 “자신의 도덕적 패러다임을 이미 선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힘들어한다.

#### \* 새로운 동일시와 연대감

그러나 바키는 위와 같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페미니스트 의식의 특징이 반드시 전적으로 황폐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페미니스트 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에 대한 새로운 동일시, 그리고 다른 페미니스트들과의 연대감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수많은 여성들 중의 하나로서 희생당하는 것이다. 내가 고통 당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타인들도 고통받는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속에, 다른 희생자들과의 연대감이 시작된다”(Bartky, 1977 . 431).

하지만 바키의 이러한 간결한 설명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앞 절에서 지적했듯이 동일시 — 비록 그것이 ‘새로운’ 동일시라 할지라도 — 에 기반한 ‘정체성의 정치’는 많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최근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이 제기해 온 ‘억압의 다층성, 복합성, 맥락성’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내가 당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타인들도 고통받는다”는 인식을 충분히 의심스럽게 한다. ‘여성’은 하나의 집단적 정체성으로 동일시 할 수 있을 만큼 동질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페미니스트들 사이의 연대감’ 또한 언제나 명백한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가령 제3세계 페미니스트들이 서구 페미니스트들에 대해 제국주의적 인식들과 권력을 공유하고 있다고 비판할 때, 이들은 분명 연대감보다는 권력의 불균형에 따른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실제로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다른 페미니스트들과의 연대감만큼이나 비교와 구별짓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위치짓곤 한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 (2) 나선형적 과정 속에 놓인 페미니스트 의식

스탠리와 와이즈(Stanley & Wise, 1983)는 바키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그에 대한 몇 가지 비판을 가함으로써 페미니스트 의식 형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준다. 이들이 제기하는 비판은 특히, 앞서 논의했던 ‘정체성의 정치’의 한계를 넘어서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된다.

스탠리와 와이즈의 논의는 페미니스트 의식을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바키 역시 페미니스트 의식을 발전시키는 과정이 지니는 애매 모호함과 끊임없는 존재론적·윤리적 고통에 대해 인식하고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잘못된 의식 → 의식 고양 → 페미니스트 의식’이라는 일직선적인 발전 모델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비판된다. 스탠리와 와이즈에 의하면, 페미니스트 의식 형성을 직선적 발전 과정으로 사고하는 것은 여성들의 경험의 타당성(validity)을 인정하는 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주체와 객체를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고 한 쪽을 특권화하는 남성적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경험의 단일성(unity)”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페미니스트 의식이 (그것을 획득하기 이전의 ‘잘못된 의식’과는 반대로) ‘진정한(true)’ 의식이며 ‘객관적(objective)’이고 ‘올바른(right)’ 의식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

그 대신 스탠리와 와이즈가 제시하는 것은 ‘페미니스트 의식 이전의 세계 경험 → 페미니즘을 발견하는 세계 경험 → 페미니즘을 발견한 이후의 세계 경험’이라는 모델이다(Stanley & Wise,

1983). 그러나 이 모델은 바키의 모델에서 단순히 용어를 바꾼 것만은 아닌데, 왜냐하면 이 때의 의식 과정(process of consciousness)은 일직선적이거나 보다는 원환적이고 나선형적인 것으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이다. 시작도 끝도 없으며, 단지 지속적인 흐름이 있을 뿐이다(Stanley & Wise, 1983) 따라서 스탠리와 와이즈에게 있어서 페미니스트 의식은 의식 교양의 종착지가 아니며, 모든 페미니스트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경험하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각 페미니스트 개인들의 페미니스트 의식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놓여 있으며, 그러므로 페미니스트 의식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는) 의식의 '상태(state)'이지만 동시에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단 하나의 페미니스트 의식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관계와 구조, 서로 다르게 상황지워지고 각각의 맥락에 기반한 경험들로부터 나오는 다양성만이 존재한다. 페미니스트 의식은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이기 때문에 이 점은 중요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물질적 대상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 즉 그것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meaning for us)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미는 구체적인 특정 맥락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페미니스트 의식의 기반이 되는 특정 경험에 대한 이해는 맥락 의존적 속성을 갖는다. 스탠리와 와이즈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경험을 반추하는 가운데, 전술한 바와 같은 바키의 개념화에 몇 가지 비판적 보충을 가한다.

#### \* 불변성에 대한 인식과 무력감

바키가 '고쳐하는 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의미하고자 했던 바는 여성 억압이 여성들에게 있어 참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동시에 변하지 않으리라는(unchanging) 인식, 그리고 가부장적 남성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내포되어 있다. 스탠리와 와이즈가 경험했던 '음란전화'에서 그 행위는 전적으로 일방적이었으며 그녀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즉각적으로 성적 대상화되었던 것이다.

#### \*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성차별주의

스탠리와 와이즈는 바키가 '희생당함에 대한 의식'에 대해 마치 '가면'을 벗겨내듯이 '진정한 사회 회적 실재'를 인식하는 것처럼 묘사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사회 구조도 그 자체 속에 고정된 의미를 내재하고 있지는 않다. '외부의 낯설고 적대적인 강제력' — 즉 성차별주의 조차도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 구조가 '진정한 실재'로서 존재하고

그것을 주체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가 특정한 의식 상태 혹은 세계관 속에서 그것을 ‘그러한 사회적 사실’로서 구성(construct)하는 것이다.

\* “현실적 결과를 갖는 모든 것은 그러한 결과를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 현실적이다.”

‘이중적인 존재론적 충격’, 특히 ‘정확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는 충격’에 대한 바키의 논의는 암묵적으로 ‘어떤 경험은 근거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낳을 수 있다. 즉, 현실의 기만적 성격에 대한 인식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오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만적 현실에 대한 인식’은 (진정한 실재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동일한 현실에 대한 다른 이해”로서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오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객관적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존재할 뿐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현실적 결과를 갖는다면, 그것은 그러한 결과를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 현실적이라고 보아야 한다(Stanley & Wise, 1983).

이러한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페미니스트 의식은 어떤 고정된 단일성으로 생각될 수 없으며 오히려 ‘끊임없는 재구성의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 그 자체도 세계에 대한 ‘다른 해석’이며, 따라서 단 하나의 페미니스트 의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계와 구조 속에서 상황지위진(situated) 복수(複數)의 페미니스트 정체성들이 존재한다.

### (3) 비교와 구분을 통한 정체화 과정

성차별적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구성적(constructive) 이해를 의미한다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페미니스트 정체성 그 자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리핀(C. Griffin)은 이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나의 주요 주장은, 페미니즘이 어떤 일관된 생각의 묶음을 즉각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범위로 요약하는 통일적인 범주가 아니라는 점이다. 하나의 페미니즘이 아니라 수많은 페미니즘들이 존재하며 그 개념은 끊임없는 협상의 과정 속에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있어 자기 자신

을 페미니스트로서 정체화하는 것은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다. ... 우리는 페미니스트 정체화를 연관된 이데올로기적 형성 및 사회 구조들과 연관시키는 가운데 사회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 페미니스트 정체화는 단순히 고립된 개인적 현상이 아니라, 특수한 사회적·정치적·역사적 조건들의 산물이다. ... 페미니스트 정체화는 일련의 생각이나 원칙에 동의하는가 아닌가 하는 단순한 개인적 태도의 문제가 아니다. (Griffin, 1989 : 174-185)

즉, 어떤 여성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로서 정체화한다고 할 때, 이것은 고정된 ‘페미니스트’라는 규정성에 자신을 단순히 동일시함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녀가 ‘페미니스트’라는 범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녀의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정치적·역사적 맥락은 어떠한가를 통해 끊임없이 협상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페미니스트’라는 범주의 의미와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 양자 모두가 맥락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페미니스트 의식이 이처럼 맥락의존적이며 따라서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에 어떤 단일하고 고정적인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이라면, 페미니스트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16) 아래에서는 한국 사회운동이 주조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출현한 90년대 중반 이후의 여성주의 정체성을 문제시하는 본 논문의 연구 목적에 비추어,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자 한다.

### 3-1) 비교하기, 구별짓기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는 것 중의 하나는 ‘기존의’ 페미니스트 범주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비교 및 구분을 통한 정체화이다. 그리핀은 많은 여성들이 페미니스트 이론이나 원칙과 공명할 수 있는 여성 경험의 측면을 내비치면서도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이라는 어구를 앞세우는 현상에 대해 고찰하면서, ‘페미니스트’라는 범주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의미화되는가에 따라 그에 대한 동일시 혹은 비동일시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화는 구체적 맥락 속에서 의미화된 ‘특정 의미를 가진 페미니스트’라는 범주와 자신을 비교하고,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혹은 구별짓는) 과정을 요한다는 것이다17).

16) 물론 여기에는 매우 많은 요인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핀이 젊은 여성과 노동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통해 포착한 것은 남성의 위협과 폭력, 대중매체에서의 부정적 재현, 레즈비언리즘과 페미니즘 사이의 암묵적 연관, 여성의 집합적 문화 실천들에 대한 허용 등과 같은 것이다(Griffin, 1989). 우리는 여기에, 가족 및 제도교육 속에서의 성차별적 사회화, 법적·제도적 장치들 속에서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와 그 실천들, 여성문제가 제기되거나 은폐되는 특정한 담론구조 등을 더 포함시킬 수 있다.

17) 사실 ‘구별짓기’와 ‘동일시하기’는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의 양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

이는 조디 던(J. Dean)이 ‘인습적 연대(conventional solidarity)’라고 명명했던 집단 정체성의 특징과 유사하다. 던은 집합적 정체성을 ‘연대(solidarity)’로 개념화하면서, ‘인습적 연대’란 ‘우리’와 ‘그들’을 대비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강력한 집합적 정체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집합적 정체성은 필연적으로 ‘배제’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인습적 연대는 또한 배제의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인습적 연대는 “우리”와 “그들”이라는 대당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집단을 규정해 주는 외부의 타자들보다 ‘위에’, 그리고 그들과 ‘대립하여’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기 때문에, 대단히 제한된 범위의 정체성 개념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인습적 연대의 수사들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겪어온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매우 단순화된 표상을 통해 조직력(organizing power)을 획득한다. 어떤 사람이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실현하는 것과 “우리” 중의 한 사람이 되는 것 두가지를 동시에 추구한다면, 그는 자아정체감(self-understanding)을 집단의 요구에 맞추던가 아니면 추방당하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성원들간의 차이 및 그들의 개인적 욕구/경험들은 표현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침묵 당한 차이들은, 이제 그 집단의 표상 영역(symbolic space) 바깥에서만, 그것도 언제나 연대를 분열시킬 수 있는 위협 속에서만 어렵듯이 나타날 수 있을 뿐이다. (Dean, 1996 . 25-26)

이러한 비교와 구분은 페미니스트라는 범주 내부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한다. 가령 페미니즘의 사상적 지형을 그리는 데 있어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통용되는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 맑스주의 페미니스트 - 사회주의페미니스트 - 급진주의 페미니스트’와 같은 구분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여성억압의 기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지만, 실천적 영역에서의 용법은 그 사상사적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기보다는 ‘다른 페미니스트들’과의 비교·구분을 통해 자신의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위치짓는 과정을 통해 특수한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2) 정의내리는 힘과 그 효과

그러나 이러한 비교·구분이 특정하게 의미화된 정체성을 단순히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문제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범주가 구성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통용되는 것 자체가 권력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서구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제3세계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이나 서유럽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구 사회주의권) 동유럽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떠올려 보면 이 점은 보다 명확해진다.

---

면 여성이 자신을 (특정 맥락 속에서 의미화된) 페미니스트와 동일시했을 때, 그녀는 동시에 자신을 성차별주의적인 개인 혹은 집단과 (또는 ‘페미니스트가 아닌 여성’과) 자신을 구별짓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모한티(C. T. Mohanty)는 보편적 ‘자매애’를 상정함으로써 여성의 국제적 단결 가능성에 대해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던 로빈 모건(R. Morgan)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러한 가정이 백인, 서구, 중간계급이라는 특권적 위치에 있지 않은 여성들에게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가와 인종, 민족적 경계를 가로지르려고 시도하는 페미니즘적 분석들은, 차이를 특정한 방식으로 생산 및 재생산한다 이 같은 차이의 성문화(成文化)는 비교문화적 타당성을 지녔다고 생각되는 분석적 범주들을 자연화 함으로써 일어난다. .. 모건의 명시적 의도는 “모든 곳에서 여성들 사이의 대화와 연대를 진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공유된 선한 의지라는 기반 위에서, 그것이 만약 실재가 아니라면 적어도 가능성으로라도 보편적 자매애를 가정하고자 하는 한에서는 하나의 확고하고 평가받을만한 기획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대의 제국주의의 작동을 전지구적 자매애에 기반한 국제적 여성운동이라는 개념과 접합시키려고 시도하는 순간 모건의 작업이 지니는 곤란한 정치적 함의들은 명백해진다. 그녀의 독특한 보편적 자매애 개념은 현대 제국주의의 역사와 효과들을 삭제하는 것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내 생각에 이것은, 백인, 서구, 중간계급의 특권적 위치에 서서 말하지 않고 그럴 수도 없는 여성들에게 위험한 의미를 지니는 모델일 수 있다. ... 빅 브라더는, 말하자면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에서조차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권력 이해와 위치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두 맥락은 권력의 현현 그리고 따라서 그에 대항하는 투쟁의 가능성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Mohanty, 1992 : 3-5)

이러한 비판은, 제2 물결 페미니즘 또한 서구중심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따라서 여성들 사이의 ‘자매애’를 강조하고 ‘여성’이라는 동질적 범주를 강화하는 것은 또 다른 배제와 차별의 온상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정체성의 정치 혹은 ‘인습적 연대’가 지닌 한계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제가 가능했던 것은 서구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를 정의내리는 힘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 사회주의권 페미니스트들의 논의는, ‘정의내리는 힘’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페레(Ferree, 1997)는 독일 통일 이후 페미니스트들에게 제기된 분열과 통합의 문제를 다루는 가운데, 구 동독과 구 서독의 역사적 조건과 정치적 맥락, 그리고 그에 따른 각 지역 페미니스트들의 경험과 지향이 달랐기 때문에 공통된 정치적 실천을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차이는 명백히 위계화된 차이이며, 페미니즘을 정의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구 서독 페미니스트들의 힘은 지배적 힘을 행사했다.

양쪽(구 동독과 구 서독의 페미니스트들) 모두 서로의 페미니스트적 이해 정도를 험담하는 경향이 있다. 뒤떨어지고, 위선적이며, 거만하고, 비이론적이고, 무감각하며, 과민한 것으로 말이다 — 비난과 비난이 계속되었고, 불행히도 근본적으로는 타자(the Other)의 개인적 혹은 집합적 퍼스널리티로서 구조되었다. “더 좋은” 혹은 “더 나쁜” 페미니스트를 규정하려는 시도는, 자신의 페미니즘을

“보다 진정한” 것으로 방어하는 과정 속에서, 독일 통일의 불평등한 관계로 인해 초래된 긴장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 서독의 제도화된 페미니즘이 “페미니즘”을 그렇게 정의하는 것으로 생각 되어졌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구 동독의 여성들이 이 낯선 페미니즘을 보고서 “만약 그것이 페미니즘이라면, 아마 나는 결코 페미니스트가 아닐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Ferree, 1997 : 52)

서로 다른 경험과 맥락을 지니고 있는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특정한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즘 그 자체를 ‘정의내리는 힘’을 행사하게 되었을 때,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그렇게 정의된 ‘페미니스트’의 범주로부터 불가피하게 배제된다. 이것은 ‘여러 종류의 페미니즘들’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페미니즘의 맥락의존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담론 속에서는 ‘특정하게 정의된 페미니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여성들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로서 정체화하기란 어려운 일이 된다.

요약하면, 페미니스트 의식 혹은 페미니스트 정체성은 어느 정도의 일반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Bartky, 1977), 그것은 의식고양을 거쳐 획득되는 특정한 ‘단계’ 혹은 ‘상태’라기 보다는 끊임없이 구성·재구성되는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Stanley & Wise, 1983). 이 때 ‘페미니스트’라는 범주 자체 또한 맥락의존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페미니스트로서 정체화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녀가 ‘페미니스트’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Gniffin, 1989) 그리고 이러한 페미니스트라는 범주의 의미화와 그에 따른 정체감 형성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페미니스트들 사이의 비교를 통한 동일시/구별짓기, 그리고 ‘페미니스트’라는 범주가 누구에 의해 정의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Ferree, 1997).

이제 아래에서는, 본 논문이 주목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이라는 특수한 정치적·역사적 맥락이 페미니스트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맑스주의 이론과 실천이 서구 페미니스트들의 경험 속에서 어떤 독특한 맥락을 형성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 3절. 맑스주의의 가부장적 이론과 실천

맑스주의 이론과 사회주의 운동은 서구에서 제2물결 여성운동이 생성되고 발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1960년대 말 미국사회 내 인종차별과 불평등을 비판하면서 급부상한 신좌파 운동과 시민권운동은 이후 여성해방운동이 독자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하나의 계기였다고 평가된다<sup>18)</sup>. 서구 페미니스트들 중 상당수가 한때 맑스주의자였거나 사회주의 운동 또는 신좌파 운동에 투신했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7-80년대를 거치면서 맑스주의의 남성성과 사회주의 운동의 가부장적 성격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구 페미니스트들의 정체성 또한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페미니즘과 맑스주의에 관한 이론적 논쟁은 일찍이 서구의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의 작업 속에서 출발하였다. 맑스주의자들 내부에도 여성억압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론화하고자 했던 사상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맑스주의 이론이 가진 몰성성(gender-blindness)이 전면적으로 비판받기 시작한 것은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였다. 미셸 바렛(M. Barrett)이 지적인 바와 같이, “맑스주의는 비록 전유와 착취관계를 둘러싸고 구성되어 있지만 착취자나 피착취자의 성별(gender)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또 언급할 수도 없는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Barrett, 1995 : 22). 이러한 점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로 꼽히는 하이드 하트만(H. Hartman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마치 자본이 그 자리를 채우는 개인들과는 무관하게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계급, 산업예비군, 임노동자와 같은 맑스주의적 분석의 범주들은 왜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그들은 왜 여성이 가족의 내부와 외부에서 남성에게 종속되며, 왜 그 외의 다른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한다. 자본 그 자체처럼 맑스주의 범주들은 성과 무관한(sex-blind) 것이다 (Hartmann, 1981 : 28-29)

서구에서 있었던 논쟁<sup>19)</sup>, 그리고 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맑스주의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페미니즘 사이의 논쟁은 그 쟁점과 입장의 스펙트럼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즉, ‘생산’, ‘재생산’, ‘노동’, ‘착취’, ‘계급’ 등과 같은 맑스 이론의 주요 개념들이 여성의

---

18) 물론 이러한 평가는 각국 여성운동의 독특한 역사와 조건을 일정정도 단순화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좌파적 지향을 지닌 사회주의 여성운동 보다는 성 고유의 문제를 중시하는 급진적 여성운동과 자유주의 여성운동의 흐름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유럽의 경우는 좌파적 지향을 가진 당이나 노동조합을 토대로 한 맑스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세력이 더 강하다(장미경, 1996) 또 유럽에서도 각 나라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여성운동이 처한 조건과 맥락은 매우 상이하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맑스주의 및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력을 지적하기 위해 이 같은 평가를 따라 논의를 전개하였다

19) 1980년대 초반 영국의 좌파이론지(특히 『신좌파 평론(New Left Review)』)을 중심으로, 그리고 캐나다에서 『정치경제연구(Studies in Political Economy)』를 중심으로 전개된 소위 ‘성과 계급’에 관한 논쟁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미셸 바렛 외, 『페미니즘과 계급정치학』(여성사, 1995) 과 같은 편역서로 소개된 바 있다

삶의 중요한 측면들을 포착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페미니스트들 사이에 광범위한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Stefano, 1991). 여성억압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은 본질적으로 비체계적이고 부분적이다(Jancar, 1978). 이러한 논쟁과 맑스주의 이론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비판의 세밀한 내용은 별도의 지면을 통해 다루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실천적 장에서의 사회운동 내 가부장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고 생각되는 맑스주의 이론의 몇 가지 문제점들만을 개괄하도록 하겠다.

### (1) '노동' 개념의 협소함과 남성중심성

우선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노동' 개념의 협소함이다. 맑스주의에 있어 이론적 중핵이라 할 수 있는 '노동'의 개념은 사실상 '보살핌 노동(caring work)'이나 '재생산 노동(reproductive activity)'을 거의 간과하거나 때로는 완전히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전제해 왔다. 맑스주의의 철학적 기반인 역사유물론에서 생산은 "노동을 통한 자기 삶의 생산"과 "생식을 통한 새 생명의 생산"(Marx and Engels, 1989) 양자 모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맑스주의 이론의 역사를 볼 때, 생산이나 노동이 이러한 용법으로 사용된 예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니콜슨(Nicholson)은, 맑스주의 이론에서 생산이 사물 및 인간의 생산 둘 다에 등치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사물의 생산에만 등치되고 한층 더 협애하게는 교환가치를 가진 사물의 생산과 등치되곤 한다고 비판하였다(니콜슨, 다이앤 엘슨 외, 1998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렇게 협소하게 정의된 '노동'을 담당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성이며, 반면 맑스주의 이론에서 일관되게 간과되어 온 '보살핌 노동'이나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는 것은 주로 여성이다. 따라서 '노동' 개념의 협소함은 단순히 이론적 한계를 뜻할 뿐 아니라 성차별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론에 있어서의 '노동' 개념의 협소함과 남성중심성은 실천으로 반영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운동의 커다란 축이었던 노동조합운동에서, 남성 임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가정에서의 지위와 특권은 여성 임노동자들의 조건만큼 '특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 노동자계급의 '보편적 이해'는 남성 노동자들의 이해였다. 노동운동은 좁은 의미의 '생산'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따라서 여성 임노동자들의 이중 노동과 가사노동이라는 복잡한 문제는 쉽게 간과되었다.

## (2) “전통적 맑스주의의 계략”

두 번째로 주목해보아야 할 것은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 “전통적 맑스주의의 계략”이라고 불러 왔던 부분이다. 즉, 맑스주의는 여성의 억압을 설명하면서 단지 자본주의 체제의 맹목적 작동만을 무대에 남겨두고 지배의 행위자는 퇴장시켜버리는 방식으로, 여성 억압의 문제를 계급 모순에 흡수시켜 왔다는 것이다(나일라 카비르, 다이앤 엘슨 외, 1998에서 재인용). 다음의 인용문은 맑스주의 이론에서 ‘억압의 행위자로서의 남성’을 단순한 표면적 현상으로 치부하고 여성억압을 순전히 구조적이지만 한 문제로 돌려버리는 전형적인 방식을 보여준다.

가장 직접적 억압자처럼 보이는 것은 남성이다. 그러나 여성을 가정에 묶어 두는 것은 이들이 아니라 가정주부의 무급노동으로부터 이익을 챙기고 전사에는 이 예비적 노동공급을 끌어 쓰는 자본주의 체제적 구조이다. (Nash and Safa, 다이앤 엘슨 외, 1998에서 재인용 : 21).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지적해 왔듯이, 이러한 “전통적 맑스주의의 계략”이 의도하는 바는 자본만이 가부장제로부터 이득을 얻는 ‘유일한’ 수혜자임을 암시함으로써, 남성 노동자, 남성 맑스주의자, 남성 활동가들을 가부장적 억압구조로부터 면제시키는 것이다. 이는 맑스주의계열 사회운동에 고유한 ‘운동 논리’라 할 수 있으며 여성억압의 표면화를 억제해 온 ‘대동단결론’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맑스주의계열 운동 내부에서 여성 문제를 제기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으로 매도되거나 혹은 그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수퍼우먼’이 되어야 했다(Haug, 1992 ; Jancar, 1978). 이러한 논리는 운동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성억압을 손쉽게 ‘구조의 문제’로 환원해버림으로써 페미니스트들의 문제제기를 봉쇄해 왔던 것이다.

## (3) 여성억압의 ‘자연화’

다음으로, 맑스주의가 여성억압과 관련된 핵심적인 구조나 요인들을 ‘자연적인 것’으로 전제해 왔다는 점이 비판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성억압을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가족’에 대한 맑스의 논의이다. 마렉은 맑스주의가 가족을 경제적 결정의 ‘결과’로 생각해 왔다고 말하면서, 맑스 스스로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생물학적 차이와 가족단위의 ‘자연적 속성’을 가정하고 있다고 비판한다(Barrett, 1995)<sup>20</sup>. 우에노 치즈코(1994) 역시, 맑스가 가족을 통한 노동력의

재생산을 ‘본능’이라는 정의 내릴 수 없는 불가지한 변수에 ‘말깎’으로써<sup>21)</sup> 시장 ‘외부’의 블랙박스로 내몰았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맑스는 재생산 영역의 ‘자유방임’이란 계락을 보지 못했다. 그에게는 노동력의 재생산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였다. 불가사의하게도 맑스는 남녀의 성별분업을 남녀의 신체적 차이에 기초한 ‘자연’스러운 분업이라고 보았다. ... 어떤 사항을 ‘자연’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곧 그것을 불문에 부치는 것이다. 맑스는 ‘자연’스러운 여성관을 동시대인들과 공유했던 것이다. 페미니스트가 맑스주의에 관해 지적했던 것은 이 한계 — 성과 생식, 즉 가족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간주함으로써 가족이 맑스 이론의 분석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는 한계 — 었다. (우에노 치즈코, 1994 : 30-31)

여기서 보듯이 맑스 역시 ‘공/사 영역의 구분과 그에 따른 사적 영역의 자연화, 신비화, 여성화’라는 오래된 관념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성별분업의 용인과 사회주의 정당들의 보수적 가족정책이라는 실천적 가부장성으로 나타났다<sup>22)</sup>.

#### (4) “여성해방은 노동해방에 종속된다”

가족 및 사회에서의 여성의 종속적 지위와 성역할 분담 등 가부장제의 대표적 기제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전제했기 때문에, 맑스주의와 그 정치적 실천들은 별다른 무리 없이 여성해방을 노동해방 속에 완전히 종속시킬 수 있었다<sup>23)</sup>.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여성억압의 주요한 기제들 (예를 들어 ‘가족’)은 결국 계급 모순으로 환원 가능하다는 논리를 체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 “이러한 관계(여성에 대한 남성의 관계) 속에서 남성에게 인간 본질이 자연으로 되고 혹은 자연이 인간의 인간적인 본질로 되는 척도가 나타난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관계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이다.” (Marx, 1987)

21) “노동계급의 부단한 유지와 재생산은 여전히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항상적인 조건이다. 자본가는 이 조건의 충족을 노동자의 자기 보존본능과 생식본능에 안심하고 맡겨둘 수 있다.” (Marx, 1987)

22) 공산주의 하에서의 여성의 조건을 연구한 글에서 Jancar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핵가족과 그 속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적합한 기본적 사회 단위로 보아 왔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결론 내린다(Jancar, 1978 : 86)

23) “맑스에게 ‘프롤레타리아 고유의 종속’은 있어도 ‘여성 고유의 종속’은 없었다. ‘여성 고유의 종속’은 ‘프롤레타리아 고유의 종속’에 내포되어 있으며 그것으로 환원된다.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 자동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방되어야 했다.” (우에노 치즈코, 1994 : 27-28)

코민테른 제3차 대회는 혁명적인 마르크스주의의 근본 원리를 확고히 하였다 이에 따르면 어떤 종별적인 여성문제도, 종별적인 여성 운동도 없다. (코민테른 제3차 대회에서 통과된 결의안, 「여성 사업에 관한 테제들」, 위의 책에서 재인용 . 146)

주된 것이 먼저 온다 — 즉, 경제적 혁명, 임노동에 대한 자본주의적 지배로부터의 해방 말이다. 그리고 이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의 해체와 같은 다른 변화들을 수반한다 (Haug, 1992 : 163)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 속에서 경제위기 때마다 여성들의 요구가 사치스러운 것으로 평가되고 ‘주요 이슈(main issue)’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요구받았던 여성들의 경험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전희경, 1999b). 즉, 여성문제의 부차화·주변화라는 문제는 단순히 우연적 현상이 아니라 맑스주의 이론 그 자체에 의해 정당화되고 또한 재생산되는 것이다(Jancar, 1978).

그런 것들[여성에 대한 기존의 사회주의적 정책들]은 전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사고 하는 데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부분적 접근은, 그러한 부가물들은 언제든지 다른 프로그램들을 손상시키지도 않으면서 버려질 수 있다는 더 큰 해악을 낳는다. (Haug, 1992 : 163)

이처럼 여성문제에 대한 접근을 단순한 ‘부가물’로서만 간주함으로써 여성억압의 독자성과 물질성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부정하는 이러한 시각은, 노동운동의 목표와 여성운동의 목표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페미니스트들을 오랫동안 괴롭혀 왔다.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했던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해방이 단순히 노동해방에 종속되며 그것에 의해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들이 여성문제를 제기하고 그와 관련한 실천을 할 때는 언제나 ‘때때 부르주아적’이라는 비난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과 자신들의 (여성)운동이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을 가져야 했다(Haug, 1992).

## (5)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문제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내부 비판적인 논의들 이외에도 맑스주의 자체를 서구의 계몽주의적, 남성 중심적 사상 전통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보다 메타적인 비판을 가하는 페미니스트들도 있다. 스테파노(C. D. Stefano)는 맑스의 이론이 그 의미와 감수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남성적 지평’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하면서, 맑스가 체현하고 있는 남성적 지평이 갖는 이분법적·위계적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러한 인지적 성향은, 남성적 주체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우월성을 중심으로 암묵적으로 조직된 지적 인식들을 구성하거나 또는 기여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 중 몇 가지를 포함한다. 투쟁적인 이원론적 사고와 근원적 자아-타자 이항대립의 동화를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것 ; 자연 및 사회 세계의 사건, 대상, 그리고 과정들을 묘사하고 평가하기 위해 양극화된 이항대립을 창출하는 것 , 자기 “자신(own)”의 정체성과 다른 “대상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단일한 정체성과 확실성을 특권화할 필요 ; 타인과 자연과의 연관성에 대한 부정 또는 거부, 육체와 자연적 환경들에 의해 부과된 한계를 포함한 자연적 우연성에 대한 공포와 부인 , 그러한 우연성의 여성성과의 동일시, 적대적이고 위협한 세계 속의 고립된 주체라는 관념 ; 급진적 혹은 영웅적 개인주의의 세밀한 표현과 묘사 , 자유·자율성·초월이라는 주제들에 대한 선입견 , 지식의 주체와 객체 사이의 거리를 둔 관계에 기반한 ‘반대로서의 지식’ 및 ‘투쟁으로서의 지식’이라는 사고 ; 여성 또는 여성성으로 정체화된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멸과 적대적 태도 ; 여성성에 대한 이상화와 찬양. ... 이런 의미에서 맑스는 전투적이고 영웅적이며 따라서 남성적인 스타일을 보여준다. (Stefano, 1991 : 150)

이렇듯 자연과 문화, 감성과 이성, 육체와 정신, 여성과 남성 등 이분법적인 동시에 위계적인 인식들은 맑스가 동시대의 많은 근대 사상가들과 공유하고 있는 ‘남성적 지평’이다 이러한 남성적 지평 속에서, 여성과 자연에 대한 지배는 쉽게 정당화되거나 혹은 비가시화되며, 좁은 의미로 정의된 ‘정치’의 범위를 벗어나는 여성운동의 이슈들은 사적 영역,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게 된다. 실천적 영역 속에서 전통적 맑스주의계열 조직이 관료화와 중앙집중화의 경향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중심모순/부차모순’이라는 위계적 이분법의 작동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sup>24)</sup>.

24) 맑스주의 이론가 및 실천가들이 보여주었던 ‘개인적’ 수준에서의 가부장성은 따라서 우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마리아-안토니에타 마치오키는 1979년에 쓰여진 한 논문에서 맑스주의를 “남성적 맑스주의”, “프롤레타리아 끝루스 정치”라고 신랄히 비판하면서, 맑스주의의 중요한 사상가들의 행적과 맑스주의 조직들 속에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명백한 성차별의 사례들을 매우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다 . “나는 이로부터 거의 언제나 모호한 태도, 사회적 위선, 때때-부르주아적인 점잖음, 편협한 민음이 혁명가들, 위대한 혁명가들과 그들의 아내, 딸들 간의 관계를 지배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청교도주의와 지배적인 생산/재생산의 규칙과 같이 가족적 가치에 대한 낡은 이해가 낡은 세계를 전복하는 이론 즉 혁명적인 이론을 따라다녔다... 정치적으로 여성문제는 (남성적인) 혁명 조직 속에서 대표되어야 할 문제이다. ... 프랑스 혁명 이후 여성들은 두 가지 전제(tyrannie) 한편으로 편집증적이고, 여성혐오적이며, 평등권을 가장 억압한 법을 만든 나폴레옹과, 다른 한편으로 “여성 시민은 시민의 아내일 뿐이다”라고 주장한 ‘사회주의자’ 프루동의 전제에 종속되었다 그들은 10월 혁명을 남성들만의 혁명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투쟁의 전위를 급속적이고 예연자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 혁명적인 여성들, 애인들, 정념들을 삭제할 필요가 있었다” (마리아-안토니에타 마치오키,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을 둘러싼 몇 가지 논제들」, 뤼스 이리가레 외, 1997에서 재인용) 이밖에도 그녀가 나열하고 있는 사례들은 매우 많다 ‘자유분방한’ 엥겔스의 지식이라고 알려져 온 맑스의 사생아, 맑스가 자신의 아내와 딸들에게 가르쳤던 청교도적 예절들, 매매춘 여성에 대한 경멸, 당내 여성들의 모임에서 성 문제가 토론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비난한 레닌의 클라라 제트킨과의 그 유명한 인터뷰, 여성의 평등이 남성과 동일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고 선언하

#### 4절. 분열된 정체성 : 서구 페미니스트들의 경험

맑스주의의 이론과 실천이 지녀 왔던 가부장성은, 맑스주의와 다양하게 관계 맺어 왔던 페미니스트들의 페미니스트 정체성 형성에 있어 특수한 맥락을 제공한다. 노동계급 여성이 노동시장에의 진입을 통해 하나의 사회 집단으로서 스스로를 재발견하게 되듯이(이숙진, 1990), 사회운동의 경험 이 많은 여성들에게 여성주의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계기는 매우 모순적인 것으로 경험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한편으로는 전통적 여성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물성적인(남성적인) 집합적 정체성에 스스로를 통합시킴으로써 스스로를 무성적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맑스주의와 같이 고도로 총체화된 이념 구조 속에서 페미니스트 의식은 억제되거나 왜곡된다. 실제로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맑스주의자'라는 정체성과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을 분열된 것으로 인식해 왔으며, 따라서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맑스주의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 과정은 동시에 페미니스트들의 정체성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 때 맑스주의 계열 사회운동(노동운동 혹은 좌파)에 투신했던 서구 페미니스트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이 점은 더욱 명백해 진다. 그녀들은 여성문제를 자본주의 체제와 연관시키고 여성운동을 계급투쟁과 직접적으로 관련지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으나 그것이 결국 '이중 노동'과 비슷한 과중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다. 또한 여전히 사회주의의 이념적 목표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여성문제가 '실천적 수준에서' 끊임없이 부차화·종속화되는 경험 또한 공통적이다<sup>25)</sup> 프리가 하우그(F. Haug)는 맑스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의 통합을 당연시했던 개인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나는 모든 문제가 자명해 보였고 두 운동 사이의 관계 또한 자연스럽게 여겨졌으며 특별히 노력을 투자해야 할 문제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였던 시절을 회상하는 것만도 몹시 힘든 일임을 알게 되었다. 그 관계의 자명함은 내 정치적 삶의 일부였다. 20년 이상 동안이나 나는 맑스주의자로서 나 스

---

였던 스탈린, 공산주의 안에서 누구의 아내나 딸로서가 아니라 일인칭의 독자적인 주체로서 여성이 정치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중국의 사례들, 교회와 충돌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여성, 성욕, 사랑, 피임, 낙태에 대한 모든 논의를 억압해온 서구 공산당의 역사 등이 그것이다

- 25)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언제나 덜 긴급하고 덜 핵심적인 문제이며 항상 내일로 미뤄질 수 있는 문제인 여성문제를 우리가 토론할 수 있게 되는 날은 도대체 언제인가? 노동운동을 여성운동으로부터 연역해 내는 것 또는 그 반대 역시 불가능하다, 두 운동 모두 다른 하나로 환원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운동을 여성운동으로부터 연역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일인 반면, 그 반대는 언제나 발생해 왔다)" (Haug, 1992 174)

스트를 노동운동과 과학적 사회주의의 일부분으로 생각해 왔다. 지난 12년간 나는 여성운동에서 활동해 왔다. 내가 유사한 목표를 가진 두 독립적 운동의 존재가 문제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나에게 무엇이든 너무 당연히 여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었다. (Haug, 1992 : 161)

총체성을 특징으로 하는 맑스주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맑스주의자로서 정체화한다는 것은 노동운동과 여성운동(혹은 맑스주의와 페미니즘)의 ‘행복한 결혼’을 추구하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페미니스트들을 ‘내적 갈등’(Haug, 1992)에 처하게 했다. 이 때 이들의 내적 갈등을 특징짓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하나는, 전통적 맑스주의 이념에 충실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적”이라는 수식어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다.

‘부르주아’ 여성과 ‘프롤레타리아’ 여성 사이의 확고한 구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성은 그녀가 사회주의 운동을 지지할 때에만 프롤레타리아로 이름 붙여졌다. 따라서 남성 사회주의자들은 여성들을 혁명에 종속시켰으며, “여성문제”를 혁명이 완수된 이후의 2차적 위치로 격하시켰다. ... 레닌 또한 여성이 혁명에 종속되어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에게 있어서는 오직 두 계급의 여성들만이 존재한다 : 좋은 프롤레타리아와 문란한 “부르주아” 둘 사이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좋은 여자와 타락한 여자 사이의 빅토리아적 도덕 코드였다. (Jancar, 1978 : 74)

정치가 재미있어지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가 결코 연루되고 싶지 않은 비판인 ‘때때 부르주아’라는 경멸을 돌아야 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여성운동) 조직에 진짜 프롤레타리아 여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 언제나 떼뻗치 못한 기분을 가지고 있었다 ...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의 투쟁이 직접적으로 계급 투쟁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론을 왜곡시켰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두 운동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으며, 우리의 힘을 분산시키지 말며 경제 투쟁에 쏟아야 할 힘을 여성운동에 분산시키지 말라는 레닌의 충고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를 먼저 하고 다른 것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Haug, 1992 : 168)

즉 맑스주의 이념을 받아들였던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때때 부르주아적’이라는 경멸 섞인 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여성운동을 “계급투쟁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는 결국 여성해방을 노동해방에 종속시키는 맑스주의의 이론과 실천이 내부의 페미니스트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하나의 ‘내적 갈등’은 “두 개의 발판 사이에 딛고 선 운명”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녀들은 ‘진정한 맑스주의자들’과 ‘진정한 페미니스트들’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가운데 모호하고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일반적 상호관계와는 별개로, 여성운동과 노동운동 사이의 특수한 연관 또한 존재한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개인들 내부에 만들어진 관계이다. 실천적 상이성으로 인해, 그것은 상당 기간동안 내적 모순으로 표현되었다. 혹은 '두 개의 발판 사이에' 딛고 선 사람의 운명으로서 드러나기도 했다 - 사상적으로 매우 발전하여 노동운동에만 종사하는 진정한 정치 활동가들로부터는 겸손한 적 하는 웃음의 대상이 되며, 진정한 페미니스트들로부터는 여성운동에 전적으로 투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신자로 비난당하는 운명 말이다. (Haug, 1992 : 164-165)

이처럼, 가부장적 사회운동의 영향력 하에서 페미니스트 의식은 이중적이고 모순적이며 분열된 정체성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부터 가부장적 사회운동 그 자체가 페미니스트 의식 형성에 있어 중요한 '맥락'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아래에서는, 하나의 페미니즘이 아니라 다수의 페미니즘들이 존재하며 이는 구체적인 정치적·역사적 맥락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라, 90년대 이후 한국 여성운동사에서 새로이 출현한 '여성주의자'라는 정체성이 어떠한 특정한 정치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과정 속에서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이라는 독특한 구조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 제3장 역사적 맥락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친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주류 사회운동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맥락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것 역시 사실이다.

우선 80년대의 경우 여성운동을 소위 '전체운동' 내부에 위치지움으로써 자신의 '진보성'을 입증하고자 했던 흐름과 <또하나의 문화>처럼 독자적인 여성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흐름이 존재했다. 전자가 전국적 여성조직의 결성 등 조직화를 통한 운동 방식을 취한 반면 후자는 글쓰기 등을 통한 담론 형성과 일상문화의 변화에 보다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전자는 현재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 대표되는 여성단체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천 방식의 상이성과 서로 다른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 여성운동가들의 자의식은 소위 '전체운동'과의 관계설정이라는 문제에 의해 일정정도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특히 80년대 민주화운동의 한 가운데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한국여성운동을 “여성문제를 전체 사회구조의 모순과 함께 총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의 태동 및 “여성운동의 대중적 기반, 더 나아가 민족민주운동의 대오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했던 당시의 인식은, 여성운동가들이 여성운동을 정의하고 위치짓는데 있어 소위 '전체운동'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음을 시사해 준다(이송희, 1992).

하지만 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진보'를 표방하는 사회운동이 실상 대단히 가부장적이라는 점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회운동진영과의 관계 설정 문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구체적인 경험에 기반하여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을 '폭로'하는 발언으로부터, 점차 그것이 비단 활동가들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운동이 바탕한 이념의 물질적(gender-blind) 성격에서부터 남성중심적 문화 및 조직원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맞물려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는 체계적 연구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한 가운데 수도권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여성주의' 담론이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90년대 말에는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들이 여성주의 의식을 획득하고 스스로 세력화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운동진영과의 관계 설정 문제는 훨씬 비판적인 관점에서 토론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최근 십여 년 간의 한국 여성운동의 문제의식 변화를 '주류 사회운동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 1절. 80년대 한국 여성운동의 두 가지 흐름

많은 여성학자들은 80년대 여성운동의 성격이, 다른 '진보적 사회운동단체들'과 연대하는 흐름과 독자적으로 운동을 전개해나가는 흐름의 두 가지 줄기로 나누어진다고 평가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차이는 여성해방에 대한 '이념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다른 '진보적 사회운동들'과 연대하는 '진보적' 여성운동은 가부장제의 근본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에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타파를 향한 계급투쟁을 통해서만이 여성 억압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계급투쟁을 하는 다른 운동들과 연대<sup>26)</sup>해야 한다고 본 반면, 독자적으로 여성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쪽은 가부장제의 독자적 체계가 있으며 그 체계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운동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자연히 전자는 여성운동의 성격을 '진보적 민주운동'의 하위 단위로 규정하면서 운동들 간의 연대(동맹)를 강조하였고 이때 여성운동의 주체는 노동자·농민여성으로 설정된 반면, 후자의 경우 여성문제의 독자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자적인 운동단체로 전개되었고 이때 여성운동의 주체는 남성과 대비된 '여성 전반'이 되었다(조주현, 2000).

1987년에 건설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의 다음과 같은 문헌자료들은, 80년대 중·후반 당시에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헌신이 여성운동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여연의 목표는 다양한 여성운동들 간의 조직적 연대를 형성하고, 국가의 민족적 독립을 성취하며, 민족적이고 민주적인 민중운동과의 연계 하에서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우리 여연은, 한국 여성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의 근본 원인이 비단 가부장제와 가부장적 문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즉, 독재권력, 미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종속, 분단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투쟁과 함께 민주화를 위한 투쟁 역시 우리의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분단 이래, 여성운동은 사회복지를 위한 유한계급 여성들의 활동을 의미했거나, 또는 정부의 지원 아래 지배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했다. 우리는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목표로 하는 여성운동을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sup>27)</sup>.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민중

26) 여기서 '연대(solidarity)'라는 용어의 개념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연대'라는 용어는 다소 모호한 내용을 가진 채 혼용되는 경향이 있는데(이재원, 1998), 80년대 '진보적' 여성운동의 흐름이 강조했던 '연대'는 최종적으로는 동일한 정치적 목표를 지향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동맹(alliance)을 뜻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주류 사회운동'의 포섭주의적·가부장적(paternalistic) 이념 속에 여성해방의 이념을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90년대 이후 소위 '신사회운동들'의 등장으로 인해 비롯된 '다양한 운동들 사이의 동등한 연대' 개념에서의 '연대'가 각 모순의 종별성과 각 운동의 독립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해 보면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다.

27) 여성운동의 역사나 당대의 지형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일종의 '차별화' 임과 동시에 '민족민주운동'이 전

들로부터 전사회적으로 확장된 민주화의 요구 및 운동들과 더불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탄탄히 조직된 여성운동 그룹들 역시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금이야말로 여성운동이 그 위치를 전체 사회운동 내에 위치시켜야 할 때이다. . 여연을 출범시킬 때, 우리는 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합의하였다. 즉, 우리는 단지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독립적인 주체인 민족민주운동에 참여하는 것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조혜정, 1993에서 재인용 : 334-336)<sup>28)</sup>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위해서는 “민주화를 위한 투쟁 역시 우리의 선결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이러한 이념은, 맑스주의계열 사회운동이 가지고 있는 포섭주의적·가부장적(paternalistic) 논리의 표현인 ‘(계급모순의) 우선성·선차성·중심성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여연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을 ‘진보적 여성운동’으로 명명했던 당시 여성운동가들은 정치체제의 변동이 있어야 남녀평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들은 민주화, 인권, 통일 등의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여성문제의 해결을 유보하려는 경향이 있었다(Palley, 1988). 그리고, 여성운동은 ‘분리주의적’인 노선을 취할 것이 아니라 ‘민족민주운동’과 완전 통합되어야 한다는 운동의 방향을 이론적으로 지원해준 것은 주로 맑스주의 이념이었다(이승희, 1994). 실제로 ‘여성 노동자’를 여성운동의 주체 세력으로 설정했던 당시의 지배적 경향은 이러한 이념의 영향력을 반증한다.

조혜정(1993)은 80년대 ‘민족민주운동’과 여성운동의 복잡한 관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이러한 ‘인정 투쟁’이 “과학적 인식”, “사회구성체론”, “총체적 이론”등 맑스주의 이념이 표방해 온 정치적 성향들의 강력한 영향 하에서 나타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나는 민족민주운동이 새로운 여성운동을 등장시킨 두 가지 주요한 기반 중의 하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 운동이 현재의 새로운 여성운동에 제공한 조건은 결코 좋지 않다. 무엇보다도, 인간 역사에 대한 “과학적” 이론이 무엇인가, 사회 운동의 “올바른” 방향성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사

---

유하고 있던 “진보”의 범위에 포함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많은 여성운동가들은 여성운동조직의 존재 이유 자체를 의문시하는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맞닥뜨려 “우리도 진보적이다”라는 ‘포함 논리’를 사용함으로써 인정받으려고 노력해 왔다.

- 28) 이 인용문에서 등장하는 “유한계급 여성들”이라는 표현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명 여연 건설 이전까지 상층 계급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친정부적 경향의 여성운동이 해방 이후 초기 한국 여성운동에 있어 지배적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한계급 여성들’이라는 표현은 운동 주체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조건과는 별개로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민족주의 운동’에 통합되지 않은 여성들을 가리키는 ‘정치적 상징’이 되었다. 이후 특히 맑스주의계열 사회운동 속에서 ‘유한계급 여성’이라는 표현은 계급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여성 집단에 대한 경멸적 의미로 최근까지도 종종 사용되고 있다. 이는 앞서 2장에서도 지적했던 바이다.

회에서 억압이 가지는 “본질적 특성”이 무엇인가 등에 대한 격렬한 이데올로기적 갈등들은 많은 여성활동가들을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게 만들어 왔다. 민족민주운동을 주된 준거점으로 삼고 있는 여성들은,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여성 억압을 설명할 수 있는 고도로 추상적인 이론 구성체를 만들어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들은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이론가들이 제시한 “사회구성체론”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여성억압의 ‘기원’과 ‘본성’을 이론적인 언어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다 따라서 스스로가 여성으로서 느끼는 억압을 자기성찰하거나 다양한 여성들의 경험을 조화시켜나갈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민족민주해방이라는 견고한 이데올로기와 중앙집중적인 조직형태에 대한 강조 아래에서, 이단(heterodoxy)이 등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조혜정, 1993 : 351-352)

여성운동을 소위 ‘전체운동’ 즉 민족민주운동의 한 ‘부문’운동으로 위치시키는 이러한 흐름은 한국 사회운동의 이념적 기반으로서의 노동해방 혹은 민족통일 담론이 지녔던 영향력과 7, 80년대 당시의 폭압적 군사 독재라는 한국사회의 특수한 상황이 맞물린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조순경·김혜숙(1995a)은 당시 민족민주운동진영 내의 여성운동권에서 여성문제를 민족문제 및 계급문제와 끊임없이 연관지으려고 하는 노력을 보였던 것이 전체 운동 내에서 여성운동이 인정받고자 하는 여성운동계의 생존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전체 민족민주운동권 내에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여성운동 자체가 살아남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일종의 무력감이 혼합되어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다소 완화된 형태나마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sup>29)</sup>.

이러한 흐름에 대비되어 언급할 수 있는 대표적 여성운동조직이 바로 1984년에 결성된 <또하나의 문화>와 여성에 대한 남성 폭력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여성의 전화>였다(조혜정, 1993). 그러나 여러 문헌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의 활동은 민족민주운동에 스스로를 강력히 동일시하던 흐름과는 다소 다른 영역에서 자신의 운동을 펼쳐 왔기 때문에 비교적 “조용한 편”(조혜정, 1993)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소규모적 형태로 편재하는 다양한 ‘여성주의 집단들’이 그러한 것과 유사하게, 이들 역시 사회운동진영과의 관계 문제를 논쟁적으로 제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 나름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에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

29) 이는 90년대 말 여연 내부의 토론에서 “진보의 방향성과 운동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진보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세계화 이후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시장의 지배, 지구적 환경위기, 전쟁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한반도 문제 등과 맞물려 있다”고 보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여연은 민주화 확대 이후 진보적 여성운동의 과제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1) 지역사회 뿌리내리기로 전환하자, (2) 여성의 정치·경제적 주류화는 지속적인 과제로 실천하자, (3) 여남평등사회로 나가기 위한 의식 개선사업을 전개하자, (4) 국제 금융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불공정한 시장질서에 대항하자, (5) 제도적인 민주화를 완성시키고 통일의 기초를 마련하자, (6) 여성운동의 자립기반 마련하기, 민주적 의사소통구조 세우기, 차세대 지도력 준비하기 (남윤인순, 1999.)

이러한 양상 속에서 80년대의 '진보적' 여성운동은 여성문제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드러내는 운동으로 자리잡지는 못했으며(조순경 외, 1995a) 반면에 독자적 여성운동을 추진해온 쪽은 90년대성의 정치학으로 확장되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경험하고 전개된 90년대는 '진보적 사회운동'과의 '연대'에서 벗어나 여성문제의 독자성을 인식하는 여성주의 운동들의 출현과 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조주현, 2000). 이러한 변화를 일으켰던 계기 중의 하나는, 다름 아닌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등장 및 확산이다.

## 2절. 90년대 중반 이후의 새로운 문제의식

'주류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이 90년대 이후 활발히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이전의 한국 사회운동 지형 속에서 대진제로 여겨졌던 맑스주의 이념과 사회운동의 '진보성'이 의심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맑스주의 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서구 페미니스트 이론의 도입과 그 영향으로 인해,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 및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이 '주류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고 공론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인해, 사회운동의 가부장적 특성과 한계는 더욱 부각되었다<sup>30)</sup>. 이로 인하여 여성주의자들 사이에는 "남성중심적인 주류 사회운동과 단절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심각히 제기되기 시작했다.

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 같은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보다 구체화되었다. 산발적으로 제기되던 비판에 맞닥뜨려 주류 사회운동진영의 남성 좌파 운동가들이 보였던 태도와 반박 논리들은 오히려 여성주의자들의 비판의식을 더욱 심화시켰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한 반론 자체를 또 하나의 '세련된' 가부장성으로 해석하는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 및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이 세력화하면서 구체적 실천을 통해 급진화·전면화 하였기 때문이다(전희경, 1999b). 이제 아래에서는 '주류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페미니스트 문제의식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 왔으며 실천적으로는 어떻게 세력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30) 90년대 초반 이후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국내 연구들이 나오고, 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실천적 영역에서 그러한 글들이 많이 쓰여지고 유행했던 것은, '여성주의 담론'의 확산과 자기정립, 그리고 '독자적 여성주의 운동'이라는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더불어, 90년대 초반 이후 서구 맑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의 문헌 이외에도 맑스주의 및 서구 좌파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급진주의페미니스트들의 문헌들이 번역되어 출판되기 시작한 것 역시, 90년대 중반 이후 성장한 '여성주의자들'이 자신의 시각을 정립하고 비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수 있겠다.

## (1) '주류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의 급진화

'주류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의 급진화는 크게 90년대 초·중반 이론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비판, 그리고 실천적 수준에서 '여성주의자들'이 스스로 세력화함으로써 제기해온 비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1-1) '주류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

우선 90년대 초·중반에 들어서면서, '주류 사회운동'의 뿌리깊은 가부장성을 비판하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김정은, 1998, 김화숙, 1999; 김현영, 1998; 박진영, 1998; 박현귀, 1997; 전희경, 1998, 1999a; 조순경·김혜숙, 1995a, 1995b; 조주은 외, 1999; 주경미, 1994; 최성애, 1994, 허나운, 2000; 허성우, 1995), 90년대 후반에 이르자 자신들의 경험에 기반하여 '주류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글들이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쓰여지고 읽혀지기 시작했다(김수자, 2000; 김수지, 1996, 권인숙, 1999a, 1999b, 2000, 김혜경, 1999, 2000; 서정영주, 2000a, 2000b, 2000c; 양진, 1999; 엄혜진, 2000a, 2000b, <여성활동가모임>, 1999a, 1999b; 이지은, 2000, 전희경, 1999b, 1999c, 1999d, 2000; 정주은, 1999; 정희진, 2000; 최정민, 2000). 이러한 연구 및 발언들은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과 '대화가 여성주의자들'이 형성되는 과정 및 그 문제의식의 심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서는 우선 이러한 연구들이 지적했던 '주류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해 간략히 개괄해보도록 하겠다<sup>31)</sup>.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회운동조직에서도 그대로 관철되고 있는 위계적 성역할 분담이다. 사회운동진영은 여성활동가들에게 한편으로는 전형적인 '여성의 일'을 담당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진보적'인 여성이 될 것도 동시에 요구한다(조순경 외, 1995a; 허나운, 2000). 그런데 여기서 '진보적'이라는 것은 전통적 성역할을 벗어나 '남성적인'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성활동가들은 이중적인 요구를 동시에 받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성역할 분담 이데올로기가 단순히 남성활동가 개개인의 가부장적 인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

31) 여기서 개괄될 사회운동의 가부장성들은 뒤에서 분석할 <여성활동가모임>과 '대화가 여성주의자들'의 조직화/세력화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발견되고 언어화되며 추가 및 심화되고 있는 비판의 목록들이다. 특히 <여성활동가모임>의 회원들은 90년대 이후 비교적 젊은 세대로 구성된 소규모의 '새로운 사회운동 단체'에서,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이 어떻게 더욱 세련되고 교묘한 양상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한 경험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들의 여성주의 의식이 심화되고 급진화되는 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라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안착화 되어 여성활동가 스스로도 그것을 당연시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즉 '성역할 분담을 당연시하는 문화적 분위기'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조직 구조 자체에 내포된 성역할 구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조직 구조 자체에 내포된 성역할 구분'이란, 국(局)별 조직체계 자체가 성역할 구분을 전제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조직 내 성역할 분담이 적극적으로 '유도'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현재와 같은 조직 체계는 '기능적'으로 이뤄진 것인데, 여기서 '기능'이란 다분히 사회적으로 고정된 남성성/여성성을 내포하고 있다. 가령, 정책국이나 연대사업국을 대개 남성 활동가가 담당하게 되는 이유는, 그 일 자체가 외향적이고 공적 영역의 담론에 익숙하며 논리력과 활동성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이고, 선전국이나 교육국을 대개 여성 활동가가 담당하게 되는 이유는, 그 일 자체가 섬세하고 감성적이고 정적인 특성을 요하기 때문이라는 식이다. 연대사업국과 사무국을 비교해 보면 '성별'이 뚜렷이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성은 바깥 일에 연관된 연대사업국을, 여성은 소위 '내부 살림'이라고 할 사무국(혹은 총무국)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위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조직 체계는 '중립적'인데 이데올로기에 의해 성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고보다는, 조직 체계 자체가 기존의 성역할 구분을 재생산하고 유도하도록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재적 메커니즘은, 조직 내에서의 여성의 낮은 대표성으로 이어진다(전희경, 1998).

두 번째로 여성활동가에 대한 (남성)편의적 이중도덕을 들 수 있다. 이중도덕이란 전통적 성역할을 수행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으로 이분화시켜 놓고 필요에 의해서 (여기서의 '필요'는 주로 여성을 비난하거나 그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이다) 두 집단의 여성 모두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조순경 외, 1995a). 성적으로 개방된 여성이면서 동시에 순결을 지키기를,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비판능력이 뛰어나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사적으로는 논쟁적이거나 비판적이지 않은,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요구받는 것이다(조순경 외, 1995a). 남성활동가들은 일반 사회의 가부장적 가치와 운동사회의 진보적 가치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한편으로는 가사노동 및 보살핌 노동을 여성활동가의 몫으로 돌림으로써 '순종적이고 싹싹한' 전통적 여성상을 요구하고 여성활동가들을 성적 대상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논리적이고 운동에 대한 헌신성이 투철하며 이성적이고 능력 있는 '이상적인 운동가'의 상 또한 요구한다는 것이다(조순경 외, 1995a, 전희경, 1998). 그러나 여기서의 '이상적인 운동가'의 상 자체가 남성중심적 모델에 기초한 것이다. 결국 사회운동의 '진보성'은 일상 문화 속에서 지극히 남성편의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으며, 여성활동가들 자신은 끊임없는 모순적 요구에 맞닥뜨려 정체성의 분열을 경험하거나 혼란스러운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전희경, 1998).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이와 긴밀히 연관된 여성활동가의 조직 내 과소 대표성 문제이

다<sup>32)</sup>. 조직 내 파소 대표성 문제는 사회운동의 구조적 가부장성 및 문화적 배제로 인한 여성활동가들의 구조적 저발전을 초래하는 원인이며, 이는 다시 문제제기의 통로를 가로막고 ‘조직적으로’ 가부장성을 관철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남성중심적·여성비하적 문화는 아직까지도 사회운동 내에 팽배해 있다.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뒤풀이 문화’는 그 가장 극명한 예인데, 문제는 이러한 ‘뒤풀이 자리’에서 사회운동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이 교류되고 활동가들 사이의 인간적 관계를 넓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활동가들은 사회운동가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원을 얻기 위해 이러한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노골적인 성적 대상화와 성폭력에 맞닥뜨려 자신이 ‘활동가’가 아니라 ‘여성’임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다층적인 가부장적 구조에 맞닥뜨린 여성활동가들이 ‘주류 사회운동’ 내에서 ‘운동가로서 살아남기 위해’ 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은, 자신이 여성임을 거부하고 남성과 동일시하는 ‘탈성화-남성화 되기 전략’이다(권인숙, 1999b). 많은 여성활동가들이 자기본원적 정체감에서 탈출하기 위해, 성폭력의 위협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그리고 사회운동진영 내에서 ‘운동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조순경 외, 1995a) ‘탈성화-남성화 되기 전략’을 취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패로 끝나게 된다. 첫 번째는 여성이 남성과 ‘완전히 똑같게’ 된다는 것이 불가능할뿐더러 남성활동가들이 여성활동가들을 ‘여성’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구조가 여전하며 남성들 사이의 ‘비공식적 네트워크’ 속에 여성활동가를 끼워주려 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탈성화-남성화’ 됨으로써 문제의 근본 원인인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논리적으로 봉쇄되며 오히려 여성활동가들 사이의 분리와 경쟁을 조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성문제’나 ‘성차별’은 존재할 여지조차 없게 된다(조순경 외, 1995a).

이러한 공고한 가부장성에 대해 오랫동안 여성활동가들의 저항이 표출되거나 가시화되지 못했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단결” 기제를 이용한 성차별 저항의 무기력화<sup>33)</sup>와, ‘구조적으로 초래된 여성들의 부정적인 저항 경험’(조순경 외, 1995a)이 그것이다. 외세, 자본가 계급 혹

32) “대표적으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내의 남녀 간부 비율을 살펴보면 간부직 등 소위 권력의 핵심부는 남성들이 장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엄혜진, 「운동사회 성폭력,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운동사회내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자료집, 『이제는 말하자! 운동사회 성폭력』, (미간행), 2000 ; “8개 연맹(보건의료, 금속, 상업, 관광, 공공, 섬유, 화학, 건설)의 대의원, 임원, 중앙위원, 중집위원, 상집위원, 부설기관장을 포함한 간부는 총 2,149명으로 이중 여성은 192명으로 전체 9%를, 남성은 1,957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한다. 이러한 남녀 간부의 9:1 비율은 민주노총 조합원의 남녀비율이 8:2인 점을 고려할 때 남녀 조합원 수의 비례에 크게 떨어지는 비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 내 의사결정기구의 여성참여 확대방안』, (미간행), 2000

은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이라는 거대한 ‘적’을 향하여 모든 사람이 ‘일치 단결’해야 한다는 주장 속에서 여성문제는 부차적이고 사소한 문제로 간주되었고, 많은 문제제기들이 ‘분파주의’ 또는 ‘분열주의’로 매도당해 왔다. 뿐만 아니라, “여성해방은 노동해방(또는 민족통일)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혹은 “노동해방(민족통일) 없이는 여성해방도 없다”는 사회운동진영의 이념적 논리는 그 자체 하나의 가부장적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노동해방(민족통일)이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보편적 이해’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여성해방이 여성들만의 ‘특수한 이해’에 불과하다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으며, 이는 ‘보편’과 ‘특수’를 대립시킴으로써 여성문제를 ‘더 큰 문제’, ‘더 중요한 문제’, ‘더 총체적인 문제’ 속으로 포섭·종속시키는 가부장적(paternalistic) 논리를 결과하기 때문이다. ‘주류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이 조직구조의 측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념적인 측면에서 다층적으로 구조화되고 유지되는 한 저항과 문제제기는 번번이 좌절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저항 경험은 여성활동가들에게 체념과 적응이 유일한 길이라는 인식을 심화시켜 왔던 것이다. 앞에서 “전통적 맑스주의의 계략”이라고 설명했던 것 또한 이러한 여성활동가들의 부정적 저항 경험을 더욱 심화시킨다. 많은 여성활동가들이 운동사회 내 가부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성차별적 행위를 한 남성활동가에게 저항했을 때 ‘개인이 아니라 구조가 문제’라는 식의 반발에 부딪혔다고 진술한다. 일상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경향과 더불어 남성활동가들을 가부장적 억압구조로부터 면제하고 억압의 행위자를 삭제시키는 이러한 논리로 인해 여성활동가들은 자신의 문제제기가 정당한 것인지조차 다시 의심하게 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그것을 기존의 운동논리에 부합하는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갖게 된다.

그런데 여성해방을 노동해방(민족통일)에 포섭·종속시키는 가부장적 운동논리가 어떻게 ‘정당화’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어떤 운동 논리가 통용된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위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운동가들 자신에 의해 적극적으로 승인되고 실천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본 논문의 주요 대상인 맑스주의계열 사회운동 내에서 이 같은 포섭주의적 논리가 그 이념적 토대라 할 수 있는 맑스주의 이념에 의해 정당화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맑스주의 이념의 불성성·남성성이 한국 사회운동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어떻게 가부장적 운동논리로 ‘변용’되고 또 그것을 ‘정당화’시켜 왔는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sup>33)</sup>.

33) 사회운동의 가부장성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해왔던 논의들은, 그 원인에 대해 대체로 전체 사회의 가부장성의 한 단면이 연장되고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조순경 외, 1995a ; 김정은, 1998) 그러나 오히려 더욱 중요한 지점은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이 지니는 특수한 성격과 양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은 왜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되고 은폐되어 왔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 왔으나, 그러한 가부장성이 사회운동의 이념적 기반에서도 기인하고 또한 그것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리 심도 깊게 논의되지 못하

## 1-2) 실천적 가부장성과 이념에 의한 정당화

맑스주의 이론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물성성과 남성중심성에 대해서는 앞서 2장에서 다룬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맑스주의 이론이 한국 사회운동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몇몇 독특한 특징들이 발전되어 왔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폭압적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사회운동은 폭력성과 남성중심성을 내재화 해왔다(권인숙, 1999b ; 1999c). 이러한 특징들은 특히 조직론과 이데올로기에 내포된 집단주의 및 엘리트주의로 드러난다. 8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운동에서는 지식인들의 역할과 영향력이 뚜렷했는데, 이에 따라 암암리에 엘리트주의와 맑스주의 이론에 대한 훈고학적 태도들이 형성되었다. 이는 노동자계급을 말하면서도 그들/그녀들의 일상적 경험에 밀착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경험을 하위적인 지식으로 폄하하며, “구조의 문제”나 “이론적 분석”을 보다 중요하게 취급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sup>34)</sup>. 이러한 한국 맑스주의계열 사회운동의 특수성은 거대담론(맑스주의)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여성억압을 사소하고 개인적인 것으로 격하시킴으로써 가부장성을 은폐하고, 가부장성을 은폐함으로써 다시 위계화된 물성적 이념체계를 정당화하는 일종의 순환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순환구조 속에서 여성억압과 젠더(gender)의 문제는 언제나 ‘일상적이기만 한 것’, 따라서 사소하며 우연적인 것으로 배제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보편적 이해’로 상징하는 맑스주의 이념은 여성의 이해를 ‘특수한 이해’로 폄하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sup>35)</sup>. 맑스주의 이론 자체의 물성성이 위와 바와 같은 한국 사회운동 속에서 어떠한 구체적 양상으로 드러나고 가부장성을 정당화해 왔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부분의 경우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는 재생산 노동과 보살핌 노동에 대해서 이론화하지 못하는 맑스주의 핵심 범주의 남성중심성은 첫째, 사회운동단체나 노동조합 안에서의 전통적 성별분업 유지, 둘째, 노동운동 내에서 전업주부의 존재나 가사노동 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향, 셋째, 여성활동가의 ‘다른’ 능력을 남성적 기준에 의해 평가 절하하는 것, 넷째, 사회운동단체 사무

---

였다. 나는 아래에서 한국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이 특히 한국 사회운동 이념의 가부장성과 어떻게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여성운동가들의 문제의식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4) 그러나 본 논문의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무엇이 ‘구조’이고 무엇이 과학적 혹은 객관적인 ‘이론’인지는 사실상 관점(standpoint)과 세계관에 의존하는 것이다. 맑스주의 이념에 있어서 ‘구조적’이고 ‘체계적(systematic)’인 문제는 좁은 의미의 생산관계에 관련된 것이다. 즉, 경제적인 것을 특권화하는 가운데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문제들은 ‘우연적’이고 ‘비체계적’이며 ‘비과학적인’ 문제로 폄하되는 것이다.

35) 이는 서구 사회주의운동사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적 평가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루이스 이리가래 외(1997) 및 장미경(1996) 참조.

실 내에서 여성활동가들이 직·간접적으로 가사노동이나 보살핌 노동을 강요당하는 현상 등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는 여성해방을 노동해방에 종속시키고 (계급문제와 별개로 존재하는) 여성문제의 종별성과 독자성을 부정함으로써 문제제기를 억제하는 방식이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독립적인 여성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전체운동’, ‘전체의 목표’, ‘대의’ 속에 여성의 요구를 강제로 통합하는 이러한 논리는 사회운동진영에 고유한 논리이며, 맑스주의 이념의 남성중심적·환원론적 총체성은 여성들의 저항을 억제해 온 한국 사회운동의 ‘대동단결론’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해 온 것이다. ‘대동단결론’이란 억압의 실체가 단일하다고 가정함으로써 여성노동자의 이해와 남성노동자의 이해가 동일하다고 상정하고, 체제 변혁을 위해서는 (여성이라는) 계층 이해(특수한 이해)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공통의 이해’(보편적 이해)를 위해 단결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말한다. 여성억압의 독자성과 물질성을 암묵적으로 부정하는 이러한 시각은 ‘주요 모순’과 ‘부차적 모순’을 나누는 위계적인 변혁관과 연관된다. 다음에 인용한 맑스주의 저작과 90년대 한국 학생운동조직의 문서를 비교해 보면 이념과 일상문화 사이의 이러한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다.

**여성문제는 우리에게 일반적인 사회 문제의 여러 측면들 중 하나일 뿐이다. 그 결과 여성은 오직 사회적인 모순들의 제거와 그로 인한 악의 소멸 속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 (베벨, 이리가레 외, 1997에서 재인용 : 106-107)

노동의 자본으로의 종속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계급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로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과 관련한 적대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적대가 갈등적으로 가시화되면서 **한국사회 계급 투쟁지형에 다양한 접점**이 형성되고 있는데, 학문의 자본주의적 방식의 통합화와 이에 기반한 노동의 유연화 전략에 조응한 신인력 창출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재편의 문제와 반생태적인 경제구조에 기반한 독점재벌의 경쟁력 강화가 귀결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문제, 예외 신자유주의적 세계재편양상과 마찬가지로의 모습을 보이는 여성노동과 외국인 노동에 대한 파다착취 등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미국가 학생회연대>, 1998, 미간행)

이처럼 교육문제, 환경문제, 여성문제가 사실은 “계급투쟁”의 다양한 “접점”이라고 보는 90년대 후반 맑스주의계열 학생운동정치조직의 관점은 여성문제가 “일반적인 사회문제의 여러 측면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언하는 서구 ‘정통 맑스주의자들’의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 성해방은 계급해방 혹은 민족통일이라는 전제 아래서만 가능하다는 사회변혁운동의 이 같은 논리는, 일정 정도 대(對) 남성 투쟁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성운동의 페미니스트적 관점을 억제해왔다.

여성억압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취급하는 데에서 비롯된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의 온존은 한국 ‘주류 사회운동’의 실천 속에서 드러나는 세 번째 양상이다. 특히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격히 분리하고 사회운동을 공적영역에 한정시킴으로 인해, 80년대부터 가족과 생계에 대한 무관심이 마치 활동가의 ‘헌신성’을 보증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지속되어 왔다<sup>36)</sup>. 최근까지도 가족 관계나 연애 관계는 운동과 별개의 영역으로 비가시화 되어 왔으며, 따라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는 여성억압은 ‘논외의 문제’로 취급되거나 여성활동가들이 ‘동지애’를 가지고 인내해야 할 문제로만 생각되었다.

이 외에도 소위 ‘운동권 문화’가 가진 남성중심성은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거대담론에 의한 논리적 설명을 중요시 해온 한국 사회운동의 특수성은 남성중심적으로 구조화된 ‘운동 언어’와 ‘이론화 능력에 대한 중시’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학적 이론’임을 자처하는 맑스주의 이념에 의해 뒷받침된다. 사회운동사(史)에 대한 기술이나 특정 시기의 투쟁에 대한 묘사에서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대부분 남성<sup>37)</sup>이며, 그것은 재현(representation)의 양상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실제로 담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다<sup>38)</sup>. 회의나 토론과 같은 ‘공식적 영역’과는 완전히 분리된 ‘술자리 문화’, ‘뒤풀이 문화’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함으로써 배제하는 가운데 정보 및 인적자원 등에 대한 남성들만의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는 ‘공적 영역’에 속하는 ‘운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분석의 대상도 정치적 투쟁의 장(場)도 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36) 남성들이 생활 유지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는 비합법 운동을 하던 사람들 특유의 발상, 즉 “운동은 정상적인 생활의 유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운동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가사, 양육노동의 부담과 함께 생계책임의 부담은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과 더불어 운동의 장을 떠나도록 강요하는 중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조순경·김혜숙, 1995a). 이러한 문화는 비단 한국사회에만 특수한 것은 아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여성 혁명가들은 혁명적 행위는 개인적 가족 생활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배제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Jancar, 1978 . 74)

37) 김현미(1999) 참조. 이는 다음과 같은 연구에서도 잘 드러난다. “사회운동을 계급운동으로 환원해 사회경제적인 구조나 운동이념, 조직 성격에 주목하는 기존 사회운동연구나 거대 사건을 중심으로 운동사적 흐름만을 다루고 있는 민중사는 운동참여자들의 다양한 삶을 고려하지 않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여성이다. 사회이론이나 정치이론에서 여성을 비가시화하는 방법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여성을 이론에서 완전히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배제(exclusion)’, 여성을 설명하기는 하나 그들을 주변화시키고, 여성들을 ‘특수한 경우’나 예외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유사-포함(pseudo-inclusion)’, 여성을 포함시키기는 하지만, 여성의 경험을 남성중심적인 범주들로 해석하는 ‘소외(alienation)’이다.” (김화숙, 1999 . 17)

38) “여기서 간과된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역사 속에서 여성은 손님의 모습으로밖에 보여질 수 없으며, 두 계급 사이의 투쟁은 본질적으로는 언제나 남성들 사이의 투쟁이었다는 사실이다” (Haug, 1992 . 164)

맑스주의 이념 자체에 내포된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문제들은 한국 사회운동에서 보다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낙인찍기(stigmatizing)’이다. 80년대 후반 이후 운동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문헌자료에서는, ‘정파’, ‘분파주의’,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 ‘프락치’, ‘...주의자’ 등의 용어가 빈번히 등장한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 의견이 다르거나 정치적 지향이 다를 경우, 상대 세력을 공격적으로 비판할 뿐만 아니라 ‘...주의자’라는 식으로 ‘낙인’을 찍음으로써<sup>39)</sup> 집단적 정체성을 구분한다. ‘가장 혁명적인’, ‘진정한 혁명 세력’,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같이 절대선(善)으로서의 고정적 이상(理想)을 체현하고 있는가의 여부가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를 결정지었다. 이렇듯 낙인찍기와 배제하기를 통한 집단정체성 및 정치적 위치 확보는 한국 사회운동의 역사 속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이는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정체성의 배치로 나타났다. 여성운동에 대해 ‘부르주아적’이라는 낙인을 부과해 왔던 ‘주류 사회운동’의 빈번한 경멸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 1-3) 여성주의적 비판에 대한 ‘주류 사회운동’의 방어 담론

그러나 한국 사회운동에 있어서 맑스주의라는 이념적 기반이 지니는 중요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위와 같은 여성주의적 비판에 대하여 기존 사회운동진영 — 특히 과거 8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흐름을 이어받고 있는 노동운동이나 통일운동 등의 소위 ‘주류 사회운동’들 — 은 나름의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시도해왔다. 맑스주의와 그에 기반한 ‘주류 사회운동’의 이념을 ‘이론적·논리적으로’ 방어하려는 기존 ‘좌파 남성활동가들’의 반응 및 반론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 반응 유형은 맑스주의가 처음부터 여성억압에 대한 맹아적인 분석을 가지고 있었다는 반론을 제시하면서 맑스주의 이념 자체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엥겔스(F. Engels)나 로자 룩셈부르크(R. Luxemburg), 베벨(A. Bebel)과 같은 초기 맑스주의 이론가들의 저작들을 인용하면서, 이들은 맑스주의에 내포된 몰성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여성억압의 기원을 사유재산의 발생 및 계급억압의 문제와 연결시킴으로써 계급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여성억압에 대한 분석을 평가 절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한계는 많은 남성 사회운동가들이 여성

39) 여기서의 ‘낙인찍기’는 단순한 ‘이름붙이기(labeling)’가 아니라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그들의 이항대립 속에서 구축된 집단정체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열등한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맑스주의계열 사회운동에서 이는 ‘부르주아적’, ‘비계급적’, ‘반민중적’, ‘사민주의적’, ‘비과학적’, ‘대중추수주의적’과 같이 정통 맑스주의에서 강조한 당파성이나 혁명성이라는 이상으로부터 타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운동을 ‘부르주아적’이라고 쉽게 폄하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맑스주의에 여성에 대한 언급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나 매우 단편적이고 종속적인 위치를 차지할 뿐이며<sup>40)</sup>, 이러한 방어 담론은 여성억압의 종별성을 부정하고 위계적으로 통합된 변혁이념을 제시해 왔던 맑스주의적 이론과 실천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두 번째 유형은 90년대 이후 부각된 ‘다양한 적대’ 및 ‘신사회운동’ 관련 담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맑스주의 이념을 수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계급모순을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 ‘주요 모순’으로 설정하는 논리이다.

성차별을 논하는 특정문맥이든 일반적이든 근본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가부장제보다는 계급사회가 더 어울릴 것입니다. 이렇게 써야만 "가부장제"가 주요한 모순으로 주목되는 것입니다. 마치 민족 문제가 주요모순을 넘어서 근본문제로 더 나아가 모든 운동의 궁극으로 치달는 민족주의자들처럼 **가부장제를 궁극적인 지점으로 상정하면 안됩니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가부장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기보단, **둘 다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성차별의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부장제가 사라지려면 계급사회가 사라져야 하기에 가부장제는 상대적인 병폐고 계급사회가 사라지면 가부장제는 설 자리가 없기에 계급사회는 절대적인 모순입니다.** (PC통신망 나우누리 맑스주의 연구회 여성학 소모임방에 올라온 좌파 남성활동가의 글, 1998)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처럼 계급모순의 ‘우선성(priority)’ — 이는 ‘선차성’, ‘중심성’ 등 다양한 단어로 표현되어 왔다 — 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이 두 번째 유형의 좌파 남성활동가들이 가진 개방적으로 보이는 외양 뒤에 감추어진 전제이며(전희경, 1999b ; 1999c , 1999d),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기만적이다” 라고 평가한다.

지금의 학생운동에게는 연대의 ‘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연대는 레닌이 강조했던 ‘노농연대’로부터 한발짝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이 말하는 연대란 항상 ‘**노동자 계급적 관점**’의 절대적 우위를 전제한 연대입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해를 입을 경우 그것이 어떤 것이건 개량주의나 해체주의라는 매도와 함께 조직으로부터 탈각되고 마는 지극히 폐쇄적인 이념들 안에서의 연대... **사실 이런 연대가 아닙니다. 정치적, 도구적 이용일 뿐입니다.** (PC통신망 참세상 여성관련 게시판에 올라온 대학가 여성주의자의 글, 1998)

40) 이러한 저작들에서 간간히 드러나는 구절들이 가지는 한계는 명확하다. 이 분석들은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맑스주의는 이 개념들에 대한 어떠한 일관된 분석도 발전시키지 않았다. 여성은 계급사회에서 이중적 착취 혹은 ‘노예제’라는 종속 하에 있다고 말해지지만, 그러한 착취가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하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착취의 행위자가 누구인지도 모호하다. 여성문제들은 다른 분석들(가령 생산관계나 이데올로기, 가족임금에 대한 분석 등)을 구성하는 부차적이고 하위적인 요소로서만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전희경, 1999b)

이처럼, 페미니즘과 여성주의 담론의 도전에 대하여 맑스주의를 방어하려는 논리들은 일정한 한계를 가져 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한계가 사실상 한국 ‘주류 사회운동’의 실천적 ‘태도’와 세계관, 그리고 여성억압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왔다는 점이다. 즉, 맑스주의의 이론적 한계는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을 은폐하거나 변호하는데 있어 정당화의 근거로 사용되어 왔고, 여성주의적 비판에 직면하여 많은 ‘좌파 남성활동가들’이 맑스주의를 ‘이론적으로’ 방어하려는 다양한 반응을 보인 것은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이라는 문제를 구조적·총체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 사소한 문제,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문제로 남아있게 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1-4) 90년대 후반 ‘여성주의자들’에 의한 비판의 급진화

각 대학에 ‘여성학’ 수업이 확산되고 사회적으로는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됨과 동시에 (김현미 외, 1998 ; 허나운, 2000), 90년대 이후 사회운동의 담론지형이 변화하여 소위 ‘다양한 적대’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여성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맑스주의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서들 및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이 활발히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사회운동단체 및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이 ‘주류 사회운동’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획득하게 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여성문제를 끊임없이 ‘사소한 것’으로 만드는 기제들,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저항을 ‘분파주의’, ‘분열 조장 행위’, ‘(여성)계층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담론들 속에서(조순경 외, 1995a), 이념적 기반인 맑스주의 자체의 물성성이 비판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념과 논리적 근거를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을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90년대 후반에 형성된 ‘여성주의자들’의 발언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고 급진화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을 경험했다”고 발화함으로써 이론적 비판에 구체적 내용을 더해 주었으며, 한국 ‘주류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보다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비판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특히 ‘능력주의’, ‘나이주의’, ‘남성활동가들만의 비공식적 네트워크 형성’, 운동언어의 남성중심성, 학벌주의(“서울대 중심주의”)와 엘리트주의, 연고주의, 보다 세련화된 성별분업과 그에 따른 강요된 ‘감정노동’, 그리고 소위 “페미니즘을 좀 아는” 지식인 남성활동가들의 방관적·훈계적 태도(동41)은 이들 ‘여성주의자들’이 새롭게 제기하고 공론화해 낸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의 독특한 양상으

41) 이러한 비판들은 특히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정의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가령 ‘나이주의’나 ‘감정노동’과 같이 사전적 정의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 것도 있고 ‘능력주의’나 ‘서울대 중심

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녀들은 ‘문건’이나 ‘잡지’, ‘신문’, ‘온라인 게시판’ 등 접근 가능한 지면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식을 표현하거나, 이벤트, 캠페인, 퍼포먼스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직접행동을 통해 실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 (2) ‘독자적’ 여성주의 운동

전술한 바와 같은 비판 속에서, 여성억압을 소위 ‘전체 운동’과 분리하여 독립적인 것으로 사고하며 기존의 ‘주류 사회운동’이 지니고 있는 가부장성을 극복하는 새로운 운동 의제와 방식을 실행하는 ‘여성주의자들’이 세력화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보다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비판은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여성주의자들’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의식은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들이 여성억압의 종별성을 부정하는 ‘주류 사회운동’에 대해 명시적으로 비판하면서 여성문제의 독자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80년대 ‘진보적 여성운동’에서 이어진 여성단체운동가들과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를 그러한 흐름들과 일정 정도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 여성주의 운동’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이러한 ‘독자적 여성주의 운동’은 크게 두 부류로 형성·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여성주의 담론’을 확산시키고 여성주의 운동의 독자적 의제 및 운동 방식을 개발해 온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운동진영 내부에서 여성주의 의식을 획득하고 스스로 조직화·세력화 한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다.

### 2-1)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의 형성<sup>42)</sup>

우선 90년대 중반 이후 대학가 여성운동<sup>43)</sup>을 중심으로 ‘주류 사회운동’과의 단절을 표방하는

---

주의’처럼 새로 만들어진 용어도 있지만, 이들 모두는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의 구체적 체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42) 서론에서 밝혔듯이 여기서는 수도권지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는 한편으로는 연구자의 한계에 따른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 ‘명문대’를 중심으로 모든 물질적·사회적·문화적 자원이 집중 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사회운동 또한 서울을 비롯한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학생운동 지형에서 이러한 수도권 및 서울 집중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움직임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대학가 여성운동 역시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잠정적으로나마 세 시기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여학생 조직이 소위 ‘언더(under) 조직’<sup>44)</sup>의 형태로 생겨났다가 다시 남학생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겪은 80년대 중반 이전의 시기, 두 번째 시기는 독자적 여학생 조직인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자치적인 조직으로서 운영되기 시작한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 세 번째 시기는 새로운 경향의 여학생 자치질서가 형성되었던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다(권장현수·유정미, 1998)<sup>45)</sup> 대학가 여성운동의 역사를 ‘다시 쓰려는’ 90년대 후반의 ‘여성주의자들’은 특히 두 번째 시기에서 보여졌던 대학가 여성운동의 학생운동에의 종속성과 그에 따른 갈등상황을 대단히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두 번째 시기에 있어) 역시 가장 큰 문제는 학내의 전체운동인 것처럼 역할 했던 민족해방계열과 노동해방계열에 치여서 여성운동으로서의 고민을 성숙시키기에 어려웠다는 점이다. 여학생 운동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라치면 총학생회가 찾아와서 ‘이렇게 배타적으로 하려면 때려치워라’ 라던가 총여학생회 무용론이 나오게 되고, 총학 차원의 운동에 열심이다 보면 여학생 독자조직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부적 갈등의 국면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 두 번째는 90년대 여학생 조직의 가장 큰 활동이었던 기지촌 활동과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의 참가를 볼 때, 반미와 통일이라는 당위성에 귀착되어 여성문제로서의 인식 지점을 상실해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에 나왔던 문건이나 플래카드 등을 보면 “성폭력의 근원, 주한미군은 이 땅에서 떠나야 한다”, “미군 여러분, 범죄는 모국에서”라는, 성폭력의 문제를 남성과 여성의 문제에 앞서 반미 투쟁의 연장선상에서만 사고하려하거나, 정신대 문제를 보는데 있어서도 “자주권을 빼앗긴 민족의 고통, 정신대, 이제는 민족의

43) 사실 ‘대학가 여성운동’이라는 용어 자체는 여기서 정의되어야 할 어떤 것이다. 최근의 많은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은 대체로, ‘여학생 운동’을 기본적으로 학생운동의 연장으로서의 함의를 지니는 운동으로, ‘대학가 여성운동’은 학생운동으로서 보다는 여성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보다 최근의 운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학가’라는 표현은 대학간 연대체를 통한 활발한 연대 활동으로 특징지어지는 90년대 중반 이후의 특징을 드러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권장현수·유정미(1998) 참조.

44) 7, 80년대 폭압적 독재정권의 탄압이 극심할 무렵 대부분의 정치활동이 불법으로 규정되었던 상황에서, 학생운동은 ‘비합법’ ‘비밀’ 조직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언더 조직’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비합법 비밀 조직’을 뜻한다

45) 물론 이러한 시기 구분이 절대적인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령 두 번째 시기 후반에 벌어졌던 소위 ‘회부논쟁’은 당시 ‘주류 학생운동’이 학내 여성운동에 대해 가졌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소한 독자적 기구의 형태로 존재할 필요성을 느꼈던 여학생운동가들의 문제의식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도 여학생운동 체계에 대한 논쟁이 학생운동진영에서 격렬하게 벌어졌다. 그 당시에는 총여학생회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총학생회의 여학생부로 있을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일명 ‘회부논쟁’으로 불린다 그러나, ‘회부논쟁’은 여성운동조직 내부에서 제기된 문제였다고보다는 독자적 여성조직에 거부감을 느끼는 학생운동권으로부터 제기된 것으로, 당시 여성조직이 학생운동권에서 분파주의로 비판받았던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 이 논쟁에서 패배한 총여학생회는 해체되거나, 총학생회 산하로 들어가게 되었다” (김현영 외, 1999 9)

단합된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기본적인 여성주의적 관점까지 상실해버렸다. (권장현 수·유정미, 1998)

페미니스트 역사학자들이 주장해왔듯이 역사가 과거를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이라면(Scott, 1988 ; 우에노 치즈코, 2000), 스스로를 세 번째 시기에 속하는 ‘여성주의자’라고 정의하는 이들이 대학가 여성운동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대학가 여성운동의 문제의식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노동해방(혹은 민족통일)이라는 ‘대의’에 종속되어 있었던 두 번째 시기를 “기본적인 여성주의적 관점까지 상실”한 것으로 평가하는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정치운동으로서의 여성주의’에 대한 자의식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라고 불렀으며, 자신들의 정치를 “여성주의”로 재명명했다. 이때 ‘여성주의’라는 단어에는 “여학생운동”도 아니고 ‘제도화된 주류여성단체운동’도 아닌 어떤 것”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주류 학생운동/사회운동에 종속되지 않는 자율적인 운동’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즉, 이들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여성운동이란 (맑스주의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독립적 이념체계에 기반하며 민족민주운동과 학생운동, 그리고 제도정치권 모두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지니고 있는 운동을 의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운동’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던 기존 여성단체운동이나 ‘여학생운동’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대학가 여성운동의 새로운 흐름은, 최근까지도 ‘전체운동에의 복무와 민족통일의 중요성’을 표방하고 있는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여대협)의 성격 변화에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두 인용문을 비교해 보면 변화의 지점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의 자주적인 요구는 민족의 자주와 계급해방 없이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하기에 민족의 단합과 분단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늦출 수 없는 2천만 여성민중의 사활적인 이해와 요구이며 최대의 과제인 것이다. ... 자주적 여학생운동에의 신심으로 인해 전체 변혁운동이 요구하는 모든 과제들과 지역, 단위별 투쟁을 수많은 모범창출로 일구어 온 것이다 (제 4기 전여대협 출범선언문, 1998, 미간행)

그녀(윤금이씨)가 맞았던 ‘양색시(미군에게 몸파는 천한 여자)’라는 돌팔매는 한국사회 가부장제 문화의 소산이다. 민족문제를 앞세우며, 미군 처벌을 촉구하고 미 클린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투쟁에서 그녀는 ‘윤금이 누이, 순결한 민족의 딸’로 둔갑한다. 살아서는 천하다고 멸시받던 여성이 ‘양키군’에게 처참하게 살해된 다음에는 ‘순결한 조선의 처녀’가 된 것이다. 윤금이씨는 천한 여자도 순결한 처녀도 아니다. 무슨 잣대로 사람의 인권을 함부로 저울질하는가? 그것은 이중적 성윤리를 앞세워 여성을 억압해 온 가부장제의 더러운 찌꺼기일 뿐이다 (전여대협 3·4월 사업계획서, 1999, 미

간행)

여성문제는 “민족의 자주와 계급해방 없이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보았던 시각은, 여성문제를 민족문제의 시각에서 재단해왔던 기존의 운동에 대해 “무슨 잣대로 사람의 인권을 함부로 저울질하는가?” 라고 반문하는 입장으로 크게 변화했다. 이처럼, 90년대 중반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여성주의’ 담론 및 운동은 스스로를 여성운동의 새로운 흐름으로 해석하고 이름 붙이고자 했던 하나의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규정성 속에서 핵심적인 축이 되었던 것 중의 하나는 다름 아닌 ‘주류 사회운동’과의 ‘단절’이라는 문제의식이었다.

여성운동의 방법론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 운동집단의 반정립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더 이상 성모순을 거대모순이라고 지시되는 민족이나 계급모순의 부수적인 효과로 바라보지 않는 대학 내 여성운동이 진행된 상황하고 무관하지 않다. 80년대의 운동 속에서 성모순은 계급모순에 종속된 것으로 인식되었고, 93·4년만 해도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입에 담는 무엄한(?) 짓은 감히 꿈조차 꾸기 힘들었다. 성모순을 이야기하는 것은 민족이나 계급으로 묶인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되었고, 결국 민족 중심으로 사고하는 운동집단 내에서 혈연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 꼭 필요한 ‘어머니’의 상을 중심으로 한 여학생 운동이 학내에서 중심적인 여성운동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변화를 가지게 되는데, 연세대 안에서 95년에 있었던 성정치 문화제에서 제기된 성모순의 위치는 중심·주변모순의 논쟁 위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 동안 성모순을 부차적인 것으로만 사고했던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직화되었고, 이 여성운동집단은 가장장적이고 성차별적인 기존 운동집단에게도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여성운동이 기존의 학생운동에 대해 반정립으로 섰던 지점은 민족이나 계급모순의 효과로서 성모순을 사고하며 통일이나 계급혁명 이후 여성억압의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운동집단 내에서의 성별분업 이데올로기, 성폭력의 문제 등 운동집단의 가장장적 모순, 그리고 운동의 권위주의적인 방식 등이었다. 특히 방법론에 있어서 반정립으로서 여성운동의 방식이 자리매김될 수 있었는데, 주체와 객체의 분리에 대한 반대에서 출발하여 비권위적인 대등한 주체들간의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연세대학교 여성운동 심포지움 자료집, 1999, 미간행)

물론 이들 ‘대화가 여성주의자들’이 단일한 정치적 입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지겠지만, 90년대 중·후반에 있어서 ‘여성주의’의 내용은 학생운동에 대한 ‘반정립(anti-thesis)’의 성격이 강했으나 그러한 성격에 대해 모든 ‘대화가 여성주의자들’이 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내부의 ‘차이’들은 (비록 명시적으로 부각되지는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몇 상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서 나는 이 흐름의 일부가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를 관통해온 ‘주류 사회운동’과의 관계설정에서 ‘독자적 여성주의 운동’이라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새로운 흐름은 처음부터 지배적인 양상으로 나타

나지는 않는다. 조직적 비율로 보아 이러한 흐름이 한국 여성운동에서 ‘주류’라고는 할 수 없으나,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성주의’라는 단어는 바로 이들에 의해 사용되고 확장되었음이 분명하며 이들의 문제의식 하에서 그 구체적 의미가 획득되었다는 점에 주목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떤 흐름을 ‘새롭다’고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는, 오늘날의 여성운동이 어떤 맥락 위에서, 그리고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는가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 하에서 볼 때, 대학가 여성운동들 중에서 ‘여성주의’를 표방해온 흐름은 그 속에서 ‘단절’의 문제의식이 출현했다는 점에서 ‘새롭다’고 이해할 수 있다.

## 2-2)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의 형성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운동 ‘내부’에서 여성활동가들이 여성의 이해를 가지고 조직적 흐름을 형성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 70년대 노동운동에서 여성노동자들이 했던 적극적 역할이나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많은 여성활동가들의 ‘헌신성’, 90년대 이후 다양한 사회운동단체에서 지금까지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여성활동가들의 활발한 활동을 볼 때, 사회운동을 하는 여성들이 독자적인 여성주의적 조직을 결성한 예가 극히 드물다는 것은 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sup>46)</sup>. 그러나 조순경과 김혜숙(1995a)은 “만약 여성들로부터의 저항이 별로 없었다면, 이러한 침묵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라고 물으면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인을 제시한다. 첫째, ‘단절’ 기제를 이용한 성차별 저항의 무기력화, 둘째, 구조적으로 초래된 여성들의 부정적인 저항경험, 셋째,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저항 기피 문화가 그것이다.

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는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로, “제국주의의 수입품인 페미니즘”이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로 매도당해왔다. 그리고 남성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은 남녀간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게 되므로 남성들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여성들은 성평등에 대한 요구를 삼가야함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논의에 깔린 전제는 첫째, 성평등 사안에 대해 여성들이 충분히 설득하면 남성들은 설득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둘째, 성평등 관련 사안들은 영합(Zero-Sum) 게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전제 모두 비현실적이다. ...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분열과 대립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여성들이 성적 이해에 기반한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 간혹 드물게 이러한 ‘사소한’차별에 대해 개별적 저항이 있을 경

46)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운동단체들이 한국 사회운동 안에서 일종의 독자적 여성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독자적 여성주의 조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회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동시에 그러한 소속에 구애받지 않는 별개의 여성주의 조직 결성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여성운동단체는 제외하였다.

우 여성들 행동은 대부분 회화화되거나 무시되곤 하며, 이러한 저항의 과정에서 여성은 다시 한번 인간적인 모멸감을 경험하게 된다. 정서적 지지조차 없는 상태에서 저항을 시도했던 여성은 조직에서 이탈하거나 운동과 결별하며, 저항의 실패 경험을 통해 ...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습득하게 된다. . 운동권에 가부장적 위계구조에 대한 여성들로부터의 적극적 저항이 없었던 이유는 우리 사회 전체의 저항부재문화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유가사상에서 강조하는 중용(中庸)의 도(道), 그리고 중화(中和)의 사상의 ... 불균등한 적용은 어디서 오는가 . 첫째, 유가사상 내에 신(臣)의 군(君)에 대한 저항은 정당화해 놓은 반면 여(女)의 남(男)에 대한 저항은 어떠한 면에서도 정당화되지 않으며, 그리고 둘째, 민족, 계급, 지역 간의 갈등은 집단간의 갈등이라는 성격을 띠고있는 반면 여성과 남성간의 성별 이해에 따른 대립과 갈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순경·김혜숙, 1995a)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도전은 지속되기 어려웠다. 특히, 대부분 ‘개별적으로’ 가해지는 억압에 대해 ‘개별적으로’ 저항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은 구조적 이유들로 인해 번번이 부정적 저항 경험만 누적되기 마련이었다. 고립되어 있는 여성들의 상황을 보완하고 저항을 위한 최소한의 정서적 지지감을 줄 수 있는 ‘집단’의 형성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핵심적이다.

90년대 말 대학가를 중심으로 ‘여성주의’ 담론이 등장하고 확산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운동진영 내부 — 즉 노동, 문화, 국제연대, 정보통신, 환경, 평화, 인권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하는 사회운동단체에서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들이 여성주의 의식을 형성하고 스스로 ‘조직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99년 8월 <운동사회내 가부장성과 권위주의 철폐를 위한 여성활동가모임>의 결성이다.

사회운동 PC통신망 ‘진보네트워크’에는 여러 사회운동단체들이 CUG 및 FORUM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활동가모임> 결성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99년 5월에 있었던 일명 ‘민주노총 포스터 사건’이었다. 당시 민주노총은 남성만을 생계부양자로 상정하는 가부장적 이미지를 배경으로 “이제, 당신만이 희망입니다” 라는 문구를 인쇄한 노동절 포스터를 제작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사회운동단체 여성활동가들이 ‘진보네트워크’를 비롯한 온라인 게시판에서 포스터 배포의 중단과 재제작을 요구하며 자발적 시위를 벌였던 것이다

이 사건에서의 공동행동을 계기로 이후 통신망을 통해 문제의식을 교감하던 사회단체 여성활동가들은 99년 8월 말 첫 모임을 갖고 몇 차례 토론회를 진행하다가, 지난 1999년 11월 14일 민중대회 때 운동사회 내 성차별, 성폭력, 가부장성을 ‘컵’으로 상징화 한 <컵 깨기 행사>를 기점으로 발족을 선언했다. 보다 세련되고 교묘한 형태로 강요되고 있는 사회운동진영 내 성역할 분담에 대해 문

제제기하는 <컵 깨기 행사>는 당시 사회운동진영에서 커다란 주목을 끌었다. 다음의 <발족 선언문>은 이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스스로를 조직화하기에 이르렀는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사회 속의 남성”과 “남성활동가”를 구별했듯이 어쩌면 애시당초 여성으로서의 자아는 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었는지 모른다. 아니 우리 스스로를 “여성” 활동가가 아니라 의당 “중성” 혹은 “남성” 활동가로 생각해야 옳다고 강요받았다 ...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낙관주의적 다짐 하나로, 우리는 남성들이 갖춰놓은 문화와 활동방식, 언어와 세계관 속에서 날마다 허우적거렸다. 너무 모자라서, 배운 게 부족해서, 대인관계의 폭이 넓지 않아서, 정보 취득 능력이 부족해서, 변변히 아는 선배들이 없어서, 논리가 부족해서, 술을 잘 못 먹어서, 한뼘 부뒷허 보자는 식의 깡다구가 없어서, 가족들을 무시할 수 없어서, 애를 낳아 길러야 해서, 기동력과 체력이 떨어져서 이 모든 것은 언제나 성차별적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역량과 조건의 문제로 자책되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을 쪼개어 사람을 만나고 정보를 얻기 위해 내키지 않는 술자리도 마다하지 않으면, 그럼으로써 그들의 화법을 익히고 헌신성을 보여준다면 그들과 어깨를 동등히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다. 거추장스러운 여성을 떼어버린 우리들은 잠깐 안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위치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 동등한 학력과 경력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위파트너의 대우를 받아야했고, 그런 그녀가 유일하게 오를 수 있는 조직 내 최고의 위치는 언제나 넉넉한 가슴으로 조직의 안살림을 관장하며 남성활동가의 술주정을 받아주는 봉건적 어머니상의 관리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우리에게 집안의 온갖 큰일을 척척 해내는 형수이기를, 따뜻한 이불을 양보하던, 폭신한 베개 같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큰누나이기를, 재롱떨며 친जन만한 귀여운 막내 여동생이기를, 자신의 의식주를 아무 말 없이 너끈히 챙겨주는 부인이기를, 그도 저도 아니면 뽀뽀거리지 않고 묵묵히 웃어주며 감싸주는 여성이기를 요구했다. 우리는 혼란스러웠다 관점 다르고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요구 다른 그런 남성활동가들과 가부장적 조직질서에 대해. ... 성차별에 근거한 여성의 일방적 희생으로 얻어진 노동의 해방과 세계의 변혁에 대해 우리는 낙관적일 수 없으며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해졌다 혼란은 수습되었지만 우리는 이 “길”을 다루는 두 가지 방식을 놓고 고민하게 되었다. “비리거나, 개혁시키거나.” ... 우리는 배제 당하고 소외당한 피해자일지는 몰라도 환부는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먹고 성장해온 진보운동을 버리는 길이 아니라 판부를 잘라내는 방식을 선택했다. 여기 모인 노동/문화/사회/학생 단체 여성활동가들은 이제부터 운동사회 내부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며 성차별적인 구조가 혁신되는 그 날까지 타협 없는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여성활동가모임> 발족 선언문, 1999, 미간행)

여기서 우리는 생생한 경험을 통해 발전되어 온 여성주의적 문제의식들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활동가들에게 강요되는 이중, 삼중의 의무와 가부장적 여성상에 대한 비판, 남성활동가들의 이중도덕에 대한 비판, 자신들이 경험한 여성억압을 언제나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역량과 조건의 문제로 자책”하게 만드는 사회운동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자각과 함께, ‘탈성화-남성화되기 전략’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여성의 일방적 희생으

로 얻어진 노동의 해방과 세계의 변혁”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결론지으면서 자신들을 ‘피해자(victim)’로 규정하고, “진보운동을 버리는 길이 아니라 환부를 잘라내는 방식을 선택”하겠다고 선언한다. 이는 사회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이상 여성문제를 부차화시키는 사회운동의 이념적·구조적 가부장성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여성주의 의식의 표현인 것이다.

90년대 들어 더욱 세련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운동 내에서의 성차별과 여성억압은 많은 여성활동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해왔던 바였으며, <여성활동가모임>의 조직화를 기점으로 그녀들은 자신들이 오랜 동안 겪어 왔던 ‘이름 없는 문제’<sup>47)</sup>에 ‘이름’을 붙이고 체험을 발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컵 깨기 행사 취지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침에 사무실에 오면 컵이 즐비하다. ... 처음에는 상패한 아침 출근을 방해하는 이 잡동사니로 인해 열을 받기도 하지만 남을 위해 헌신하고 동료들 위해 배운다는 심정으로 또 그것이 일종의 조직에 대한 ‘기여’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박박 복복 씻는다. 그리고 이 상황은 반복된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여성 동료도 하게 된다. ... 손님이 온다. 손님이 오면 여성들은 자신의 손님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웃으며 반갑게 맞이하고 “차 드실래요?” 묻는다. 그러면 심중팔팔 손님들은 “네, 좋지요.”한다. ...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된다. 똑같이 일을 하고 있어도 왜 나만 자동인형처럼 일어나 밝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할까, 배웅해야 할까. 마음 속에 갈등이 시작된다. 남성 동료나 선배의 손님이 왔을 때 내가 대접했던 것만큼 내 손님이 왔을 때 이들과 충분히 대화하라고 남자들이 차를 타 준 적이 있나?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이제 내 행동을 돌아보게 된다. 화들짝 놀라서. 그리고 분해서. 내 손님이 와도 남성들은 그들과 대화하려고 그냥 앉는다. 자신의 사교와 정보취득을 위하여 그리고 나는 개수대를 오가며 물을 끓이고 컵을 씻어 기다렸다가 대접한다 그 무지하게 아까운 시간이 흘러간다. ... 우리가 바보 같다고 여길 지 모른다. 종이컵이라는 좋은 대안이 있다고 얘기할 사람도 있겠다. 그러나 문제는 컵 씻기로 대변되는 그와 같은 노동의 형태가 중요하다는 인식, 그에 대한 인정과 책임감 그런 게 남성들에게 없다는 것이다. 왜일까? 그 노동은 여성과 다르게 언제나 당연한 ‘전제’로 그들에게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노동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으며, 그 노동은 어머니와 누님, 여동생, 형수의 노동이므로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하찮은 노동이라 대의(大義)를 위해 일하는 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노동이 언제나 한 성에게 집중되어 업무의 능률을 훼손할 만큼 심각한 감정노동을 야

47) ‘이름 없는 문제’란 배티 프리던이 『여성다움이라는 신화』에서 사용한 말로서, 여성이 성숙한 개인이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취급되지 못하고, 유치한 여자다움이라는 그릇된 틀에 따라 남편이나 아이라는 대리를 통해 살아갈 것을 요구당한다는 데에 있었다. 그녀는 이는 바로 사회 문제이며, 당시 말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단순한 개인적인 부직용의 문제는 아님을 인식했던 것이다. 훗날 페미니스트들은 이 문제를 성차별주의로 이름 붙였다(터틀, 1999). 여기서는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여성활동가들의 문제의식과 저항이 문제제기 자체를 가로막고 저항을 무화시키는 구조로 인해, 그리고 여성의 일상적 경험을 담아낼 수 없는 운동 이념과 언어로 인해 제대로 ‘언어화’조차 되지 못해 왔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기한다는 데 있다. 여기서 차별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 컵이 필요할 때, 필요로 되어질 때 자신이 나설까 말까를 수없이 고민하는 여성들의 감정노동을 기반으로 남성들이 정치를 얘기하고 정당을 논하며, 논리와 이성을, 어설픈 관점에 입각한 썸박한 논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드러나지 않게 노골적인 불평등이 '물론과 당연의 진보운동세계'라는 패러다임을 기초로 세워지고 있다. (<여성활동가모임>, 1999년 11월 민중대회 <컵 깨기 행사> 취지문, 미간행)

여성활동가들은 성별분업이 교묘한 형태로 여성활동가들에게 강요되는 동안 남성활동가들은 사회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자원인 “사고와 정보취득”을 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강요받고 있는 노동은 “대의”에 비해 하찮은 것으로 폄하되어 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감정노동”이라는 용어의 사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자신들이 느껴야 했던 갈등 상황을 ‘언어화’ 하기 시작한 것이다.

위의 두 인용문에서 잘 드러나듯이, <여성활동가모임>의 조직화는 그동안 사회운동의 가부장적 구조에 의해 주변화 되고 배제되어 왔던 여성활동가들이 저항과 좌절의 반복적 경험을 통해 여성주의 의식을 형성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저항하는 것의 한계를 깨닫고 ‘집단’을 형성한 것이었다. 운동 조직들 사이의 ‘상호불간섭주의’가 철저히 관철되는 한국 사회운동 내부에서, 각자의 운동 주제와 조직적 소속감을 뛰어넘은 여성활동가들 사이의 연대를 이루어냈다는 점은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1999년 11월 발족 이후 <여성활동가모임>은 갖가지 조직내 성폭력 사건 및 폭력 사건, 사회운동진영 내 여성비하적 문화에 대해 문제제기 해왔으며, ‘능력주의’ 등 일상적으로 경험하지만 제대로 언어화되지 않아 온 여성억압들을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진행하고 운동사회 내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다른 여성단체들과 함께 개최하였다. 온라인 회원게시판 및 소모임 등을 통해 이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여성주의 의식을 고양시켜 왔으며, 각종 직접행동들을 통해 여성억압이 ‘설득’의 문제로 귀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해 가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토론하고 만들어 가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여성활동가모임> 내부에서의 의견 차이와 갈등 또한 다양한 수위에서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집단’을 형성한 이후에 ‘개인적 고립감’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성활동가모임> 자체가 주목받고 고립된 집단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성활동가들 각자가 처한 상황과 조건은 서로 다르며 또 매우 팽팽한 긴장 속에 있기도 하다.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인식과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녀들 사이에서 제기된 차이와 갈등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

루기로 하겠다.

### 3절. 여성주의 정체성의 갈등적 형성

‘대학가 여성주의자들’과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은 ‘주류 사회운동’의 가부장성 대한 비판 의식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자신들 스스로를 발명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집단이 형성해 온 ‘여성주의자’라는 정체성은 사실상 매우 복잡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류 사회운동’에 대한 입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점에서 차이와 갈등이 제기되어 왔다. 아래에서는 우선 9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되어 온 ‘여성주의자들’이 지니고 있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그러한 공통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대두된 차이와 갈등이 ‘해석되고 다루어지는 방식’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 (1) ‘여성주의자들’의 일반적 특성

앞서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이들 ‘여성주의자들’이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흐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주류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해 급진적 비판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스스로를 ‘주류 사회운동’과 단절하고 80년대 이후 이어지고 있는 기존의 여성운동 흐름과도 어느 정도 구분되는 ‘독자적’ 세력으로 정체화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이 진전시킨 비판적 의식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을 발전시켜 왔다

##### 1-1) ‘주류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급진적 비판의식

이들은 우선 전통적으로 승인되어 왔던 ‘보수-진보’의 대립 구도를 의문시하면서, ‘진보적’임을 표방해 왔던 ‘주류 사회운동’조차 지극히 가부장적인 질서를 구조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그러한 가부장성이 단순히 남성활동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을 직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더 이상 가부장적인 ‘주류 사회운동’의 정치적 우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운

동의 거부장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세밀한 부분에서는 ‘여성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만, 사회운동의 선험적 ‘진보성’을 부정한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일반 사회보다 더욱 특수한 구조를 통해 거부장적 질서가 재생산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다는 점에 있어서 공통적이다. 따라서 ‘여성주의자들’은 ‘주류 사회운동’에 대해 의존적이거나 종속적인 관계를 실질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80년대 이후의 기존 여성단체운동 및 ‘여학생운동’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비판적이며, ‘다른’ 여성주의 세력이라는 자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 1-2) 위계적 이분법에 대한 거부

이러한 비판의식에 의거하여 이들은 기존의 사회운동이 가정에 왔던 위계적 이분법들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물론 ‘전위-대중’, ‘지도자-추종자’라는 위계적 이분법에서 드러나듯이, 한국 사회운동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던 엘리트주의적 관점이 ‘지도자’ 위치에 있는 남성활동가들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며, 결과적으로 피억압자의 일상적 경험을 폄하할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문화와 조직 구조를 낳았다는 점은 ‘여성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90년대 중반 이후의 젊은 사회운동가들에게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인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성주의자들’에게 위계적 이분법에 대한 거부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것이 결국 ‘주요모순-부차적 모순’, ‘전체운동-부분운동’이라는 구분에 의해 여성운동을 주변화하고 여성주의 의식의 발전을 저해해 왔던 주된 기제였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sup>48)</sup>. 이러한 문제의식은 항시적으로 ‘주류 학생운동’과의 관계 설정 문제에 부딪혀야 했던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에게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sup>49)</sup>.

## 1-3) “여성문제는 설득이나 설명의 문제가 아니다”

소위 ‘운동권 남성들’ 혹은 ‘진보적 남성 지식인들’과의 개별적·집단적 논쟁 과정에서, ‘여성주

48) “이러한 전제는 주류 남성활동가들이 주도하는 운동은 ‘중심모순’에 저항하는 ‘전체운동’이고, ‘부분운동’은 ‘중심모순’에서 파생되는 부차적인 문제를 다루는 영역이라는 이분법을 만들어 냈다. ‘전체/부분운동’의 이분법 안에서 여성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부분운동’ 주체들은 항상 주변화된 주체가 되며, ‘부분운동’은 ‘전체운동’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의무에 충실할 때만 그 중요성을 인정받는다.” (허나윤, 2000 46-47)

49) “학생운동진영에서 ‘부분운동’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92년 이후부터이다. 부분운동은 당시 논의되었던 시민운동의 개념에서 나온 말로서 교육, 여성, 환경운동 등이 대표적인 부분운동으로 규정되었다.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분리주의’라는 비판을 받던 여성운동은 ‘전체-부분운동’이라는 틀에 배치되면서 학생운동과 여성운동간의 선차성의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김현영 외, 1999 10)

의자들'은 여성문제의 해결이 설득이나 설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페미니스트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과 마찬가지로 사회운동을 하는 남성들 역시 성평등에 대한 요구가 남녀간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합리적 이성과 논리적·과학적 설명을 중시하는 한국 '주류 사회운동'의 남성중심적 문화 속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발화는 끊임없이 "논리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요구받게 된다(김혜경, 2000). 그러나 일반적으로 두 이해관계 당사자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성질일 때 약자의 강자에 대한 설득은 논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특히 뿌리깊은 가부장적 관념, 성차별적 여성관은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조순경·김혜숙, 1995a). 반복되는 싸움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여성주의자들'은 여성문제가 설득이나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남성중심적으로 구조화된 언어와 논리, 합리성의 틀로 여성문제를 '번역'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성의 경험과 문제의식은 오히려 더욱 발화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각각의 '여성주의자들'이 부딪히게 되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 그녀가 어떠한 대응 방식을 취하는가는 그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때로는 어느 정도의 '논리적 설명'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여성문제가 "남성들을 잘 설득함으로써"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라는 인식은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4) 비위계적 조직체계에 대한 실험

'주류 사회운동'에 대한 비판의식의 급진화는 가부장적 구조가 반드시 직접적인 '여성-남성'의 대립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 학벌주의 등 다른 형태의 위계구조와 결합된 복합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여성단체운동들 중에서 전국적 규모의 주요 여성단체들 또한 의사결정권과 정보의 집중 등 의도하지 않은 조직적 위계를 구축해 왔다는 점에서 비판된다. 권위주의적으로 위계화된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비판은 여성주의 조직이 기존 '주류 사회운동'이나 '여성단체운동'과는 다른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함의를 만들어 냈으며, '비위계적 조직체계'에 대한 실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왔고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학생회 질서'의 위계적·가부장적 구조와 '대표 및 대리'가 결과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해 비판하는 가운데,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조직적 실험을 해왔다. 90년대 중반 이후 활성화되었던 대학간(間) 연대조직 결성이나 소규모 '자치모임' 형태로 결성되는 여성주의 조직형태를 선호하는 것은 뚜렷이 관찰되는 현상이다. <여성활동가모임> 또한 대표를 따로 두지 않

고 온라인 회원게시판 등을 통해 회원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가급적 조직의 ‘대표’를 두지 않으며 모든 구성원들이 책임과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수평적 질서를 옹호한다는 점, 그리고 의사결정이 특정인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공유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구비하는 것 등이 ‘여성주의자들’ 및 그녀들의 운동 형태가 지녀 온 네 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1-5) 자율성과 ‘실질적’ 평등에 대한 옹호

위계적 조직체계에 대한 거부는 자연히 자율성에 대한 옹호와 ‘실질적 평등’에 대한 심화된 고민으로 이어진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과거 80년대 이후 ‘주류 사회운동’이 지녀 왔던 상명하달식 의사소통구조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비판만이 아닌 실천적 실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시행착오와 그에 대한 성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여성주의자들’은 앞서 언급한 ‘비위계적인 조직체계에 대한 실험’을 하는 가운데, 구성원의 자율성과 ‘실질적 평등’이 이상(理想)과 슬로건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는 몇 가지 요인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가령 구성원들의 ‘자율적 참여’에 모든 의사결정과 사업 진행을 맡겨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일부 여성들의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반대로 일부 여성들의 발언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대화가 여성주의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학 내 및 대학간 조직에서 9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여성활동가모임>에서도 이러한 문제제기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효율성과 성과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면서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실질적 평등’ 옹호를 위한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주목할만한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 1-6) ‘일상의 정치’에 대한 중시

마지막으로 ‘여성주의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은 ‘일상의 정치’ 혹은 ‘일상의 정치화’라는 입장이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며 정치적인 것은 또한 개인적인 것’이라는 여성주의자들의 통찰은 공사이분법에 대한 도전과 더불어 정치학의 반경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비정치적인 것이라고 간주된 여성의 경험을 새로운 차원으로 해석하도록 했다. 여성주의자들은 기존에 비정치적인 것이라고 치부된 사적인 공간과 개인적인 관계들이 정치적임을 드러냄으로써 개인적이라고 여겨진 장이나 일상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저항의 정치학을 고찰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남성=공적=정치적’, ‘여성=사

적=비정치적'이라는 틀이 성립될 수 없음을 보여주며, 오히려 이러한 틀이 여성의 저항경험을 삭제하는 정당화 도구였음을 드러낸다. (김화숙, 1999 : 17)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라는 제2물결 페미니즘의 슬로건은 90년대 이후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체현되고 있다. ‘일상의 정치’에 의해 비로소 비가시적이었던 여성의 경험이 드러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의 공사 이분법과 일상에 대한 평가가 단순한 ‘불충분함’이 아니라 여성의 저항을 억제하는 가부장제의 적극적인 전략이라고 비판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상의 정치’는 ‘억압’, ‘정치’, ‘운동’, ‘진보’ 등 기존의 ‘주류 사회운동’이 전제했던 패러다임 자체를 재개념화하는 중대한 도전으로서, 90년대 중반 이후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실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 (2) 숨겨진 갈등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여성주의자’라는 정체성은 어떤 단일하고 동질적인 집합적 정체성이 아니다. 각자가 놓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여성주의자’라는 범주는 서로 다르게 해석·통용되고 있으며, 자신을 ‘여성주의자’로서 정체화하는 이들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확고한 것으로 단정짓지 않고 있다. 즉, ‘여성주의’가 무엇이며 ‘여성주의자’라는 정체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끊임없는 해석과 재구성의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90년대 중·후반은 특히 ‘주류 사회운동’ 및 기존의 여성단체운동과 일정정도 구분되는 새로운 ‘여성주의 정체성’을 발명해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는 정체성 형성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여성주의자들 사이에서 ‘차이’가 제기되고 다루어지는 방식은 매우 갈등적임과 동시에 쉽사리 표면화되지 않는 것이었다. 차이가 숨겨지고, 다시 감정적인 대립으로 극대화되는 모습은 ‘대화가 여성주의자들’과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내부의 숨겨진 갈등들’이 두 집단 모두에게 존재했음을 입증한다.

우선, ‘대화가 여성주의자들’이 설정한 의제(agenda)와 운동의 방식들은 ‘주류’ 학생운동에 대한 명시적 비판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주류 학생운동’으로부터의 단절은 8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대학 내 여성운동의 지배적 양상이었던 ‘여학생운동’과의 단절을 필연적으로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류’ 학생운동 및 기존 ‘여학생운동’에 대한 비판이 모든 ‘대화가 여성주의자들’에

게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으며 따라서 ‘여성주의자’라는 정체성은 동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특히 여성주의 운동이 ‘주류 학생운동’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과 감정은 매우 다양했는데, 이는 대체로 ‘적극적 비판의 길’과 ‘분리 및 독자세력화의 길’이라는 두 입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이 놓여 있는 조건상 학내에서 ‘주류 학생운동’과 일상적으로 부딪혀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쟁점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으며, 그것은 동시에 여성주의 정체성의 범위(boundary)를 일시적으로나마 확정하는 데에 중요한 축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이 학생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의 문제의식을 보다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새로운 여성주의 운동의 의제·운동방식·문화를 확산시켜 왔던 것은 — 따라서 보다 ‘순수한’ 또는 ‘진정한’ 여성주의자로 여겨졌던 것은 ‘분리 및 독자세력화의 길’을 선택한 흐름이었다. 반면 ‘적극적 비판의 길’을 선택한 흐름에 가까운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주의’의 규정성이 ‘주류 사회운동’에 대한 반정립(negation)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짐에 따라 정체성의 갈등을 느끼게 되었다. 이처럼 ‘주류 학생운동’에 대해 비판의 강도에 따라 여성주의적 ‘순수성’ 혹은 ‘진정성’이 정의되기 시작하면서 ‘대학가 여성주의자들’ 사이에는 불편한 감정과 암묵적인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이를 둘러싸고 ‘차이’의 문제가 고민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류 사회운동의 물적 담론적 지배 하에서 여성주의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라는 범위(boundary)를 확정하고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쉽게 표면화되거나 논쟁되지 않았다. ‘차이’에 대한 성찰적 인식과 표면화된 논쟁이 진전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심각한 감정적 대립과 불신이 생겨나고, 이것이 다시 여성주의 정체성 자체에 대한 혼란으로 이어졌던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다음으로 <여성활동가모임>은 아직 ‘여성주의 담론’이 확산되기 이전에 맑스주의 계열 사회운동을 해왔던 여성활동가 다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러한 조건으로 인하여 ‘대학가 여성주의자들’과 같은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가부장성에 대한 경험을 누적시켜 오다가, 사회운동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여성주의 의식을 획득하고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로서 “커밍아웃”하게 되는 경로를 거친다.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주의 정체성은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 의식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비교적 젊은 층으로 구성된 소위 ‘새로운 사회운동단체’에서조차 보다 교묘화된 형태로 가부장적 구조가 온존하고 있다는 것을 일상적으로 체감하게 됨에 따라 점차 여성주의 의식을 급진화 시키게 된다. 그러나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 사이에서도 각자 서 있는 맥락과 조건, 전략의 차이는 곧 가시화되었다.

무엇보다도 <여성활동가모임>이 사회운동진영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자체가 독립적일 수

밖에 없으며 각각의 구성원들 역시 매일 매일의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여성주의 의식은 급진적인 한편 매우 불안정하다. 따라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싸움”의 현장에서 다른 관점이나 입장, 혹은 다른 전략을 취하는 여성들의 존재는 이들의 여성주의적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여겨지며, 많은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은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신중해야 하고’ ‘상처받기 쉬운’ 것으로 생각하며,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다. 이들의 경우 특히 <여성활동가모임>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결속된 멤버쉽으로 인해 ‘차이’는 더욱 문제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여성활동가모임>은 단순히 자발적인 정치적 결사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고립된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가부장성과 대면해야 하는 여성활동가들에게 정서적 지지집단이자 ‘피난처’이며 동시에 의식고양(Lerner, 1977)의 핵심적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여성활동가모임>을 통해 이루어진 경험의 공유와 감정적 치유 과정들은, 구성원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여성문제와 관련된 ‘차이’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견해의 차이이건, 특정 사건에 대해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전략의 차이이건 간에) 그 자체가 ‘우리’라는 범주를 의문시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동안 제기된 다양한 수준의 ‘차이들’은 쉽사리 공개적 토론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심화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 다른 형태의 ‘뒷다미들’과 함께 당사자들 모두에게 ‘상처를 남긴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활동가모임>을 특징짓는 ‘운동사회 안에서 여성운동을 하는 여성활동가들’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의문스럽게 하는 것이었다.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 사이에서 ‘내부의 차이’가 갈등적으로 제기되고 그것이 ‘여성주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여성주의자들’이 어떤 동질적이고 단일한 집단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개인사적으로 볼 때,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경험으로 볼 때, 그리고 각자가 놓여 있는 과거 및 현재적 조건으로 볼 때, 사실상 수많은 ‘서로 다른’ 여성주의자들이 존재한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과정’ 속에 놓여 있으며 그 자체 맥락의존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90년대 중반 이후 ‘여성주의자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 또한 이러한 구체적 맥락에 대한 연구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점을 맥락화해 봄으로써 보다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여성주의자’라는 범주 자체가 어떠한 맥락에 의존하여 어떻게 해석되고 있었는가, 둘째, 어떤 기준을 통해 서로 간의 비교와 구별짓기가 행해졌으며 ‘여성주의’를 정의 내리는 힘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셋째, 90년대 중반 이후 ‘여성주의자들’ 각각이 놓여 있던 맥락과 조건은 어떠했으며, 그러한 맥락과 조건

의 차이가 어떻게 해석되고 또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4장에서는 우선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이 여성들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져 왔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온폐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특수한 이념 및 문화가 ‘대화가 여성주의자들’과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 각각의 여성주의 의식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결과 ‘여성주의자’라는 정체성은 각각 어떠한 양상으로 재구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실천적 비판을 행해 왔다는 점에서 이들 ‘여성주의자들’은 한국 여성운동사에서 새로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5장에서는 90년대 중반 이후 여성주의자들의 등장 과정에서 ‘차이’라는 문제가 어떤 맥락 속에서 의미화 되었으며 왜 쉽게 드러나지 못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숨겨져 왔던 갈등을 드러내고 맥락화하여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와 ‘연대’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 제4장 90년대 중반 이후 여성주의 정체성의 형성과 의의

이 장에서는 우선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이 여성들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져 왔는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비판 의식의 급진화가 90년대 중반 이후 여성주의 정체성의 형성과 세력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 맥락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각각의 여성주의자들이 놓여 있었던 조건과 상황을 맥락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여성주의자’라는 정체성이 각각 어떠한 양상으로 재구성되어 왔는지, 그리고 ‘여성주의자들’이 한국 사회운동사 및 여성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의가 무엇인지를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다.

### 1절. 대학가 여성주의자들

#### (1) 사회적 배경

90년대 중반 이후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전면화 시킨 흐름 중의 하나는 다름 아닌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이다. 이들은 구 사회주의권의 몰락 및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의 유행, 그리고 ‘신세대 담론’과 소비주의적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학생운동의 위기’가 논의되던 90년대 초·중반에 대학생활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여성학 수업이 일반화되어 있었고(김현미 외, 1999), 성정치 및 동성애자운동을 비롯한 ‘새로운 사회운동들’이 출현하면서 사회운동지형이 일정정도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이 같은 상황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내에서 여성운동을 시작하게 된다<sup>50)</sup>.

주요 심층면접대상자는 대체로 93학번에서 96학번에 걸쳐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맑스주의 계열 학생운동의 경험(혹은 학생운동 주변부의 경험<sup>51)</sup>)을 갖고 있는 수도권지역 ‘대학가 여성주의자

50) 본 논문에서 심층면접한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맑스주의계열 학생운동을 하다가 여성주의운동을 시작한 경우와, 처음부터 여성주의 운동을 해왔던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51) ‘학생운동 주변부의 경험’이라 함은, 학생운동의 주요 조직이라 할 수 있는 학생정치조직이나 학생회가 아니더라도 ‘운동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동아리나 학회, 혹은 학생운동의 최소 단위로 할 수 있는 과 학생회에서 활동한 경험을 말한다. 본 논문이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중 일부가 활동했던 이러한 소규모 단위들은, 학생정치조직만큼 고도의 정치적 성향을 띠지는 않지만 문화적으로 그 영향력 하에 있으며, 학생운동의 이념이나 운동 방식에 대해 일정정도 습득할 수 있을 정도의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들'이다. 학생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과거와는 다른 운동'을 경험하거나 실험할 수 있는 조건 속에 있었다는 이 같은 배경은,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이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본격화할 수 있었던 조건이다. 즉, '학생운동의 위기론'이 확산되고 대학 내에서 보다 자치적인 운동방식과 새로운 사회적 이슈들(환경/인권/교육/장애우 등)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과거 '여학생운동가들'과는 달리 일정정도의 '선택의 여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랫동안 학생운동에 내용적·조직적·문화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던 '여학생운동', 그리고 제도화된 '주류 여성단체운동'과 구분되는 새로운 대학 여성운동의 흐름이 9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들은 여성주의적 담론을 실천의 영역 전반에 확산시켰으며, 새로운 운동방식·문화·조직구조를 실험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대학 내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학생운동조직에 집중되어 있는 자원들(공간, 예산, '대표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으며, 학생운동진영과 일정정도의 접촉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들이 표출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은 학생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다 심화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90년대 초·중반 당시에는 '학생운동 위기론'의 등장과 함께 각 대학별로 정파적 노선의 분화가 서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각 대학마다 운동의 상황이 크게 달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과 조건의 차이야말로 나중에 다룰 '대학가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갈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맥락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주의자들의 정체성이 상호 간의 비교와 구별짓기를 통해 형성되기도 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차이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다른 여성주의자들'과의 비교가 가능했던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 지역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이 여러 가지 대학 간 연대모임(<나뻘모임>, <들꽃모임>, <학내성폭력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원회>,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 연대> 등)을 만들어 서로 다른 대학에 있는 여성주의자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러한 대학간 연대모임을 통해 성폭력, 여성노동권, 미인대회 반대, 군가산점 반대 등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해 왔다.

아래에서는 각 사례의 서로 다른 개인사적 맥락을 드러내는 가운데 이들의 문제의식을 개괄해 보도록 하겠다.

---

90년대 이후 '학생운동 활동가'를 규정하는 기준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허나운(2000) 참조.

## (2) 주류 학생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경험과 ‘내적 갈등’

대부분의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은 학생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해 직·간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들이 과거에 “경험했다”고 해석하고 발화해 온 학생운동 내 가부장성의 양상은 크게 다섯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일반 사회와 다른 남성중심적·여성비하적 문화, 둘째, 여성활동가를 배제하는 조직 구조, 셋째, 학생운동진영 내 성폭력 사건과 그것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넷째, 학생운동에 대한 대학가 여성운동의 구조적 종속, 다섯째, 학생운동의 선도성 및 계급모순의 중심성을 주장하는 가부장적(paternalistic) 운동논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운동 내 가부장성에 대해 ‘대학가 여성주의자들’ 각자가 지니고 있는 경험의 종류와 깊이는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맥락적 차이로 인해 그녀들이 경험해 온 ‘내적 갈등’의 양상 또한 상이하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의 여성주의 정체성이 ‘학생운동가’로서의 정체성과 일정정도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학생운동에 대한 입장을 둘러싼 ‘대학가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서로 다른 입장들 뒤에 어떤 맥락이 놓여 있는지, 그리고 표면적으로나마 여성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했던 90년대 중·후반에 여성운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내적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e의 경우, 학생운동 주변부에서 활동하다가 자연스럽게 학생운동을 하다가,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몇 가지 경험을 거치면서 비슷한 시기에 대학 여성운동도 시작하게 되었던 경우이다. 사례e가 기억하고 있는 학생운동진영 내 가부장성에 대한 경험들 중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관찰되는 조직 내 성별분업이 어떻게 여성활동가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언급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여성활동가는 ‘학회장’ 등의 책임 있는 지위에 적합하지 않다는 식의 성별분업 논리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사회 일반의 가부장적 인식과 거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오늘날의 학생운동 조직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술자리’에서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남성활동가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자원이 차별적으로 배분됨에 따라 여성활동가들은 구조적으로 주변화 되는 것이다. 실제로 사례e도 활동 과정에서 “여자 애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들한테도 후배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했으며”, 남자선배들이 “뒤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여성활동가들을 배제함에 따라 “여성 활동가들이 서있을 자리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다른 여자 선배들의 경험을 피상적으로나마 들을 수 있었던 기회, 그리고 소위 ‘술자리 문화’를

통한 남성들만의 네트워크 형성과 그에 따른 여성 배제를 경험하는 과정 등을 통해, 사례e는 자신이 ‘남성화’될 것으로 요구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여성활동가들을 분할·경쟁시키는 학생운동진영 내 고질적 가부장제에 적응했었다고 성찰한다. 이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가부장적 성별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자선배를 별로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는 그 여자선배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내가 계속 져어있었던 건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회의하고, 공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주고받을 수 있는 과정. 사실 남자들끼리 술자리에서 오고가는 그 진득한 것을 분명히 앞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석상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환상을 못 버렸어요. 그 여자선배는 특히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만났거든요.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나서 얘기하는 방식. 회의석상에서는 그 언니가 사실 별로 하는 일이 없었어요. 좀 고학번 남자 선배가 거의 얘기를 하고 주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여자 선배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제대로 하고있지 못하고, 남자선배의 주도에 이끌려 간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고. 당시에 그 여자선배가 “다른 남자후배들을 만나봤는데 개네들이 나를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다”고 나한테 토로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나는 솔직히 그게 너무 짜증났었죠. — (사례e)

한국 사회운동가들은 ‘전면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집착하는 경향이 많다. “공적인” 토론을 중시하는 사회운동의 지배적 규범 속에서 사례e 또한 “공적인” 방식을 통해 이상적 인간관계가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방식으로만 인간관계를 맺는 여자 선배들이 탐탁치 않게 여겨졌던 것이다.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와 인정을 필수적 구성요소로 하는 사회운동 속에서, 여성활동가에 대한 구조적 배제와 남성적 기준에 따른 여성활동가의 ‘능력’에 대한 폄하는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성활동가들 사이의 경쟁과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당시 사례e는 여성모임과 학생운동조직을 동시에 하고 있었는데, 초기에는 학생운동의 가부장성을 단편적으로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대안적 학생운동’(가령 학회활동이나 자치 운동)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모순적이라고 느끼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학생운동 정치조직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학생운동 내 가부장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보다 심화되게 된다. 90년대 중·후반 당시 학생운동진영에도 새로운 사회적 이슈들(교육/환경/여성/인권/장애인 문제 등)을 다루고자 하는 경향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사례e에게 표면적·형식적으로는 “자치”와 “자율”, 그리고 “다양한 운동들 사이의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던 이중성에 대한 실망감은 매우 컸다.

나는 당시에 여성운동 쪽을 많이 우선시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학생운동정치조직에서 ‘애는 여성주체’<sup>52)</sup>라고 규정 내리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왜> 서로 얘기를 한 적이 한번도 없

있거든요 ‘이런 이런 영역운동들이 생겼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존중한다, 내부에서 다양한 운동주체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나한테 한 적이 없었고, 그냥 자료집 하나 던져주고 ‘읽어봐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재는 당연히 여성주체’고, ‘재가 끌어들이는 애는 ‘우리 애들’, 그런 식으로 여기서 규정 내리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다른 운동을 하고 있는 애들한테 여성 관련된 행사를 같이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면, ‘애 빼간다’고 또 뭐라고 하고... — (사례e)

이처럼 “노동운동 중심성”에 대한 신념 하에 소위 “영역운동”에 대해 폄하하는 학생운동 이념의 포섭주의적·가부장적(paternalistic) 특성은 ‘자치적 흐름들 사이의 수평적 연대’를 모색하던 사례e의 내적 갈등을 계속 심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계급모순에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문제를 주변적인 운동주체로 폄하시키는 것은 한국 맑스주의 계열 운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며,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이 ‘내적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사례e 또한 학생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초기에는 자본주의적 모순이 “우리의 상황 전체를 규정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배워왔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영역운동’보다 더 포괄적이고 특권적인 지위로 개념화되어 있는 ‘노동운동 중심성’을 깊이 체감하게 되며, 점차 이러한 이념적 논리가 여성문제에 대한 맑스주의 계열 학생운동의 포섭주의 논리와 연관성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같은 정파에서 다른 ‘영역운동’을 다른 학교에서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말이 잘 통해요 근데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만났을 때는 정말 안 통해 절대, 서로 융합할 수 있는 지점이 없고, 정말 의사소통이 거의 안됐어요. 불만도 많았고, 굉장히 많이 회의가 들고 다양한 운동들 사이의 동등한 ‘연대’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내가 과연 내가 생각하는 운동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거든요 ‘영역운동’을 평가절하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어이없게도 너무나 화가 났고... 내가 그때 “왜 노동운동은 영역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라고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예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대충 “노동운동도 영역운동이라고 얘기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넘어가는데, 실제로 문서를 보거나 뭘 봐도 노동운동은 ‘영역운동’이라고 얘기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자본주의라는 건 정말 근본으로 딱 서있는 무엇이고, 지금 이 상황은 어쨌든 자본주의 상황

52) ‘여성주체’란 ‘여성부문 담당자’라는 의미로서, 이는 당시 학생운동 정치조직에서 크게 유행했던 ‘다양한 운동들 사이의 수평적 연대’라는 슬로건에 따라 여성, 환경, 인권, 교육 등 기존의 계급정치에서 다루지 않았던 운동을 ‘부문운동’ 또는 ‘영역운동’으로 칭하게 되면서 정치조직 내에도 각 부문운동의 담당자들이 생겨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학생운동 정치조직에서 맑스주의 이념 및 계급모순의 ‘중심성’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으며, ‘부문운동’은 이러한 ‘중심성’을 전제하는 한에서만 용인되는 주변적이고 부차화된 존재였다.

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은 자본주의로부터 파생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대등한 연대’라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 (사례e)

당시 ‘다양한 적대’, ‘서로 다른 운동들 사이의 동등한 연대’, ‘자율과 자치’ 등의 담론의 유행 속에서 ‘주류 학생운동’ 내에서도 그러한 변화가 가능하리라 여겼던 사례e는,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노동운동 중심성이 주류 학생운동권에 지배적인 운동이념이며 “대등한 연대”라는 슬로건이 공문구에 불과함을 깨닫게 되면서 학생운동 정치조직을 그만두게 된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중심성”과 “학생운동의 선도성” 주장에 대한 반발감은 다른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의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이다. 사례e와 비슷한 경로로 ‘여성주의자’가 되었던 사례b의 경우를 살펴보자.

사례b는 남성중심적 문화가 지배하는 집회에서 “자아분열”을 느끼고 몇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여전히 맑스주의계열 학생운동과의 직접적 단절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었다. 이는 여성주의와 맑스주의의 이념적 ‘통합’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아래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난다.

97년도 겨울에 후배들하고 처음으로 로즈마리 통 책(『페미니즘 사상』) 가지고 세미나를 해본 건데,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세미나를 밥도 안 먹고 계속 했어요.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 맑스주의 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으로 가면서 그 가슴 떨리는... ‘이제 사회주의에서 어떻게 될까, 제발 잘 합치거나 할까’, 이러면서, ‘야, 이제 우리 사회주의 해보자’ 이랬는데 애들 막 실망하고... “언니 사회주의페미니즘이 이런 거였어요?”, “나도 실망이야” 하면서... — (사례b)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이 학생운동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자신의 고민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당시, 사례b에게 중요했던 것은 맑스주의와 페미니즘이 이념적으로 “제발 잘 합치는” 것이었다. 학생운동가로서의 정체성과 여성주의 의식을 양립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로 인해 “자아분열”을 느껴 왔으며, “계급운동과 여성운동을 어떻게 매치 시켜야 될지 너무 고민”인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맑스주의계열 운동을 하는 여성활동가들에게 있어서 이념적 ‘통합’에의 욕구가 얼마나 절실한 것이었는지, 그것이 왜 “자아분열”을 낳으며 정체성 형성에 있어 ‘내적 갈등’을 초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는 그냥 여성운동 하는 게 좋았는데, 계급운동과 여성운동을 어떻게 매치 시켜야 될지 너무 고민인 거예요. 여성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마음먹기 전까지는 계급운동이 굉장히 나한테 컸거든요. 굉장히 자아 분열적인... 이거를 어떻게 매치 시켜야 되나, 뭐가 더 중요한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은 어느 자리에 있는 운동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 (사례b)

여성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후에 “자아분열”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계급운동” 자체가 계급모순을 가장 중심적이고 최우선적인 것으로 상정하는 이념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한, 여성운동은 여전히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례b는 활동 과정에서 결국 표면적으로 구색만 맞추려 할 뿐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자신 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현실로 입증됨에 따라, 여성운동을 “계급운동”에 종속시키는 학생운동의 고착화된 운동이념에 회의를 느끼고 학생정치조직을 그만두게 된다.

총학 선거에 맑스주의계열 학생운동을 하는 우리 과 남자선배가 나왔어요. 나한테 ‘여성 정책 좀 내달라’... 근데 나는 그때 생각으로는 하고싶기도 하면서도 왠지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불쾌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압력을 넣고 활동을 하긴 했는데 저는 실망한 게, 선거동안에는 후보들 교양 시키고 그러더니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제자리예요. 딱 느껴지더라고요. 정리 엠티 가서 여러 가지 구호 외치고 했던 얘기를 하는데 여성주의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난 정말 허무감 느끼고 화가 났었죠. 근데 저도 계속 비판을 하긴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사실 없죠. 맨날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전체 운동방향)을 재구성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고, 알고 있는데 분리주의적으로 인식이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좀 그렇더라고요. 내가 무슨 얘기할지 애들은 알고 있어. ‘애가 이쯤 해서 이런 얘기 할 때 됐지’, 뭐 이런 식인거지. 전보다 “맞아 ”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니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딱 포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A(학생운동 정치조직)에서 문서가 나왔어요. 근데 여성 관련 부분이 딱 한 줄 있었어요. 이만큼의 문서에. 포기했어요. 그때 “포기했다, 지금으로서는 A에 여성에 대한 문제의식 받아들일 만한 태도 없고, 난 지금 A에서 그런 거 A 애들한테 계몽하기보다 그냥 여성운동 하고싶다, 더 이상 너네 좌파활동가들 교육시키기 싫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너무 지겹고 그래서 나왔어요. — (사례b)

맑스주의 계열 학생운동 경험이 있는 ‘여성주의자들’에게, 가부장제에 대한 분석과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을 통합하려는 욕구는 공통적으로 매우 강하다. 기본적으로 “계급운동”의 원칙적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이념과 운동이 지니고 있는 물성성·반여성성 역시 문제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사례b 역시 ‘통합’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체적 재구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학생운동조직 ‘내부’에서 비판을 계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사례b는 “더 이상 좌파활동가들 계몽시키기 싫다”는 판단을 하고 학생운동정치조직을 그만두게 된다. 이는 여성문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여성주의자들’의 일반적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싸움”은 사례b에게 계속 되었다. 모든 사회적 모순들이 총체성 속에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대다수 맑스주의계열 사회운동가들에게 지배적이다. 따라서

여성문제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여성활동가들은 끊임없이 ‘대안적 총체성’을 제시하던지 아니면 기존의 맑스주의 패러다임에 따라 계급모순의 중심성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녀는 “맑스주의자들이 한 달에 한번씩은 시비를 걸어” 왔다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은 절대 얘기 안 하면서” “당신은 페미니즘진영의 대표로서 대답을 해야된다”고 말하는 맑스주의자들의 태도에 대해 문제삼았다. 이는 자기 자신의 일상에 대한 성찰을 선행시키지 않은 채 ‘이론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많은 남성 맑스주의자들의 전형적 태도를 드러내 줄뿐만 아니라, 여성주의자들에게 끊임없이 ‘대리전’을 요구함으로써 발언을 가로막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사회에 아직까지 여성운동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는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례b의 ‘단절’ 과정에서 단순히 운동 이념의 차원만이 문제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 이전에도 학생운동 내 성역할 분담이나 여성활동가들에 대한 배제, 그리고 성폭력 사건 및 은폐 과정을 겪는 등, 학생운동진영 내 가부장성을 여러 차례 심각히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여성활동가의 능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학생운동의 간부를 “너무 자연스럽게” 남성활동가로 결정하는 ‘주류 학생운동’의 교묘한 성별분업 및 여성배제는 쉽게 변하지 않는 강고한 구조이며, 다른 사례들에서도 이러한 구조에 대한 비판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후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사례b는 ‘주류 학생운동’이 지닌 가부장적 문화를 생생히 경험하게 된다.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던 학생회 간부가 가해자라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사건해결 과정에서 ‘조직보위의 논리’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 공론화를 통한 사건 해결을 지지하려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책임지고 간부직을 사퇴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보위의 논리 등은 운동사회 성폭력에서 특히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례b가 목격한 한 사건은 “여성주의 학생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당선되었던 학생회 간부가 가해자였다는 점, 해결과정 초기에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사건해결과정에서 다양한 2차 가해와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학생운동의 뿌리깊은 가부장성을 인식하게 된 중요한 경험이었다.

사례j의 경우는 보다 명확하게 ‘여성주의’로 좌표이동을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학생정치조직에서 학생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지만 그로부터 자의식적으로 ‘단절’한 상태에서 총여학생회에서 활동했으며, 이후 <돌꽃모임>, <돌꽃모임> 등 ‘대화가 여성주의자들’이 생성해 낸 몇몇 특징적인 그룹에서 활동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사례j가 주류 학생운동과 ‘단절’하는데 이르기까지 누적되었던 가부장성에 대한 경험들 또한 다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하면서도 전형적이었다.

여성활동가에게 ‘운동에 대한 헌신성’과 ‘전통적 여성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사회운동의 이중규범은, “여성활동가 특유의 헌신적 강인함”을 남자 선배들이 강조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운동가’라는

정체성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분열됨을 경험했던 사례에게서도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례를 “결정적으로 질려버리게” 한 일들 중의 하나는 여성활동가에 대한 무시와 폄하, 그리고 여성비하적 ‘농담’을 일삼는 일상적 문화이다. 이는 여성활동가들을 문화적으로 배제하는 기제와 결합되어 있다. 즉, “여자 후배 키워도 소용없다”는 가부장적 인식이 “남비”라는 여성비하적 표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처음에 열심히 하는 애들 보통 나중에 다 나가떨어진다. 근데 보통 여자 애들이 그렇다. 여자후배 키워도 소용없다”, 이런 식의 얘기들 “그래서 남비다”... 근데 남비라는 말이 굉장히 여성을 비하하는 성적인 언어잖아요. 그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킁킁 웃는 이런 분위기의 술자리가 몇 번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다른 단과대의 학생회장인 어떤 남자 선배가 내가 속해있는 단과대의 남자선배한테, “니네 단과대에는 너무 여자가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서로 약간 세력 과시를 하는데, 여자가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싸움이 붙었어요.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질려버렸죠. 그때는 워낙 선배들 권위도 쎄고 그러니까 내가 질려도 ‘여기를 내가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뭔가 계속 의심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의심받지 않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했죠. — (사례)

사례는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뭔가 계속 의심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그런 상황에서 학생운동가로서의 능력과 헌신성을 인정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했다고 한다. ‘여성’임과 ‘학생운동가’임을 양립 불가능하게 하는 주류 학생운동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여성활동가들은 정체성의 혼란과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런 경우 많은 여성활동가들은 ‘학생운동가’로서 인정받기 위해 남성적 운동규범을 내면화하거나 더욱 열심히 활동함으로써 “의심받는” 상황을 극복해보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여성운동을 시작한 이후 사례 또한 사례b와 마찬가지로 남성활동가들과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었으며, 그러한 “싸움”을 통해 여성운동을 ‘부차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 ‘학생운동에 종속된 것’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임을 극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남자 선배들이 나랑 여성주의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얘기할 때 “그런 공부를 해보자”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지식으로 인정해준 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정말 철이 없는 여자아이가 왈왈거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전형적으로 생각을 하죠. 여성운동은 ‘부문운동’ 어쨌고... 부문운동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정도였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다른 학생운동 정파에서 성정치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조직 친구들하고 우리 총여학생회 사람들하고 공부를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배신이라고 난리가 난 거야. 내가 있는 A조직에서, 성정치가 뭔지도 한마디도 몰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그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아, 이게 그냥 단순히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구나’... 그 사람한테 이미 여성주의는 입장이 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논쟁을 해도 다른 정파하고 논쟁을

할 때랑 너무 느낌이 다르고, 선배들이 태도부터가 풀어져 있는 게 느껴지는거죠 --- (사례)

여성운동에 대해 “부문운동만도 못하다고 생각”하고 “철이 없는 여자아이가 왈왈”거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태도, 여성주의를 하나의 지식이나 정치적 “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학생운동 진영의 ‘중심성’ 논리의 전형적 양상이다. 여성운동은 학생정치조직으로 대표되는 맑스주의계열 학생운동에 종속된 것으로 사고되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학생운동 정파에 속한 여성운동가들 사이에 연대 움직임이 있었을 때 이를 학생운동 정파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성주의자로서의 정체성과 학생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사례]에 게 있어, ‘여성주의’를 하나의 정치로서 인정조차 하지 않는 주류 학생운동에 대한 반감은 반복되는 경험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그녀가 총여학생회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을 때 대다수의 남성 활동가들은 반대했다고 한다. 학내 여성운동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총여학생회의 “존립 자체”를 문제시하는 이러한 태도들은 대학 내 여성활동가들에게 “평장한 설움”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출마 당시 “운동권”과 “운동권이 아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총여학생회 후보 출마를 반대했던 것은 ‘진보/보수’라는 구도와 상관없이 여성과 남성 사이의 어떤 권력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여성들에게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학내 여성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총여학생회로 대표되는 기존 학생운동의 ‘학생회 구조’ 및 ‘학생정치조직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구조 자체가 종속적일 뿐만 아니라 같은 학생운동조직에서도 자원이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배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사례]는 ‘단절’을 명확히 하고 학생정치조직 활동을 “정리”하게 된다.

그때 내가 총여학생회장 선거 후보로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 ○라는 남자 동기가 단과대 학생회장에 출마를 했어요. 근데 학생운동 정치조직에서 보통 돈 대주고 도와주잖아요. 난 그 돈 대주는 게 있는 줄 몰랐고, ○한테만 지원해준 것도 몰랐고 내가 받아야 되는 것도 몰랐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술자리에서 얘기하다가 ○가 선배들한테 되게 고맙다고 하면서 그... 쪽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물질적 지원이라는 게 사람한테 엄청나게 강한 죄책감, 의리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A가 갑자기 충성심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야. 근데 난 모르고 있다가 그 얘기를 딱 들었으니까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선배들한테 가서 “내가 총여학생회장에 당선됐지만 이제 나는 선배들이 원하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의 발언<sup>53)</sup> 같은 거 전혀 책임질 마음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 날 정리

53) “중앙운영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주류 학생운동’의 구조를 잘 보여주는 말이다. 대부분의 ‘주류 학생운동’은 ‘학생회 체계’라는 대중조직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총학생회로 대표되는 ‘학생회’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학생운동 ‘정파’들이 자리다툼을 하는 것은 일상적인 양상이다. ‘중앙운영위원회(약칭 중운위)’는 각 단과대 학생회장들과 총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이 모인 대학내의 가장 중요한 학생 의사결정기구이며, 정파간의 알력다툼이 첨예하게 벌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총여학생회장’이 어

를 해버렸어요 그전에 정리할 마음도 있었고 -- (사례)

이처럼 사례의 ‘단절’은 학생운동조직 내에서도 남성활동가들만의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여성활동가들이 그로부터 배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과 더불어 과거에 누적된 다양한 경험들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총여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이미 구조적·이념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대학 내 여성운동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는 있었다. 일반적으로 ‘학생운동’은 그 자체로서 ‘진보적’이라고 여겨져 왔으며 또 그렇게 자처해 왔기 때문이다. 사례가 총여학생회 선거에서 “진보적 여성운동”을 내세워야 했던 상황은 앞장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전체 사회운동/학생운동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80년대 한국 여성운동이 취해야 했던 전략과 별반 다르지 않다(조순경 외, 1995a). 하지만 사례의 경우에 있어 다른 점은, 이러한 혼란이야말로 종속되고 ‘억압’받는 대학 내 여성주의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 주었고, ‘학생운동으로부터 독립적인’ 여성주의 운동에 대한 의지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이다.

여성운동 비판하면서 여성운동이라는 단어 앞에 ‘보수적인’을 수식으로 붙인다던지, 아니면 ‘개량적인’을 붙인다던지, 아니면 ‘전체운동’과 상관없는 ‘이기적인’, ‘편협한’ 이런걸 붙여요 그래서 “아니다, 난 우리도 진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때 총여학생회 선거 모토에 “진보적 여성운동”이라는 말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강박관념이 심했는지 상상이 가죠. 이전까지는 대부분 정치조직에서 여학생활동가를 총여학생회에 파견해서 총여학생회를 따라되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분리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학생운동 정치조직이 총여학생회에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총여학생회 활동가들은 자기 활동에 대한 자긍심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요구되는 게 많으니까 혼란스럽고 힘든 거죠. 그래서 총여학생회 내부에 각자 서로 다른 정치조직에 속한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여성조직으로 있는 것이 굉장히 정체성화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억압받으니까, 일단 억압이 거기 존재하니까 -- (사례)

“일단 그게 더 억압받으니까”라는 사례의 말은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학생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경험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이후 총여학생회 활동 과정에서도 사례는 몇 가지 가부장성에 대한 경험을 더하게 된다. 그 중의 하나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성비하적 발언들이 학생운동구조 내에서 상층부에 위치한 간부들에 의해서 아무런 죄책감조차 없이 자행되며,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단순히 ‘무마’하려고 드는 남성활동가들의 모습을 확인

---

면 학생운동 정파의 ‘편’을 들어주는가는 정파간 세력다툼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총여학생회장’이 자기 정파에 유리한 발언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이 비밀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사례의 경우는 이전에 학생운동 정파에서 활동을 했던 상황이므로 당연히 ‘중운위’에서 그 정파에 유리한 발언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남자 선배들의 요구에 대해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했던 것이다. 한 예로, 사례j가 당시 총학생회장의 여성비하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그는 “회의 때 얘기하지 말고 따로 불러서”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가령 중앙운영위원회처럼 공개적인 장(場)에서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다른 학생운동 ‘정파’들에게 자신이 속한 ‘정파’를 공격하게 하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상의 문제와 정치의 문제를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여 성폭력을 그 자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정치적 대립의 ‘빌미’로만 생각하는 주류 학생운동권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을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역시, 성폭력을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운동권내 성폭력사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 중의 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운동권들이 자기네들의 도덕성이라는 것을 특권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건 특권적 지위야 왜냐면 우리가 ‘개네들이 운동권만 아니었으면...(더 강하게 싸울 수 있었을텐데)’ 하는 식으로 좀 집고 들어가는 면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쪽에서 말하는 태도라는 게, “운동권끼리 같이 감싸주고...” 이런 식으로, 그 운동권 범위 안에 우리 총여학생회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죠 편리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전유해간다는 느낌 느낌이 아니지 그건 운동권이 성폭력을 할 때 대개 (해결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운동권이라는) 정당성을 이용해서 특권적 지위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가해자만, “개 개인의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 왕따를 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이 바로 가해자를 왕따를 시키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도 집요하게 끌고늘어지니까, “애를 왕따를 시키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정말 웃긴 게, 조직 내에서는 왕따를 시켜요 권력이 없게 만들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친분을 유지하는 거야. 이진 되게 사적 친분이야 그렇게 만들더군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애는 그렇게 돌아와서, 우리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유예기간을 그런 식으로 둔 거죠 훗날을 기약해주는 거야. — (사례j)

운동권내 성폭력 사건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운동권 보호주의’ 혹은 ‘조직보위론’(전희경, 1998, <이제는 말하자! 운동사회 성폭력> 토론회 자료집, 2000)을 경험하면서, “도덕성”을 특권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와 맞닥뜨리면서, 그리고 “사적 친분을 유지”하여 “훗날을 기약해 주는” 과정을 보면서 사례j가 이전에 지니고 있었을 학생운동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는 사라진다. 앞서 언급한 사례b와 사례j가 ‘해석’하는 내용을 보면, 다른 경험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특히 운동사회 성폭력이 ‘단절’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키게 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운동사회 성폭력을 접했을 때, 더 이상 자신을 운동사회의 일원으로 정체화하지 않게 되는 결정적인 지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누적된 경험들, 특히 여성주의를 끊임없이 포섭하려드는 주류 학생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경험은 대화가 여성주의자들의 여성주의 정체성에 있어 핵심적이다.

### (3) 여성주의 운동의 ‘독자성’에 대한 자의식

여러 사례들에서 보았듯이, 실질적으로는 여성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동등한 연대 세력”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편리할 때마다” “자기 편”(즉 ‘같은 운동권’)으로 전유하는 ‘주류 학생운동’의 행태에 대한 반감은 ‘독자적’ 여성주의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며, 이들의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에 커다란 계기가 된다 이는 학생운동 경험의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례f와 사례d에 의해 보다 명확하게 발화되었다.

먼저 사례f는, 남성중심적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동아리에서 활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답답해” 지고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과 함께, 당시 주변 학생운동가들의 “침체”되고 “패배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가운데 총여학생회 선거 출마를 제안 받고 대학 내 여성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경우이다 특히 사례f는 총여학생회 선거를 나감으로써 “지지를 줄 수 있는 집단”을 얻을 수 있었고 이에 의해 그녀의 여성주의 정체감이 매우 “안정적”인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서 우리는, ‘지지집단’을 갖는다는 것이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얼마나 커다란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지지집단을 가진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총여학생회 선거를 나가게 되면서, 어떤 그런 여성주의 집단들이 형성이 되면서, ‘내가 어떤 발언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이에 관해서 지지해 줄 수 있는 집단이 생겼다, 있다’ 라는 안정감이 나의 정체감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정체감은, 여성주의 정체감이죠. 여성주의자로서의 정체감을 두고 총여학생회 선거 이전과 이후를 나눠본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는 나의 여성주의자로서의 정체감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안한 정체감이거든요. 왜냐면 그 집단에서 굉장히 바깥에서 항상 던져져 있거나, 아니면 문제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집단의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나는 다른 어떤 안정적 인,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성주의자라고 스스로를 부르거나 서로를 부르는 사람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넌 여성주의자지?”, “쟤 여성주의자니까”, “쟤 페미니스트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돼” 라던가 다른 사람의 이 굉장히 거리를 두는 호명의 방식들 속에서 나는 페미니스트였는데, 이제 총여학생회 선거를 하고, 그 여성주의 집단들 속에서는 서로에 대한 지지나 격려의 관점에서 페미니스트라는 정체감을 가지게 된 거죠 — (사례f)

그러나 별다른 학생운동의 경험 없이 ‘여성주의자’로서의 “안정적” 정체감을 획득했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사례f는 총여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경험했던 학생운동권의 ‘자기 편 만들기’ 시도에 대해서 대단히 “기분 나빴다”고 말한다. 이는 2장에서 지적했듯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여성주의 정체성을 획득한 이후에도 여성주의 의식이 언제든지 위협에 처할 수 있으며 또한 변화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Stanley & Wise, 1983). 특히 당시 사례f가 다니던 대학에서는 “학내 여성운동의 주도

권을 전적으로 (NL계열) 총여 쪽이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주류 학생운동권이 여성주의 운동을 “전유”하려는 시도에 대한 불쾌감은 과거의 학내 여성운동이 주류 학생운동에 대해 종속적이었다는 상황인식과 함께 ‘독자적 여성주의 운동’이라는 자의식을 갖게 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총여학생회선거 나가면서 A라는 맑스주의계열 학생정치조직 하고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함께 출마했던 ○가 A조직 총학생회의 성정치 국장을 하다가 총여학생회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A조직 쪽에서는 처음부터 ‘○는 우리 정치조직의 후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거작하기 전에 A조직 쪽에서 나온 후보들 결의대회 하는데 우리를 불러 가지고 옷도 같이 맞춰서 입자고 하고... 하지만 총여학생회 선거 같이 준비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A조직 쪽에서 나온 것처럼 보여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었어요. 나는 ‘갑자기 웬 내가 A조직의 후보야’ 이런 기분 나쁨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당시 선거 나오면서 굉장히 문제로 삼았던 것 중 하나가 NL계열 총여학생회에서 NL 쪽의 정치성을 가지고 여성문제를 보려고 하는 거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NL계열 총여학생회와는 ‘다른’ 여성운동을 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학생운동 정치조직과의 연결선상에서 시작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우리는 여성 문제로 접근하는 독자적인 집단으로 시작한다”, 이런 생각 — (사례f)

여기서 보듯이, 앞서 언급한 사례e, 사례b, 사례j가 90년대 중반 이후 대학가 여성주의 운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독자성’과 ‘자율성’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기존 학생운동권에 대한 ‘단절’에서 직접적으로 결과되었다면, 사례f의 경우는 주류 학생운동에 종속적인 ‘NL계열 총여학생회’에 대한 ‘단절’이 우선적으로 문제되었다가 선거 과정에서 학생운동권의 포섭주의적 ‘자기편 만들기’ 전략에도 비판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례d의 경우는 이와 동일한 문제의식이 훨씬 직접적이고 강하게 드러난다. 그녀는 대학 1-2학년 때 맑스주의계열 학회에서 잠깐동안 활동하다가 이후 당시 학내에서 새로이 형성되고 있었던 ‘성정치 운동’ 및 여성운동 흐름과 만나게 되면서 소모임 활동 등의 형태로 여성주의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녀는 맑스주의계열 학회에서 활동할 당시에 그러한 내용을 “내 언어로 받아들여서 풀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가, 여성모임을 시작하면서 “그 동안 해석 못하던 것들을 서로가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서로가 언어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힘 주고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사례d가 학생운동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었다는 점을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예를 들면 사례b와 같은 개인사를 지닌 ‘여성주의자’에게 있어 “계급운동과 여성운동”

을 “매치”시키는 것이 정체성 형성에서 중요한 문제였던 것과는 달리, 사례d는 당시 막 형성되고 있던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는 이후 학생운동에 대한 입장을 취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여성주의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죠 왜 그랬을까? 음...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나는 민족주의계열 동아리 그만두고 맑스주의계열 학회에도 별로 애정이 없는 편에 속했고, 거기에서 ‘내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만한 정도의 뭔가를 별로 얻거나 하지 못했었어요. 여성주의 모임을 시작한 것은 오히려 내가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할만한 ‘처음’의 일을 찾은 거였죠. 대학생활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예를 들어 사회과학학회를 열심히 했었다던가 다른 학생운동 정파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미 열심히 하는 뭔가가 있고, 그 기준에서 여성주의를 판단하는 거지. 근데 나는 그런 게 아니었죠. — (사례d)

이후 사례d는 학내 여성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운동권과 갈등적 상황에 놓였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sup>54)</sup>. 아래의 경험은 학생운동 ‘주변부’에 있으면서 맑스주의계열 학생운동(“좌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정적 친밀감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던 사례d에게, 학생운동과 여성운동의 관계 설정이라는 문제가 첨예하게 부각되었던 계기가 되었다.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를 난 잊을 수가 없어. 남자 좌파 학생회장들이 “당신들 공간이나 예산 요구할 권리 없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 계열 총학생회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그나마 귀담아 들어주고, “이 친구들한테 공간은 당연히 줘야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 NL계열 여자 학생회장들이었어요<sup>55)</sup>. 그러니까 ‘우리가 은근히 좌파한테 어떤 친밀감을 갖고 있다’

54) 당시의 상황에 대해 부연하자면, 이 대학에서는 학내에서 새로운 여성주의 운동의 흐름들이 생겨나면서 여성운동모임들 간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학생회 질서’에 대해 비판하면서 ‘총여학생회’가 아닌 다른 운동 방식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총여학생회 보궐선거에 기독교계열 후보가 등장하여 이들이 함께 ‘반대표 운동’을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보궐선거는 무산되었는데, 대신 당시의 기독교계열 총학생회가 ‘선거’를 거치지 않은 여성운동모임 연합체에게는 총여학생회 공간과 예산을 배당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에 여성운동모임 연합체는 총학생회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총여학생회 공간이 여성운동을 위한 공간임을 주장하게 되었다. 사례d는 그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했던 사람 중의 한 명이다.

55) 사례d가 ‘NL계열’ 학생운동가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학생운동 정파간 대립 중 가장 첨예한 것이 NL계열과 PD계열 사이의 대립이기 때문이다. 물론 NL계열 학생운동의 가부장성은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PD계열보다 더 가부장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험에서 보듯이, 여성문제는 기존의 ‘NL-PD’ 구도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발생하고 또 해석된다. ‘진보-보수’, ‘운동권-비운동권’, ‘NL-PD’ 등과 같은 기존의 대립으로부터 여성문제가 독립되어 있음을 경험하는 것은 사례d에게서도 나타난 바이다. 이러한 경험은 ‘독자적 여성주의 운동’이라는 자의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나 이런 거 정말 웃기는 거다, 그 사람을 봐야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 (사례d)

여성주의 운동을 위한 공간과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은근히 친밀감을 갖고” 있었던 “좌파(맑스주의계열 학생운동권)”들이 여성주의 운동세력과 반대 입장에 섰던 것은 사례d에게 배신감을 불러일으켰으며 감정적 유대감을 버리게 된 계기로 작용하였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여성운동 집단들은 공간과 예산 등 물질적 자원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학생자치권에 속하는 자원들은 모두 ‘학생회 체계’에 독점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내 여성운동을 학생회 체계 ‘바깥’에서 독립적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원획득은 종종 참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학생운동권의 ‘내부자’로서의 정체성이 거의 없었던 사례d에게 있어서 이러한 갈등은 주류 학생운동과의 정치적 및 정서적 ‘단절’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기존 주류 사회운동으로부터의 ‘감정적 거리감’은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여성주의자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대다수 여성주의자들이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많은 경우 이러한 ‘감정적 유대감’의 유무에서 비롯된다. 즉, 근본적으로 자신을 ‘사회운동’의 일원으로 정체화하고 있는가의 여부가 이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했으며, 사례b와 같이 그러한 ‘감정적 유대감’ 자체를 명시적으로 비판하는 경우 여성주의 운동의 ‘독자성’에 대한 자의식은 훨씬 명확해지는 것이다.

#### (4) 학생운동에 대한 적극적 비판 : 또 하나의 길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과는 달리, 학내 학생운동의 상황이 대단히 척박한 조건에 놓여 있었던 사례a, 사례c, 사례h의 경우, 학생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경험은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해석’은 다르며, ‘여성주의자로서의 정체성’과 ‘학생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 및 ‘독자적’ 여성주의 운동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스스로를 ‘사회운동’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주류 사회운동가들에 대해서도 일정정도 ‘신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운동에 대한 적극적 비판’이라는 이들의 입장은 대학가 여성주의자들 내부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다른’ 흐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다른’ 입장과 태도가 경험 및 조건의 상이성과 ‘감정적 유대감’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여자 대학을 다닌 사례a의 경우 다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운동을 할 수 있는 ‘자원’(공간, 재정 등)에 있어서의 종속성 및 그로 인한 ‘동원’과 “도구화” 현상, 그리고 여성문제를 다른 문제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취급받았던 경험은 똑같이 나타났다<sup>56)</sup>. 그러나 이를 문제시하는 정도나 수위, 그리고 그에 대한 감정은 현저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a는 학생운동을 하는 여자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여성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이후 총학생회 선거 출마 제안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학생운동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학생운동의 경험이 있는 여성주의자들의 경우, 친분에 의한 감정적 유대감이 여성주의 운동의 ‘독자성’에 대한 자의식 형성에도 일정정도 영향을 미치곤 한다

재정적인 것도 그랬고, 조직화하거나 이런 데에 사실 학생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기도 했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런 그 끈끈한 유대 때문에 동의되지 않는 집회에 나가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사업이 있을 때마다 ‘배치된다’고 해야되나 여하튼 그런 식의 것들도 많았던 것 같고. 처음에 어리고 잘 모르고 그랬을 때는 ‘같은 편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게 컸던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친한 선배가 같이 하자고 하는 건데’...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애가 잘 따르고 애기도 잘 듣고 잘 하고 이러던 애가 꼭 이런 때 핀트가 안 맞는다,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되게 허물없이 지냈었거든. 내가 여성행동위를 하게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 언니랑 유대관계가 끊어진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미묘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 (사례a)

특히 각 대학의 상황은 여성주의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운동 구조나 상호 관계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 된다. 사례a의 경우는 학생운동세력 자체가 극소수인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그 세력을 분화

56) 학내 여성운동의 주류 학생운동에 대한 종속은,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의 기억 속에서도 강하게 남아 있는 오랜 구조였다. 사례2와 사례4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이를 확인시켜 준다 “기존에 있었던 그 총여학생회 구조로는 도저히 여성운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총여가 분명히 있는데 항상 총학생회 따까리만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NL이 총학을 잡으면 PD가 총여를 잡아 가지고 돈을 타내서 그걸로 운동을 하는 거야, 자기네(PD) 운동을 총여니까 당연히 여자가 총여학생회장이긴 한데, 그 언니조차도 PD관련 행사를 다 쫓아가다 보면 여성 운동 같은 거 제대로 한 적이 없고, 기껏 해봤자 어쩌다가 간담회 같은 거 하는데, 참여도도 거의 없고 뭐 다른데서 도와주는 것도 없고, 중심 주제는 항상 노동운동, “노동해방이 이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끝나고” (사례2) ; “맑스주의계열 학생운동 정치조직에서 총여학생회랑 총학생회 둘 다 후보를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총학생회는 당선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총여학생회는 심중팔구로 당선이 되요. 그러면 총여학생회를 잡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총학생회를 못 잡았기 때문에 반동 총학생회를 압박하고, 총여학생회를 통해서 민중해방 투쟁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여학생회가 어떤 여성운동이나, 여학우들의 이해를 대변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사업 계획에도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 내부 엠터 같은 걸 해서 “누구를 총여학생회 후보로 내보낼 것이냐”, 딱 투표하잖아 그게 여성운동에 의지가 있고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때는 뭐 여성운동이라는 것도 잘 몰랐었지만, 전혀 상관없어. 거의 “민중해방이 여성해방이다”, 그런 식이었어요.” (사례4)

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호 보조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강제되었고, 이러한 “척박한” 조건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동질감을 형성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여성운동세력과 학생운동세력이 “공식적으로 서로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문제제기들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서로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랬을 때 학생과 내지는 대학당국에서 학생운동을 공격하는 데에 역이용한다거나 그런 것도 많았고 다 짜집아서 운동권이죠 ‘여성행동위’ 명의로 (자보를) 붙여도 ‘총학생회겠거니..’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서로에 대한 반론이나 문제제기들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도 없었고, 문화적으로도 그랬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얘기하자면 아까 말했던 그런 끈끈한 유대감, 친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것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 (사례a)

이후 사례a가 총학생회 선거 출마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데에는 물론 총학생회에 집중되어 있었던 자원들(공간, 재정 등)을 여성주의 운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그와 더불어 학내의 학생운동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과 “책임감” 또한 작용했다고 한다. 이는 사례d와는 달리 ‘학생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여성활동가들에게 ‘내부자’로서의 정체성이 어떤 다른 행위 패턴을 따르게 하는가를 보여준다.

이렇게 맑스주의계열 총학생회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여성행동위’와 긴밀한 관계를 취하면서 학생운동구조(학생회) 내에서 여성운동을 지원하는 형태의 운동을 했다. 아래에서 보듯이 사례a는 당시의 활동에 대해 여성문제와 관련된 사업을 “전체 기조 안에 상정”하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때 “전체 기조에 상정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류 학생운동’ 조직들은 여성문제를 (‘전체 기조’가 아니라) 주변적이고 부수적이며 외부적인 요소로만 간주하기 때문이다(전희경, 1998, 허나운, 2000)<sup>57)</sup>. 이는 앞서 사례d의 경우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 문제의식이다. 사례a가 “권력의 단맛”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여성문제가 중요한 “전체 기조”에 포함되어 있는가 아닌가가 단순히 관심이나 개별 활동가의 인식 차이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임을 암시한다

57) 이는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의 학생운동 당시 경험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었다. “그 때 조직적으로 ‘다양한 대중운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운동들의 유의미성이 인정되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조직의 활동 상으로 봤을 때는 악세사리에 불과한, 그러면서도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를테면 ‘조직적인 배치와 조직적인 필요성’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환경운동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스스로)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결정이 났고 ” (사례5)

총학생회에서 활동하는 대신 좋았던 건 신규여성실업 문제 같은 여성관련 사업을 전체 기조 안에 상정한다든지, 아니면 단위별로 그런 사업들을 입안하도록 강제하다든지 할 수 있었던 거. 사실 권력의 단맛을 그때 알게됐죠... (웃음) 여름방학 때 “예비취업 여대생을 위한 캠프”를 제안을 해서 총학생회 명의로 참여를 하고 하반기 때 취업박람회를 총학생회 이름으로 조직하기도 했고 — (사례a)

이처럼 사례a가 학생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했던 것은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서 다른 사례들과 구분되는 지점은, 그러한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것이 “내가 할 몫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례a 역시 때로는 “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되나”라는 고민도 하지만, 학생운동진영 내 가부장성에 대해 “단절”보다는 “적극적 비판”의 길을 택한다. 이는 앞서 사례b의 “더 이상 좌파 활동가들 계몽시키기 싫다”는 말과 분명히 구별된다.

근데 지금도 막연하게, 학생운동의 가부장성이 ‘그냥 두고 볼만한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하니까’라고 ‘나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게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권내 가부장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내가 해야될 몫이라는 것이, 다소 나이가 들고 학년이 좀 지나니까 책임감처럼...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운동은 망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본적 차원에서 일종의 동지감 같은 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 계급모순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바라는 여성해방의 세상이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세상하고 많이 다를까? 예를 들어 여성의 문제가 굳이 아니더라도 ‘돈 없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다른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도 해보곤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보면 ‘내가 만드는 세상과 그 사람들(맑스주의자들이 만드는 세상이 만나면 정말 좋은 세상일것다...’ 정말 이상적이지만... 그래서 이제 동지애.. 동지애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기본적인 신뢰 같은 것은 나한테 굉장히 크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 (사례a)

사례a도 사례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급모순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부장제에 대한 분석과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을 통합할 수 있는 “총론 재구성”의 필요성을 느끼며, 이는 스스로 말하듯이 “기본적인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태도라고 하겠다. “여성해방의 세상이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세상하고 많이 다를까?”라는 사례a의 반문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녀가 학생운동에 대해 취하는 ‘적극적 비판과 개입’이라는 입장은 무엇보다도 여성주의 운동의 지향과 목표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주류 학생운동의 가부장성이 매우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에는 대다수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 방향에 대한 입장은 상이하다. 이는 각각의 여성주의자들이 놓여있는 상황, 조건 및 경험의 차이가 여성주의 운동의 지향과 목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니게 하기 때문이다.

사례h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내 운동 조건이 척박하다는 점에서는 사례a와 비슷한 조건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1학년 때부터 학생운동을 시작하여 특별한 갈등이나 단절 없이 총여학생회에서 활동하고, 다시 총학생회에서 활동하다가 졸업 후 여성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영역운동’이라 불리는 다양한 운동들이 막 태동하면서도 “심각한 학생 자치권 탄압”으로 인해 “학생회에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운동도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척박한 조건에서 학생운동을 해오는 가운데 ‘우리’라는 ‘내부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던 경험에 있어 사례h와 사례a는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운동이 정치적으로 거의 분화되지 않고 “총여학생회도 계속 좌파인 사람들이 해왔던” 상황에서, 사례h가 별다른 정체성의 혼란이나 갈등 없이 학생운동과 학내 여성운동을 넘나들면서 활동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사례h는 총여학생회에서 활동하다가 4학년 때 다시 맑스주의계열 총학생회에서 활동하게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반동이 되면 거의 운동판이 끝장나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활동 과정을 거쳤던 사례h가, 총여학생회가 총학생회 사업에 ‘동원’되는 상황에 대해 “아주 사소한 것들”로,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투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눈여겨볼 만 하다.

2학년때 총여학생회장이라 총학생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렇다고 사업을 같이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개인적인 사이나 그런 건 거의. 그건 뭐 이론에 대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내가 판단하기에 그때는 아주 사소한 것들... 어떤 거냐면, 나도 총여학생회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예를 들어 대동제 선전작업이다, 그러면 같이 해야되는데, 총학생회는 대부분 남자들이고 선전작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해야되는데, 그러면 총여학생회에 와서 부탁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이가 좀 안 좋아졌던 거고. 나도 그래서 총여학생회 할 때 총학생회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혔죠. 나한테 플래카드를 써달라 그러면, “내가 총학생회 잡무 보는 사람이나, 못써도 선배들이 써라”,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상황 상 다급하고 사람이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총여학생회 인원이 동원이 돼서 선전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사업적인 것에서 부딪힌다고 보다는 그런 사소한 일상에서의 문제에서 많이 부딪혀서, 96년도에도 그게 극대화 돼서 총학생회랑 총여학생회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고. 97년도 나 총여학생회 있을 때는, 사소하게 그냥 내가 선배들한테 투정 부리는 식으로 뭐라고 하면 무마되고. — (사례h)

다른 사례들과는 달리 사례h는 대학 내 여성운동과 학생운동이 “당연히 같이 해야되는 거”라고 생각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되는 맥락에는 학생자치권에 대한 탄압, 물질적 자원의 제한성 등 학교의 상황 자체가 너무 열악하여, 학내 여성운동과 주류 학생운동 세력이 ‘우리’라는 동지의식을 가지고 상호 공존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존재한다. 학생운동 내 가부장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사례h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가서 깨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 내가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논의하면서 느낀 건데, 단지 그냥 남자들의 잘못, “너희 잘못했다”, 그런 것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굉장히 남자들이 가진 가부장적이고 권력적인 분위기 자체가 작용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랬을 때 여성주의자들이 채네 가부장적이니까 “그래 너희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정말 견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후배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되겠다, 가서 깨부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됐죠.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냥 내버려둬선 안되겠다.. — (사례h)

사례h의 경우, 운동권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성활동가들의 “가부장적이고 권력적인 분위기”에 대해 실감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남성들 개인의 잘못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따라서 보다 구조적인 문제로서 학생운동의 가부장성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그녀가 선택하는 길은 ‘단절’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둬선 안되겠다”는 ‘적극적 비판’의 길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경험과 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운동가’로서의 정체성 및 정치적 입장과도 무관하지 않다.

노동자가 착취 받고 있고 열악한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노동해방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 난 누구한테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하는 사람이면. 운동권이 가부장적이라고 하는 건 그 운동 자체가 가부장적인 게 아니라 그 운동을 펼쳐는 방식이 가부장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만약에 환경운동이 있다고 치자. 지구가 막 쓰레기로 덮이고 있는 거 문제잖아요. 그럼 그건 문제고, 그 모순이 자본주의건 어쨌건 간에, 환경모순을 운동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건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다 인정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운동을 펼쳐 나가는 방식, 그 운동을 펼쳐나가는 구조,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 (사례h)

학생운동의 가부장성이 “운동 자체가 가부장적”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이러한 입장은 ‘대화가 여성주의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즉, ‘주류 학생운동’이 표방하는 목적과 ‘대의’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가운데, 그러한 운동을 펼쳐 나가는 ‘방식’이 가부장적임을 문제삼는 것이다. 이처럼 90년대 중반 이후 대화가 여성주의자들의 여성주의 정체성은 주류 사회운동에 대한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르다.

여자 전문대학에서 학생운동과 여성운동을 병행하다가 졸업 후 여성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례c의 경우도, 학생운동의 조건이 열악하다는 점, 그리고 재학 당시 ‘다양한 사회운동’에 대한 담론과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할 즈음이었다는 점에서 사례a 및 사례h가 처했던 조건과 유사한 조건 속에서 학생운동을 해왔다. “운동권이라고 해봤자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상황은,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서처럼 “맑스주의계열 학생운동”과 “학내 여성운동”이 나뉘고, 학생운동 내에서도 “정파”가 나뉘는 상황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열악한 상황에서 극소수의 인원이 운동을 하는 가운데, 동류의식과 집합적 정체성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사례c는 학생운동과 여성운동 양자 모두를 하는 극소수의 ‘운동권’이었으며,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역시 “운동의 확산”을 고민하던 연속선상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졸업 이후 여성운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다른 학교 여성주의자들 및 학생운동가들과의 만남은 사례c에게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사례c가 노동절 관련 학생운동 행사에서 여성노동권 문제와 의사소통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맑스주의계열 학생운동가들의 회의에 참여했을 때의 경험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뭔지를 아예 모르는 거죠 아예 ‘지금 무슨 여성노동권의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싸우기라도 하겠는데, “형들의 문제의식은 너무나 건강한 문제의식이다, 모두가 동의할 한다, 앞으로 학생운동이 나아가야 될 방향 중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니네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달라는 게 뭐냐” 이런 식의 반응을 내보인다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의 길 어질 것 같으니까 입도 뻥안 안하고 그냥 ‘너흰 떠들어라’, 이런 식의 반응들... — (사례c)

표면적으로는 “건강한 문제의식”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성주의적 문제제기를 이해조차 못하며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태도들 속에서, 학생운동에 대한 사례c의 입장은 변화하게 된다. 이는 다음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는 여성운동이 학생운동과 연대를 해야된다는 게 그냥 쉽게 동의가 됐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암묵적으로 그러다가 올해까지 계속 활동하면서 학생운동가들과 부딪히는 게 좀 많았죠 같이 함에 있어서 기초라던지 안 맞는 부분들을 겪으면서, ‘어떤 식으로 연대가 가능한가’ 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고 사실 요즘에는 ‘운동권과 연대를 해야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 그들이 사고하는 방식도 ‘양보’를 한다는 식이고 그게 ‘연대’라는 이름 하에 존재를 하는 거고 사실 그렇다면 연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도 사안별 연대 이외에는 연대를 하고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애매하고 ‘연대’라는 개념도 사실 이제는 더 모르겠고 혼란스럽고 처음에는 ‘우리의 활동이랑 연대활동이랑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찾아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이랄까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 (사례c)

이처럼, 학생운동과의 연대에 대해 “암묵적으로” “쉽게 동의하는” 입장에서부터, “계속 활동하면서 (학생운동권과) 부딪히는” 경험이 누적되어 가면서 “막연한 기대감”마저 사라지고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 된 것이다. 학생운동과의 ‘연대’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여성운동’을 학생운동

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자율적인 운동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막연한 기대감”마저 사라지는 것은 90년대 대학가 여성주의자들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단절’과 유사한 경로를 사례c 역시 밟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겠다. 대학 졸업 직후까지도 학생운동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가 점차 ‘단절’의 문제의식을 명확히 하고 있는 사례c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성주의자들의 정체성이 그 경험과 조건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 하지만 동시에 부단한 변화의 과정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Stanley & Wise, 1983).

사례g는 주로 문화이론을 학습하는 세미나 팀에 있다가 맑스주의계열 총학생회 성정치국 활동을 했고, 학내에서 NL계열 총학생회가 약화되고 ‘성정치 담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학내 여성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의 경우는 ‘반정립으로서의 여성주의’를 화두로 한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점에서, 주류 사회운동에 대한 입장 차이와 여성주의 정체성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잘 보여준다.

당시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례g는, 자신이 “중심 좌파였던 기간이 거의 없었고” “처음부터 나는 성정치를 했다”고 해석하는 동시에 “문제의식이라는 측면에서의 좌파”이기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례g의 경우, 학생운동조직에서 활동한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것이 오히려 “넓은 의미에서의 좌파”라는 정체성을 큰 혼란 없이 지낼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난 ‘중심 좌파’였던 기간이 거의 없는 셈이죠 사실 그때 특정 정파에서 오라고 했던 적도 있지만, 내가 정파에 속해본 적도 없었고, 단지 그 사람들을 좀 알았을 뿐이고, 정파주의의 폐해에 대해서도 특별히 아는 것도 없었고, 학생운동에 내가 중심으로 가담했던 적도 사실 없었어요 처음부터 나는 성정치를 했고, 좁은 의미에서의 좌파라는 정체성은 별로 없었어요 내가 좁은 의미라고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정파, ‘중심’ 학생운동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도 좌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정말 문제의식이라는 측면에서의 좌파였지, 조직이나 정파나 그런 의미에서의 좌파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 (사례g)

“문제의식이라는 측면에서의 좌파”라는 정체감을 가졌던 것은, 주류 학생운동 정파들 포섭주의적 전략에 대한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례g 역시 학내에서 여성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맑스주의계열 학생운동조직들과의 갈등을 경험했지만, 그러한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96년도에는 그런 갈등이 그렇게 표면화된 건 아니었어요, 정말. 어떻게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우리 운동을 잘 하고싶고 충실히 하려고 하는데, 다른 운동권 조직

들에서 계속 우리를 자기네 쪽으로 쫓다리기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 그러니까 여성운동을 자기네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약간 차이거나, ‘별 볼일 없구나’ 라고 생각한 거지, 그들의 논리,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부장성, 그런 거에 대한 비판까지는 안 갔어요 — (사례g)

이처럼, “여성운동을 자기네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경험했음에도 “약간 차이거나 별 볼일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뿐 “그들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까지는 안 갔다”고 ‘해석’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사례d, 사례j가 유사한 경험에 대해 ‘해석’하는 바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데에는 사례g가 학생운동 ‘좌파’들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었으며, 자신을 넓은 의미의 ‘좌파’로 정체화하고 있었다는 점 외에도, 외국에서 “우리나라 운동권들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좌파”들 — 즉 “계급의 중심성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성문제에 대한 총체적 관점을 지니고 있는 “좌파”들<sup>58)</sup>과 관계를 맺고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의 글을 읽었던 경험 또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영국에 있으면서 영국의 좌파, 공산주의자들 몇 명 만나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일단 하나의 측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계급의 중심성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기반해서 여성문제에 대한 자기네들의 논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운동권들하고는 너무너무 다르다’.. 이럴테면 여성 사상가들을 유난히 좋아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고 또 하나는 내가 읽은 책들이, 아무래도 명명을 하자면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의 글을 많이 읽으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사례g)

여기서 한국 사회운동과는 다른 역사와 조건을 가진 외국 좌파들과의 접촉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장과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주류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은 독특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구축되어 왔으며 여성운동 또한 그러한 맥락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90년대 중반 이후 ‘여성주의자들’의 등장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급진적 비판’이라는 화두가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례g의 경우는 한국 사회운동과는 다른, 즉 여성문제에 대해 비교적 개방성과 성찰성을 지닌 ‘좌파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의식이라는 측면에서의 좌파”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성주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녀는 당시 형성된 대학가 여성운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여성운동의 독자성’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반대”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

58) 사례g가 만났던 서구 좌파들이 한국 좌파들과 상이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서구 좌파의 경우 이미 60년대 말 이후 폭발한 여성해방운동을 통해 여성들의 저항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여성운동이 학생운동으로부터 어느 정도 좀 떨어져 나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떨어져 나와서 독자적인 길을 걷는다는 것이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천적인 측면에서나 그런 식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다, 그 ‘독자적’이라는 말이 그런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플테면 내가 “그들과 연대할 지점들을 찾아가야 된다” 라고 애길 한다던가, 여성노동권 문제의 중요성을 얘기한다고 해서 독자적인 길을 안 걷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노동권 얘기를 하거나 연대 필요성을 얘기하면 독자화가 아닌 양, 그런 식으로 서로 밀고당기는 싸움이 여성주의 운동 내부에서 좀 있었던 것 같고... 내가 97년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아직까지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공간에 들어가든 타협을 하든 비판을 하든 여하튼 침투를 해야된다”는 것이고, 또 한 축으로는 여성노동에 대한 부분이 서로 풀리지 않았던 것도 있었어요. 계급적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한참 막 그때 고민하기 시작하고, 뭐 아무튼 고민이 많이 되던 때였어요. — (사례g)

가부장적인 학생운동에 대해 “타협을 하든 비판을 하든 여하튼 침투를 해야된다”는 이러한 입장은, 앞서 살펴본 사례a, 사례h의 입장과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사례g가 졸업 이후 취직을 하면서 ‘여성노동자’로서의 위치를 지니게 되었던 것 역시, ‘여성노동권’이라는 “좌파적 주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된 요인 중 하나이다. 사례g의 경험과 기억 속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으로 보이는 흐름이 당시 대학가 여성주의자들 안에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노동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학생운동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침투해야 한다”는 사례g의 입장은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사례는 학생운동 ‘주변부’라 할 수 있는 과 사회과학학회에서 활동하다가 보다 실천적이면서도 자치적인 학생운동을 하면서 여성운동을 시작하게 된 경우이다. 그녀는 학생운동 주변부에서도 여러 가지 가부장성에 대한 경험들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도 특징적으로 보였던 것은 교묘한 방식으로 재생산되는 조직내 성역할 분담과 여성비하적인 일상문화였다. 특히 사례i는 조직 내에서 형식적으로 ‘대표’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상 “남자 선배”의 지배가 관철되는 가운데 “꼭둑각시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남성중심적인 문화와 “운동에 관한 역사들”을 신화처럼 강조하는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활동가들은 책임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활동하면서도 “자신이 없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며, “계속 주눅이 들게 되는” 것이다.

사례j가 경험한 이러한 상황은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소위 ‘학생운동 위기론’이 제기되면서 재구조화된 가부장적 조직구조와 관련이 있다. 학생운동가가 수적으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3, 4학년이 되면 핵심적 역할을 하던 남학생들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어 생기는 ‘위기 상황’을 돌파한 것은 여학생들이었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운동의 주체가 아니라 남성이 부재한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규정되기 때문에, 여성활동가들의 역할과 권력은 운동 조직 내부의 성별위계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다(허나운, 2000). 책임자 지위에 있는 여성보다 ‘복합한 남자 선배’가 실질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비단 사례의 경우 뿐 아니라 학생운동 내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후 사례는 여성으로서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들을 인식하면서 여성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치적인 학생운동그룹과 여성운동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다. 당시 사례가 다니던 대학의 상황상, 기존의 학생운동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자치적 학생운동그룹’과 ‘여성운동모임’은 친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례는 ‘주류 학생운동’에 대한 비판 세력으로 등장한 당시의 ‘대안적 학생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따라서 학내 여성운동과 ‘대안적 학생운동’을 병행하는 것은 ‘주류 학생운동’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모순적이기보다는) 나름대로 일관성을 갖는 것이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사례의 경험과도 유사하다.

여성운동을 하게 된 건 학생운동에 대한 반정립이라기 보다는 그냥 내가 겪는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선배들이랑의 문제나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당했던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그런 것들이 여성운동 쪽으로 관심을 갖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주변 좌파 남성활동가들의 무책임함 등에 실망도 컸고. 그러다가 자치적인 대안적 학생운동그룹 쪽으로 찾아가게 된 거였고.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그런 활동들을 하다가 오히려 총여나 여성운동 쪽으로 더 가까워진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총여학생회 선거운동 같이하게 된 거죠. 그때의 선거 결함도, 선거운동원으로서 결함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애매 모호한 위치였어요. 대안적 학생운동그룹 활동과 총여학생회 선거운동을 같이 했는데, 전자는 선거 전반에 대해 비판하는 신문을 내는 상황이었었는데 나는 총여 선거에 결함을 하는 거니깐.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 모호한 위치에서 (총여학생회) 선거에 결함을 한 거였죠. — (사례1)

하지만 ‘자치적 학생운동그룹’에서는 “학생회 선거” 전반을 ‘비판’했고 여성운동모임은 총여“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사례는 당시 자신이 “애매 모호한 위치”에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애매 모호한 위치”라는 표현은 다의적인데, 이후 학내 여성주의 운동이 학생운동에 대한 ‘반정립(negation)’의 의미를 강하게 띄게 되는 과정을 겪었던 사례에게 있어, “애매 모호한 위치”는 (학생운동에 대한 “반정립”이 아니라) 학생운동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나는 반정립으로서의 여성운동을 한 게 아니다”, “여성운동과 학생운동이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례의 표현은, 특히 ‘다른 여성주의자들과의 비교’가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오랜 기간 학생운동 주변부에서 활동했던 사례에게 있어서 당시 세력화하고 있던 대학가 여성주의 운동은 ‘학생운동에 대한 반정립’으로 해석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총여학생회 활동까지 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여성주의자

로서의 정체성을 조심스럽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이 학생운동에 대해 보여준 서로 다른 입장들은 9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되어 왔던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이 단일하고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었음을 반증한다.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은 학생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경험과 그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그 구체적 양상은 매우 달랐던 것이다. 맥락과 상황, 조건에 있어서의 이러한 차이는 ‘여성주의’에 대한 정의, 그리고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 (5) 역사적 의의 :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실험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이 스스로 하나의 세력으로서 등장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실천과 풍부한 전략을 통해 학생운동을 비롯한 주류 사회운동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된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이 한국 사회운동 및 여성운동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은 주류 학생운동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가시화 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안을 실천적으로 모색해 왔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모든 사례들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은 ‘새로운 사회운동’과 ‘자치’, ‘서로 다른 운동들 사이의 동등한 연대’라는 화두가 부각되었던 당시의 담론적 상황 속에서 실제로 자치적인 조직을 결성하고,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주류 학생운동 구조의 한계를 실천적으로 비판하였으며, 정파간 대립이 팽배해 있던 학생운동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그러한 구분을 넘나드는 다양한 대학간 연대활동을 펼쳐 왔다. <날아라 뽕짝이>, <들꽃모임>을 비롯한 여러 ‘대학간 연대조직’들은 여성주의 운동을 새로운 지평 위에서 활성화시킨 예이며,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원회>,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 <메이데이 기획단 女聲> 등은 반성폭력 운동과 여성노동권 문제를 실천적으로 의제화함으로써 학생운동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중적 성과를 얻었다. 97년부터 매년 여름에 개최되고 있는 <여성연대 한판>은 대학 안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교류와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들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의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학내 반성폭력 운동의 활성화와 대중화는 90년대 대학가 여성주의 운동이 낳은 커다란 성과 중의 하나이다. ‘반성폭력 학칙 및 자치규약 제정 운동’을 통하여 이들은 ‘성폭력’이라는 화두를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전면적이고 일상적인 정치적 이슈로 의제화 시켰다. 실제로 이미 여러 대학에서는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했거나 제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낸 주체가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와 더불어 학생운동의 거부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면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진보’를 표방하는 세력이라면 더 이상 여성주의를 도외시킬 수 없을 정도로 운동사회의 상식을 끌어올리고 성찰성을 제고시켰다는 점 또한 언급되어야 한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대학가 여성주의 운동이 학생운동에 대한 명시적 비판 및 갈등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투쟁이 실제로 학생운동에 일정한 이념적·문화적 변화를 강제했다는 점은 중요한 성과로 특기될 만하다.

그밖에 수많은 ‘소모임’의 결성과 게릴라적 실천들은 여성주의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였고, 다양한 문화적 실험을 통해 여성주의 운동의 전략을 풍부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녀들은 과거의 주류 사회운동 조직이 지녔던 관성을 탈피하여 ‘수다모임’, ‘나이주의 타파’, ‘형식적 대표성에 얽매이지 않는 자율적 실천의 강조’, ‘집회와 회의라는 방식 이외에 문화제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운동 방식’, ‘비위계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조직구조’를 실험하였다. 비록 이러한 실험이 ‘모든’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의 경험 속에 ‘똑같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3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은 몇 가지 공통적 특징을 공유하는 가운데 새로운 실천을 모색해 왔던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의 실천은 기록될 필요가 있다. 한국 여성운동사에 있어서 90년대 중반 이후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주류 사회운동에 대한 비판을 통해 여성주의 운동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자의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천적으로 매우 풍부한 전략과 담론을 창출하고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까지 정치적 실험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새로운 여성주의 정체성의 출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 2절.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

### (1) 사회적 배경

본 논문이 심층면접 대상으로 삼은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은, 아직 '여성주의 담론 및 운동'이 형성되기 이전 시기에 맑스주의 계열 학생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그녀들이 사회운동을 시작하고 '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던 90년대 초반의 시점은, '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소위 '새로운 사회운동들'의 등장이라는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운동지형에 일정정도의 변화가 일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구조화된 가부장성과 거대담론에 기반한 포섭주의적·가부장적 운동이념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었고, 90년대 중반 이후에야 형성되기 시작한 새로운 '여성주의 운동' 역시 아직 태동하지 않은 때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에게는 '대학가 여성주의자들'과 같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들은 맑스주의계열 사회운동 전반을 관통하는 "계급모순의 중심성·우선성·포괄성" 논리의 영향력 하에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그것을 체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성중심적으로 구조화된 주류 사회운동 내부에서 자신을 '운동가'로 정체화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내면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운동 경험에서 문제의식을 느낀다 하더라도 이를 의제화할 '언어'가 부족했으며 일상적 경험에 기반한 여성들의 발언을 '중요'하거나 '공적'이거나 '운동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위계화된 이념의 지배 속에서 자신의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기는 어려웠다는 점 또한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 처해 있던 당시의 조건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운동 '내부'에서는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집단을 형성하거나 세력화한 '역할 모델'이 거의 전무했다는 점은, 문제의식을 가진 여성활동가들이 쉽사리 조직화되지 못하게 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은 오랜 기간동안 개별적인 싸움을 해왔으며, '사회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여성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회운동에 오랫동안 뿌리깊게 자리잡혀 온 여러 가지 폐해들에 대한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이들의 문제의식은 점차 분명해 졌으며, <여성활동가모임>의 결성을 계기로 하여 사회운동 전반에 뿌리깊이 박힌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은 적극적 실천을 통해 발언되기 시작하였다

## (2) 사회운동 경험 : 여성주의 의식 형성을 가로막는 구조들

<여성활동가모임> 회원들은 대체로 학생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경험은 앞서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의 학생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경험과 유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노골적이고 억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가시화되었던 "여성주의의 세례"<sup>59)</sup>를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당시 운동경험의 부정적 사례들은 여전히 충분히 '언어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 의식을 획득하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기 이전부터 사회운동진영의 여러 가지 폐습에 대한 반감을 느꼈으며, 이렇게 누적된 경험들이 이후의 몇몇 계기들을 통해 여성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경험을 말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이들의 대답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과거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등의 경험에서 느꼈던 부정적 요소들 — 권위주의적 위계질서, 군사주의적 언어 및 문화, 학벌주의, 연고주의, 나이주의, 능력주의 등에 대한 비판이 남성우월주의에 대한 비판과 불가분하게 뒤얽혀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점이다. 한국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은 전통적 유교관의 선별적 수용(조순경 외, 1995a) 및 반독재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발전된 군사주의 문화, 그리고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연고주의와 결합된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 여성주의 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에는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여성주의 의식 형성을 가로막는 운동사회의 특수한 구조들이 어떤 것인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한 구조들은 '장애물'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이후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을 보다 정교하고 급진적인 방향으로 추동해 낸 동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자 대학에서 부총학생회장을 했던 사례3의 경우, '여대'이기 때문에 '남녀공학'보다 남녀 권력 불평등의 문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과, 부총학생회장이라는 학생회 구조 상층부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진영 내의 문제점들을 일상적으로 체감하지는 않는 상황이었지만, 소위 '메이저 캠퍼'라 불리는 명문대학이 아니라는 것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동료들을 통한 간접적 경험을 통해 사회운동진영 내의 문제점을 어렵듯이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일상적 권력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위계화된 거대담론 — '주요모순'과 '부차모순'을 나누

59) 이후에 다시 다루겠지만, 이 표현은 사례1의 심층면접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다

는 이분법적 거대담론 — 에 의해 주도되었던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내가 그걸 전혀 몰랐다거나 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내 일상이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한번 만나면 “어, 저거 더러운 놈 다 있네”, 이런 정도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인지를 잘 판단을 못 한다구, 그렇게 가끔씩 만나는 걸로는. 근데 동료들이 외부 회의, 정파 중앙 회의를 갔다 오면 막 너무 괴로워하면서, 자기는 그 회의에 있으면 제대로 발언도 못하고 담배만 피다 온다는 거야.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주요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모순 정도냐, 그냥 살아가면서 부대끼는 문제지’ 라고 생각을 했지, 그것이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운동에 해악일 수 있는가를 그때는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냥 따라 가려고만 한 거지. ‘아, 내가 부족하니까...’, 이러면서 막 배우려고만 하고 — (사례3)

“주요모순”과 “살아가면서 부대끼는 문제”를 구분하는 사례3의 설명 방식은 ‘주요모순-부차적 모순’의 이분법이 사회운동가들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여성활동가들로 하여금 문제를 문제로서 ‘인식’하는 것조차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요소였음을 확인해 준다. 철저한 공-사 분리는 사회운동 내부에서 오히려 더욱더 엄격하게 관철되어 왔으며, 따라서 일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여성 억압은 ‘정치적인 문제’, “주요 모순”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소위 ‘새로운 사회운동’이라 일컬어지는 비교적 젊은 층으로 구성된 사회운동단체의 경우, 여성활동가들을 배제하는 권력 기제가 매우 교묘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로서 명확히 인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90년대 이후 여성활동가에 대한 배제가 보다 세련된 형태로 바뀐에 따라, 여성활동가들은 자신의 문제의식에 대해 끊임없이 “내가 예민한 건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내부의 권력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조금 조금씩 계속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아주 특정한 문제, 사건이 될만한 문제로 불거져 나온다면, 정말 문제제기 할 수 있을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확실히 있었으면 문제제기가 좀더 빨랐을 것 같아요. 공론화 되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도 많이 달랐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런 거였어, ‘이게 그런 건가 아닌가’... ‘이게 이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의 문제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예민한 건가’... 참 정리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그걸 능력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누구나 하고싶은 일을 제기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조직이 가질 수밖에 없는 폐해의 하나인 건지 모르겠고 — (사례5)

대학가 여성주의자였다가 졸업 후 정보통신운동 단체에 들어간 사례2의 경우에도, 여성주의 의식을 이미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러한 배제를 명확히 인식하기는 어려웠다. “젊

은 단체'는 대체로 과거의 사회운동단체보다 더 “진보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회운동의 선형적 ‘진보성’에 대한 가정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직 내부의 성차별을 인식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 오늘날 사회운동의 ‘진보성’ 그 자체를 의문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문제의식을 저해하는 중요한 인식론적 방해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령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느꼈다 하더라도, 여성활동가들은 사회운동진영의 이러한 구조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여성활동가로서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운동권의 구조와 문화가 요구하는 ‘활동가의 상(像)’에 부합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탈성화-남성화 시켜야 했다. “좀더 냉정하게, 좀더 이성적으로, 좀더 조직적으로” 라는 사례5의 표현이 잘 보여주듯이, 사회운동 내에서 올바른 활동가의 상은 매우 남성적인 것이었다. 여성활동가들은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기 위하여 남성중심적 운동 문화를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다.

4학년 때까지는 정말 명예남성이라고 불려도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그게 계급적인 거라고 칭해졌었고, 그게 올바른 입장과 태도라고 칭해졌었으니까 좀더 냉정하게, 좀더 이성적으로, 좀더 조직적으로.. 원래는 대학교 1,2학년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아주 다르게, 내가 가진 욕구나 정서적인 부분들을 많이 잠재우면서, 나름대로는 ‘운동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웃음) 뭐 이런 걸로 살았던 것 같고 대학 3,4학년쯤 되면서는 내가 다시 후배들에게, 그리고 같이 활동하는 동기들에게 역시 그런 것을 요구했었죠. 이틀테면,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운동하기가 힘든 친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들을 많이 보였었고 후배들 만나면서 아주 전형적인 그런 조직활동가의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거에 맞추도록 많이 강요도 했었고 이틀테면...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감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당연히 이해되어야하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걸 활동에 방해가 되는 어떤 것처럼 취급하는..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단호함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에 대한 헌신성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데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지 않게 행동하기를 요구했고, 요구하는 방식 자체도 굉장히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내 스스로 당시에는 그런 동인이 뭐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조직 이데올로기로만 설명하긴 어려운 것 같은데, 내부적인 동인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 (사례5)

남성중심적 운동가의 상(像)을 적극적으로 내면화하게 만드는 규범은 암묵적인 문화 속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활동가들은 이러한 내면화 과정을 의식하기가 힘들다. 대학에서 여성운동으로 운동을 시작한 사례6의 경우도, 당시 주류 여성단체운동 등에 대한 회의로 인해 사회운동진영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탈성화-남성화되기 전략을 취해야 했다. 아래에서 보듯이, 활동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여성성을 탈각시켜야 한다는 것, 여성임을 드러내는 “오빠”라는 호칭을 보다 “사무적”인 언어로 바꾸게 되는 것은 사회운동진영의 “묵시적”인 규칙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사례6이 무의식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동안은 내가 여성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안하고, 이 차이점을 없애고, 진짜 다 같이 활동하는 쪽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있었던 운동권들의 친목모임 같은 데서 회장을 한다던지... 인정받고 싶었던 거, 활동가로서. 남자건 여자건 그 사람들한테는 다 '형'인 거야 나를 부를 때도 □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됐었던 것 같고, 확실히 형이라고 불리는 게 더 사무적이고... 예를 들면 '세미나 때 형이라고 불러야된다', 이런 게 목시적인 규칙인 것 같더라고요. 누가 설명 안 해줘도 규칙인 게 보여. 그래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순간, 이 새로운 집단은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그랬기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그래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 (사례6)

여성활동가들이 “철저하게” 지배적 규범을 내면화하려 애쓰는 것은 “활동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활동가들의 노력은 대개 실패로 귀결된다. 그것은 우선, 이미 주어진 조건과 지니고 있는 자원의 양과 질이 다른 상황에서, ‘남성만큼’ 이론을 알고 ‘남성만큼’ 말을 잘하며 ‘남성만큼’ 기술력이 있고 ‘남성만큼’ 투쟁적이 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남성들은 그녀를 ‘여성’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남성활동가’의 규범이 ‘운동의 규범’으로 등치 되는 상황에서 여성활동가들은 좌절을 경험한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지지 않으려고, 동등해지기 위해서 피나는 투쟁을 하면서 컴퓨터 기술을 익히고... 정말 그 무시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앉아있는데, 내가 뭘 물어보고 싶는데 물어보면 무시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무시도 대놓고 “그것도 몰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안 가르쳐주고... 몇 번씩 계속 부탁하면 겨우 그 때 가서 한번 가르쳐주니까, 그걸 감당해내기 위해서 안 물어보려고 혼자 밤을 새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으면서 너무너무 지쳐 가는데... 소통이 안되고 답답하고 뭔가 시작해서 그런 식으로 끝낸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계속 매달려 있다가 나가떨어진 거죠 너무 많이 에너지를 소진했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여기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가’ 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도 나를 동료로써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 (사례2)

어느 날 집에 가는데 진짜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울대가 아니고 남자가 아니라는 게 진짜 서러워진 게, 우리 조직에 있는 다른 사람들, 특히 서울대 출신의 사람들은, ○조직(당시 A 조직과 연대하고 있던 단체)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는 거야 내가 우리 조직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이나 사업이나 이런 거를 ○조직 사람들에게 훨씬 얘기를 많이 하고, 나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운동이 가야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사업을 결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친해져요, 그 사람들은. 같은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 때문에 정파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sup>60)</sup> 그리고 나는 기술도 잘 모르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집에 오면 그

60) 사례6이 ‘정파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라고 강조한 이유는, 당시 한국 사회운동에 있어서는 ‘정파간 대립’이 극심하여 인간적 관계마저도 그러한 ‘정파간 대립’으로 인해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 요인이었던 ‘정파간 차이’가 서울대 출신 남성활동가들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에 아무런 방해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사례6이 사회운동의 가부장성 문제를

형게 쓸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막 바둥바둥 거기 내가 가 가지고 친해지고 이러면서 그 안에 끼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었던 것 같고... — (사례6)

또한 탈성화-남성화되기 전략을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부장적 구조를 쉽게 정당화하는 사회운동진영의 특수한 논리와 문화 속에서 여성활동가들의 문제제기는 대개 실패로 끝난다. 사례1가 사회운동의 가부장성과 권위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다음과 같은 경험을 보면, 여성활동가들을 주변화 하는 사회운동진영의 구조, 그리고 그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저항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 꼭 대표는 남자가 하는 거냐”, “왜 이 여자 선배는 밀려나는 거냐”... 그러다가 찼렸어요 ‘제대로 조직관리 못한다’ 이래가지고 많이 싸웠죠 그때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너는 자유주의자다” 라는 비판이었는데, 나는 “그게 욕이나, 그래 나 자유주의자다, 근데 그러면 같이 못하냐”, 이렇게 싸웠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뭘 할 수 있었나, 그때 당시에... 내가 그때 말은 직책은 총무였었어요 맨날 뭘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고... 사람들은 그럴 때 애길 하죠 “총무하면서 돈 관리를 하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라, 그거 얼마든지 자기 활동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니가 안 하기 때문이다”... — (사례1)

“니가 안 하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여성활동가들의 문제제기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무마 방식은 대다수의 다른 사례들에서도 확인되었으며, 문제제기를 했을 때 “자유주의자”라고 비난하는 것 또한 한국 사회운동 특유의 ‘딱지 붙이기(낙인찍기)’가 어떻게 여성활동가들의 저항을 가로막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많은 여성활동가들이 지니고 있는 누적된 좌절의 경험은, 한편으로는 여성주의 의식 형성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불안정하고 위기에 빠진 것으로 느끼게 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저항을 무력화하는 여러 가지 기제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함으로써 구조화된 가부장성을 은폐·재생산한다는 점이다. 여성활동가들은 대체로 사회운동 구조 속에서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논리적’, ‘이성적’, ‘합리적’, ‘과학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남성중심적 운동언어 및 문화로 인하여 자신의 문제의식에 대해 자신감을 갖기가 어렵다.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문화, ‘중심모순-부차모순’의 이분법을 통한 일상의 비정치화, 여성활동가에 대한 배제 메커니즘의 교묘화, 남성중심적 운동가 상을 이상화함으로써 여성활동가들 스스로 그러한 가치를 내면화하게 만드는 운동규범, 문제제기를 개인의

---

근본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책임으로 치부하는 무마 방식, 위계화된 낙인찍기를 통한 저항의 무기력화 등은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바이다.

### (3) 누적된 경험과 기억의 회귀 :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경험,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좌절 경험의 누적은 여성주의 의식 형성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계기가 된 것, 그리고 특히 여성주의 의식 형성에 기여한 경험의 종류는 서로 다르다.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 대다수는 대학 졸업 이후 사회운동단체에 들어가 ‘전문적인(professional)’ 운동가로 살아가기를 선택했을 때 구조적 가부장성을 더더욱 심각한 삶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 (대학 졸업 이후) 사회운동단체에 들어가 상근 또는 반상근 형태로 전업활동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운동의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대학가 여성주의자들’보다 훨씬 직접적인 억압과 배제에 일상적으로 직면해야 하는 이들의 삶의 조건을 보여준다. 오랜 시간 반복된 저항-좌절 경험의 누적과 기억의 회귀는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의 정체성 형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사례3의 경우는 졸업 후 사회운동진영의 거대한 권력구조와 맞닥뜨리면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구조적으로 저발전 상태에 있었던 자신의 여성활동가로서의 위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여대는 풀 자체가 넓지 않기 때문에 한번 운동을 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중추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자기 삶의 주체로 진짜. 그래서 나는 운동권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소위 말하는 거대한 운동사회의 한 인자로서 편입해 들어가면 서, 그 거대한 남성중심적 사회 속에서 나한테 별로 소용될 권력이 별로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 거죠. 사실은, 비판의식을 갖게 된 계기 중의 하나는 단체 내에서 초반에 있었던 일종의 권력암투였는데, 그때 굉장히 독선적이고 권력독점적인 한 남성이 조직의 전반을 운영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의 수혜를 받았다면 아마 자각을 못 느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우산 밖에 있는 사람이었거든. 어떻게 보면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소외감이었고 배제 당한 사람의 심리였는데. 근데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더 열심히 할 문제로만 초반에 생각을 하다가, ‘아, 그게 아니구나, 이거는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 — (사례3)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먼저 사회운동단체로 진출한 선배 여성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사례3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사회운동진영의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여성활동가의 위치가 얼마나 주변화

되어 있는지를 직감적으로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 학생운동 졸업하고 사회에 들어왔는데, 내가 학생운동 때 신이라 불렀던 선배가 사회운동 판에서는 단지 그냥 사무국장 정도더라구요. 이게 얼마나 놀랍던지. '나름대로 권력장악 하고 이랬던 선배가 이 사회운동 판에서 진짜 별거 아닌 일을 하고있구나' 라고 느꼈을 때 그 당혹감과 좌절감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도저히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는 것을 느꼈죠. — (사례3)

마찬가지로 맑스주의 계열 학생운동을 오랜 기간 해왔으며 해당 대학 내에 '다른 운동'을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가 전혀 없는 조건에서 활동했던 사례4의 경우에는, “노동운동 지향”을 가지고 있던 주위 운동가들이 기대했던 만큼 헌신적인 활동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고 이야기한다. 삶의 중요한 축이었던 '노동운동 지향성'에 대한 실망은 사회운동 자체에 대한 실망과 의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또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활동가로부터의 실망 역시, 노동운동에 대한 ‘환상’이 깨진 것에 대한 실망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여성억압은 많은 경우 구체적인 남성 개인들과의 관계 양상 속에서 드러나며, 특히 사회운동가들은 ‘전면적 인간관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서 운동가들 사이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친밀하고 ‘동지적인’ 관계에 있는 남성활동가들에게서 거부장적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여성주의 의식 형성의 한 계기가 되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례4는 갑작스럽게 자신이 운동해왔던 과정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여러 면에서 누직되어 왔던 실망과 분노, 맹아적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벗고 나서서” 실천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여성주의 의식을 구체화하게 된다.

내가 운동했던 과정이나 삶을 살아왔던 과정들을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6개월의 슬럼프를 벗어나서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 예전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많이 가져야겠다’, ‘나는 같은 여성이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왜 발벗고 나서지 못하는가’ 그런 것들을 작년에 많이 정리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활동에 복귀하자마자 <여성활동가모임>에 가입을 했고. 이전에는 잘 펴보지도 않았던 여성 관련한 책들이나 논문들도 보게되고. — (사례4)

사례5의 경우는 여성운동을 하는 동료 여성활동가들과 접하고 그녀들과 함께 학생운동조직 내 거부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경험,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전에 자신이 체화하고 있었던 (남성적인) 운동문화와는 다른 “여성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했던 기억이 여성주의 의식 형성의 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던 건, 그 시기에 나는 환경운동을 하고 다른 친구들은 여성운동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 활동하는 모습이나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운동을 다시 보게되는 새로운 시각이나 바라보는 시야의 확장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때 여성운동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참 많이 부러웠던 건 그런 거였어요. 이룰테면 나는 환경운동을 하지만 실제로 감수성나 생활 방식의 측면에서는 도대체 나의 일상과 일치되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 운동은 나의 공적인 영역에만 속해있는 것이었다면, 여성운동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문제로부터 출발할 수 있고, 자신이 계속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계속 찾으면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연치 않게 여성운동 하는 친구들하고 환경운동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살게 됐는데, 다 여자들이었거든요 생활을 같이하다보니까 할 수 있는 애기의 폭도 굉장히 넓어졌었고, 그러면서 주로 했던 애기가 조직내의 가부장성이나 남성중심성의 문제들이었고 그리고 여성들만의 독특한 문화, 이런 게 너무나무 편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경험들. 어쨌든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간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 (사례5)

또 사례5가 잠시 사회운동을 중단하고 직장생활을 했을 때 느꼈던 여성노동자로서의 문제의식은 ‘여성’임을 자각하고 그것이 평생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였다고 한다. 취직 이후 “적어도 내가 여성인 것이 변함이 없는 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녀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기반하여 ‘일상의 정치화’를 의제로 삼았던 90년대 중반 이후 여성주의 운동이, 오랜 사회운동의 경험을 갖고 있던 여성활동가들에게 어떤 공명을 일으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사례5가 다시 소규모 환경운동단체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여성주의 의식은 보다 구체화된다. 90년대 이후 만들어져 젊은 층(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 가량)으로 구성된 사회운동단체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성은 여성활동가들이 쉽게 인식하거나 언어화하기 힘든 양상을 띠고 있다. 사례5의 경우도 문제의식을 정확히 언어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성 위주의 정보·권력 집중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을 때 남성활동가들은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혹은 “과민하다”고 대답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었다고 한다. 이후 사례5가 비슷한 종류의 문제로 여러 번 싸우면서 점차 문제의식을 분명히 해나갔던 과정을 볼 때, 반복적인 저항·좌절의 경험은 여성주의 의식을 발전시키고, 발전된 여성주의 의식은 거꾸로 그 경험을 새롭게 해석하게 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운동권내 성폭력 사건은 사회단체 여성활동가들이 여성주의 의식을 획득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sup>61)</sup>, 그러한 사건을 은폐하고 묵인하는 사회운동진영의 특수한 구조로 인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상처로 남아 있다. 운동권내 성폭력은 단순히 우발적이거나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진영 내 가부장성의 공고한 내적 논리 하에 묵인되고

61) 이는 앞서 ‘대학가 여성주의자들’ 중 사례b와 사례j의 경험에서도 확인되었던 바이다.

은폐됨으로써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 이러한 은폐·재생산 구조를 처음부터 인식한 것은 아니지만, 심층면접에 응한 사회운동단체 여성활동가들은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운동권내 성폭력 사건을 매우 빈번히 목격하거나 경험했으며 그것이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여자 애들 중에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는 사례 4의 기억에서도 확인된다.

사례4의 경우 특히 신뢰하던 선배 남성활동가가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점, 나아가 (운동권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남성과 다름없이 변명만 일삼는 모습에 대해 깊이 실망했다고 한다. 사회운동진영(의 진보성)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특히 그것이 성폭력과 같이 대다수 여성활동가들이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에서 그러했을 때 여성활동가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대단히 크다. 그리고 이러한 실망감과 분노는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실은 여성운동 지향적인 게 저한테는 별로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여성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이상의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했고, 그 당시에는 좀 오만했었던 생각은 어떤 거였었냐며는, 나는 여성운동이 좀더 살아나려면 여자들끼리 모여서 저렇게 하지말고, 남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수뇌부를 점거하고, “너가 진짜 잘하는 애다” 이런 식으로 인정받아야된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다가 제가 처음으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게, 이번 성폭력 사건 말고 그 전에 있었던 강간사건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 가해자는 내가 학생운동 할 때 진짜 하늘같이 높은 선배였었어요 나보다 학번도 한참 위고, 활동할 때 내가 많이 기대고 많이 도움을 받고, 남자인데 자분자분하고 말도 잘 들어주고, 하예튼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너무 놀래 버린 거야,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얘기에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는 과정에서, 전화로 나한테 “난 억울하다, 그 여자가 원해서 같이 그런 거지 내가 일방적으로 강간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것들에 완전히 실망을 했었고... — (사례4)

사례6의 경우 역시, 사회운동진영에 속하는 사람들과 처음 접촉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성추행 사건이, 자신이 ‘여성’활동가임을 문제시하게 되는 계기 중의 하나였다고 진술한다.

사회운동권들과 만나 가는 과정에서 내가 여자로서 갖고 있었던 갈등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내가 여성임을 부인하고 싶어도 계속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면 어떤 술자리에서 사회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술이 취해 가지고, “니가 운동에 대해서 뭘 알아”, 딱 이렇게 애길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80년대에 여성활동가들이 운동을 할 때는 진짜 화끈하게 운동을 했다, 이건 운동도 아니다”, 이러면서, “잡혀가면 옷을 벗겨 가지고 욕탕 속에 집어넣어 놓고 미꾸라지를 한 마리 풀어놓는다, 그렇게 성고문을 당하면서까지 활동했던 게 80

년대 사람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길 듣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 (사례6)

그러나 여성주의 의식 형성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여러 경험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고립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아래에서 “적어도 이런 문제 때문에 단체생활을 못했다는 선례가 없도록”이라는 사례1의 말이 드러내 주듯이, 사회운동조직 내에서 여성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직의 통합력이나 단체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성문제로 인해 단체생활을 못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침묵하거나 소극적 저항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례1은 여러 가지 성폭력 사건과 여성활동가를 ‘여성’으로 보고 성적대상화 하는 사회운동진영의 가부장적 문화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에” 더 이상 “그렇게는 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내가 여성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느꼈다고 보다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반사가 된 거죠, 나한테. 근데 그때 당시에 당장 조직 내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꼈느냐면... 심각성은 느꼈지만 별다른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이런 문제 때문에 단체생활을 못했다는 선례가 없도록... 그런 문제가 공론화가 될 거라는 생각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성역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왔지, 계속. 그러다가... 그렇게는 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에. — (사례1)

어떤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껴 저항해도 빈번히 좌절되었던 경험은 여성활동가들에게 “그런 문제가 공론화가 될 거라는 생각을 상상”조차 해볼 수 없는 것으로 만들지만, 그러한 경험이 반복되고 누적되었을 때 “운동권”은 더 이상 삶의 준거집단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례3의 경우도, 직·간접적인 성폭력 경험과 그 사건에 대해 무력하게 대응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 대학 시절 학생운동조직 활동에서 경험했던 위계구조, 졸업 이후 사회운동단체에 들어가면서 느꼈던 여성활동가들의 주변적 위치 및 사회운동진영에 팽배해 있는 학벌주의 및 엘리트주의로부터 느낀 소외감 등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급격한 시각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남성중심적 권력사회 안에서 분자화된 나의 모습과, 그 전부터 가졌던 그...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폭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바로 그때 딱 포착해서 터졌다고 보다는.. 아무튼 그 때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굉장히 급격하게 그리로. 그러니까 그 때 딱 불꽃 터진 거지, 한마디로 다 그런 걸로 보이는 거예요. ‘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남자애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남자애라서,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게 보이고 아무튼 거의 신선한 충격이었죠, 진짜 — (사례3)

이렇듯, 과거의 누적된 경험들이 어떤 계기로 폭발하게 되면서, 여성활동가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문제들을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으로 재해석하게 된다. 이전에 느꼈던 문제점들의 “실체”를 알게 되고, 주위의 동료들이나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도 “다 그런 걸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키(Bartky, 1977)의 논의에서처럼,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미래를 향한 변화를 위해 거부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페미니스트 의식 형성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여성운동에서 시작해서 사회운동에 진입하여 탈성화-남성화되는 적응 과정을 거쳤다가 다시 새로이 여성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복잡한 개인사를 지녔던 사례6의 경우, 사회운동단체에서 여성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이중적인 활동가 상(像)으로 인해 갈등해왔던 경험이 누적되어 ‘탈성화-남성화 되기 전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도 말하듯이 계기 자체는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가부장적 사회운동진영 내에서 여성활동가들이 겪어야 하는 정체성의 분열<sup>62)</sup>과 과거 여성운동을 했던 때에 지녔던 정체성의 기억이 맥락으로 놓여 있는 것이다.

참세상<sup>63)</sup>에 ○라는 여성관련 게시판이 생겼는데, 사람의 계기라는 건 참 사소한데서 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여있으니까 그랬겠지만, ○에 가서 어느 날 글을 읽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야. ‘그래 맞아, 이런 게 있었어. 내가 왜 내가 여성이라는 걸 거부하고 살았나’... 내 입장에서는 완전히 정리가 된 계기가 됐는데... ○ 하면서 ‘내가 진짜 여성운동을 계속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안 그럴 수 없었던 것 같아.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었는데, 굉장히 적응하느라고 오래 살았구나, 참 나 고생했다..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운동단체 안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갖고있는 특성에 대해서 유형 무형의 지적을 받으면서, 내가 내 여성성을 오히려 더 깨닫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고  
— (사례6)

사례6은 어렸을 때 당했던 무수한 성추행과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보은 진판 사건과 윤금씨 사건”, 그리고 “<또 하나의 문화>에서 느꼈던 감수성적인 측면”이 “여성임을 포기하지

62) “여성스러움은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완전히 남성화될 수도 없다. 우선은 ‘진보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보수적인’ 여성의 역할도 거뜬히 해낼 수 있어야 한다 낮에는 동지고, 밤에는 여자이다 남성활동가들과는 달리, 여성활동가들에게는 자신의 정치성(운동권이라는)과 자신의 성별(여성이라는)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남성화-되기’라는 불가능한 작전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희경, 1999 : 108) 이처럼, 여성활동가들에게 있어서 ‘여성’이라는 정체성과 ‘활동가’라는 정체성은, 남성활동가와와는 달리 매우 모순적인 것으로 경험된다

63) ‘참세상’은 진보네트워크센터라는 정보통신운동단체가 운영하는 PC통신망으로, <여성활동가모임> 회원들 역시 이 통신망을 통해 만나게 되어 1999년 8월에 <여성활동가모임>을 결성한 바 있다

않는 활동가로서 살기로” 결정하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다시 영향을 끼친 ‘기억의 회귀’였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되었던 사례5와 마찬가지로, 사례6 역시 과거의 경험은 다시 회귀하여 새롭게 형성된 여성주의 의식을 명료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은 오랜 동안 운동을 해 오면서 사회운동 내에 구조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폐해들을 경험하며, 그녀들이 경험한 양상은 매우 다양하며 복잡적이다. 이들의 경험 속에는 학생운동의 위계적 구도 속에서 소외된 ‘여자대학’ ‘비(非)명문대학’ 활동가로서 느꼈던 권위주의와 수직적 위계구조, 엘리트주의, 군사주의적 문화 및 언어, 여성활동가들의 주변화된 위치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누적되어 있었으며, ‘노동운동’에 대한 실망감이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또, 직장생활을 통한 ‘여성노동자’로서의 경험이나 여성운동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이 ‘탈성화·남성화된’ 운동가가 아닌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사회운동진영 내의 여성비하적·남성중심적 문화 및 성적대상화, 다양한 형태의 폭력·폭언·성폭력은 대다수 여성활동가들에게 커다란 경험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운동권내 성폭력의 경우, 신뢰하는 ‘동지’였던 남성활동가가 “기본적 인권의 문제”로 여겨지는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 뿐 아니라, 이를 은폐하고 봉합하려는 사회운동 특유의 여러 기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성주의 의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활동가들이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저항·좌절의 경험을 반복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구체화시켜 가는 과정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랜 동안 누적된 억압과 좌절의 경험들은 몇몇 (사소해 보이는) 계기들로 인해 한꺼번에 “폭발”하게 되는데, 그러한 계기 자체는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가부장적 사회운동진영 내에서 여성활동가들이 겪어야 하는 정체성의 분열과 저항·좌절 경험의 반복이라는 ‘기억’이 맥락으로서 놓여 있다. 사회운동의 가부장적 구조에 대해 여러 차례 저항을 시도하는 가운데 점차 문제의식을 분명히 해나갔던 과정은 대다수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며, 저항과 좌절의 반복적 경험은 여성주의 의식을 발전시키고, 발전된 여성주의 의식은 거꾸로 그 경험을 새롭게 해석하게 해주는 것이다.

#### (4) 비판의식의 급진화와 ‘공론화’

이제 이렇게 형성된 여성주의 의식을 통해, 사회단체 여성활동가들은 자신의 과거 경험들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가운데 비판의식을 급진화하고,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을 ‘공론화’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재해석된 과거들이야말로 90년대 중반 이후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을 실천적으로 급진화했던 두 ‘여성주의자들’ 집단 중 한 흐름인 <여성활동가모임>의 발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의 3장에서 간략히 개괄한 바와 같은 사회운동의 구조적 가부장성은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의 다음과 같은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증언’되며 또한 급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여기서는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 4-1) 권위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인 운동 양식

사례1의 경우, 대규모 노조에서 사업 의뢰를 받고 내용을 조작하려는 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상명하달식’ 권위주의가 관철되는지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아래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운동 내의 권위주의는 단순히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과 불이익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문제제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이거는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서 낫술을 막 먹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우리 단체는 말이 너무 많대. 그래서 “그 정도 얘기도 없었다면 우리가 말이 많은 건 사실이네요.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안하렵니다”, 그러고 말았죠. 근데 우리가 싸웠던 노조가 가장 파급력 있기 때문에, 그게 민주노총으로 들어가고, 연맹동을 통해서 결정권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가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집회 갔더니 작업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예 연단 위에 못 올라가게 해 — (사례1)

이러한 사회운동진영 내 권위주의와 수직적 위계구조의 문제는 다수의 <여성활동가모임> 회원들이 오랫동안 경험해왔던 바이다. 특히 사례4의 경우 다니던 대학의 특수한 상황이 그러한 권위주의와 위계구조를 강화하고 정당화했던 경우이다. 과거 70-80년대 사회운동진영이 독재정권이라는 전체주의적 폭압 상황에서 스스로를 대단히 위계적이고 엄격한 조직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정당화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 사례4의 경험 속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났다. 대학 당국 측의 사주를 받은 “반동들”이 빈번히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당시 학생운동가들은 “집에도 전혀 못 가는” 등 개인의 일상을 제쳐두고 ‘활동’에 복무해야 했으며, 학생운동 조직은 “무식하고 인원도 별로 없지만 투쟁할 때는 잘 한다”는 남성적이고 군사주의적인 활동가 상(像)을 “영웅시”하는 방식으로 구성원들을 강제하고 문제제기를 가로막았던 것이다.

#### 4-2) 남성중심적인 성 문화와 성 의식

남성우월적·여성비하적 문화 역시 대부분의 여성활동가들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매우 일상적으로 경험했다고 한다. 특히 사례1의 경험은 여성비하적인 문화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 어떤 방식의 협박과 압력이 가해지는 지를 잘 보여준다.

노조에서 활동하는 어떤 남성활동가랑 논쟁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여성비하적인 얘길 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소리지르지 말라고 그러면서 싸웠는데, 다음날 갔더니 소문이 확 퍼졌어요. “어떤 녀이 우리 노조가 어용노조라고 그랬다”... 얘기를 왜곡해서 한 거야. 자기들끼리 전화통화를 막 하더라구요, 내가 옆에 있는데도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레가지고 내가 불렀어요. “왜 나한테 얘기를 하지, 사람 지금 옆에 앉혀놓고 바보 만드는 거냐. 뭐 굳이 내가 해명할 필요는 못 느끼지만, 이미 그런 식의 얘기가 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 전해진 얘기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그렇게 완곡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사람이 협박을 했거든. “앞으로 A노조 사업장에 계속 안 들어 올거나 (못들어오게 할거다)” — (사례1)

위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대규모 노조 등 주류 사회운동단체들에 비해 소규모이고 자원 및 조건이 열악한 단체에서 활동한다는 점, 여성이라는 점 등 권력관계에서 약자에 속하는 여성활동가에게 술자리 등에서 여성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일은 빈번히 발생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 ‘노조간부’ ‘남성’활동가는 어떤 문제제기에 대해 “소리를 지르는” 등 비언어적인 기제를 동원하여 억누르려 하거나, 그에 굴복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조직적 위치에서 비롯된 인간 관계 등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여성활동가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저항을 무마시키려고 시도한다. 문제는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문제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남성활동가들은 그것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남성중심적 성문화·성관념은 개인적 관계(“연애 관계”)나 “선호”의 외양을 띠고 일상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남성활동가들 중에 죄의식을 못 느끼고 몸매가 좋은 여자들에 대해서 찬양을 하거나, 어떤 여성에 대해서 환호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로 여자후배들을 대한다던지 아무튼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개네가 사실은 굉장히 남성적이라는 걸 많이 느꼈고... 남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성성의 상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TTL에 나오는 그 여자 애 정말 멋지지 않냐”, 이렇게 얘길 하는데, 그건 예를 들면 내가 “정우성 멋지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아 보이지만,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는 전혀 같지 않은 얘기거든. 그건 남자애들이 갖고 있는 어

턴 일련의 가부장성이나 여성 차별적인 의식이 반영된 ‘선호’예요 그런 것이 참 고달팠죠 — (사례6)

여기서 사례6은 남성활동가들이 내세우는 ‘선호’가 “일련의 가부장성이나” “여성 차별적인 의식”이 “반영된 ‘선호’”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 ‘공적인’ 문제들에 대한 ‘진보성’과는 무관하게, 주위의 대다수 남성활동가들이 연애 상대방에게 “너는 꼭 결혼해서 내 애를 낳아야 된다, 너는 원하거나 말거나” 라는 식의 말을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성적 접촉을 요구하는 남성우월주의적 태도를 보였다는 사례4의 증언은 사회운동진영에 팽배해 있는 남성중심적 성문화와 성의식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었다.

#### 4-3) 위계화된 운동이념 . “노동운동의 중심성 · 선차성 · 우월성”

맑스주의계열 사회운동 전반에 계급모순 및 노동운동의 ‘중심성 · 선차성 · 우월성’이라는 위계적 이념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관철되고 있는가 역시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했던 당시, ‘총여학생회’는 여성운동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맑스주의 계열 학생운동의 세력을 확장하고 자원을 충당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이는 앞서 다룬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의 사례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이며, 최근까지도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명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사례4는 그러한 경향이 사회운동진영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일반적인 관념이자 운동의 주요 이념이라고 말한다.

‘무슨 여성운동이 어딴지. 그냥 민중해방 되면 그게 여성해방이지’, 거의 그런 분위기. 그런 부분들을 문제제기하거나 얘기하는 거 자체가 되게 반동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생각 없는 거 같고, 운동에 대한 신심(信心) 없는 거 같고. 특히나 노동운동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더 심한 것 같은데, 노동운동의 우월성 있잖아요. 노동운동이 아닌 여타의 다른 운동들을 거의 노동운동의 하위파트너 정도로 보는 거죠. 예전에 있었던 성폭력 사건 해결이 어려웠던 것도 “노동운동에서 내걸고 있는 이슈가 제일 중요한데 니네가 거기서 성폭력사건 얘기하면 이 이슈가 희석화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나는 핵심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들도 노동운동 중심성을 아직까지 못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자유주의반대”, 뭐 이런 거대한 개념에는 민감하면서도, 개인의 고통이나 피해자의 고통같은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둔감하고. — (사례4)

사례4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노동운동의 중심성 · 선차성 · 우월성에 대한 이념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다른 사회운동들을 평가절하 하는가 이다. 노동운동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서 운동사회

내 성폭력 사건을 이슈화하는 것은 “노동운동이 내걸고 있는 이슈”를 “회색화”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많은 활동가들이 “개인의 고통이나 피해자의 고통”에는 둔감하지만 “신자유주의 반대”와 같은 거대하고 포괄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활동을 할 정도의 헌신성을 보인다. 여기서 ‘노동운동이 내걸고 있는 이슈’나 ‘신자유주의 반대’와 같은 것이 바로 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은 “운동의 대의(大義)”이다. 거대담론을 중심으로 위계적으로 구조화된 사회운동의 이념 속에서 ‘일상적 폭력’은 인식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여성문제/여성운동을 부차적인 것, 부분적인 것으로 만듦으로써 여성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문제제기, 그와 관련된 활동을 고립시키고 부분화하는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노동운동(맑스주의 계열 운동)을 ‘전체운동’으로 여기는 것과, 여성운동을 ‘부분운동’으로 여기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전체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보편적’ 이해를 대변한다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대로 여성운동은 여성들만의 ‘특수한’ 이해에 불과하고 따라서 덜 중요하고 이차적인 문제로 밀려날 수 있게 된다<sup>64)</sup>.

#### 4-4) 남성적 ‘운동가 상(像)’과 ‘운동 언어’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은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언어화’하는 가운데, 당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다시 규정하게 된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명예남성”이라는 용어를 매우 비판적인 의미에서 사용했으며, 자신 또한 과거에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성찰적으로 회상하였다. 이는 결국 여성활동가들에게 ‘이중적인’ 요구가 있었고 그로 인해 자아분열을 경험했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남성화되기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강제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사례1의 경우, 현대자동차 노조 식당 여성조합원 해고자들이 “공식화된 언어로 인정을 못 받는다” 자신들의 언어를 버리고 “짧은 시간에” “운동권 용어”를 익힐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문제의식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64) 다음과 같은 사례6의 경험은, 맑스주의 계열 사회운동에서 뿐 아니라 민족주의 계열 사회운동에서도 역시 동일한 논리가 작용해 왔음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내가 <또 하나의 문화>에 막 들어 갈 때쯤 해서 고정희씨가 죽었어요. 고정희씨는 민족문학계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가였고, 또문 쪽에서는 여성 문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가였는데, 고정희씨 유고시집을 <또 하나의 문화>에서 내면서 앞에 서문을 붙인 게 있어요 “고정희씨의 장례식에 가서 민족문학 계열의 남성 작가들이나 남성 운동가들에게 여성운동쪽 사람들은 까마귀 때 취급을 받았다, 전부 까만 옷 입고 장례식에 참여한 우리는, ‘저 사람들 뭐야’, 이런 식의 취급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를 맥락과 전혀 다른 쪽에 서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취급을 받았다”, 이런 서문이 아직도 기억이 나” (사례6)

여성들의 일상적 경험에서 우러난 언어들은 공식화된 언어로 인정을 못 받아요. 회의할 때 보면 진짜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들이 언어로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그 방식과 그런 문화가 표현을 막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와있는 언어를 사용해야되고.. 현대자동차 노조 식당 이즘마들의 투쟁이 길지 않았는데, 용어는 다 운동권 용어예요. 너무 듣기가 싫더라구. 인터뷰를 하면 운동권 용어고, 그냥 얘기하면 이즘마 용어가 나와요. 근데 이미 그게 습관이 됐더라구요. 짧은 시간에 그 습관을 익힐 수밖에 없었던 거지. 언어가 다를 때 용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 (사례1)

위의 이야기 속에서 사례1은,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사고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즉, 여성의 일상적 억압 경험은 자신의 언어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 내에서는 그러한 언어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남성중심적 언어를 습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사례6의 경우는 보다 직접적으로 이중적인 여성활동가의 상(像)을 요구받았으며 그러한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활동가로서 인정받기 위해 “명예남성화 되려고 노력했던 시점”과 “여성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했던 시점이 둘 다 있었다고 한다.

내가 명예남성화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점이 있어요. 확실히 나의 여성성을 발휘를 했을 때 잘 먹힌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남자애들이 경계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부드럽게 내 얘기를 관철시킬 수가 있어. 그때 애들이 나에 대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고집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따질 건 조목조목 따지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평가했던 걸 보면.. 사회운동 활동가라는 젊은 남자애들이 논쟁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동원하는 여러 가지 기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니 선배”라든지, “조직의 선배”라든지, “내가 너보다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다”든지, “말발이 더 썰다”든지, “경험이 더 많다”든지. 그런데 나는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동원했던 것이, 예를 들면 내가 너보다 열등한 여자고, 부드럽고, 그런 의미에서 다가갔었던 면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 (사례6)

남성활동가들이 가지고 있고 또 효과적으로 활용하곤 하는 여러 가지 자원들은 여성활동가들에게 결여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활동가들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남성들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여성성을 강조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이후 사례6이 조직의 대표가 되었을 때, 여성활동가에 대한 이중적 요구는 보다 명확해 진다.

“활동가로서 여성은 이래야 된다” 라는 것과, 남성활동가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여성상이 또 별개로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나한테 요구가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여성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적당하게 무성적으로 ‘아, 나는 동지다’, 이런 스타일로 나를 변화시킬 그런 무엇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를 들면 ‘형’이라는 호칭, 옷차림, 이런 거부터 변화시켰던 것 같고, 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겪기 시작한 건 ○단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데, 한번도 노골적으로 대

놓고 싸우거나 그러지는 못했지만, 내가 ○단체 대표가 된 다음에, 끊임없이 “대표는 이래야 된다” 라는 상(像)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선배가 자기가 진짜 리더라고 생각하는 남자친구의 얘기를 계속 나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개는 진짜 포용력을 가졌고..” 아마 그런 것이 리더의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한테 계속 주입하려고 한 것 같고, 또 한가지 상은 자기 여자 선배 애긴데, 그 여자선배는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여성활동가라면 저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자기가 여성이라는 거를 한번도 내세운 적이 없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도, 이 여자선배는 언제나 헌신성으로 애들을 그렇게 잘 챙겨줄 수가 없다”.. 두 가지 모두를 나한테 얘기 하면서 나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분열적인 상황에 빠지게 하는 계기를 제공을 했어요. — (사례6)

즉, “리더의 상”은 “포용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 이상적인 예는 남성활동가에게서 찾아지는 반면, 여성이 리더일 경우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도” “언제나 헌신성으로” 주위 사람들을 “챙겨”줘야 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요구는 여성활동가들에게 “갈등을 겪게”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과 분열적인 상황에 빠지게” 한다. 이상적인 운동가의 상(像)과 언어, 옷차림, 생활시간 등 일상적 문화가 남성중심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모습과 태도를 변화시켜가면서 끝내 성공하지 못할 좌충우돌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4-5) 언어적 · 물리적 폭력 및 운동권내 성폭력

대다수 여성활동가들에게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비밀비재하게 벌어지는 폭력과 폭언, 그리고 성폭력<sup>65)</sup>이다. 오래 전부터 군사문화가 지배해온 체제에서, ‘폭력’은 소위 ‘저항세력’이라는 사회운동진영에 조차 내면화되고 일상화되었다. 물리적 · 육체적인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직 · 간접적으로 폭력이나 폭언을 가하는 것, 혹은 폭력적인 몸짓을 보이는 것은 여성활동가들을 대단히 위축시키는데, 앞서 지적한 대로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은 대부분의 일상을 사회운동단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남성 폭력을 보다 전면적이고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이는 여성주의 의식을 급진화하는 폭발적 계기가 되곤 한다. 일견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그것을 경험할 당시 여성활동가에게 어떻게 느껴졌는지를 사례3과 사례6의 경험에서 볼 수 있다.

논쟁 도중에 결정적으로 그때 딱 자리에서 일어난 그 87학번 남자 선배가, 저쪽으로 가더니 의자를 발로 툭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어떻게 느껴졌냐면, ‘나를 저렇게 치고 싶은 거구나, 라는 느낌이 꼭 왔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겁이 나고 충격적이었거든요. — (사례3)

65) 여기서는 ‘성폭력’을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회의시간에 주제를 관찰시키기 위해서 남자애들이 목소리를 크게 높이거나, 눈을 부라리거나, 언어가 아닌 다른 기제들을 동원하는데... 그게 나를 굉장히 위축시켜요. 내가 진짜 운 적도 있었어, 너무 놀래서. 며칠 전에는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는 남성활동가가 나랑 싸우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전화기를 확 집어던지고 확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충격을 먹었지. 그 사람이 키가 굉장히 커요. 덩치가 큰데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나 진짜 울 뻔했거든.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를 했죠.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나면, 그 다음날 내가 사무실에 못 나온 거예요. 마음이 진정이 안 되서 혼자 막 시내 돌아다니고... 또 언젠가는 논쟁을 하다가 남성활동가가 말싸움에서 뒤지니까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이 사무실 여자들이란!” 그러고 딱 나가 버렸어요. 그런 거. 문 쾅 닫고 확 나가버리는 거 자체가, 굉장히 두렵게 해요. 굉장히 위축시키고... 개네가 자기들 ‘두렵다’ 그러는데 솔직히 개네는 ‘골치 아프다’지. 나는 위축이 돼. — (사례6)

“의자를 발로 차”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 “눈을 부라리는” 것, “전화기(등의 주변 집기)를 집어 던지”는 것, “문 쾅 닫고 확 나가버리는” 것 등의 간접적이고 비언어적인 폭력에 대해 여성활동가들은 “겁이나고” “두려움”을 느끼며 “위축”이 된다. 특히 논쟁 과정에서 이러한 비언어적 기제나 간접적 폭력으로 여성활동가들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여성활동가가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논쟁에서 이기거나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 등을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 여기는(조순경 외, 1995a) 남성활동가들의 가부장적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sup>66)</sup>.

운동사회 내 성폭력 사건은, 그것이 사건을 은폐하고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운동사회에서 추방하는 고유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 대다수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성폭력 사건들은 그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사례2는 학생운동을 하던 당시 한 남성 간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것을 공론화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참아 내야 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때 내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일단 이 사람이 한총련 간부인데, 내가 이 사람의 가해사실에 대해서 얘길 하기 시작하면’. 그때 “한총련의 위기” 막 이럴 때였잖아요, 한창 그래서 그 얘길 하면 아주 곤란해지는 상황인 거야. 한총련 자체가 곤란하고, 운동권 자체의 모럴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혼자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66) <여성활동가모임>의 회원 두 명이 겪었던 폭언 사건(일명 ‘쫓갈은 넌 사건’)도 이와 비슷한 사례이다. 이 사건은 한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선물로 준 음식을 다른 활동가들이 허락 없이 먹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했을 때, 한 남성활동가가 “쫓갈은 년들...” 등의 폭언과 비언어적 기제를 동원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후 두 여성활동가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대다수의 남성활동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침묵했으며, 결국 외부 여성단체의 중재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여러 남성활동가들은 이러한 조치에 끊임없이 직·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으며, 가해자는 징계기간 도중에 사회단체활동을 그만두었고, 동료 남성활동가들 2인도 잇따라 활동을 중단했다.

사람이 없었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게다가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여자가 엄청나게 소수인데다가, 운동권은 여자가 더 없거든요. 주변에 나를 도와주거나 애길 해줄 수 있거나 지지해 줄 수 있을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 (사례2)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니가 넘어가라”는 말 이외에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활동가들은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된다. 사례3은 자신이 성폭력을 온몸으로 겪는 운동사회의 독특한 구조의 “생생한 경험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역사화한다.

여성주의 의식을 최초로 가지게 된 또 한 축은 대학교 ○학년 때 당했던 성폭행의 경험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것과 그 다음에 내 후배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손도 쓰지 못했던 무기력했던 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난 ○년도에 거의 폐인처럼 살았거든요. 물론 간부였기 때문에 모든 데모를 다 쫓아다니고 모든 일엔 다 참여했지만, 전혀 내 생각이 없는 거야. 그 이후로는... 그때는... 그때... 내가 사실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자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얘기를 꺼냈더니, 선배들이 모였어. 근데 ‘니가 넘어가라’ 이거지 인제. “됐어라”, 그리고 “그 선배가 그렇지 않다는 거 너도 알고 있지 않냐”... 근데 도저히 납득이... 아무튼 나 스스로도 부끄럽고.. 내가 피해자인데도.. 그리고 그런 죄책감 진짜 있어요. ‘아, 내가 그때 너무 험하게 굴었나, ‘그때 나 솔직히 말해서 정신 좀 있었는데, 내가 그때 강력하게 저항하지 못했던 것이 드러나면 나보러 부도덕한 애라고 그러지 않겠어?’ 라던가. 이런 거 때문에 말뚫은 거죠. 그냥 “억울하다” 이러면서 맨날 술만 마시고 혼자서.. 그 선배들도 그런 분위기였고, 나조차도 그랬고, 그러면서 그냥 덮으면서 간거예요. — (사례3)

사례1의 경우 “통이 커야지” 혹은 “큰 문제를 생각해야지” 라는 표현이 암시하듯이, 성폭력적인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많은 경우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운동의 대의’를 위해 감수해야 할 것으로 취급된다. 사례6의 경우는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성희롱·성폭력적인 발언’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당시 “알볼 수 있는 어린 여자애”로 여겨졌다고 해석함으로써 운동사회 내 성폭력이 분명히 ‘권력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는 사례1의 또 다른 경험에서도 드러난다.

항상 사건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죠 웃으면서 웃으면서 강간하고 내가 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는, “통이 커야지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 큰 문제를 생각해야지”, 이런 거. 그런 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려면 사람들과 “같이 부대끼서 해야 된단다”.. 이것도 난 굉장히 남성적인 사고라고 생각해요. 내가 여자인데 같이 부대끼고 같이 술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걸 하라는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같이 부대끼고 술 먹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나한테 다른걸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거부하면, “아직 철저한 운동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성화가 되어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충고를 넘어서 협박까지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의 언어로는 “운동가가 그러면 안되

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부를 하면 “나중에 (같이 일하기) 힘들지 않겠냐, 앞으로 얼굴 안볼 사람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까지 할 필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협박이지. — (사례1)

이렇듯 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도록 남성활동가로부터 “협박”까지 받은 경험은 사회운동진영 내 성폭력이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기인한다는 점, 그리고 약자의 위치에 놓인 여성활동가들이 일상적으로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를 거부했을 때 “철저한 운동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던가 “운동가가 그러면 안된다”던가 하는 남성적 운동관을 강요받게 되며 그것은 곧 “철저하게 무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사례1은 통찰하고 있다.

실사 자신이 직접 성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보적’이라고 여겨왔던 사회운동진영 내에서 최소한의 “인권” 문제라 여겨지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는 분위기와,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조직보위 논리가 팽배한 가운데, 자신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사례1의 또 다른 경험은 운동권내 성폭력 사건이 여성활동가들의 경험 속에서 얼마나 문제적인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사실은 조직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잘 몰랐죠. 같은 조직이긴 하지만 학교도 달랐었고 그래서 전혀 교류도 없었던 당시에 일어났었기 때문에. 나중에 한 6년쯤 지나서 내가 단체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선배가 “친구가 그러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해자는 그때 당시에도 잘나가고 지금도 잘나가. 그놈도 말하면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뒤늦게라도 그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적어도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운동을 하고 살지만 성폭행은 안 당하고 살아야되지 않냐, 그건 아주 인간적인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인데...’ 근데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 원래 행실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하고 그런 얘기를 그때는 여자 선배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난 너무 기가 막혔어 근데 아무런 힘이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상당히 그때 무능력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위에 같은 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잊혀져 가고, 그 친구는 더 힘들어하고, 운동을 그만뒀고. 나는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그 내에서는...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가해자가 내가 일하던 단체에서 같이 상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더니 다 말렸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공격 대상이 될 거다.” 그때 막 싸우고, 그냥 이제 가슴에 물을 수밖에 없었죠... — (사례1)

사례4의 경우도 학생운동조직에서 권력의 상층부에 위치한 대중간부이자 “선배”인 남성활동가들이 거의 대부분 성폭력 가해자였다고 말한다. “학번 차이도 나고 학생운동 했던 경력 차이도 나는” 상황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녀는 운동사회 성폭력이 가부

장적 성 관념뿐만 아니라 사회운동 내의 권력구조 속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생생히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 성폭력 사건 그 자체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러한 운동권내 성폭력 사건이 ‘어떻게 은폐되고 묵인되는가’이다. “함구령”과 “둘이 조용히 해결해라”는 요구는 거의 대부분의 운동사회 내 성폭력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은폐 방식이다<sup>67)</sup>.

조직 내에서 후배들한테는 함구령이 내려요. 선배들의 이미지가 꺾인다는 거지. 물론 대중한테는 완전히 함구령이고 남자 선배들이 뭐 운동권의 도덕성이라든지 그런 애길 하면서, 피해자 여성한테, “니가 가해자 만나 가지고 둘이 조용히 해결해라”, 이렇게 막 종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피해를 받았던 여성들은 아무리 학생운동 한지 5년 6년 됐더라도 견딜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운동을 떠나거나, 살아남은 애들은 진짜 상처투성이지, 그야말로 ○학번 애들 중에서도 살아남은 애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여성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상처들이 많아요. 개네들이 얘기하기로는 “이런 게 1,2학년 때부터 너무 일상적이어서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는 별로 어떻게 저항하거나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느낌조차 없었다”, 이렇게 애길 하더라고요. 그냥 ‘저 선배는 혹시라도 같이 술 마시거나 밤에 같이 잠들면 안 되는 선배’로 딱 찍어서, 개네들 끼리만 그 선배랑 말 안 하는 거야. 조직적으로 제기는 못하죠, 1학년이니까. — (사례4)

‘진보적’인 사회운동진영에서, 게다가 믿고 신뢰했던 ‘동지’로부터 성폭력이 자행된다는 사실만큼이나 여성활동가들이 중대한 문제로 느끼는 것은, 사건 해결 과정에서 가해자 및 주위 남성활동가들이 보이는 태도이다. 소규모 운동조직일수록,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의 인간적 친밀감과 신뢰감이 높은 경우일수록, 여성활동가들은 가해자와 ‘대화’와 ‘설득’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67) 최근 <여성활동가모임>과 여러 여성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대응하였던 보건의료노조 송보순 전(前) 사무처장 성폭력 사건에서도 역시 사건해결과정 초기에 차수련 위원장이 ‘함구령’을 내렸던 바 있다. 지난 2000년 6월 20일에 <여성활동가모임>이 다른 여성조직들과 함께 준비하여 개최된 <운동사회내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자료집에서는 운동사회 내 성폭력 사건들이 갖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 기본적인 인권외식과 평등외식이 부재하고 예방의 법적 의무도 지키지 않는다, ② 성폭력은 조직보위의 이름으로 은폐, 축소, 왜곡되며 불순세력에 의한 음모로 공격받는다, ③ 성폭력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개하면 반(反)조직 행위자로 비난받는다, ④ 가해자는 조직 내 권력(명예, 권력, 존경심, 직위 등)을 무기로 성폭력을 자행한다, ⑤ 가해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며 만회하여 기억에 없다고 한다, ⑥ 가해자의 부인과 가족들은 예외 없이 피해자를 비난하며 가해자의 운동 경력을 들어 가해자를 비호한다, ⑦ 피해자의 고통은 시간이 흘러도 치유되지 않으며 활동을 중단하고, 가해자는 시간이 흐른 뒤 활동에 복귀한다, ⑧ 해결 과정에서 조직은 피해자관점과 피해자보호원칙을 무시한다, ⑨ 해결 과정에서 조직은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당면과제가 있다며 성폭력을 주변적이고 사소한 문제로 치부한다”, <운동사회 내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자료집> (2000, 미간행)

(사회운동진영 내에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뿐이다. 주위의 반응 역시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책임을 추궁하거나 자율적 해결 움직임을 폄하하고 ‘가해자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전형적인 양상을 띠는 뿐만 아니라, PC통신망 익명게시판 등과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는 또 다른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한다. 동료에 대한 신뢰가 운동가로서의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운동진영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거니와, 이와 같은 사건 해결 과정 속에서 여성활동가들은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여성활동가들의 의식은 급진화 된다. 특히 주위의 남성활동가들이 “누구나 다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코멘트를 안 하는” 방관 행위에 대해, 여성활동가들은 “굉장히 교묘하고” “너무 갑갑하고 답답하다”, “말만 번지르르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며 나아가 “이해시키는 게 너무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하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애들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주위 남성활동가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 자체가 논의를 확산시켜나가지 못하게 조장하는 면이 있는데도,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다들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걸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투자했었는데.. 교묘하다는 말이 딱 맞아요. 다들 그렇게 실제로는 아무런 코멘트나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거죠 대부분의 남성활동가들은 다 그래요 그러면서 변명으로 내세우는 거는, “자기도 사실은 그런 가부장성 가지고 있을게 뻔하고, 언제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게 뻔하다”... 자기는 잘못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너무 갑갑하고 답답한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건 없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시키는 게 너무 어렵고, 심지어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통신에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어떤 남성이 거기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개입을 할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의 오만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개입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개입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지. 아마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안 한다고 뭐라 그랬으면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게 오만인 거죠. 그리고 한번은 성폭력 대책위 차원에서 긴급 총회를 소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의 안 왔어요 여자들 빼고 남자들은 근데 세상에 엠티를 30명이나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아 그래서 내가 “그 엠티 프로그램에 성폭력에 관한 논의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성찰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는데, 결국은 가서 안 했어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논의를 말만 번지르르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에 성폭력 대책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많이 질렸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더라고요. — (사례4)

주위 남성활동가들의 수동성과 방관적 자세,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도 보이지 않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면서 여성활동가들은 ‘절망감’마저 느끼며, 사회운동가들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의식을 급진화시키게 된다<sup>68)</sup>.

적어도 나한테 동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그런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들 나한테 같은 편이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액션은 없는 거야. 같은 편이 아니었던 거죠.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내가 몇 프로는 고립감을 느끼고 또 몇 프로는 연대감을 느끼고 이런 거라면 그나마 살 수가 있을 거 같은데, 파고 들어가 보면 아무도 없다는 거.. 이걸 안 이상 내가 이 바닥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계속 쌓이는 거라서 어떻게 풀어야될지도 모르겠고. 방법은 가해자들을 죽이는 것밖에 없는 것 같고 극단을 달리는 거죠... 새벽 네시에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면 너무 행복하게 잠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생각해보면... 누가 나한테 이런 피해나 고통을... 그게 어떤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데... 그런 게 자행이 되고 있다는 게 나는... 그리고 저 사람이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는 진짜 절대 안 잊혀져요. 내가 겪은 사건에서 내가 믿었던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난 논문이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애 — (사례1)

사례1의 경우에서처럼, 성폭력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믿었던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절대 안 잊혀지는”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결국 여성활동가들은 “같은 편이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액션은 없는” 대다수 주위의 동료 활동가들에 대해 “같은 편이 아니며” 사례4와 같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고 판단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여성문제가 ‘대화’나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급진적 여성주의 의식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 4-6) 고도화된 여성 배제 메커니즘

: 성역할 분담, “능력주의”, 학벌주의, 남성들만의 비공식 네트워크

<여성활동가모임>의 회원들이 비판적 발언을 통해 공론화해 온 사회운동의 가부장적 양상들 중에는, 한국 사회운동의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구조화된 전통적인 가부장적 요소들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여성주의 담론의 대두 이후 등장한 소위 ‘새로운 사회운동’ 단체들에서 보여지는 매우 세련되고 “교묘한” 형태의 가부장적 양상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가령, 식사당번이나 설거지 당번 정도의 가사노동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젊은 층으로 구성된 사회운동단체에서도, 여성활동가들은 더욱 미묘한 형태로 성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68)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어떠한 행동이나 변화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는 앞서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던 바이다. 사례b가 “더이상 좌파들 계몽시키기 싫다”고 포기하게 되는 과정과, 사례4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애들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과정은 매우 유사하다. 즉, ‘대화나 설득’을 통해서도 어떠한 ‘실질적’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애기하자면 너무 많은데, 컵을 씻는다, 그런 거부터... 컵을 진짜 아무도 안 씻어요. 먹고 바로 그 자리에다 딱 그냥 놓고 자기가 필요하면 그냥 하나만 씻어 가지고 자기만 딱 먹고 그러니까 결국 나도 안 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묘하게 여자 애들'문제가 애기가 나오더라구요. 원래 다들 안 씻었는데, 마치 이제는 누군가 씻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자가 들어왔으니'가 뭔가 청결해지겠지,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물론 나도 깨끗하게 하고싶지만,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치우기가 싫은 거야. 컵 한번 씻으라고 그러면 서로 누가 씻어야된다 말아야된다 이러면서 전쟁 나고 아무도 "서로를 배려해서 씻어야된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 (사례2).

특히 사례2의 경우는 활동하던 단체에서 사무국장이라는 지위에 있었는데, 젊은 층으로 구성된 사회운동단체에서 여성들이 사무국장을 많이 맡게 된 최근의 현상에서 동시에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사무국장'의 역할 자체가 변화했다는 점이다. 즉, 과거에는 사무국장이 해당 조직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정책 내용을 관할하는 업무를 담당했다면, 최근에는 잡다한 사무관리(물품관리, 회계, 전화연락 등)가 사무국장 업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90년대 이후 사회운동단체 내의 업무분담에 있어서 노골적인 성역할 분담은 어느 정도 완화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여성이 어떤 직책을 차지하면 그 직위 자체가 소위 "여성화된 직종"의 일로 변화되기도 한다<sup>69)</sup>. 각종 재생산노동을 포함한 잡무에 대해 사례2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질책이 되돌아온다.

"내가 전화 받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무슨 사무 보는 경리도 아니고, 차라리 경리를 시켜라 돈주고", 라고 얘길 했는데, 그때 그 단체의 한 남성활동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회에 나가도 한 일년정도는 수습기간을 둔다, 그 기간에 전화 받고 잡일하고 그런 건 당연한 거다" 저는 정말 그 일년 내내 제대로 뭔가 활동을 했거나 그랬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 (사례2)

사회운동 내에서 여성활동가들은 3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가부장적 구조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저발전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데, <여성활동가모임>의 회원들은 노골적인 차별이 없는데도 여성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도태되는 상황에 대하여 "능력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어화'하고 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 남성활동가는 항상 기획자고, 업무를 분담해주는 사람의 역

69) 이러한 상황은 앞서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이 90년대 중반 이후 학생운동의 위기상황 모면을 위한 일시적·보조적 존재로 취급되었던 것과 비교될 만 하다. 그녀들 역시 책임 있는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실제로 기대되는 역할은 여전히 '전통적 여성의 보살피고 챙기는 역할'이었으며, 실질적으로 정책을 생산하거나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남성활동가들의 몫이었다.

할, 대장의 역할을 자임했었어요. 물론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진 정보력이나 그 운동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지는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실제 역할에 있어서, 누군가는 계속 잡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로 고정되어 있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지시하고 뭐 이런 관계가 계속 있어왔어요 — (사례5)

내가 사무국장이었는데도 무슨 애길 하면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애길 했을 때는 그게 비중이 있는 얘기가 되는데 내가 어떤 애길 했을 때는 거기에 비중이 실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아 그래서 결국은 내가 회의를 소집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어도 결국은 딱 돌아서면 전혀 무게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얘기가 있었던 것 뿐이야. 내가 회의 주재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기분이 나빴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제는 들고... 맨날 사람들에게 ‘좀 와라’ 이런 전화나 하고, “뭘 해보자” 라고 애길 해도 그냥 모였다가 “맘에 안 든다”, 이러면서 가버리고... — (사례2)

이처럼 배제는 여성활동가의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맘에 안 든다”고 보이콧을 하는 식으로 미묘하게 이루어진다. 사례5의 말에서, “정보력”과 “운동을 오래 했던 사람이 가지는 노하우” — 이는 대개 남성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인데 — 인하여 “항상 기획자고” “업무를 분담해 주는” 역할을 하며 “대장의 역할을 자임”하고 조직의 활동을 “주도”하며 “실질적인 결정권을 쥐고”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한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활동가들은 “계속 잡일을 해야 하는” 위치로 고정되는 경험이 반복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쉽게 제기되기 어려운 이유는 “역할분담”의 명목으로 “민주적인” 외양을 띤 상태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남성활동가들이 “그런 의도는 정말 없었다”고 말하면서 문제제기 자체를 “과민한” 것으로 치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저항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남성활동가는 정보의 독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외국에 대표 이메일로 자기 이메일 주소를 적어놓고, 거기로부터 오는 정보들을 자기가 해석해서 소통시키는 방식.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이전 그냥 노하우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테면 어느 만큼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정보의 양과 질의 차이에서 그만큼 일을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그걸로 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다 연결되어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서울대 출신이라는거. 정말 어디에 가도 만날 수 있는 게 서울대 인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역할을 좀더 평등하게 나누고, 후배활동가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보다는, “효율적인 방식, 자기가 직접 처리하는 게 가장 믿음직한 그런 방식”으로 활동을 해왔던 것 같고 그렇게 되다보니 권력은 계속 집중이 되었었고. — (사례5)

사회운동단체에서 “정보”와 “기술”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9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사회운동단체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졌으며 ‘정보통신운동’이라는 영역 또한 크게 성장하였다. 사례2는 기술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동료로서 인정해주지 않았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남성활동가들 대다수가 이미 취득하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교육 프로그램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따라서 여성활동가들은 “동등해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피나는 투쟁”을 통해 ‘자원’을 획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례6의 경우는 사회운동의 주제 자체가 “남성적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러한 배제를 “돌파”해야 했던 경우이다.

특히 기술이 남성의 영역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의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가 남성적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예를 들면 전문지식에서 소외가 된다든지, 논리가 소외가 된다든지 그런 게 나한테도 있다고 생각해요. 기술적인 운동은 특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나는 약간 논리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그걸 돌파했던 것 같아요. 정보운동의 논리를 만들어내고, “사이버권리란 이런 것이다” 라는 논리라든지, “표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거. — (사례6)

사례2의 경우는, 정보통신운동단체에서 기술력을 가지지 못한 여성활동가가 어떻게 배제되고 도태되는지에 대한 경험을 보여준다. 사례2는 스스로 그 원인이 “여성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며 (순종적인 여성활동가가 아니라) “일을 마구 추진하려고 하는 여성”활동가였기 때문인 모르겠으나 “가진 게 없”다는 것이 그 이유 중의 하나였다고 이야기한다. 기술력과 정보력이 남성활동가들에 의해 독점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이 운동사회 내에서도 점점 더 중요하게 취급됨에 따라, 여성활동가들은 사회운동단체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례2가 주변적 위치에서 벗어나 일을 추진하거나 유급 “전업활동”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을 때, 동료 남성활동가들은 노골적인 무시와 모욕감을 줌으로써 결국 그녀가 스스로 활동을 중단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활동비용을 받으면서 전업활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다른 남성활동가들이 “도대체 니가 하려는 일이 뭐냐,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그냥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완전히 거지취급을 당한 다음에 “전업활동 못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냥 그렇게 떨어져 나온 거죠. 그건 되게 미묘한 거라서 정확하게 “내가 여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서로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하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동료로서 신뢰하지 않은 거죠. “니가 가진 게 없으면 넌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대놓고 말한 거죠, 결국은 내가 일년동안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동료로서 인정을 못받고, 지금 그들이 동료로서 인정하는 건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사람, 자기가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들어와서 일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 (사례2)

사회운동에 있어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는 “정보력”이나 “기술력”을 가지지 못한 여성활동가들은 심지어 “동료로서 인정”받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남성활동가들이 인정하는 ‘동료’는 “자신의 권력”에 “보탬이 되는” 다른 남성활동가들이기 때문이다. 사례2는 이후 단체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여성활동가들 때문에 조직이 망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야. 그냥 “니네가 들어와서 뭔가 변했어. 뭔지 모르지만 뭔가 변했어” 그냥 “곤란하다” 이거지, 무조건 곤란하다. 어떤 근거도 없어. 그리고 술김이니까 말이 막 나오는 거죠 “니네 때문에 망했다” 라고 제가 특히 고통을 당했던 건, “나서는 여자”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고, 모르는 게 있으면 다소곳하게 있다가 다소곳하게 질문하고, 불만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으려는 작업하지 않고 있었으면 적어도 욕은 안 먹었을 것이고, 그냥 “망했나보다” 라고 애길 했을텐데, 그냥 그 망하는 시점에 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너 때문”이 되는 거고, 망하는 걸 막아 보려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썼어도 다 내 탓이 되는 거죠. 내가 여자인 만큼 더 편리한 거지. “너랑 나랑은 잘 안 맞는다, 여자라서”,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 (사례2)

그리고 이렇게 기술력과 정보력 등 사회운동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자원들이 남성활동가들에게 집중되어 권력 독점이 이루어지게 되는 데에는 여성활동가들이 “서울대 중심주의”라고 표현하는 학벌주의 및 엘리트주의 역시 한 몫을 한다. 사례6 또한 자신이 운동사회 안에서 주변화되었던 데에는 학벌주의가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하며, 이는 여성활동가에 대한 대표적 배제 메커니즘으로서 사례5와 사례1을 비롯하여 대다수 여성활동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이기도 하다.

그 사람들은 다 서울대 출신들이고. 일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을 써. 사람은 높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것도 공개가 안 되는 거니까. 그 인간이 권력이 막강하거든요. 민주노총에서 우리 사업장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했어요. 전화를 해서 “재네들 못 들어오게 해라, 진짜 이상한 애들이다” 대놓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웬지 그 사람들 싫더라”, 이런 식으로 민주노총 조직국장, 문화국장,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자기 조직에 오명을 남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달리 생각이 안 맞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문제는 능력주의였죠. 우리 전 대표는 예전 사무실 건물 앞에서 삭발도 했어요. 그런 문제(능력주의)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독한 년들이라고. — (사례1)

운동사회 내 능력주의 문제는 권위주의나 학벌주의 등과 같은 다른 억압의 기제들과 중첩되어 나타나며,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협박과 압력이 가해진다. 특히 사례1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운동진영 내 학벌주의·엘리트주의는 여성활동가들에게 아예 “일할 기회를 안주는” 것으로 경험되며, 그에 대한 저항은 서울대 출신 남성활동가들이 지니고 있는 “인맥”과 “권력”으로 인해 가로막힌다. 흔히 “키워주기 문화”라고 불리는 남성들 사이의 비공식적 네트워크 형성이 사회운동 내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성활동

가모임> 회원인 한 여성활동가의 다음과 같은 말은 남성들만의 비공식적 네트워크 형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서울대든 아니든 간에 언제든지 형이 아우를 이끌어 주고, 형이 잘못했을 때 아우가 형을 용서해 주고, 또 그 사람의 잘못이 아주 컸을 때 정치에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다 만들어 주고, 그런 관계인 거죠. — (<여성활동가모임> 회원)<sup>70)</sup>

여성활동가들과는 달리 쉽게 “형-아우 사이”가 되어 공조 관계를 형성하는 남성들만의 네트워크 형성은 여성들을 정보, 인맥, 조직구조 모두로부터 소외시키는 중요한 기제이다. 이처럼 사회운동진영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벌주의·연고주의와 남성활동가들 사이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여성활동가들에게 심한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이는 사례6의 경험에서도 잘 드러난다.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 단체에서 내가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활동가는 전혀 없었죠. 늘 외로웠어요. 다들 자기 조직이 있었어.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서울대학교의 △파라든지... 근데 나는 없었거든. 나중에 가만히 보면, 굉장히 힘들게 내 얘기를 관철시켜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웠던 것 같고, 남자활동가들은 끊임없이 ‘우리는 한패다’ 라는 걸 환기시키는 기제를 계속 활용을 해요. 예를 들면 서울대에 있는 운동권들 얘기를 계속 한다든지, 그런 집단을 계속 호출을 하는 거죠. “너 누구 아냐?” 이런 식으로 애길 한다든지. 심지어 한겨레신문 기자가 촬영하러 오면, “혹시 관악 나오지 않으셨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기자가 84학번이라고 그러면, “아, 84학번에 A 형 알아요?” 뭐 이렇게 얘기 한다든지.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남자들한테는. — (사례6)

정보의 독점에 의한 권력의 집중, 그리고 이를 강화하는 학벌주의와 남성활동가들 사이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인해, 운동사회에서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정보’와 ‘인맥’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여성활동가들이 구조적인 저발전 상황에 놓이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은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여성활동가들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능력주의”라고 명명하고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학벌주의 및 엘리트주의, 그리고 남성활동가들 사이의 “비공식적 네트워크” 형성과 뒤얽힌 “능력주의”의 문제가 매우 포착·언어화되기 어려운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배제를 ‘인식’하기조차 어렵고 저항을 하더라도 쉽게 무마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

70) 이 회원의 경우 심층면접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례와 오간 대화 중에서 논지를 명확히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있어 함께 인용하였다

4-7) 문제제기의 봉합 · “합리”, “논리”, “과학”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왜곡과 무마

얼마 전 <여성활동가모임>에서 있었던 “능력주의” 문제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한 여성활동가는, “운동권 내부의 문화로 이미 굳어진 여성활동가 배제 전략”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여성활동가들은 지속되는 논의(?)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잘 모르겠다’ ‘설명해 달라’는 주문을 남성활동가로부터 받게 된다. 그들이 끊임없이 때로는 애원하듯이 말해주기를 요구한 이성적·본질적·구체적인 내용이란 무엇이였을까? 여성활동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명망 있는 이론가가 예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이런 논문을 발표했으며, 우리의 문제제기는 그것에 기인한다’라고 제시했으면 인정했을까? 아니, 이것은 결코 언어의 문제나 이론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분명 자신들이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탄탄한 운동권에서의 지위를 보장하는 티켓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남성이며, 명문대 출신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욱더 힘을 준 것은 단체 내에서도 다른 조직에서도 남성활동가들은 아무도 그들에 대해 ‘오버하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남성활동가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제가 된 남성활동가들에게는 점잖게 충고하고 있었으며, 길길이 뛰면서 문제제기 하는 쪽은 여성활동가들이었다. 이미 온라인 게시판에서조차 남성활동가와 여성활동가 진영은 나뉘어져 있었으며, 문제가 된 남성활동가들은 그 사실로 인해 더 이상 기죽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의 적은 분명했다. 과도하게 예민한 몇몇 여성활동가였다. 게다가 그녀들이 기반하고 있는 것은 오해에 따른 그저 ‘감정적인·예민한 문제제기’였다. 여성활동가들이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했던 또 다른 측면은 그녀들이 알고 있는 맥락 속에서 너무나 명확했던 사실이 그들에 의해 재구성되면서 전혀 새로운 사실들로 드러난다는 것이었다. 남성활동가들이 끊임없이 ‘오해’라고 주장하는 사이에 여성활동가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문제의식이 단순한 ‘오해’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 더욱 난감해지고 확실하게 상처받게 된 것이다. (김혜경, 2000, 미간행)

이 인용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여성활동가들의 문제제기를 무화시키고 왜곡하는 남성활동가들의 전형적 전략이다. 남성활동가들은 여성활동가들의 문제제기를 “지나치게 오버하는”, “감정적인” 문제제기로 취급하고 “오해”라고 매도하면서 끊임없이 “이성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한다. 더불어 다른 주위 남성활동가들은 “스스로를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점잖게 충고하는” 데에 그치는 등 미온적이고 불철저한 대응으로 일관한다. 집회나 문화제 등 사회운동권의 활동 속에는 ‘동지애’나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이름 하에 감성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여성활동가들의 저항에 대해서는 ‘논리’와 ‘이성’만을 내세우며 문제제기를 가로막는 것이다. 이처럼 남성의 이해에 따라 편의적으로 중요시되는 논리 및 언어구조 속에서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존재하지 않게 되며, 여성활동가들의 문제의식은 오히려 보다 명확해지게 되는 것이다.

여성활동가들에게 이렇게 명확했던 문제가 남성활동가들에게는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문제였다는 것 어떤 남성활동가도 그들에게 ‘개새끼’ 같은 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남성활동가들의 견고한 네트워크 — 그들끼리의 권력 — 그 속에서 함께 상처받은 것은 아닐까? 그리고 ‘능력주의’가 그들의 권력에 대항하는 여성활동가의 주요한 타격지점이 된 것은 필연적이지 않았을까? 여성활동가들이 제기한 ‘남성활동가끼리의 권력독점’ 문제와 그것이 낳은 ‘여성활동가에 대한 광범위한 배제’ 문제에 대해, 남성활동가들은 사실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끝까지 오해라고 주장했고, 그런 오해들을 조직적으로 풀고 싶다고 했다. 왜 조직적으로 풀자고 하는가? 그것은 조직이 이미 ‘남성적’이기 때문이다. 조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모든 잘못은 ‘전체의 · 구조적인 · 한계를 내포하는’ 문제로 정리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정리되든 끼어 들 틈새가 없는 그들간의 네트워크와 권력독점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성활동가들은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었다 (김혜경, 위의 글)

이처럼, “능력주의”에 의한 여성 배제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을 무마하는 전형적 기제인 “조직적으로 풀자”는 요구는, “조직 자체가 이미 남성적”이라는 여성주의자들의 통찰 속에서 비판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여성활동가들의 문제제기를 가로막는 원인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문제제기를 ‘사소한 것’, ‘과민한 반응’으로 치부하는 주위 남성활동가들의 반응이며, 이는 앞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논리”와 “합리성”과 “과학성”의 이름으로 여성의 일상적 경험을 무시하고 그것을 발화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거대담론 중심의 운동이념’으로부터 나온다. 사례1은 “논리”와 “과학”과 “대중에게 검증 받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회운동진영의 문화 속에서 여성활동가들의 분노가 표현조차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고 “스스로 자꾸 물음을 던지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운동권이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분노들을 막는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대중에게 검증 받는 이 기제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 내 분노를 그때 당시에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걸 또 왜 돌아가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되나... 이런 게 너무 소름끼치게 무섭고 싫고 수십 번 입장을 정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얘길 안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정말 다하면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 때, 아니면 웃으면서 나랑 거리를 두는 때, 참아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앉아서 차근차근하게 “이거는 이런 문제고 이런 거 같습니다”, 라고 얘길 하면, “세상을 그렇게 너무 힘들게 살지 말라”는 충고를 들어야되고.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와 더불어, ‘내가 이 바닥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게하죠 스스로 자꾸 그런 물음을 던지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 (사례1)

이에 더하여, 90년대 초반 소위 “페미니즘을 알고 있는 좌파 지식인 남성들”의 출현이 여성활

동가들의 문제제기를 억제하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해 왔다는 점은 따로 언급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히 <여성활동가모임> 회원들 대다수가 속해 있는 젊은 소규모 사회운동단체들의 경우, 많은 남성활동가들이 표면적·형식적으로는 성차별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제기를 하기가 오히려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성게시판에서의 논객들은 남자들이었어요. 변정수라던지, 김영하라던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엄밀한 의미에서 논리적인 그런 것들이 부족한 여성들에게 “여성문제는 기원은 이렇다”던지, “이게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던지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 92년도에 ‘페미니즘의 상업화’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페미니즘이 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토론에 열정적으로 참가를 했었는데, 남자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면 변정수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 갖고 “너의 입장은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 이러면서 초토화시켜버려요. 근데 문제는 여자들이 글을 안 쓴다는 거였죠. 뭔가 자기가 문제를 느꼈던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별로 본격적으로 얘기가 못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담론을 남자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자들이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성운동은 이제 성장해야된다” 라고 남자들이 주장을 하면서, 막 “해줘야된다”, 이런 분위기였고... — (사례6)

이렇듯, 페미니즘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여성문제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지식인 남성활동가들의 존재는 오히려 여성활동가들의 문제의식이 발전되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경향이 있다. 시간이 지난 후 사례6은, “페미니즘을 알고 있는 좌파 지식인 남성들”의 이와 같은 ‘가르치려 드는’ 태도에 대해 비판하게 된다.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은 소위 “페미니즘을 아는” 남성 좌파 지식인들의 방관적·훈계적·초월자적 태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며 이는 다른 여성주의자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보였던 태도이다

내가 사실 게시판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썼었어요. “당신들에게는 여성들이 저열한 수준으로 보이더라도, 나는 그냥 이렇게 못난 목소리더라도 여성들이 편하게 얘기하면서 가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아무리 여러 가지 다른 조건에 처해도, 자기가 여성으로서 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의식이 안 생길 수가 없고, 그거는 설명을 안 해줘도 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르쳐주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 (사례6)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은 매우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까지 급진적인 비판을 제기해 왔다 특히 능력주의나 ‘남성들만의 비공식적 네트워크 형성’ 등 보다 교묘한 형태로 고도화된 가부장성은 이들의 비판을 통해 비로소 ‘언어화’ 되었으며, 표면적으로 여성주의에 동의하는 듯한 외양을 띠는 90년대 후반 이후의

상황에서 여성주의자들은 더더욱 급진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여성주의 정체성이 수많은 “투쟁”을 통해 획득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여성주의자로서 스스로를 정체화한 이후에도 그녀들의 문제의식은 끊임없이 변화·확장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즉, 여성주의 정체성은 어떤 정태적인 ‘상태’라기 보다는 지속적인 ‘과정’ 속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Stanley & Wise, 1983).

## (5) 감정적 유대감으로부터의 단절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여성활동가들의 문제의식은 급진화된다.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 사례5는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 ‘여성주의자’라는 말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하거나 직접적인 저항을 꺼리게 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 하고,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여성주의적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실제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공격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관계에 대한 공포감, 누군가와 적대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외부의 적도 있는데 동지들 내에서도 그래야 한다는 공포감... — (사례5)

여성주의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위의 동료 활동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사례5가 이야기하듯이, 동지들 내에서도 “적대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은 많은 여성활동가들에게 공포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 속에는 이미, 여성문제가 “적대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사회운동의 ‘진보성’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의문시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으리라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즉,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은 ‘사회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사회운동에 대한 감정적·정서적 일체감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앞서 ‘대학가 여성주의자들’ 중 몇몇 사례들에서도 나타났듯이, 주류 사회운동과의 감정적 거리 획득은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을 급진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여성주의자’라는 정체성을 특징짓는 것이기도 하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싸움”들을 거치면서 남성활동가들에 대한 불신감은 깊어지며, 개별적인 싸움이 여성활동가들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부장적 사회운동을 “더 공고히 하는” 기회를 제공할 지도 모른다는 인식은 사례3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넌 이걸 바꿔야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싸우고, “너 좀 바뀌었으니깐 잘했다” 라고 칭찬해 줘야 되고, 그 피곤한 과정을 왜 내가 해야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매리트잖아요. ‘착취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 세계를 보는 건강성’이라는 나의 매리트가 있는 거라구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주면서, 가르쳐주고 하나씩 이렇게 풀어내면서, 애네들이 겉포장 하게 만드는 데 내가 그걸 써야 되나... 근데 이런 생각은 사실 구체적인 현실에서 매번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막 싸울 때도, ‘어느 정도까지 얘기할까’, 이런 생각 항상 하게되죠. 왜냐면 내가 어떤 얘기를 꼭 하면 이걸 갖다가 재가 이용할게 뻔하거든 자기의 좋은 경력과 아이덴티티로 포장하면서 갈게 뻔하다구요. ‘그러면 난 이걸 또 공고히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그 갈등은 여전히 지금도 고인이 되고있는 지점이에요. “정화제 역할로 소진되어 가는 나”, 이런걸 많이 발견을 한다는 거죠 — (사례3)

사회운동진영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는 자기 자신이 “정화제 역할로 소진”되고 있다는 느낌은, “시간을 아무리 투자해도 안 되는” 문제에 매달리는 자기 자신이 “너무 안타깝고” “그들한테 어떤 논리를 만드는 시간을 벌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낀다는 사례1의 말에서도 유사하게 언급되었다.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소진되는 가운데 구조 자체가 빠른 시일 내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여성활동가들을 절망하게 한다. 반복된 저항-좌절의 경험을 통해서 ‘진보적’ 사회운동권이 실제로는 ‘기만적으로’ 가부장적이라는 인식(Bartky, 1977)을 갖게 됨과 동시에,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하지 않으리라는 절망감과 무력감’ 또한 느끼게 되는 것이다(Stanley & Wise, 1983).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 상황인식이야말로 주류 사회운동으로부터의 감정적 단절을 낳았으며, 이는 보다 적극적이고 급진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성활동가모임> 회원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이하 <100인위원회>)의 추진배경 중 다음과 같은 언급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하다.

참석자들은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운동사회의 부도덕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이고 반여성적 운동사회구조 속에서 일상적으로 배제당하고 폭행당하고 억압받는 여성활동가들의 당당한 자기 권리 찾기이자, 세력화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100인위원회> 추진배경, 2000, 미간행)

“단순히 운동사회의 부도덕을 치유하는” 역할로 끝나지 않겠다는 결의와 각오는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의 오랜 저항 및 좌절의 경험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며, 주류 사회운동으로부터의 ‘감정적 거리감 획득’은 이들의 여성주의 정체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구성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6) ‘커밍 아웃’ : <여성활동가모임>의 결성

1999년 <여성활동가모임>의 결성은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세력화했다는 점, 그리고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정서적 지지집단’이 생겨났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다. 자신의 여성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여성활동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지’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지지집단의 형성을 통해 사회단체 여성활동가들은 자신의 여성주의 정체성을 수긍하고 비판적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립적이고 주변화된 위치에 있는 사회단체 여성활동가들에게 ‘정서적 지지집단’의 유무는 저항의 가능성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모임의 결성과 활동을 계기로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나 ‘사소한 문제’로 치부함으로써 은폐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에 맞닥뜨리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들은 90년대 중반 이후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전면적으로 도전한 하나의 주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활동가모임>의 결성이 전적으로 기능성의 확장과 자기강정(empowerment)이라는 긍정적 효과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자신의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 자체가 이미 “커밍 아웃”이라 할 정도의 압력과 어려움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가 여성주의자들’과는 달리 사회운동가 여성들에게는 사회운동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의 준거집단이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회운동가’로서의 정체성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에게 ‘커밍 아웃’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사례3의 경우에서 보듯이,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을 경험하고 여성주의 의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운동 자체가 나의 삶’이라고 생각했고,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은 운동사회 내에서의 썩은 부분들’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가부장적인 남성활동가들한테 다시 운동의 명예를 넘기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빠져나가고 싶진 않았죠. 솔직하게 표현하면, 내 자원이 딸린다는 생각도 해요. 정보나 기술이나 능력, 이런 것들이 남성들한테 독점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운동을 할 여성활동가를 독자적으로 모으는 게 장난이 아닐 거라는 거죠. 또 내가 그저 그냥 여성으로서만 살아가는 나에 대해서만 고민을 한다면, 그냥 박차고 나가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훌륭한 집단이라면서, 과학적으로 세계를 분석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타락할 수 있어?’ 라는 도덕적인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도 몰라요. 근데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그 모순은 여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에서나 밖에 서나.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여성활동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여전히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 같아요. 10여 년 간 운동을 하면서 내가 운동사회에 기여했던 거, 내가 만들어왔던 이 현장, 이것이 남의 것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 (사례3)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이 가졌던 “분리 및 독자세력화의 길”이라는 선택지는, 사회운동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활동가들에게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sup>71)</sup> 사례3이 이야기하듯이, “정보나 기술이나 능력”과 같은 활동을 위한 자원들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온 여성활동가들이 사회운동단체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선택을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활동가들이 자신이 해왔던 운동에 대해 자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은 ‘사회운동가’와 ‘여성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활동가들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해 저항하는 과정이 일종의 “커밍 아웃”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점은 더욱 문제적이다.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사소한 것’, ‘개인적인 것’, ‘과민함’, ‘피해의식’ 등으로 폄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긍정하고 권력관계에서 약자인 ‘여성’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지만(조혜정, 1994), 다른 한편으로는 “커밍 아웃”으로 인해 또 다른 위험과 배제, 소외와 고립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성중심적 운동 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이상적인 남성적 “운동가”의 상에 부합하려는 노력을 근본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커밍 아웃”의 효과는 이중적이다.

전에는 별 무리 없이 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성문제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다는 거죠. 만나자마자 “자기가 여성문제 부분은 약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다거나... 어쩌다 한번씩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말면 되는데, 일상적인 연대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게 하고, 나랑 연대사업을 하면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즐겁기도 해요. ‘봐라, 너도 이 문제가 부딪히면 굉장히 힘들지 않냐, 나는 어땠겠냐, 여태 ’ 사람들은 피해의식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나는 ‘그래, 뭐 내가 피해를 안 봤다고 할 수 없으니까, 피해자였으니까 여태까지’.. 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그 문제를 덮고 넘어가길 원하는 거지. 내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면 치졸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럼 니가 왜 이 바닥에 있는 건데? 여성운동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페미니스트라는 게 알려지니까 한편으로는 편해요. ‘아닌 거 다 아시죠’ 이러면서 웃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정체성을 속이고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서 바꿀 것인가. 페미니스트로 찍히면 올라가는 거 자체가 봉쇄가 되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너무 피곤하거든. 일일이 얘기하는 거 너무 힘들고 그리고 너무 소모전이에요. 이제는 ‘별로 재량 얘기해도 영양가가 없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됐어요. 나도 뭐 별로 아쉬울 것도 없고.. (웃음) 그렇지만 굉장히 고립감 같은 거 느끼죠 내가 속한 단체에도 영향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 질 모르겠더라고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71)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1999년 여성 독자노조들의 출범은 이후 향방을 주목해볼 가치가 있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남성중심성을 비판하면서 등장했으며,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다룰 필요성을 역설하였다(전희정, 1999a)

아니고, “내가 초래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나는 되려 여자선배들한테 화를 냈지.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선배들이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왜 이제야 이 문제가 나한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내가 혼자 ‘이건 내 탓이 아니다...’ 막 그런 얘길 하게 됐어요 --- (사례1)

사례1의 경우에서 보듯이,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은 ‘피해의식’이라는 규정에 대해 오히려 “내가 피해를 안 봤다고 할 수 없으니까, 피해자였으니까” 라고 수긍하고 오히려 그러한 정체성을 긍정하는 가운데 저항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커밍 아웃”을 했을 때에는 대부분의 남성활동가들이 아예 여성문제에 대해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미리 방어막을 치거나, 혹은 ‘그럴 거면 여성운동을 하라’는 식의 비아냥 섞인 거리 두기 전략을 취한다고 한다. 여성문제를 고정된 ‘여성운동’의 틀 안으로 한정시킴으로써 사회운동 전반에 대한 비판의 입지를 협소화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전형적인 무마 방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반응들은 활동 자체를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페미니스트’라는 “낙인”으로 인해 여성활동가들이 운동사회의 중심부로 “올라가는 것 자체를 봉쇄”당할 뿐만 아니라, “고립감”을 느끼고 나아가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마저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사례6 또한 자신의 발언을 ‘과도한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으로 앞질러 규정하는 남성활동가들의 태도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

문제는 내가 얘기하는 순간 내가 나의 여성주의적인 문제의식으로 과도하게 자기(남성활동가들)를 재단하고 공격한다, 라고 하는 남자애들의 발언이에요 그게 날 굉장히 힘들게 하죠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개네들은 딱 긴장을 하고 ‘또 싸움이 시작됐구나’ 이런 표정을 짓거든요. --- (사례6)

이처럼, 여성주의자로 “커밍 아웃”한다는 것은 사회운동진영 내에서 활동하는 데 일종의 ‘낙인’과 같은 역할을 하며 많은 여성활동가들에게 고립감을 초래한다. 아래에서도 확인되듯이, 활동에 직접적인 장애가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커밍 아웃”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나아가, 여성주의자로 “커밍 아웃”을 하고 난 이후에 온갖 여성문제들에 대한 ‘상담’이나 ‘문의’를 하면서 ‘해결사’가 될 것을 요구받는 상황도 벌어진다.

‘커밍 아웃’ 이후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문의를 해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일 있을 때 어떻게 해야되냐”, 라고 나한테 문의를 하는데, 답도 요구하는 거야. 어떤 여성활동가가 조직내 성폭력 사건이 터지자마자 우리 사무실에 왔어요. 근데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야 그래서 “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랬더니 이건 또 아니라는 거야. 이건 너무 나가는 것 같대 그래서, “저도 답이 없습니다, 같이 논의를 해봐야죠” 한 여자선배도, “이 문제를 남편한테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되느냐” 그랬을 때, “나도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답답해하죠 “너도 모르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알면 이렇고 있겠어요? 나도 헛갈리는 거지. 근데, ‘너는 헛갈리면 안 된다’ 이런 거야. — (사례1)

그러나 반면 “커밍 아웃”은, 여성활동가들이 다른 여성활동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지’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더욱 고립감을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여성활동가들과 관계가 깊어진다는 점에서, “커밍 아웃”이 단순히 순교자적인 투쟁이라는 의미로 여겨진다고 보다는 ‘여성주의자’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수긍하는 데에 커다란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조직에 있는 여성활동가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게됐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씩 다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당했던 일들...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자기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런 고통이나 상처들을. 자기가 그때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 자기가 그때 이랬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느 때와 다르게 참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게 됐어요. — (사례1)

<여성활동가모임>의 존재는 정서적 지지집단을 확보하고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운동단체 여성활동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래와 같은 발언은 이들이 <여성활동가모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정서적 지지집단’의 존재가 여성주의 의식 형성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여성활동가모임>에 참여하면서 해방감과 후련함, 그리고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고 다른 여성활동가들과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한다.

난 <여성활동가모임> 나가는 거 굉장히 좋아요 다른 회원들은 그런 사건들을 많이 겪다보니까, 부딪히고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더 앞서간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고, ‘아 저 사람들 참 힘들겠다’ 생각 들면서도, 나는 그런 상황에 별로 처해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못했던 고민들,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배우게되는 것 같아요 <여성활동가모임>에 있으면 정말 맘이 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 모임에 안나왔으면 내가 진짜 돌아버렸겠구나, 이런 생각 가끔 할 때도 있어요 와서 막 뒹다마 하는 얘기 들으면 속이 다 후련하고. — (사례4)

이렇듯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재해석하는 가운데 여성주의적 정체감을 획득하고 나아가 <여성활동가모임>을 통해 집단적으로 세력화한 것은 그 자체가 기나 긴 투쟁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사회운동 내에서 ‘노골적’으로 관찰되는 배제와 억압에 대해 저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암묵적이고 비가시적으로 작동되는 보다 ‘세련된’ 가부장적 문화와 구조 또한

문제삼기 시작했으며, <여성활동가모임>을 통하여 더 이상 개인적 저항에 머무르지 않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저항을 주도해 왔다.

## (7) 역사적 의의 :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체계적인 도전과 성찰성의 전면적 제고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 저항을 점차 체계화, 집단화, 조직화해온 과정은 비단 한국 여성 운동사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사 전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분기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활동가모임>의 결성을 비롯한 저항 세력의 형성으로 인해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은 중대한 도전에 맞닥뜨렸으며, 저항을 무마해왔던 특수한 기제들 자체가 또 다른 가부장성이라고 지적됨에 따라 비판은 더욱 급진화되었다.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 한국 사회운동 및 여성운동사에서 갖는 역사적 의의를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활동가모임>의 결성을 통해 그 동안 개별적인 저항-좌절만을 반복해 왔던 여성활동가들의 비판 의식이 '집단적 저항'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집단의 형성은 고립 상태에 놓여 있는 여성활동가들에게 정서적 지지감을 줌으로써 여성주의 의식을 안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하였다.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여성들과 함께 '언어화'하고 '재해석'하는 가운데 여성주의 정체성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으며, 운동사회의 가부장성 타파를 주된 운동 주제로 설정한 집단의 출현은 다른 여성활동가들에게도 커다란 자극과 역할모델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운동의 주제나 '정파'에 무관하게, 사회운동진영 내부에 있는 여성활동가들이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킵 깨기 행사>를 비롯하여 여성활동가에 대한 언어폭력, 성폭력, 여성비하적 문화 등에 대해 사안별로 집단적인 대응을 해 왔던 것은, 그 동안 '조직 내에서의 해결'이 관행처럼 유지됨으로 인해 여성활동가들을 고립시키고 저항을 개별화해왔던 사회운동의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특히 '보건의료노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는 지난 2000년 12월 가해자들의 실명과 함께 16건의 성폭력 사건을 공개함으로써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의 '조직화'와 다양한 성차별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전면적인 '집합적 저항'은 체계적이고 급진적인 도전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담론적 수준에서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 행한 역할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90년대

후반에 등장하여 끊임없는 실천을 통해 비판을 공론화 해온 이들의 활동은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인식을 폭발적으로 확산시켰으며, 사회운동 내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상식의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성찰성을 전면적으로 제고시켰다. 이는 사회운동을 하는 여성활동가들이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언어와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특히 중요하다.

<여성활동가모임>을 비롯한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의 세력화 및 집단적 저항은, 다양한 수준에서 실질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강제해 냈다. 가령 조직내 성폭력과 관련된 특별 규약을 제정하거나, 성역할 분담·능력주의·학벌주의 등의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배제된 여성활동가들의 권리를 되찾고 권력집중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운영원칙들이 실험되고 있는 것은 그 직접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조직구조, 일상문화, 언어, 운동이념 등 다차원적인 가부장성에 대한 사회운동가들의 민감성은 높아졌으며, 특히 운동사회 성폭력에 대한 <100인위원회>의 적극적 문제제기는 그동안 립 서비스 수준에서만 성폭력 근절에 동의해 왔던 주류 사회운동의 수동성에 대해 비판하면서 구성원 모두의 토론과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강제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경험을 ‘집단적 저항’이라는 실천을 통해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주류 사회운동에 대한 급진적 비판의식과 함께 여성주의 정체성을 발전시켜 왔다. 이들은 실천의 구체적 양상 및 조건에 있어서는 ‘대학가 여성주의자들’과 일정 정도 다른 점이 있지만,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 및 구체적 투쟁 과정이 여성주의 정체성에 있어 핵심적인 구성적 요소라는 점, 그리고 집합적 실천을 통해 세력화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전을 수행해 왔으며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획득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운동사 및 여성운동사에서 특기할만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5장 차이의 ‘위계화’에서 차이의 ‘맥락화’로

대학가 여성주의자들 및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9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되어 온 ‘여성주의자들’의 정체성이 동질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특히 ‘여성주의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명해 오는 과정에서 ‘다른’ 여성주의자들과의 비교와 구별짓기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차이’야말로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중요한 구성적 요소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차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해석틀’ 속에서 구조되는 것이다. 즉, 여성주의자들 사이에 어떤 ‘실재적’ 차이가 있는가 보다는 그녀들 스스로가 무엇을 ‘차이’라고 ‘해석’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90년대 중·후반의 여성주의자들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들이 왜 즉각적으로 표면화되거나 소통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감정적 대립과 갈등으로 누적되어 왔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여성주의 정체성’을 끊임없는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재위치시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게 위계화되어 온 ‘차이’들을 드러내고 ‘맥락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 1절.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로 인식된 지점들

#### (1) 대학가 여성주의자들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에게 있어 ‘여성주의자’라는 정체성은, 어떤 명확한 규정성을 이미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다. 그리고 이때 ‘다른 여성주의자들’과의 ‘차이’는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은 자신과 “다른” 여성주의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가늠하고 ‘이름 붙이게’ 되었던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화는 구체적 맥락 속에서 의미화된 ‘특정 의미를 가진 페미니스트’라는 범주와 자신을 비교하고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혹은 구별짓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때 ‘페미니스트’를 정의내리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복수(複數)의 페미니즘들’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는가 하는 요인은 페미니스트 의식 형성에 커다

란 영향을 미친다(Ferree, 1997).

아래에서는 90년대 중·후반, ‘여성주의’의 의미를 둘러싸고 나타났던 여러 갈등들 중에서 특히 ‘대화가 여성주의자들’에게 문제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차이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1) 주류 학생운동에 대한 입장 및 유대감의 차이

우선 ‘차이’는 무엇보다도 “학생운동으로부터의 단절”을 주장하면서 “분리 및 독자세력화” 입장을 취한 측과, “학생운동과의 연대 가능성”을 옹호하면서 “적극적 비판과 개입”의 입장을 취한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여성주의’ 운동의 의의와 위상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랐음을 뜻한다. 어떤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주의 운동이 학생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여성주의자들은 학생운동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 여성주의 운동이라는 자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대화가 여성주의자들’ 각각은 주류 학생운동에 대한 입장 및 유대감의 ‘차이’를 놓고 상호 비교를 통해 대화가 여성주의 운동의 지형을 가늠하고 그러한 지형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위치시키게 된다.

사례d는 학생운동진영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가운데, “운동권이기 때문에 개네가 하는 말은 일단 들어봐야 된다”는 “은근한 친밀감” — 즉, 당시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이 지니고 있던 맑스주의계열 학생운동에 대한 ‘감정적 연관’<sup>72)</sup>에서 ‘단절’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총여학생회장이었던 사례d에게 있어, 이러한 생각은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과 학생운동의 관계에 대한 현실 인식과 불가분하게 연관된다.

나는 그때 우리가 총여학생회 역사에서 여성운동을 자율적으로 얘기한 건 아직 초기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때 뭔가 침입을 받거나 이런 전례를 남기는 거, 그래서 운동권들하고 서로 분명히 해야될 논점을 형성하지 못한 채 어영부영 넘어간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총여학생회장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죠. — (사례d)

사례d는 당시의 상황이 “총여학생회 역사에서 여성운동을 자율적으로 얘기한” “초기”라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앞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학생운동에 대해 구조적·이념적으로

---

72) 이러한 “친밀감”이 존재했던 이유는, 당시 대학내 여성주의 세력을 형성했던 ‘여성주의자들’이 이전에 적·간접적으로 맑스주의계열 학생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의 일부는 학생운동과 여성주의 운동을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속되어 있었던 과거 ‘여학생운동’에 대한 비판과 함께 등장하였던 90년대 중반 이후 ‘대학가 여성주의 운동’이 놓여있던 맥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침입”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가식적”임과 동시에 끊임없이 여성주의 운동을 끌어들이려 하는 ‘주류 학생운동’에 대하여 “자율적 여성주의 운동”을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은 사례d의 상황인식에 있어 주된 요소로 보인다. 맑스주의계열 학생정치조직들이 연대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제안하지 않고 이전에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여성주의자들’에게 “친하다는 이유로”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반복된 것, 그리고 여성주의적 주장을 “들어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꺾다놓은 보릿자루”인 느낌을 받은 것은, 실제로 여성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서 “팬날 싸우기만 하는” ‘비성찰적이고 반여성적인 학생운동권’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켰고, 사례d는 학생운동권을 “굉장히 불신”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당시 자신의 태도가 “운동권은 상대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태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역사적 맥락과 상황인식에 근거해 있다.

반면 주류 학생운동에 대해 일정 정도의 감정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었던 여성주의자들의 경우 학생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입장 이면에는 사례a가 “기본적인 신뢰”라고 표현했던 감정적 유대감과, 계급모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원칙적 수준에서의 동의가 놓여 있다. 즉, 주류 학생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입장은 상이한 것이다. 사례e는 철거촌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철거도 반대하고 성폭력도 반대하니까” 당연히 여성주의자들이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철거촌에 성폭력사건 얘기를 듣고 내가 여성주의 내부 세미나를 준비했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해야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철거도 반대하고 성폭력도 당연히 반대하니까 당연히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내부 세미나 때 아무런 얘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참석률도 굉장히 저조했고 — (사례e)

이러한 사례e의 경험은 사례a, 사례g, 사례h에서도 보여졌듯이 여성주의 운동이 다루어야 할 정치적 범위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철거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례e와 같은 여성주의자들은 학생운동에 대한 원칙적 수준에서의 동의가 학생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주류 학생운동’에 대한 완전한 “단절”을 주장하는 여성주의자들과 “적극적 비판”을 주장하는 여성주의자들이 생겨나면서, 여성주의자들 사이에 갈등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상호 비판 가능한 토론의 주제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감정적 수준에서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극대화되어 갔

는데,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운동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성주의’를 새롭게 정의하는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당시의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

## 1-2) ‘여성주의’에 대한 해석과 문화의 차이

“적극적 비판”의 입장을 취하는 여성주의자들은, “단절”을 주장하는 여성주의자들의 입장이 과도하게 부정적인(negative) 방식으로 여성주의를 한정지었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가령 “칠거촌 문제”나 “정신대 문제” 등에 대해 “한번도 고민해본 적이 없다”는 말은, “적극적 비판”의 입장을 취한 여성주의자들에게는 맑스주의 계열 학생운동이나 민족주의계열 ‘여학생 운동’이 다루어왔던 의제들에 대해 의식적으로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사례g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불편하다”는 이유로 계급적인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 그리고 그러한 차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학생운동에 대한 반정립”이라는 의미가 ‘여성주의’의 의미에 중첩되어가는 과정이 점차 크게 부각되었다. 사례e와 사례g는 이러한 경향을 ‘여성주의를 “반정립”으로 정의하는 경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비단 이념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감정적·문화적인 측면도 포함된다.

나는 당시에 여성주의가 ‘안티(anti)’인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여성주의자’를 묶을 수 있는 하나의 틀이,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게 새로운 여성주의여서”가 아니라, “학생운동이나 기존의 운동과 대립된 형태”로 규정 내려지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여성주의자가 아닌 건 있는 거거든요. — (사례e)

“운동권들 다 안 된다”, 그런 분위기. 어떤 분리주의적인 분위기하고. 운동권들의 거부장성이나 정파주의의 폐해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비판을 하지만, “하지만 그 사람들도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 변화를 시키려면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양식으로 갈라지는 모습이 생기기 시작했고 근데 문제는 비판하는 쪽, 그러니까 어떤 반운동권 정서가 자리잡은 여성주의자들이 정말 그야말로 반정립으로서, “개네들(학생운동권)이 하면 우리(여성운동)는 하면 안 된다”, “개네들이 안 하는 걸 우리는 해야된다”, 모든 논리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갔던 게 난 너무너무 맘에 안 들었던 거예요. “하면 우리가 하지, 왜 그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되느냐”, 그런 거죠. 아무튼 정말 여성운동이 학생운동의 반정립으로서 얘기되어지는 거, 그리고 점점 더 폐쇄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나한테는 너무나도 갑갑했거든요. — (사례g)

여성주의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여성주의자가 ‘아닌’ 건” 명확한 상황, 사례e는 당시 ‘여성주의’의 이러한 규정성이 학생운동에 대한 “안티(anti)”였다고 해석한다. 즉, 부정적인

(negative) 개념으로서의 ‘여성주의’가 지배적인 정의로 되어 가는 상황이었다고 느꼈던 것이다. 사례g의 경우 그 의미는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되는데, 그녀는 “운동권들 다 안 된다”라는 “반(反)운동권 정서”가 자리잡은 ‘다른’ 여성주의자들이 “분리주의적”<sup>73)</sup>이고 “폐쇄적”으로 — 즉, “개네들이 하면 우리는 하면 안 된다”, “개네들이 안 하는 걸 우리가 해야된다”는 식으로 되어 가는 상황을 “반정립으로서의 여성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g는 이러한 “반정립으로서의 여성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즉, 학생운동진영이 여성주의 운동을 “자기네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사례g도 알고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포섭되지 않을” 것이므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더 많은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것이 사례g의 입장이었던 것이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 ‘학생운동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성주의에 대한 정의의 차이’로 연결되었던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 사례e는 당시 갈등의 초점이 되었던 것이 “여성운동에 대해서 생각하는 수위”의 차이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녀는 당시 자기 주변의 여성주의자들이 “개인적인 것만 정치적인 것이 되는 상황”, “나랑 연관되어 있는 것만 나의 운동”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으며, 그에 대해 비판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노동권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난 대학원 진학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랑 별로 상관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별로 알아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여성운동에 대해서 생각하는 수위가 굉장히 많이 달랐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정말 ‘개인적인 것만 정치적인 것이 되는’ 상황들. 나랑 연관되어 있는 것만 나의 운동인 거. — (사례e)

여기서 보듯이 단순한 ‘입장 차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다름 아닌 “구체적 상황 속에서 여성주의가 ‘의미화’되는 방식”이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슬로건은 ‘일상의 정치화’를 내세웠던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여성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내용이었지만, 사례e는 그러한 입장이 “개인적인 것만 정치적인 것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느꼈 것이다. 이는 그녀가 여성주의에 대한 특정한 ‘정의’가 이미 존재했고 자신은 그 ‘정의’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례d의 생각은 다르다. 사례e의 판단과는 달리, 사례d에게 있어서는 ‘여성노동권’을 다룬다는 문제가 “잘못되면 맑스주의계열 학생운동으로 확 전유가 될” 가능성에 대해 위기

73) 여기서 “분리주의”가 사례g에게 의미하는 바는 흥미롭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분리주의(separatism)’는 “다른 정치적 문제에서 분리하여 페미니즘 독자의 입장을 정의내려 보존하는 수단”(리사 터틀, 1999 : 382)으로서 제2 물결 페미니즘에 속하는 여성주의 흐름이다. 그러나 여기서 사례g는 ‘분리주의’를 “폐쇄적”이라는 말과 함께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사례b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의식과 연관된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나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좀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애네(좌파 운동권)가 (여성주의운동을) 침범한다’, 이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여성노동 애기를 다르게 해본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그 말이 조금 어떻게 잘못되면 맑스주의 계열 학생운동으로 확 전유가 되는 방식 있잖아요. 나는 개네(‘다른’ 여성주의자들)가 너무 착한 병에 걸려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는 운동권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직감적으로 정치적인 애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네는 언제나 너무나 옳은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학생회장 정도 되는 애들은 굉장히 노련하게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애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여성주의자들이 너무 운동권의 언어를 그 언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물론 운동권이 하는 말만 들으면 중요한 말이지. 그렇지만 ‘개네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어디서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느냐’가 나한테는 더 큰 관심이었고, 거기서 의심이 증폭되는 거는,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문제의식을 강제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별로 고민해볼 생각도 안 하는 거. 자기네들은 노동문제 하면 되고 우리는 여성문제 하면 되고, 이런 식의 아주 알파한 기계적인 연대를 사고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여성주의자들이 너무 순진하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 (사레d)

학생운동진영에 대한 정치적 단절뿐만 아니라 — 이는 입장이 다른 여성주의자들도 공유하고 있던 바 였다 — ‘감정적 유대감’이나 ‘비판하면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레d는, 학생운동의 원칙적 “옳음”에 대해서만 공감하면서 연대하려는 것은 “순진한 상태”이자 “착한 병에 걸린”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사레d가 보기에 학생운동권은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문제의식을 강제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별로 고민해볼 생각도 안하며”, 당시 맑스주의계열 학생운동조직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웠던 ‘다양한 운동들의 동등한 연대’라는 슬로건이 사실상 “아주 알파한 기계적인 연대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여성주의의 ‘정의’를 둘러싼 해석의 차이와는 별개로, ‘여성주의’를 둘러싼 일상 문화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부각되었다. 이는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대화가 여성주의 운동’이 발전되고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대화가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를 통해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가늠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상 문화에까지 확장되었고 각자의 정체성에 있어 커다란 의미를 가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것은, ‘성정치’, ‘문화’, ‘급진주의’, ‘일상의 정치’ 등과 같은 슬로건과, ‘수다 모임’, ‘별명 지어 부르기’, ‘나이주의에 대한 거부’ 등과 같은 하위문화로 특징지어지는 일련의 여성주의적 흐름의 세력화이다. <후기-들꽃모임>으로 상징<sup>74)</sup>되는 독특한 여성주

74) <들꽃모임>은 대학간 연대체로 출발하였으나 이후에는 점차 독립적인 하나의 여성주의 운동 조직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아래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들 대부분 역시 이렇게 하나의 조직으로 정착된 이후

의적 하위문화가 형성됨에 따라,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하위문화를 어느 정도 체화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서로의 위치와 입장을 비교하고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고립적이고 열악한 조건에서 학생운동과 여성주의 운동을 오랫동안 병행해 왔던 사례a, 사례h, 사례c에게 중요하게 ‘기억’되고 있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외부랑 아주 단절이 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 내에 약간의 권력 관계 내지는 선후배관계... 선배는 선배취급을 해줘야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서울에 와서 여성운동 하면서 외부회의를 다니고 다른 학교 여성주의자들 만나고 그러면서 얼마나 당황을 했던지, 분위기가 체가 적응이 안 됐어요. 회의에서 반말하는 것도 나는 적응이 안됐고, 지금이야 다들 그렇게 하지만 애칭 부르는 것도 적응이 안됐고, 서로 몇 학번인지도 아무도 모르고, 알고 보면 나는 95인데 개는 98. 근데도 ‘야, 막 이렇게 부르는 것도 솔직히 적응이 잘 안됐고, 회의 분위기 자체가 너무 산만하고, 회의를 하는 건지 수다를 떠는 건지... 그런 분위기 자체가 좀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이라기 보다는 적응 안됨... 괜히 회의 가기 싫어지고, ‘재네들하고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뭐 애기도 잘 안 되고..’ 그런 생각이 있었죠 — (사례h)

특정한 여성주의적 하위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여성주의자들이 다른 여성주의자들과의 만남에서 받았던 인상은 “낮설음”과 “당황”스러움 이다. 학번과 나이에 상관없이 말을 낮추거나 애칭(별명)으로 이름을 대신하는 것, “회의를 하는 건지 수다를 떠는 건지” 알 수 없는 회의방식, 그리고 “싫으면 안 하”고 그것을 “이해해주는” 활동 태도 등이 특징적으로 거론되었다.

그런데 이는 모두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이 비판해 왔던 학생운동권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 즉, 학번과 나이에 따라 선-후배의 위계를 엄격히 나누고, 경직된 공식적 회의 형태를 통해 공/사 이분법을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일상적 경험을 배제시키며, 상명하달식 의사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주류 학생운동에 대한 비판이, <후기-들꽃모임>으로 상징<sup>75)</sup>되는 여성주의

---

의 <들꽃모임>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칭하고자 <후기-들꽃모임>이라고 표현하였다. 더불어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로 <후기-들꽃모임>에 참여했던 여성주의자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후기-들꽃모임>의 ‘특징들’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부분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논문은 ‘사실 확인’이 아니라 여성주의와 ‘다른 여성주의자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이 <후기-들꽃모임>의 특징이라고 여기고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다루었다

75) <들꽃모임>은 대학간 연대체로 출발하였으나 이후에는 점차 독립적인 하나의 여성주의 운동 조직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아래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들 대부분 역시 이렇게 하나의 조직으로 정착된 이후의 <들꽃모임>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칭하고자 <후기-들꽃모임>이라고 표현하였다. 더불어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로 <후기-들꽃모임>에 참여했던 여성주의자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후기-들꽃모임>의 ‘특징들’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부분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논문은 ‘사실 확인’이 아니라 여성주의와 ‘다른 여성주의자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적 하위문화를 낳았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하위문화를 실험한 여성주의자들이 ‘여성주의적 문화’라는 자기 규정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낯설음’을 느끼는 다른 여성주의자들은 그러한 차이를 단순한 문화적 다양성이 아니라 ‘여성주의’의 범위에서 소외되었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 (2)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 문제화하고 있는 ‘차이’들 또한 그녀들이 처해 왔던 구체적 맥락 속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차이’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여성주의 정체성이 지니는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장에서 살펴본 “커밍 아웃”에 따르는 두 가지 효과는 이러한 특수성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사회운동의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자신을 ‘여성주의자’로서 드러내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서적 지지집단을 얻고 여성주의 정체성을 안정화시키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낙인찍기”의 효과로 인하여 ‘사회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위협받게 되기도 한다. 여성활동가들이 ‘운동가’로서의 정체성과 ‘여성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들을 고립된 조건에서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이 언제든지 분열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 놓여 있는 이러한 조건과 맥락 위에서, 현재 <여성활동가모임>의 회원들이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은 주로 문제의식의 종류와 수준의 차이, ‘연대 행동’을 취해야 하는 시점과 방식의 차이, 사회운동진영에 대한 ‘감정적 거리’의 차이, 문제를 풀어 가는 전략의 차이와 같은 것들이다. 아래에서는 이들이 차이로 ‘인식’하고 있는 지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2-1)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문제의식 및 ‘감정적 거리’의 차이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의 정체성은 ‘사회운동가’라는 정체성과 함께 독특한 양상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차이’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여성주의 정체성 자체가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운동

---

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이 <후기-들꽃모임>의 특징이라고 여기고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다루었다

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인해 내적 갈등과 서로간의 차이가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여성주의’의 정의에 따른 차이,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문제의식의 차이, 주류 사회운동에 대한 ‘감정적 거리’의 차이에 대해 구분하여 다루겠지만 실제로는 불가분하게 서로 얽혀있는 차이들이다.

먼저 여성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답들은, 이들의 현재적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그 역사적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 ‘여성주의’라는 단어보다는 ‘페미니스트’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었던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여성주의’와 비교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위치시키고 해석한다

요즘 “여성주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성주의자’라는 말은 사실 딱 밀착감은 안 느껴지더라구요. 약간 좀 다른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페미니스트임을 커밍 아웃 했던 거랑 우리한테는 ‘페미니스트’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였지만, 그래서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여성주의’라는 말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여성주의라는 말은 굉장히 그러니까 부담 없이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부담 없이 하는 얘기. 근데 나는 약간의 거리감은 느끼고. 그게 훨씬 좋아 보인다는 생각은 들어요. 전후적으로 “내가 페미니스트데”, 막 이런 거 보다, “당연하잖아! 여성인데, 여성주의는 너무 당연한거잖아” 이런 게 훨씬 좋아보인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 당연한 거를 세에 받지 못한 세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 (사례1)

사례1의 경우, “페미니스트로 커밍 아웃”을 했다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최근 사용되고 있는 ‘여성주의자’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밀착감”이 있지는 않다고 한다. 그녀가 ‘여성주의자’라기 보다는 ‘페미니스트’인 이유는, “굉장히 어렵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운데 “남자들하고만 싸우기가 너무 급급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주위의 정서적지지 없이 고립감 속에서 싸워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여성주의의 세례”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 ‘운동’을 시작하고 사회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갔던 당시는 ‘대학가 여성주의자들’과 같은 사회적 조건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이 거리감을 느끼는 ‘여성주의자’라는 단어가 이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보다 “당연한” 것, 그리고 ‘주류 사회운동’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어떤 것이라는 이미지이다.

사례3은 스스로를 ‘사회운동진영 내에서 여성운동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사례 가지고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영 페미니스트”라는 규정이 내려지거나 직접적으로 ‘정체성이 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곤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영 페미니스트’가

의미하는 바가 사례3이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과 거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는 ‘정체성’이란 확고하게 고정된 것이라기 보다는 상호주관적으로 형성·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례4의 경우에는 자신이 “여성주의적 문제의식들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정도”라고 말하며, “행동으로 그렇게 잘 못해서” 자신 없어하면서도 “여성주의쪽에 속한다는 쪽에 가깝다”고 말했다. 여성주의 정체성은 어떤 고정된 범주에의 동일시라기 보다는 “여기에 속한다’ 쪽에 더 가깝다”는 방식의 비교·구별짓기에 의해 형성되고 의미화되는 것이다. 사례6 역시, “신정모라”로 상징되는 “분리주의적 노선”의 여성주의 흐름이나 “레즈비언 페미니즘”으로부터 자신의 입장을 구별지었던 경험에 대해 기억하고 있다.

신정모라<sup>76)</sup> 같은 사람에게 비판을 받고 이러면서 내적 갈등이 있었죠. 그때 레즈비언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친구들도 통신을 하다보면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분리주의적인 노선에 대해서 두려움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신정모라씨 한테도, “싫다”, 이런 거라기 보다는... 약간 어렵고 저어하고 이런 게 있었구요. -- (사례6)

이처럼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비교와 구별짓기’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는 과정은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와 구별짓기’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주류 사회운동에 대한 문제의식과 감정적 거리의 차이였다.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의 경우 여전히 사회운동의 ‘내부자’로서의 위치(position)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 속에서 ‘가부장적 주류 사회운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이들의 여성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례5의 경험은 저항 과정에서 “운동권으로서의 신뢰를 가지라”고 충고하는 다른 여성활동가와 확연한 차이를 느꼈는데, 이 또한 자신을 주류 사회운동의 ‘일원’으로 정체화하지 않고 감정적 거리를 획득한 사례5에게는 커다란 문제의식을 느끼게 했다.

내가 단체에서 여성문제로 한참 싸우고 있는데 “그 단체는 왜 하라는 운동은 안하고 맨날 여성문제만 제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언니랑 예전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뭔가 펀트가 계속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았었어요. 마치 나를 돌튼 어린아이 취급하는... “니가 얘기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좀더 인간적인 혹은 운동권으로서의 신뢰 이런걸 가지면서 바라봐라”, 뭐 이렇게 충고한다던지. 그래서 별로 기대는 안 했었는데, 그런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딱 전해듣는 순간,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고.. 근데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

---

76) 신정모라는 90년대 초·중반 주로 PC통신망을 통해 여성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과 입장표명을 했던 여성주의자 중 한 명이다. 여기서의 이야기는 신정모라가 역시 통신공간에서 활동하던 사례6에 대해 ‘남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여성’이라는 요지의 비판적 평가를 가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랑 친분이 있건 없건 간에, 여성이라면 적어도 반쯤은 기대를 하고 신뢰하면서 대하게 되는... 운동권이 아닐지라도 여성으로서 한국사회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느끼는 게 참 많이 비슷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절망감이 되게 많이 들었었죠. 지금은 글썄. ‘맘 편하려면 기대하지 말고 바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기대를 건다든지 신뢰를 한다든지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죠 — (사례5)

‘감정적 거리’ 획득은 사례3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녀는 사회운동을 지속하고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운동진영에 대한 ‘감정적 유대감’은 거의 없다.

물론 ‘운동사회가 그 안에서 누구도 착취당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아주 자유롭고 평등한 질서였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내 바램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운동사회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한다,’ 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나 편하자고 하는 거죠. 난 ‘주류 운동’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노동이라는 화두나 담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노동“운동” 중심성 이라던가, 노동“자”로서 규정되는 그 의미에 한정되는 노동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거든요. 단지 내가 <여성활동가모임>에 있는 거는, 나는 어쨌든 간에 사회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남자들하고도 해야되고, 내가 하려는 운동의 테마 자체가 주류운동하고 맞물리지 않을 수 없고... 뭐랄까, 나한테 다 타자라고 생각해요, 진짜. 운동사회 자체를 나의 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거죠 — (사례3)

대부분의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 ‘주류 사회운동’에 대해 갖는 입장은 사례3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많은 경험이 누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지적 비판’이나 ‘조직적 해결’, ‘대의를 위한 통큰 단결’과 같은 기제가 여성들의 저항을 가로막는 주요한 기제였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듯 ‘주류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입장이 비교적 명확한 것과는 달리,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다른 ‘여성활동가들’에 대한 이들의 감정은 매우 복잡하다.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문제의식의 종류와 수준이 각자의 개인사적 경험과 조건에 따라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급진적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활동가들과의 입장 차이를 문제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활동가들로 하여금 서로를 불신하고 경쟁적 관계에 놓이게 하는(조순경 외, 1995a, 권인숙, 1999a) 사회운동의 가부장적 구조로 인해 더욱 증폭된다. 여성들에게 주어진 자원이 희소할뿐더러, 이상적인 운동가의 상 자체가 남성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 때 ‘명예남성’이라는 생존 전략을 취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성찰은, ‘명예남성’으로 보이는 주변 여성활동가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비판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스럽게 한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사례

들 역시,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하는 가운데 다른 여성활동가들에 대해 불신하거나 여성활동가들끼리 갈등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처음 사회운동단체에 들어가서, “여기선 호칭을 어떻게 하나”고 물어봤더니, 선배님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직책이름을 부르래요. 여자선배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언니’라고 무심결에 불렀더니 막 호통을 치면서 “아니 직장생활에서 왜 언니라고 부르냐”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거칠게, 황야를 걸듯이 모든 운동세계를 개척해 왔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정서나 그런 걸로 뭉개지고 싶지 않다’, 라는 맘이 되게 큰 거죠. 자기는 독야청청 자기가 여태까지 개척을 해왔고 너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길을 거치지 않으면 운동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언니라고 부르는 거는 뭉개지는 처음 신호라는 거야. 물론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휴 오�히려 남자선배랑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는 처음 사회운동에 들어와 가지고 여성 선배들한테 오�히려 적대감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들이 행동하는 거 보면서 ‘야, 니가 그렇게 잘났어? 너 정도는 나도 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니까. 여자 선배들이랑 부딪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 (<여성활동가모임> 회원)

사례4는 최근 “여성이면서도 오�히려 더 반여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성활동가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여성들 중에서도 아군보다 적군이 훨씬 많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여성활동가들에 대해 남성활동가들에게 만큼 직접적으로 비판을 가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망설임은 과거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선배 여성활동가들에 대한 무시하는 태도 등에 대한 “기억”에서 기인한다. 자신을 남성으로 동일시해야만 ‘운동가’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구조에 대한 성찰은, 현재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다른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비판을 유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이러한 경험이 누적될 경우 “남자들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보게 될 수 있다. 사례3의 경우는 “명예남성화” 되었다고 생각되는 여성활동가들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잘 보여준다. “같은 여성이라고 무조건 연대해야된다”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데 남성들의 편에 서서 그렇게 말한다면 적이죠. 그 당시에는 난 투쟁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성이지만 나는 연대의 대상은 한 축으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여성주의적 시각, 고통받는 자로서의 여성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고통주는 사람 편에 있느냐의 문제이고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하면 운동에 더욱더 해악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나는 “같은 여성이라서 무조건 연대해야된다”, 이거는 모든 민중과 노동자 개인에 대해서 연대해야된다는 말처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사례3)

이처럼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 놓여 있는 특수한 조건으로 인하여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문제의식 및 ‘감정적 거리’의 차이는 복잡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는 그녀들이 지

니고 있는 여성주의 정체성의 특성파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2-2 저항의 방법과 시점의 차이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 ‘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또 하나의 지점은 ‘저항의 방법과 시점의 차이’이다. 누차 지적했듯이 그녀들은 고립된 상황에서 끊임없는 싸움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특히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견되었을 때 여성활동가들 사이의 관계는 미묘하고 문제적이다. 그러나 “싸움”의 과정에서 같은 조직에 있는 여성활동가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경우는 빈번하며, 이는 복잡한 원인을 가진다.

싸우면서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은 ‘너무 외롭다’는 거였어요. 그런 문제의식을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여성활동가들도 수긍은 하지만, 실제로 같이 싸울 태세는 보여주지 않는. 그리고 사실 “문제의식을 가지고있지 않다”는 얘기가 “니가 지적하는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니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너는 무시하지 않는다”, “니가 공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할지라도, 그래서 권력을 가진 남성활동가와 적대적인 관계에 설지라도, 그 사람은 적어도 너를 무시해도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모든 사람이 너와같이 생각하기를 강요하지 말아라”, 그런 지적들도 있었어요. “동일하게 느끼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너는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든다, 그래서 그런 설득을 당해야 할 그런 순간들에는 그냥 말하기를 포기하게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동기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많이 힘들었죠. 그 당시에는 사실 나는 고립감을 느끼고,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적대감은 아니겠지만 반감을 느끼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결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어쨌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대를 접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역시 없지 않고. — (사례5)

여성활동가들이 언제나 동일한 종류와 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심한 “심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들 사이의 분할과 경쟁을 유도하는 사회운동진영 내 가부장적 구조 하에서는 “무시”당하고 “활동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수모”를 겪는 여성활동가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활동가들 사이의 분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 “격앙되어서” 분노하는 여성활동가와 그것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여성활동가 사이의 분할이 서로 다른 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즉,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구체적인 ‘지점’과 ‘맥락’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여성활동가들은 다른 여성활동가들이 ‘충분히’ 동조해주지 않음으로 인해 결정적으로 “외롭다”는 기분을 가지게 되고 다른 여성활동가들은 똑같은

수준의 “분노”를 가져야 된다고 설득 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과도기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버텨나가기 힘들고, 조그만 일에도 많이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충분히 연대할 수 있는 세력인데도,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얘기를 하면 ‘재량은 정말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부터도 — (사례4)

사례4의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운동진영 내 거부장성에 대한 저항은 고립된 상황에서 매우 힘들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성활동가들은 “버텨나가기 힘들고” “조그만 일에도 많이 상처를 받는다”. 바로 이러한 고립적인 상황으로 인해, 여성활동가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있을 때 “정말 같이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례3의 경우, 특정 사건에서 어떤 여성활동가가 ‘충분한 연대’라는 즉각적 행동을 취하지 못했을 경우 다른 여성활동가들이 “격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묘사한다.

여성활동가들에 대한 폭언 사건 당시에도 ○(다른 여성활동가)가 실수한 게 있었거든요. 문제를 계속 미루고 조직 내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있었거든 ○이 나중에 나한테 막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 격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성운동 한다는 친구가 그럴 수 있냐”... — (사례3)

사례6의 경우, “여성이라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권력관계에 있어서의 우위에 처해 있는 자신의 위치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연대’를 요청하는 다른 여성활동가들의 요구를 느끼면서도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르거나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시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활동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취해왔던 전략을 반성적으로 회고하면서, 그런 성향이 나한테 있다는 걸 내가 느끼거든요 내가 지적을 받는 부분은 ‘되게 고립적이다’, 예를 들면 ‘번역’을 해야 된다는 역할<sup>77)</sup>을 내가 못하고 있어서 계속 지적을 받는 것 같아요 나는 내 논리대로 가는 편인데 여자후배들이 나한테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언니가 여성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을 때 언니가 대변을 해서 얘기를 한다던지, 딱 대비를 해 준다던지 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걸 느낄 때가 있는데,

---

77) 많은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은 자신이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례6 또한 ‘여성의 언어’와 ‘운동권 언어’를 둘 다 사용하며, 따라서 여성문제를 ‘운동권 언어’로 설명함으로써 남성활동가들에게 여성이 느끼는 억압과 소외를 “번역”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례6이 말하고 있듯이 “번역의 역할”을 다른 여성활동가들로부터 기대 받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녀들의 바램이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러한 ‘차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

나는 또 내가 느끼는 시점이 있잖아 ‘이럴 때는 땡겨야 된다, 밀어야 된다,’ 하는 게 있는데, 그 시차가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여성활동가들하고 요즘에 내가 고민하는 건... 여성들 사이의 차이의 정치, 그런 게 참 어렵죠 — (사례6)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 ‘차이’로 인식하고 있는 지점들은,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독자적 비판 세력이라는 그녀들의 위치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설명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역시 ‘차이’는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구성적인(constructive) 요소였으며, 다른 여성주의자들과의 ‘비교 및 구별짓기’에 있어 핵심적인 기준이 되었던 것은 주류 사회운동에 대한 태도와 입장의 문제였다.

## 2절. 차이의 ‘위계화’와 갈등의 증폭

문제는 이러한 입장 및 문화의 차이들이 ‘표면화’되거나 직접적으로 논쟁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 입장의 차이들은 감정적 대립으로 이어졌고, 서로의 맥락과 조건이 이해되거나 소통되지 않는 가운데 갈등이 누적되어감에 따라 ‘차이’는 서로 대화할 수 없을 정도의 대립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대학가 여성주의자들과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 출현하고 세력화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어떻게 ‘위계화’되고 갈등을 증폭시켰는지, 그리고 차이의 ‘위계화’가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대학가 여성주의자들

#### 1-1) ‘입장의 차이’에서 ‘감정적 갈등’으로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입장의 차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각자가 경험해온 맥락과 조건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지만 입장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논쟁되지 않는’ 상황은, “차이”에 대한 과장된 해석과 감정적 적대감을 낳았다. ‘독자적’ 여성주의 운동이 막 태동하기 시작했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입장의 차이’와 ‘감정적 유대감’의 차이, 그리고 ‘여성주의에 대한 정의’와 ‘문화’의 차이가 구분되지 않은 채 감정적 갈등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사례1의 이야기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사례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맑스주의계열 학생운동과 연관된) 문제의식에 대해 “넓은 의미에서”조차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의 차이’를 느꼈던 과정은 노골적인 “거부감부터 보이는” 태도와 불가분하게 뒤얹혀 있었다.

학생운동과 관련된 “집회에 가자”, 이라면 “그래, 가고싶은 사람들끼리 가”, 뭐 이런 식이 되고 지금 생각나는 건, 내가 대학원 준비하면서 국가론을 가지고 연구계획서를 쓸 때, 노골적으로 “왜 국가론을 공부해? 야, 국가론 공부하지 말고 차라리 여성학을 해라”, 그런 식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는 걸까’ 라는 게 항상 막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학생운동이랑 여성운동이 넓은 의미에서 동의할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동의하고 있다고 내가 생각했던 부분마저도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하는 걸까’ 하는 난감함. 그렇게 거부감부터 보이고 나서 얘기하는 것이 싫기도 했고 — (사례)

학생운동과 여성운동이 “넓은 의미에서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과는 달리, 다른 여성주의자들이 그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며 나아가 학생운동권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례는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기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거대한 장벽이 존재한다고 느꼈던 것이다.

사례의 경우, 당시 학생운동정치조직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여성주의 운동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과 내적 갈등이 더욱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학생운동조직을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경계의 대상이었나봐요,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나를 불편해하는 걸 느꼈거든요. 눈치를 본다거나, 어떤 얘기를 할 때 ‘재는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면 반대할거야’, ‘학생운동에 대한 욕을 하면 재는 화를 낼 거고 상처를 입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앞에서 굉장히 말을 조심하는 게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얘기는 한번도 듣지 못했고, 근데 점점 불편하고... 서로 부딪히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서로의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서”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타적으로 그동안 서로에게 상처를 준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 나을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도 사실 회피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왜 나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것만 생각을 했었고 ‘내가 왜 그 사람들에게 직접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기를 피했던 게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정말 사람들 미워했었고 참여학생회 활동하기 싫어하고 — (사례)

여기에서 보듯이, 어떤 ‘차이’가 한 사람의 여성주의적 정체성 자체를 의문에 빠뜨리고 ‘내적 갈등’을 초래하게 되면, 그 차이는 제대로 소통되거나 논쟁되지 못하게 된다. “단순히 서로의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재는 당연히 반대할거야”라는 규정적 시선과 “배타적인 감정”의 누적으로 인해 차이가 아예 드러나지조차 않고 감정적 대립으로 극대화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실제로는 “직접적으로 얘기 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례e의 말은 이러한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2) 차이의 위계화와 ‘의심받는 정체성’

이처럼 입장과 문화의 차이가 ‘감정적 갈등’으로 극대화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은, ‘여성주의의 정의’를 둘러싸고 차이가 ‘위계화’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의 ‘위계화’는 각각의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의 정체성 형성에 혼란을 가져왔다. 특히 학생운동에 대한 입장과 태도의 차이는 ‘순수한 여성주의자’와 그렇지 않은 여성주의자를 위계적으로 구별짓는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토론화 자리에서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과 학생운동을 하지 않고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걸 했는지 자기 과거를 솔직히 드러내고 얘기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학생운동을 하다가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 여성주의 분위기에 못 어울릴 것처럼, 마치 나찌가 유대인 딱지를 붙이는 것처럼 딱 그 의미로 이해가 됐어요, 나한테는. 화도 많이 났었고 — (사례e)

어쩌다 술을 마시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한 여성주의자가 “너는 솔직히 말해서 누구의 편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막 고민하다가... 당시에 다른 여성주의자들이 나를 여성운동을 하는 애로 안 봤던 것 같아요. 나는 학생운동이나 정치조직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성주의 쪽에 들어와서 장점만 빼가고, 뭐 이런 식의, 나쁘게 말하면 프락치라고 까지 할 수 있나? 그러니까 학생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하다가 오는 사람은 사실 여성주의자로서의 ‘순수성’을 보장받기가 굉장히 힘든 게 있죠. 너무 적나라한 표현인가? — (사례e)

이처럼, 사례e는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여성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느꼈다고 한다. 사례e는 자신이 학생운동정치조직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계의 대상”이 되고 “눈치”를 보며 “불편해하는” 이유였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그것은 “마치 나찌가 유대인 딱지를 붙이는 것처럼” 이해되고 나아가 “여성운동을 하는 애로 안보는” — 즉, ‘여성주의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느꼈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너는 누구 편이냐”, “운동권이나 여성주의자냐”라는 흑백논리식의 질문 방식은, 당시 “학생운동에 대한 반정립으로서의 여성주의운동”이라는 규정성이 양자 모두에게 얼마나 커다란 해석의 ‘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동시에, ‘여성주의’를 정의 내리는 힘이 어느 쪽에게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 “단절 및 독자세력화”를 주장했던 입장 쪽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적 해석들은 새로이 태

동하던 여성주의 운동 또한 기존의 한국 사회운동이 체현하고 있던 흑백논리와 딱지 붙이기, 편가르기 등의 배타적 운동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해석틀 속에서는 학생운동과 연관이 있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주의자들’이 “여성주의자로서의 ‘순수성’을 보장받기” 힘들게 된다고 사례는 해석하는 것이다.

사례g 역시, 철거촌 성폭력, 매매춘 문제, 여성노동권 문제 등 과거에 주류 학생운동이 다루어 왔던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후퇴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고, 버려야 할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 “유행이 지난” 것이라는 평가로 해석되었다고 말한다. 과거에 주류 학생운동이 다루어 왔던 이슈들에 대한 관심을 ‘정치적 입장 차이’가 아니라 “미련”으로 취급하는 것은, 당시 여성주의가 ‘학생운동에 대한 반정립’으로 의미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단절”을 주장하는 쪽이 ‘더 올바르다’는 위계적 위치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사례i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반정립으로서의 여성주의’가 “이 편이나 저 편이나”는 이분법적 해석틀로 작용함으로써 “하나의 정체성만을 강조하는” 배타적인 인습적 연대(Dean, 1996)를 형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너는 여성주의자 편이나 운동권 편이나, 이걸 명확히 해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정말 이편일까 저편일까’, ‘정말 여성주의라는 게 이런 거라면 내가 과연 여성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고, ‘우리’라는 울타리가 너무 답답하게 여겨졌던 것도 있어요 거기서 ‘우리’라는 게 정말 협소한 의미잖아요 ‘여성주의자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노동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하나의 정체성만을 강조를 하는 걸까’라는 의문도 많이 들었고 — (사례i)

“선택을 강요받는 것”, “하나의 정체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례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고 “내가 과연 여성주의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끊임없이 자문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여성운동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인 데다가 ‘다른 여성주의자들’을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사례의 경우, 특히 그러한 특정한 여성주의운동을 “여성운동의 주류”라고 판단하면서 소외감을 더욱 심하게 경험했던 것으로 보인다<sup>78)</sup>. 일단 자신의 여성주의 정체성에 대해 “자신이 없었지” 되면, 차이에 대해 논쟁을 시도하기보다는 “내 고민으로만 남겨두게” 되는 것이다.

왜 토론이나 논쟁이 안 됐을가에 대해서는... 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들쭉보임이나 그런 것들 그때 한참 만들어졌던 상황에서 “이거는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할

78) 여기서 사례가 토로하고 있는 당시의 느낌은 페레(M. M. Ferree)가 언급했던 바, 통일 이후 구 동독 출신 페미니스트들이 구 서독 페미니즘의 헤게모니 하에서 느꼈던 감정과 매우 흡사하다(Ferree, 1997).

수 있을 만한 자신감도 없었고... 외톨이라고 생각했었죠 (웃음) 여성운동 안에서 어떤 식의 흐름들이 있는지 나한테 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개입을 해야되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계속 그냥 나의 문제로만 남겨둔 거 그때 자치적인 학생운동그룹이랑 총여학생회 활동을 같이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잘 내 안에서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조화는 안되고, 그냥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걸까’ 라는 내 고민으로만 남겨뒀던 게 많았거든요. ‘진정한 페미니스트’, 이런 게 과연 있을까 싶으면서도, 내가 ‘진정한 페미니스트’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되면 좀... 자신이 없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 (사례)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해석들은 여성주의적 하위문화를 둘러싸고도 마찬가지로 양상으로 작용하였다.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하위문화를 어느 정도 체화하고 있는가에 따라 여성주의적 “순수성”을 가늠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순수한 여성주의자”에 대한 강박은, <후기-돌꽃모임>으로 ‘상징’되는 여성주의적 흐름을 둘러싼 서로 다른 해석들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여성주의 운동을 하게 된 사례j 역시, 여성주의 운동이 막 안정화되기 시작했던 시기에 일정한 “단죄들”이 존재했다고 기억한다. 그녀가 경험했던 “단죄들”은 학생운동에 직접적으로 관련지어졌다기 보다는 ‘남성적인 것 / 여성적인 것’이라는 이분법을 둘러싸고 일어났지만, ‘운동권스러운 것’과 ‘남성적인 것’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읽혀지고 있다.

사실은 좀 위축감이 있기도 하죠. 너무 헛갈리는 거야 정체성이 되게 불분명해지는 거죠 내가 돌꽃모임을 하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내가 학생운동권과 협상을 하거나 남성활동가들하고 얘기를 할 때 드러나요, 가끔. 내가 굉장히 공격적이 되고 굉장히 전투적이 돼서 완전히 개네들을 밟아놓거든요 그런데 이 ‘순도 높은 여성주의자애들’이 그것이 너무나 ‘남성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죠. ‘남성적인 방식이라니..’ 이게 최악의 욕이잖아요. 대체 내가 이 비판을 어떻게 감수해야되는지. 마치 전과가 드러난 것처럼 난 너무 어쩔 줄 몰라했어요. 하지만 권위적이거나 남성적이라고 비판했던 바로 그 방식들이 되게 효과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난 이걸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휴, 엄청난 혼란이죠. 그리고 삶이 굉장히 불안정하지 말을 많이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다 검열이 되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는 거, 이 열심히 하는 방식, 모임을 더 준비해 가는 거, 문건을 처가는 거나 이런 거 다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고민을 심하게 했고... — (사례j)

즉, 사례j는 학생운동진영과 지속적인 관계(“협상”)를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언어를 구사하게 되는데, 이때 여성주의 운동에서 “남성적”이라는 “레테르”로 ‘판단’하는 이분법적 해석들이 작동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검열”하게 되고 두 집단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불안정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물론 무의식적으로 체화된 남성중심적 문화를 바꾸기 위해 일상적인 행동 양식을 하나하나 문제제시하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체화된 남성문화’는 일상 문화 곳곳에 스며들

어 있어 좀처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운 일상 문화를 창조하는 과정은 과거의 문화에 대한 일정한 비판과 배제를 동반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성찰적 과정이라기 보다는 “검열”과 “낙인찍기”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앞서 말한 대로 ‘남성적=나쁜 것’ / ‘여성적=좋은 것’이라는 이분법적 틀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사례a의 다음과 같은 경험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녀 역시 “내가 정말 순수한 여성운동가가 아닌가”라는 정체성의 불안정성을 느꼈다고 한다.

내가 군가산제 반대 활동 하면서, 맑스주의계열 학생운동조직에 있던 남성활동가랑 거의 붙어 다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왜 언니는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남자애랑 붙어 다니냐” 뭐 그렇게 보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안 들었던 건 아니에요 좀 비참하기도 하더라구요 ‘군가산제 투쟁하면서 그나마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것 마저 왜 내가 부끄러워해야 하나, 이런 비참한 생각도 들었고... ‘내가 정말 순수한 여성운동가가 아닌가’ 이런걸 의심한다던지 — (사례a)

이들에게 있어서는 말투, 존칭, 일하는 방식, 친하게 지내는 인간관계 등 지극히 일상적인 부분들까지도 ‘여성주의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자기검열” 해야 하는 부분이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이 아니라 ‘자기 검열’이었다는 점이며, 이는 앞서 설명한 이분법적 해석틀로 인해 차이가 ‘위계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여러 사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되었으며, 특정한 여성주의적 하위문화가 배타적이고 우월한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어떻게 채는 저런 생각을 하면서 여성운동을 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로 읽히게 된다는 것 — 즉 여성주의적 정체성 자체를 의심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나는 처음 외부회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성운동 하는 애들의 운동권에 대한 심각한 거부감에 너무 놀래서... 왜냐면 난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학교 자체가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고 내가 처음 발 디뎠던 곳도 학생운동이었기 때문에 난 당연히 학생운동권과 같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4년 내내 그랬었어요 내 스스로가 여성운동을 하면서도 그랬었고 그래서 너무 놀랐죠 “학생운동 너무 싫어~”, “소름끼친다~” 이런 반응들에 놀라서, ‘뭐 때문에 저럴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내가 학생회에서 일한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분위기에서는 같이 있으면 “나 학생회에서 일했다” 라고 특별히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 학생회가 그렇게 나쁜 곳이라고 생각 안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굉장히 학생운동을 한 게 잘못된 것 같은 그래서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 쉽사리 애길 하거나 그러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 — (사례h)

“학생회에서 일한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다는 사례h의 진술은, 활발한 활동을 통해 상대적으로 가시화되었던 여성주의 운동의 하위문화가, 척박한 운동지형에서 학생운동과 여성운

동을 동시에 해왔던 여성주의자들에게 ‘배타적’이고 ‘우월한’ 것으로 여겨졌음 잘 보여준다. 결국 문제는 차이 그 자체가 아니라 차이의 ‘위계화’인 것이다.

### 1-3) 지도 그리기 : 여성주의 안에서의 중심과 주변

차이의 위계화는 여성주의 내부에서 ‘중심과 주변’ 구도를 만들어 냈다. 물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실제로” 중심-주변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대학가 여성주의자들 각자가 ‘중심-주변 구도가 존재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도는 앞서 언급한 ‘의심받는 정체성’을 지닌 여성주의자들에게 특히 분명히 인식되고 있다.

우선 사례는 “여성운동 안에서 주류는 문화운동과 결합된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인식은 그녀의 개인사적 경험 속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여성주의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례h의 경우 사례와 마찬가지로 “문화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유사한 지도를 그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녀가 처해 왔던 조건 자체가 편이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지형도 척박하고, 제일 많이 했던 게 빈민활동이었거든요. 그 지역이 철거촌이 너무 많아서 거의 매주에 한 학교씩 돌아가면서 규찰 서러 가고, 개천 헤엄쳐서 몰래 들어가고, 똥물 헤엄쳐서 들어가고, 골리앗에 한 달 동안 갇혀있고 막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 또 자치권 탄압이 너무 심하니까 척박하고 절실하게 운동을 했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보니까 . 문화 중심으로 움직이지않아요 문화운동을 지향을 하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절박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왜 저런 것만 하려고 할까’.. 그런 문제의식이 좀 있었고, 그래서 ‘나랑 안 맞는다’ 라고 생각했죠. — (사례h)

학생운동과 여성운동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는 입장을 지닌 사례h의 경우, “문화적 운동”, “아이템이 쇼킹하고 사람들에게 탁 와 닿을 수 있는” 여성주의 운동방식에 대해 한편 인정하면서도, “절박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왜 저런 것만 하려고 할까” 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만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이유는, 그러한 흐름이 ‘주류’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정한 여성주의적 흐름이 ‘주류’로 여겨지는 것은 사례a, 사례c, 사례i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사례b의 경우 ‘대학가 여성주의 운동’의 지형은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는 약간 다르지만,<sup>79)</sup> 학내

79) 사례j의 간접적 경험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지도 그리기’가 각자가 놓여진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그것이 자신의 여성주의적 정체성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틀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재의 상황을 입증해 준다. “‘신촌지역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하더라도 그게 뭐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고대 애들이나 동국대 애들이나 성균관대 애들이나 이런 애들, 신촌지역이 아닌 애들이 ‘신촌지

여성운동그룹이 “좌파 활동가 블록이랑 많이 겹쳐져 있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 “급진주의”라는 말로 표상되는 “연대, 이대 중심의 흐름”이 “주류”로 여겨진다. 이처럼 맑스주의계열 학생운동과 지속적인 연관성을 갖지 않는 여성주의자가 거의 없는 학내 여성주의 지형에 놓인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은, 그러한 하위문화 및 운동 흐름에 대해 “콤플렉스”와 “낯선 느낌”이 들면서도 동시에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였다. 사례b의 다음과 같은 말은 여성주의 운동 지형을 ‘중심-주변’의 구도로 파악함에 따라, 스스로 ‘주변’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여성주의자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경로를 잘 보여준다.

‘영 페미니스트’라는 말에서는 ‘문화’가 제일 먼저 오고, ‘급진주의’... 그런 게 먼저 온단 말이죠 너무 자의적인 느낌... 그전 또 서울의 운동이 연대 이대 중심으로 많이 굴러가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 있죠 그러니까 메이저로서 다 설명해줄 수 있다는 그런 발상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학교 여성운동은 보면 너무 웃긴 게, 무슨 집회만 하면 참가자가 제일 많은데 대학 여성주의의 지형에 있어서 중심은 아니란 말이죠 학교 안에서 그런 얘기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 연대 이대 식의 흐름들이 있고, 우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뭐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피력해본 적은 없지만, 뭐랄까 ‘약간 쓸쓸한 기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영 페미니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이런 사람들도 있다”가 아니라 마치 그 나이 또래의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을 그렇게 총칭한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은데. — (사례b)

최근 그 의미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간간히 사용되었던 “영 페미니스트”<sup>80)</sup>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례b는 “연대, 이대 분위기”와 같은 집단으로 이해한다. 그녀뿐만 아니라 맑스주의계열 학생운동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여성주의자들은, “문화”와 “급진주의”라는 말로 상징되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 “거리감”을 느낄 뿐 아니라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을 그렇게 총칭한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핵심적인 이유는 “서울의 여성주의 운동이 연대, 이대 중심으로 많이 굴러가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sup>81)</sup>.

영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쪽은 문화 어찌구” 이런 거고, “우리는 노동 어찌구” 이런 거고 (웃음) 여성주의자들 내에서 굉장히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때문에” (사례j)

80) ‘영 페미니스트’라는 말은 <들꽃모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주의자들 중 일부가 쓰기 시작한 자기규정적 용어로서, 얼마 전 『나는 페미니스트이다』라는 책을 발간했던 ‘달과 입술’이라는 집단 역시 스스로를 ‘영 페미니스트’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용어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정체성이 다소 불분명할뿐더러, 지나치게 ‘세대구분’을 강조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영 페미니스트’라는 용어에 대해 비판적인 여성주의자들도 많이 있다.

81) 사례f 역시 대학가 여성주의 운동 내에도 중심과 주변이 존재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그 책에 대해서도 사실 나는 물론 그 문화제들이 다른 기획과 의도를 가지고 한 거였지만, 그 문

이대, 연대, ‘영 페미니스트’ 이런 거에 제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그게 여성운동의 주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명 지어 부르는 거도 분명히 의미가 있겠지만, “근데 부모성 같이 쓰기 운동은 왜 안 하는가”, 뭐 이런... 어쨌든 여성운동 안에는 부모성같이쓰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성을 빼고 이름만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별명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별명 부르는 사람들이 주류라는 거죠, 대학에서는. 저 윗 세대로 가면 부모성 같이쓰기가 주류겠지만...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런 분위기 분명히 있는데, 저는 권력이 그거에 있다고 생각해요. -- (사례b)

사례a가 그린 ‘지도’와 비슷하게, 사례b 역시 “이대, 연대, 영 페미니스트”로 상징되는 어떤 특정한 여성주의 운동의 흐름이 “여성운동의 주류”라고 생각하고 있다. “영 페미니스트”라는 말에 대한 불만의 핵심은, 이러한 ‘주류’만을 설명해줄 수 있는 단어인데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에 대한 총칭’으로 사용되기 때문인 것이다. 사례b가 명확히 표현하였듯이, 문제는 동시대의 여성주의자들을 ‘정의 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정한 부류의 여성주의자들 — 가령 ‘문화주의’, ‘분리주의’, ‘영 페미니스트’ 등의 말로 표현되는 여성주의자들이라는 점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류와 다른’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자신이 없거나 배제당하고 의심당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데 있다. 실제로 각각의 서로 다른 여성주의 운동들이 가진 영향력과 성과를 ‘중심-주변’ 구도로 실증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의 형성 과정에서는 여성주의 운동 지형에 대한 위계화된 ‘지도 그리기’로 서로를 비교하고 구별짓는 해석틀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 1-4) 왜 논쟁되지 않는가? · 폐쇄성과 배타성의 확대

그 동안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가 제대로 토론되지도 못한 채 “이분법적”이고 “감정만 알아먹는” 방식으로 논의되었던 것은 바로 차이가 ‘위계화’되었기 때문이다. ‘순수한 여성주의자’에 대한 이분법적 기준은 ‘의심받는 정체성’을 낳았고, 따라서 수많은 감정적 갈등이 보이지 않게 증폭되었던 것이다.

어느 누구도 제대로 언어화해서 논쟁다운 논쟁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재미나 재미없니, 그런 식으로 되던가, 운동권이냐 운동권이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만 계속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아무도 통쾌한 논쟁은 못하게 되는 거죠. 서로 감정만

---

화제 자체가 호응을 받았던 건 이게 “문화제”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문화로 운동을 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걸로 한다, 문화로 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그 구도가 재미있게도 여성주의자 안에도 ‘중심’과 ‘주변’이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잖아요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중심으로 표상되어지는 그런 집단의 묶이 더 많이 큰 것 같아요.”(사례f)

갑아먹게 되고 나도 굉장히 열 받았거든요. “운동권이나 아니면 여성주의자냐” 그런 식으로 갈라서 얘기를 한다던가, 운동권에 대한 “미련”이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내가 보기에는 미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성운동에 대한 사상이나 여성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인데... 그걸 표현하는 사람도 논리적으로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비판하는 쪽도 논리적으로 비판을 안하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쌓여 갔던 거죠. — (사례g)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막연하게 싫어하는” 감정적 갈등과 또 다른 ‘폐쇄성’ 및 ‘배타성’의 확대로 이어진다. 차이가 논쟁되지 않는 구조가 계속 재생산되는 것이다. ‘다른’ 여성주의자들로부터 받은 소외감으로 인해 스스로도 “반감으로 달척있고” “뽕뽕 뭉쳐있다”는 사례e의 말이나, “잘 알지 못하면서 뭔지 모르게 결끄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우리를 막연하게 싫어하는 것 같다”는 사례c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준다.

대놓고는 그러지 않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쪽 사람들이 우리를 막연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도 잘 알지 못하면서 뭔지 모르게 결끄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너희 싫어한다”, 라던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던데”, 이런 식의 얘기들. 이유까지는 얘기 안하고... 그 사람들도 “왜 싫은데? 무엇 때문에 싫은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가끔 우리끼리도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해서 왕따를 당할 거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성운동도 각각 최소한 자기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좀더 많이 고민할 수 있는 집단으로 나뉘고, 그게 공개적으로 서로 소통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는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만 한다는 게 문제죠. 지금 분위기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선불리 얘기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 (사례c)

사례d, 사례g, 사례j, 사례i의 경우는, 앞서 <후기-들꽃모임>으로 상징되는 여성주의 하위문화에 대해 비슷한 지점을 문제삼았다. “들꽃모임이 중반기를 넘어서서 뭔가 자기들만의 단단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을 때” 들꽃모임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례d는, 처음 참여한 여성주의자들에게 “분위기를 파악할 만한 배려들을 해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신나게 여자들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인상을 받고 마음속으로 “이거는 정말 아니다 라고 선을 딱 긋게” 되었다고 기억한다. 사례g는 <후기-들꽃모임>에 대한 반감이 단순히 분위기에 대한 낯설음이 아니라 “계급적인 부분이 많이 결여된” 정치적 내용이나 “조직적인 틀을 거부하는 경향”, “여성주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무마가 되어버리는” 모습 때문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어떻게 보면 계급적인 부분이 많이 결여 되어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도 있고 조직적인 틀이나 그런 걸 다 거부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여성으로서의 피해가 또 하나의 영웅주의가 되 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거든요. 들꽃모임에 처음 나가면서 많이 느꼈던 게, 거기서 나는 강간을 당하지 않았으면 할말이 없는 분위기인 거야. 그러니까 운동권들이 모여서 무용담,

‘내가 딸이야 화염병을 던졌는데 이게 엄청 멀리 날아갔어’, 뭐 그런 식으로 애길 하는 것과, ‘내가 딸이야 강간을 당했는데 그게 굉장히 심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심한 경험이 없었던 사람으로서는 참 할말이 별로 없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해지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었고 레즈비어니즘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 오류점들도 많이 봐왔고 이성애적인 관계보다 사실은 더 독점적이고 소유 중심적이고 훨씬 더 억압적인데, 오로지 여성주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무마가 되어버리는 것. — (사례g)

“여자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것”, “본질주의적”, “케텔라식의 여성문화”, “문화주의/문화운동”, “레즈비어니즘”, “헤테로들에 대한 단죄”, “여성운동에 대한 생각이 더 좁아지는 것”등 <후기-들꽃모임>에 거리감을 느꼈던 이들의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문제삼고자 하는 부분이 ‘폐쇄성’과 ‘배타성’이라는 점이다<sup>82)</sup>. 처음부터 쉽게 동화될 수 없는 개인사적 경험과 현재적 조건에 놓여있는 여성주의자들이 특정한 양식으로 안착화 된 여성주의 하위문화에 대해 ‘폐쇄성’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하위문화’적인 측면은 ‘정치적 입장’에 관한 것보다 오히려 더욱 토론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아직 형성 과정 중에 있는 ‘대화가 여성주의 운동’에 있어서 이는 ‘감정적 갈등’과 동시에 서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외계인 같은’(사례c) 존재로 여기게 된다.

#### 1-5) 성찰적 맹아들

그런데 과연 “순수한 여성주의자” 혹은 “진정한 페미니스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이분법적 해석들과 “순수한 여성주의자”라는 관념이 생겨났던 것은, ‘주류 학생운동’으로부터의 ‘단절’과 ‘독자성 획득’이 생성 중에 있던 여성주의 운동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성주의자’라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정의 내리는 힘’으로 인해

82)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러한 평가가 (사실fact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 하나의 ‘해석’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해석은 실제로 <들꽃모임>에서 활동했던 이들이 ‘기억’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사례2의 경우 <들꽃모임>에 대한 위와 같은 평가에 대해 부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그건 들꽃을 나름대로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 들꽃의 개개인은 정말 다양했고, 들꽃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노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들꽃의 문화를 괴롭힌다거나 그러지 않았어 서로 다 인정하고 있었고, ‘재가 서 공간에 가면 언어를 다르게 써야되기 때문에 힘들구나’, 라는 걸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서로 나 같은 경우는 노동운동을 계속 해 오다가 이후에 정보운동으로 가버렸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운동을 해왔다고요, 관심도 다양했고, 그래서 내 안의 모순들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들꽃에 갔을 때는 내가 여성으로서 가지는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었을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었던 거죠, 그 안에서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논쟁이 계속 있었고 들꽃은 단지 그런 조직만은 아니었어요.” (사례2)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가 은폐되고 봉합될 수밖에 없었던 배제의 효과를 낳았음을 보여주기도 했다<sup>83)</sup>. 즉, 그러한 갈등들이 표면화되거나 논쟁되지 않았던 이유는, 한편으로는 (동질적 집단으로서의) 여성주의 운동의 “세력을 조금이라도 키우고 나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위기감(사례d) 때문 이면서 동시에, “여성주의자로서의 순수성”을 의심받는 것으로 인해 ‘문제제기를 회피하고 싶어하는’ 감정과 누적된 갈등들 때문이기도 하다. 다음은 당시 그러한 차이나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성찰적인 재해석들이다.

여성운동 내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자원이 없는 마당에 누가 뭘 하자고 하면 무조건 지원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배신감이 되거나 아니면 상처가 되거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니가 운동 권이나 여성주의자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그 전에 그렇게 독자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총여학생회는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주체성을 가지고, 여성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서 총여학생회를 꾸리겠다” 라는 맥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부여되어졌던 시점에서, “운동권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 거기 안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지금 의미 있는 시작인가”, 라는 질문들을 했다고 보거든요. 나는 그런 질문들이 서로에게 필요했던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오해도 있을 수 있었고 심하게 얘기가 되어졌을 수도 있지만... — (사례)

사례d와 사례f는 당시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이 처해있던 조건이 “세력”이 약하고 “자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표면화되거나 논쟁되기보다는 “배신감”이 되거나 “상처가 되었던” 것이라고 해석한다. 즉, 위계적 구별짓기는 개별 여성주의자들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류 학생운동에 종속되어왔던 ‘여학생 운동’을 비판하는 가운데 새로이 등장하고 있었던 당시 대학가 여성주의 운동의 역사적 맥락으로 인해 발생한 의미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학가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가 논쟁되지 않고 감정적 갈등으로 누적되었던 것은, 90년대 중·후반이 역사적으로 ‘주류 사회운동/학생운동’으로부터의 “독자성” 획득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설명되기 어렵다. 그리고 현재 이들은 이러한 맥락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과정에 있다.

감정적 대립이 누적되었던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례e도 유사하게 느끼고 있었다. 특히 사례e는 당시에 자신이 “여성주의자로서의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피”했었다고 되돌아보고 있다. 또한, 입장의 “차이들을 설명해줄 말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당시 여성주의 운동의 상황 역시, 갈등을 누적시키고 논쟁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83) 정치적 선명성과 ‘순수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경향은, 과거 7-80년대 주류 사회운동에서도 똑같이 관찰할 수 있는 바이다. 이는 ‘우리-그들’의 대립에 기반한 동질적인 집합 정체성에 대한 강조가, 어떻게 차이를 봉합하고 배제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사실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들을 설명해줄 말이 없고, 단지 ‘여성주의’라는 말밖에 없는 거잖아요. 굳이 붙이자면 ‘약간 다른 여성주의’, ‘뭐와 가까운 여성주의’ 이런 식으로밖에 붙일 수 없는 거고 여성주의라는 말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나는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이들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얘기가 오고가지 못했던 것도, 사실 그 사람들이 차마 나에게 “너는 여성주의자가 아닌 것 같애”, 라는 말은 못했지만 사실 그런 의도로 사용했던 거는, 분명히 나를 ‘아예 학생운동만 하는 애’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것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이질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 (사례e)

“‘여성주의’라는 말밖에 없다”는 것은 곧,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를 개념화할 수 있는 ‘언어’ 자체가 없었음을 뜻한다. 오늘날 “복수(複數)의 여성주의들”이라는 말처럼 ‘여성주의’가 동질적이고 단일한 범주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는 ‘해석틀’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특히 과거의 종속적 ‘여학생운동’과의 단절을 꾀하던 시기에 여성주의의 ‘내부’의 차이가 드러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다. 차이를 비위계적인 방식으로 인식하고 토론할 수 있는 ‘언어’와 ‘해석틀’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앞으로의 여성주의 운동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2)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

### 2-1) 신뢰의 위기와 감정적 상처들

어떤 특정한 “싸움”의 상황에서 다른 여성활동가들과 ‘차이’가 드러났을 때,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매우 미묘하고 문제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한편으로 이들은 여성활동가들 사이의 불신과 경쟁을 조장하는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성찰함으로써, 입장을 달리하는 여성활동가들을 똑같은 구조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로 이해하게 된다. ‘동일한 구조의 피해자들’이라는 이러한 인식은 ‘다른’ 여성활동가들에 대해 남성활동가들에 대해서만큼 단호한 입장을 취하거나 직접적인 비판을 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둘째,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이미 “커밍 아웃”을 한 이상 고립적인 상황에서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성주의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소수의 여성활동가들로부터 유일한 ‘정서적 지지감’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는 ‘절박한 신뢰 관계’를 위협에 빠뜨리는 것으로 해석되며 양자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이 되는 것이다. 아래에서 언급되는 “격한 배신감”이나 “절망감” 등의 표현은 사회운동단체 여성주

의자들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문제적인 것인지를 입증한다. 우선 여성활동가들이 서로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꺼리게 되는 점부터 살펴보자.

어떻게 보면 남자들보다도 오히려 여자들이 더 우리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성폭력사건 대책위 활동을 방해하는 게 많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말하고 개입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남자들에게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어요, 그 여자들한테. 남자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심한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막 엄청나게 쏘아댔는데, 실제로 여성활동가들한테는 그렇게 까지는 애길 못했어요. 그냥 예들려 말하고 왜 그랬을까 여성이기 때문에 그랬었나? — (사례4)

이처럼, 여성활동가들이 다른 여성활동가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여성이라면 적어도 반쯤은 기대를 하고 신뢰하면서 대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성활동가가 그러한 기대에 어긋나는 행위나 말을 했을 때 “너무 외롭다”는 고립감과 함께 “절망감”마저 느끼게 된다.

나를 비판했던 친구중의 한 명은 학생운동 할 때부터 조직 운동 같이했던 친구고, 그래서 나를 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심정적으로는 동의해주겠지’, 이런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런 게 무너지면서... 그때는 상대방을 고려하기보다는 ‘내가 너무 고립되어있구나’. 그러니까 ‘적어도 애로부터는 정서적인 위안이라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다보니까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 (사례5)

사례5는 ‘동일한 구조의 또 다른 피해자’인 다른 여성활동가들에 대해 느끼는 복잡한 감정에 대해, 남성활동가들에게 느끼는 것과는 달리 “두려움도 더 크고 배신감도 더 크고, 그러나 여전히 애정과 애착은 남아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으로 인해, 여성활동가과의 차이를 발견하거나 비판을 받는 것은 “훨씬 더 상처를 입고 감정정리도 잘 안되는” 것이다. 이는 앞서 4장에서 살펴본 신뢰하던 ‘남성’ 활동가에 대한 실망이 곧바로 감정적 거리감 획득 및 비판의식의 급진화로 이어지는 과정과는 매우 다르다.

그런데 여성활동가로부터의 비판이 감정적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다시 비판을 주저하고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사례1의 이야기는 이러한 순환 및 상호 강화 과정을 보여준다.

우리 안의 문제는 안 드러나 구조적으로 나는 그게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솔직하지 못한 것도 있고, <여성활동가모임> 안에서 서로에 대한 기대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실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지. 여하튼 나는,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직접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뒀다마가 되  
는거죠 내가 직접적으로 제기했을 때 “그게 굉장히 큰 상처였다,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아주 작은 차이가 생겨도 얘기를 못하고 뒤에서 얘기하게 되  
고 “개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그걸 만약에 당사자가 들으면 진짜 기분이 나쁘겠죠. — (사례1)

‘신뢰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고 싶다는 생각은 차이에 대한 언급이나 비판이 ‘뒀다마’라는 비공  
식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뒀다마’를 당사자인 여성주의자가 알게 되었을  
때, 상처와 “배신감”은 한층 더하다. 사례6의 경우도 조직 내에서 일정한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다른 여성활동가들과 갈등을 느끼지만, 여성활동가들이 그러한 문제를 직접적  
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뒀다마”를 통해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더욱 확실하게 상처받았  
다고 말한다. ‘뒀다마’는 여성활동가들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라고 생  
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처는 또 다시 소통되거나 논쟁되지 않는 ‘감정적 갈등’으로 누적되는 악순  
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자 후배들이 나 빼놓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져요. 근데 이 친구들의 제일 큰 문제는 나의 지  
배야. 이 사무실에서의 전문을 장악하고, 운동의 갈 길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세미나를  
따로 하겠다고 팀을 만들었죠. 그런 측면에서는 나 빼놓고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됐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계속 생겼어요. 그리고 아직도 갈등이 있거든요. 여성이라는 것만  
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검증 받아야 되는 그 안에서의 지배문제나 권력관계문제나 이런 게 여전히  
존재를 해요. 나는 그 문제를 푸는 방식도 가능하면 여성적인 방식으로 푸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그  
게 뭔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워낙에 내가 패거리 문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해서 막  
연하게 편들어 주거나 비판을 하는 거는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뒀다마를 통해 자꾸 얘기가 내 귀에 들어오는 거야. ‘왜 재네가 한번도 내  
앞에서 그런 얘길 안 할까’.. 앞에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뒤에서 뒀다마를 하는데. 그래서 한동  
안은 ‘어쩔 이럴 수가’, 이러면서 무척 괴로워했었어요. — (사례6)

“왜 재네가 한번도 내 앞에서 그런 얘길 안 할까”라는 사례6의 반문은 앞서 ‘대학가 여성주의  
자들’ 사이에서 ‘차이가 소통되지 않는 방식과 매우 비슷하다. 즉,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 각각  
이 놓여 있는 위치나 조건의 상이성으로 인해 “여성들 사이의 차이”가 존재하고 또 그것을 인식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문제가 표면화되어 소통되거나 논쟁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 문제  
인 것이다.

여러 사례들이 말하고 있듯이, 여성활동가들은 서로에게 “실망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부담  
스러워” 하며, 반대로 어떤 비판을 받게 되었을 때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서운함을 가지게 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적어도 여성주의 의식을 지니고 있는 여성활동가라면 “심정적으로는 동의해주겠지”라는 서로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고립적인 상황에서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여성활동가들이 ‘여성주의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소수의 여성활동가들로부터 유일한 ‘정서적 지지감’을 얻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녀들 내부에서 의견의 차이는 ‘절박한 신뢰 관계’를 위협에 빠뜨리는 것으로 해석되며 양자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이 되는 것이다.

## 2-2) 왜 논쟁되지 않는가? : ‘우리’를 단일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

우리는 2장 (이론적 논의)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관념을 중심으로 한 인습적 연대(Dean, 1996)가 동질적이고 단일한 집합적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어떻게 차이를 배제하거나 통합하게 되는지를 살펴본 바 있다.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 ‘신뢰의 위기’를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은, 끊임없는 싸움의 과정에서 ‘그들’과 ‘우리’의 구분이 중요해 짐에 따라 ‘우리’라는 범주를 단일하고 동질적인 것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과 불가결하게 연관된다.

앞서 사례1이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표현했던 여성활동가들 사이의 망설임과 주저함, 즉 ‘차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비판하지 않는 경향은 사례3과 사례5 또한 제기했던 문제였는데,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지점은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우리 안에서의.. 말하지 못하는 문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차이를 조금 느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차이가 분명하게 토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거나, 차이가 발견 되도 그냥 감추고 가거나 아주 결정적일 때는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그냥 가는 거죠. 맘속에 품어두고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린 하나야, 이러면서 온 게 분명히 있거든요. 나는 굉장히 공격적인 토론방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 토론방식의 공격성 때문에 어떤 차이를 발견을 해도 그걸 옹계 잘 전달하는 이런 표현방식을 못 찾아서 그 얘기를 잘 못하는데, 사실은 내부에서 이미 여러 가지 격론이 붙은 게 많아요. 뒤돌아자라나 사석에서는, 사실은 지금 차이가 발견되고 있는거죠. — (사례3)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겠죠. 차이를 발견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발견되었을 때 적대적이지 않은 형태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그런 것들이 큰 것 같고, 특히 <여성활동가모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단체나 조직도 아니고, 너무나 다른 운동의 경험과 습성과 활동 방식의 차이들을 지녔은 사람들인데, 단지 그 사람들이 여성활동가로서 겪는 동일한 문제들로 모인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공통점보다 차이들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이가 적대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차이를 확인해 가는 과정 자체가 두려운 거. 여성들 내부에서도 이게 깨지고 나면, 좋게 해결되지 않으면 뭔가 다 와장창 작살나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 (사례5)

사례3의 “우리 하나야” 라는 표현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듯이, 거대한 가부장적 사회운동진영 구조 안에서 고립되어 있는 <여성활동가모임>의 위치로 인해 “우리”를 “하나”로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대다수 여성활동가들에게 크게 자리잡고 있다. 즉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라는 어떤 집합적 정체성을 (‘그들’과 대비되는) 고정된 ‘우리’로서 유지하고 방어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격적인” 방식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자신이 느낀 ‘차이’를 제기하는 ‘적합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며, 나아가 “차이를 발견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발견되었을 때 적대적인 형태가 아닌 형태로 해결해야될 것 같은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우리’를 “하나”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를 쉽게 드러내거나 논쟁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 2-3) 차이의 숨겨짐과 위계화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에게서도 차이가 ‘위계화’되는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서로 다른 여성주의자들이 나름대로 각각 ‘다양한 집단’을 이루고 있는 대학가 여성주의자들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하나의 집단’만이 가시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덜했지만, ‘차이’가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오직 남자들하고만 싸우기가 너무 급급했어요. 그렇게 싸워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진짜 십 년이 넘게 운동권의 경험 안에 있다가 ‘여성주의’ 하면, ‘아, 이거 버려야되는데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웬지 그런 부담감. ‘왜 나는 아직도 이러고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그 용어가 주장하는 태도들, 그런 경험을 안 갖고 있어서 그런 걸까... — (사례1)

“여성주의”라는 말보다는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을 더 친숙하게 느끼는 사례1의 경우, “여성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이 주류 사회운동 ‘내부’에 있으며 사회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저항을 하고 있다는 위치(standpoint)로 인해 “버려야되는데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듯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여성주의’라는 단어가 90년대 중반 이후 새롭게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주류 사회운동으로부터 단절한 ‘독자성’이 용어의 정의에 포함된 것으로 읽히고 있다는 점과, 둘째,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은 그러한 정의와 자신의 위치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여성주의 정체성을 구체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과연 내가 여성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불확실성은 다른 사례들도 느끼고 있었던 바이다. 여성활동가들이 다른 여성활동가에게 직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여성주의는 이런 거다”

라는 인상을 주게 될까봐 조심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가장 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건 다른 여성활동가와의 차이를 그때 당시에는 얘기하지 못하는 편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가진 걸 ‘우긴다’, 라는 인상을 줄까봐. 혹은 “여성주의는 이런 거다”, “페미니스트는 이런 거다” 라는 인상을 주게 될까봐... — (사례1)

복수(複數)의 여성주의‘들’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주의자들은 자신의 의견이 ‘여성주의’의 정의에 걸맞는 것인가를 확신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주장이 ‘여성주의’를 대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인해 주저하게 된다<sup>84)</sup>. 그리고 이러한 주저함은 ‘차이’를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다른 여성주의자로부터 ‘운동권 남성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비판받은 적이 있는 사례6의 경험은,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와 정체성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비판에 대해 “남자애들이 너무 내 편을 들어준” 상황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반론을 펴기보다는 “차라리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게 했으며, 특히 여성주의자인 ‘신정모라’가 “진짜 여성주의자로 얘기되는 사람들에게도” 비판받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은, 사례6으로 하여금 “여성주의가 뭔지”에 대한 혼란을 느끼게 했다고 한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성활동가모임>도 마찬가지고 ‘누가 여성활동가로서 갖는 문제의식의 수준의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예를 들면 ‘반여성적이라고 느껴야 되는 상황이 어느 정도 있느냐’ 라는 것은 계속 견제 당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나에 대해서 별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고, 신정모라씨로부터 비판받았을 때 반쯤은 ‘나한테 그런 편향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인정을 했고 그래서 약간 반성하게 됐던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 더 기분이 나쁘고 아무에게도 대답을 하고싶지 않은 기분이 들었던 이유는 남자애들이 너무 내편을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하고싶지가 않아 신정모라씨 얘기가 차라리 옳다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그때 나로서는 옳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었고 ‘신정모라 정말 웃겨, 안 그래, 나는 여성운동도 하면서 남자애들하고도 잘 지내’, 이렇게 얘기하고싶은 상황도 전혀 아니었고 그게 정말 괴로웠죠 그리고 신정모라씨가 그때 예를 들면 ‘진짜 여성주의자’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에게도 막 비판을 받고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여성주의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다고 내가 신정모라의 여성주의를 거

84)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주의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때 ‘여성주의 전체를 방어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여성주의 운동들 사이의 ‘차이’가 드러나고 각각이 ‘집단’으로서 세력화하지 않고 있을 때, 즉 ‘복수의 여성주의들’이라는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주장도 단일하고 동질적인 ‘여성주의’라는 고정된 정의에 부합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성주의자들의 의견은 많은 주저함을 거치고서야 발화될 수 있는 것이다

부합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고... — (사례6)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가 숨겨지고 위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모순적 경험은, 그녀에게 “반여성적이라고 느껴야 되는 상황”을 규정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견제 당하고 변화하는 것이라는 생각 — 즉, ‘여성주의’는 위계적/고정적으로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는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 처한 고립적 상황으로 인해 숨겨지거나 위계화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의 숨겨짐과 위계화는 여성주의 정체성에 일정한 혼란을 초래해 왔다. 그러나 사례6의 말에서 확인되었듯이, 모순적 상황에 대한 경험과 성찰은 차이의 ‘위계화’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정체성 형성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 2-4) 성찰적 맹아들

이제 ‘차이’들에 대한 <여성활동가모임>의 고민은 성찰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단일하고 동질적인 집단으로 유지해야만 했던 상황과 맥락에 대해 성찰하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차이를 숨기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감정적 상처와 혼란을 낳기도 한다는 경험에 대해 성찰하면서, “우리는 하나여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성활동가모임>에 있고 그 운동을 같이 하지만 일정하게 차이가 발견되면, 서로에게 그 모순이 갈등으로 다가오면 우리 둘은 투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게 단순한 논쟁이든, 아니면 조직을 해체하는 분위기로 가든. 나는 “조직의 생명은 영원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 사실 난 좀 불안했어 <여성활동가모임>이 너무 ‘일치단결 하나로’ 이런 거 같아 가지고... 좀 반대도 있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런 말도 있어야 토론도 되고 발전도 되고 그러는데, 너무 ‘일치단결 하나로’가 있어요 왜냐면 사안도 또 “일치단결 하나로” 안 할 수 없는 게 많았고, 여태까지는 근데 이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 (사례3)

사례3은 내부의 차이가 숨겨져 왔던 원인이 “일치단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한 차이를 드러내고 논쟁하는 것이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례1의 경우, ‘차이’와 갈등들이 함께 말해지거나 “공론화”되지 않고 “개인적

으로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상처받는” 상황 자체에 대해 비판적이다. <여성활동가모임>에 대한 기대 중에는 “여기서만큼은 이런 문제 자유롭게 얘기하고자 하는 기대감” 또한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사회운동 경험에서 느꼈던 흑백논리식 편가르기와 ‘낙인찍기’ 문화를 비판하면서, 대안적인 여성주의 조직 및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솔직히 맘에 안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상처받고.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답답하고...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여성활동가모임>) 이런 거 느끼려고 들어 온 건가, ‘여전히 여기서도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얘기는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성격상 참을 수 없는 거고, 내가 여기서만큼은 이런 문제 자유롭게 얘기하고자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 (사례1)

그녀는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 놓여 있는 고립적인 상황으로 인해 항상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가 드러났을 때 즉각적으로 제기하지 못해 왔다고 말하면서도, 그러한 갈등이 누적될 경우 “자기 안의 상처가 커지도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남성들과는 다르다는 믿음”을 가지고 차이에 직면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녀 역시 어느 정도 상처를 받더라도 차이를 드러내고 직면하는 것이 여성주의자들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례5 또한 “같이할 수 있는” 여성활동가들 사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성찰한다. 넓은 의미에서 사회운동진영 내 가부장적 구조의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다른 여성활동가들에 대해서, 그녀들이 놓여 있는 조건과 상황, 각자의 위치(position)와 입장이 어떤 맥락 위에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적과 싸우는데 너무 급급해서 아군이 누군지 챙기려고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오히려 조금이라도 나와 같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이랑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야 하는 게 아닐까, 너무 혼자 치고 나가려고 했고 저 그때 참 반성 많이 했어요. 내가 피해자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겪고있는 사람들을 가슴으로 안을 준비는 안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분명한 적이 있을 때 내부의 차이가 당연히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뒤돌아보면 당연히 겪어온 경험이라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더라도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둘한테 너무 확고한 입장일 수 있는 거고... 예전에 나를 비판했던 그 친구가 이번 사건 겪으면서 “그때 니 심정이 어땠는지 지금 이해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변화해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 (사례5)

대부분의 다른 여성주의 조직과 마찬가지로, <여성활동가모임> 또한 처음부터 ‘여성주의’에 대

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애초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모임을 결성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후에 “운동사회 내 가부장성과 권위주의 철폐”라는 추상적인 슬로건에만 동의하면서 모임에 합류하는 여성들도 있으며, 따라서 ‘운동사회 내 가부장성과 권위주의’의 구체적인 양상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구조에 대해 어떤 전략으로 저항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사례5의 말처럼 “겪어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문제에 대한 상황인식이나 대응 방식의 차이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 형성한 ‘여성주의 집단’이 “너무나 분명한 적”과 (일치된) “우리”를 대비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인습적 연대”(Dean, 1996)의 양상을 띠어 왔던 것은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은 그녀들의 ‘고립적인 위치’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이미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라는 문제를 명확히 인지하고 문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성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과 관점의 차이가 각자가 놓인 맥락, 조건, 개인사적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점 또한 성찰해가고 있다. “분명한 적”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내부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거나 “개인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주의자들의 연대 및 정치적 가능성을 더 협소하고 경직되게 만든다는 성찰적 인식이야말로, ‘여성주의 정체성’을 발명하고 끊임없이 재구성해 나가는 90년대 중반 이후의 ‘여성주의자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절. 차이를 ‘맥락화’하기

지금까지의 사례연구 결과,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가 표면화되거나 논쟁되지 못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차이의 ‘위계화’로 인하여 “순수한 여성주의자” 혹은 “진정한 페미니스트”라는 관념이 생겨나고 특정한 여성주의자들이 여성주의를 ‘정의’내리는 힘을 발휘함에 따라 ‘다른 페미니스트들’이 불가피하게 배제될 수밖에 없었으며, 일단 ‘중심-주변’의 구조가 여성주의자들에게 하나의 ‘좌표축’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차이’가 발화되거나 논쟁되기는 어렵게 되었다. 둘째, 각자가 처한 고립적 위치는 여성주의자들의 연대를 ‘절박한 신뢰관계’로 만들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여성주의 정체성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차이가 생겼을 때 쉽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했다. 셋째, ‘주류 사회운동’의 포섭주의적 이념구조는 ‘반정립으로서의 여성주의’라는 강조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배타성을 초래하거나(대학가

여성주의자들), ‘우리’라는 범위를 고정하고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내부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여성주의 운동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 여기에는 주류 사회운동의 이념과 문화가 재생산해온 이분법적 사유들과 ‘낙인찍기’, 타자에 대한 배제를 초래하는 질문 방식(“너는 누구 편이냐”) 등이 사회운동 전반과 그 구성원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으며,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여성주의자들 역시 이러한 문화 및 사유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 또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차이는 숨겨지고 감정적 갈등으로 누적되었으며, 서로에 대한 배타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곤 했던 것이다.

무엇이 여성주의적인 것이며, 여성주의의 경계를 가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여성주의자는 ‘주류 사회운동’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며, 다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가부장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을 통해 저항해야 하는가? 오늘날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를 특징짓는 이러한 질문들은, 이들이 문제화해온 ‘차이’가 무엇보다도 ‘여성주의’에 대한 입장(standpoint)의 차이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여성주의’를 어떤 직선적 의식고양을 거쳐 획득되는 특정한 ‘단계’ 혹은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구성·재구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Stanley & Wise, 1983), 각자가 자신의 여성주의 정체성을 형성해 온 과정을 ‘역사화’하고 ‘맥락화’하는 것은 필수적이 된다. 다시 말해, ‘여성주의자’라는 정체성 자체가 맥락의존적이라는 것이다.

이미 여러 여성주의자들이 성찰하기 시작했듯이, “우리는 하나”라는 관념은 여성주의자들 각자가 놓여 있는 상황과 조건을 탈맥락화함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누적시킬 위험이 있다. ‘차이’나 ‘갈등’들이 함께 말해지거나 “공론화”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상처받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각자의 “경험”들을 재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억압을 언어화하고 저항의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여성주의자들’의 에너지는 사회 전반의 공고한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소진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나는 지금까지 여성주의자들의 발언과 논쟁을 제한해 왔던 ‘단일한 여성주의’라는 강박 관념은 복수(複數)의 여성주의‘들’이 존재한다는 인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에 적극적으로 직면하고 소통함으로써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대안적인 여성주의적 연대는 ‘그들-우리’의 이분법적 대립을 통해 확정되는 ‘인습적 연대’가 아니라, ‘차이’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활력을 얻는 연대, 자신의 경험과 입장을 성찰하고 타인의 조건과 상황을 ‘맥락화’함으로써 ‘여성주의자’라는 정체성을 부단한 변화의 가능성 앞에 열어놓는 그러한 연대일 것이다.

## 제6장 요약 및 결론

80년대 이후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는 주류 사회운동의 포섭주의적·가부장적 이념구조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서 발전해 왔다. 사회운동진영과 여성운동의 관계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논쟁이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주류'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소위 '전체운동' 속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진보성"을 인정받고자 했던 여성운동이었고, 이들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단체운동'의 형태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진보'를 표방하는 사회운동이 실상 대단히 가부장적이라는 점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이는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여성주의자들'의 전면적 도전에 의해 급진화되었다. '여성주의자들'의 비판과 실천적 도전은, 한국 맑스주의계열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이 이념의 물성적(gender-blind) 성격에서부터 남성중심적 문화 및 조직원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맞물려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냈다. 성역할분담과 남성편의적 이중도덕, 여성비하적인 성 의식과 권위주의적인 일상문화 등은 주류 사회운동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가부장적 구조이며, 특히 거대담론을 중심으로 한 이분법적 이념 구조는 여성문제를 부차적인 문제로 폄하하고 계급모순 속에 수렴시키려는 포섭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억압을 소위 '전체 운동'과 분리하여 독립적인 것으로 사고하며 기존의 '주류 사회운동'이 지니고 있는 가부장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운동 의제와 방식을 실험해 왔다.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의식과 여성주의 운동의 '독자성'에 대한 자의식은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여성주의 정체성의 특수성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렇듯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생생한 체험에 기반한 비판을 실천적 차원에서 제기하는 가운데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운동을 생성한 '여성주의자들'은 크게 둘로 나뉘어 진다. 하나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여성주의 담론'을 확산시키고 여성주의 운동의 독자적 의제 및 운동 방식을 개발해 온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운동가로서 여성주의 의식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여성활동가모임>으로 조직화·세력화한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주류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급진적 비판의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기존의 운동이 기반해 왔던 위계적 이분법을 거부하고 자율성과 실질적 평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조직체제를 실험해 왔으며, '일상의 정치화'를 통해 새로운 '여성주의 운동'을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 기존의 여성운동과 구분되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주류 사회운동'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통해 등장한 이들 '여성주의자들'은,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여성주의 운동을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된 특징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되어 온 이들 ‘여성주의자들’이 어떤 단일하고 동질적인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여성주의자’라는 정체성이 어떤 주어진 규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과정’ 속에 놓여 있음을 반증한다. 이들의 여성주의 정체성은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 각자의 개인사적 경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다른’ 여성주의자들과의 비교와 구별짓기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즉,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는 그 자체가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의 구성적 요소이기도 했던 것이다. 따라서 90년대 중반 이후 여성주의 정체성의 복합적 형성은 첫째,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의식과 둘째, 다른 여성주의자들과의 ‘차이’ — 이 두 가지 요소를 맥락적으로 살펴봄으로써만 적절히 이해될 수 있다. 즉, ‘여성주의자’라는 정체성은 그 자체가 맥락의존적이다.

나는 4장과 5장에 걸쳐 90년대 중·후반에 형성된 ‘여성주의자들’이 어떤 상이한 맥락과 조건에 처해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로 해석되고 있으며 왜 표면화되어 논쟁되지 않는지를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의 경우 특히 학생운동에 대한 입장과 문화적 차이가 첨예한 갈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개인사와 학생운동의 경험, 그리고 학내 학생운동의 지형에 있어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학생운동 경험은 그 기간과 수위, 학생운동의 원칙적 정당성에 대한 동의의 정도, 그리고 ‘감정적 거리’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었으며, 각자가 처해 왔던 물질적·담론적 조건 또한 상이했다. 여성주의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과 각자가 체현하고 있는 문화의 차이 또한 크게 부각되었다. 하지만 여성주의 운동의 ‘독자성’이 강조되던 당시의 역사적 맥락상 주류 사회운동에 대한 ‘감정적 유대감’에서 단절한 여성주의자들이 여성주의를 정의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고, 이처럼 여성주의자들 내부에도 중심-주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차이’가 드러나기는 어려웠다.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이 ‘차이’라고 인식해 온 것은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문제의식의 차이, ‘연대 행동’을 취해야 하는 시점과 방식의 차이, 사회운동진영에 대한 ‘감정적 거리’의 차이, 문제를 풀어 가는 전략의 차이 등이다. 이들은 <여성활동가모임>이라는 집단으로 결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개인사적 경험과 여성주의 의식 형성과정, 그리고 그녀들이 현재 처해 있는 조건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상이함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특히 ‘분리 및 독자세력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대학가 여성주의자들과는 달리, 이들은 “여성주의의 세례”를 받지 못한 조건에서 사회운동을 시작했으며 여전히 ‘사회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고립된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그들’의 대립에 기반한 ‘인습적 연대’와 유사한 집합적 정체성을 가져 왔기 때문에, ‘차이’는 더더욱 표면화되거나 쉽사리 논쟁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다.

따라서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가 숨겨지거나 감정적 대립으로만 귀결되어 온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차이의 ‘위계화’로 인하여 “순수한 여성주의자” 또는 “진정한 페미니스트”라는 관념이 생겨나고 특정한 여성주의자들이 여성주의를 ‘정의’내리는 힘을 발휘함에 따라 ‘다른 페미니스트들’이 불가피하게 배제될 수밖에 없었으며, 일단 ‘중심-주변’의 구조가 여성주의자들에게 하나의 ‘좌표축’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차이’가 발화되거나 논쟁되기는 어렵게 되었다. 둘째, 각자가 처한 고립적 위치는 여성주의자들의 연대를 ‘절박한 신뢰관계’로 만들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여성주의 정체성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차이가 생겼을 때 쉽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했다. 셋째, ‘주류 사회운동’의 포섭주의적 이념구조는 ‘반정립으로서의 여성주의’라는 강조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배타성을 초래하거나(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의 경우), ‘우리’라는 범위를 고정하고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내부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여성주의 운동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의 경우). 여기에는 주류 사회운동의 이념과 문화가 재생산해온 이분법적 사유들과 ‘낙인찍기’, 타자에 대한 배제를 초래하는 질문 방식(“너는 누구 편이냐”) 등이 사회운동 전반과 그 구성원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으며,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여성주의자들 역시 이러한 문화 및 사유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 또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차이는 숨겨지고 감정적 갈등으로 누적되었으며, 서로에 대한 배타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주의자들이 한국 사회운동사 및 여성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주류 사회운동에 대한 비판을 통해 여성주의 운동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자의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천적으로 매우 풍부한 전략과 담론을 창출하고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까지 정치적 실험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새로운 여성주의 정체성의 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회운동단체 여성주의자들의 경우 주류 사회운동 내부에서의 개별화된 고립 상황에서 벗어나 여성주의 의식을 형성하고, 가부장성에 대한 저항을 점차 체계화, 집단화, 조직화해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성활동가모임>의 결성을 비롯한 저항 세력의 형성으로 인해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은 중대한 도전에 맞닥뜨렸으며, 저항을 무마해왔던 특수한 기제들 자체가 가부장적 구조의 일면임이 지적됨에 따라 비판은 더욱 급진적으로 공론화되었고 여성문제에 대한 성찰성을 전면적으로 제고시켰다. 즉,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여성주의자들은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 및 실천적 투쟁을 통해 독자적인 여성주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는 점, 그리고 집합적 실천을 통해 세력화함으로써 전면적인 도전을 수행하고 가시적 성과를 획득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여성주의 정체성의

출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와 갈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 즉 여성주의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고 서로 연대할 것인지는 함께 고민해야 할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성주의 정체성은 결코 고정적으로 정의되거나 ‘우월한 것/열등한 것’으로 판단되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여러 여성주의자들이 성찰하기 시작했듯이, ‘진정한 여성주의자’라는 위계화된 정의 방식은 배제를 낳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하나”라는 ‘인습적 연대’에 기반하여 집합적 정체성을 고정시키는 것은 각자의 경험과 조건을 오히려 탈맥락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차이’나 ‘갈등’들이 함께 말해지거나 “공론화”되지 않고 ‘개인적인 상처’로 숨겨진다면,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입장을 성찰하고 타인의 입장을 맥락화하지 않는다면, “경험”들을 재해석함으로써 저항의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여성주의자들’의 에너지는 사회 전반의 공고한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소진될지도 모른다. 문제는 ‘차이’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차이’ 이면에 놓여 있는 ‘맥락들’이다. 각각의 여성주의자들 구체적인 상황, 여성주의 의식을 획득해 온 개인사적 과정, 현재 지니고 있는 ‘자원’, 여성주의 정체성을 수궁하게 해줄 수 있는 지지집단의 존재 여부, ‘주류 사회운동’에 대한 입장과 ‘감정적 거리’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며, 그러한 ‘맥락들’ 속에는 가부장적 권력들이 켜켜이 가로놓여 있다 따라서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를 ‘맥락화’하는 것은 억압에 대한 해석과 저항의 전략을 풍부화시켜 여성주의의 정치학을 급진화할 수 있는 단초가 되어줄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여성주의자들의 발언과 논쟁을 제한해 왔던 ‘단일한 여성주의’라는 강박관념이, 복수(複數)의 여성주의‘들’이 존재한다는 인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에 적극적으로 직면하고 소통함으로써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주의 세력은 아직까지 주변적인 세력에 머물러 있으며, 이러한 고립된 상황은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차이를 은폐하고 위계화하는 데에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여성주의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이러한 조건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여성주의 운동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90년대 중반 이후 세력화 해온 여성주의자들의 역사적 경험과 조건을 성찰하는 것은 앞으로 여성주의 운동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대안적인 여성주의적 연대는 ‘그들-우리’의 이분법적 대립을 통해 확정되는 ‘인습적 연대’가 아니라, ‘차이’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활력을 얻는 연대, 자신의 경험과 입장을 성찰하고 타인의 조건과 상황을 ‘맥락화’함으로써 ‘여성주의자’라는 정체성을 부단한 변화의 가능성 앞에 열어놓는 그러한 연대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동현. 1999. “정체성의 정치”의 이론적 구성과 전략들”. 『연세학술논집』, 연세대학교.
- 권인숙. 1999a. “내가 여성학을 하는 이유”. <문화일보> 1999년 8월 12일.
- \_\_\_\_\_. 1999b. “나는 누구인가? - 위계와 권위의 멘탈리티”. 『당대비평』, 1999년 겨울.
- \_\_\_\_\_. 2000. “나는 왜 사소한 일에만 분노하는가”. 『당대비평』, 2000년 가을.
- 권장현수·유정미. 1999. “대학내 여성운동사 (70년대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여성학이론> 수업 기말 페이퍼. (미간행).
- 김수자. 2000. “어쩔 수 없는 현실?”. 『삶이 보이는 창』, 2000년 9월.
- 김수지. 1996. “여학생은 의장이 되면 안되나요?”. 월간 <말>, 1996년 7월.
- 김정은. 1999. “운동진영 내의 가부장제”. 고려대학교 석순 편집위원회. 『석순』, 14호. 고려대학교.
- 김화숙. 1999. 「여성의 사회적 저항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어머니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 김혜경. 1999. “치부를 드러내라, 환부를 잘라내라 - 여성억압 외면한 운동의 미래는 암울하다”. 청년진보당 당보 <청년좌파>, 1999년 12월.
- \_\_\_\_\_. 2000a. “편파적으로, 주관적으로, 오버하면서 살기 - 여성으로서의 당파성을 확립하자!”. <여성활동가모임> 내부 토론자료. (미간행).
- \_\_\_\_\_. 2000b.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적극적인 문제제기의 주체로”. 『삶이 보이는 창』, 2000년 11월.
- 김현미 외. 1998. 『일상의 여성학. 여성의 눈으로 세상 읽기』. 서울: 박영사.
- \_\_\_\_\_. 1999. “한국 노동운동의 담론분석을 통해 본 성적체현의 정치학”. 『열린 지성』, 6호
- 김현영. 1998. “내면화된 지배질서, 성별화된 위계질서”. 서울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관악』, 1998년 겨울. 서울대학교.
- \_\_\_\_\_. 김이승현·신혜임. 1999. “일상의 정치가 90년대 중후반 대학가 여성운동조직에 미친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여성학 연구방법> 수업 기말 페이퍼. (미간행).
- 김현정. 2000. 「여성운동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 남윤인순. 1999. “민주화 확대 이후 진보적 여성운동의 자리잡기 - 여성연합 활동을 중심으로”, (미간행)
- 박진영. 1998. 「여성의 조직활동 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 - 병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 박현귀. 1997. 「80년대 변혁운동가들의 정체성 변화과정 ‘운동권’ 출신의 여성 모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서정영주. 2000a. “진보’와 ‘평등’의 운동사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 운동사회 내 성차별과 성폭력, 가부장성과 권위주의 철폐를 위하여”. 『노동전선』, 2000년 1월.

\_\_\_\_\_. 2000b. “나무(개인)를 보지 말고 숲(조직)을 보자고(?) - 총선시민연대 장원·보건의료노조 송보순 사건을 보며”. 월간 <말>, 2000년 6월.

\_\_\_\_\_. 2000c. “노동운동에 ‘그녀’는 있는가?”.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제2호.

안혜성. 1993. 「사무직 노동조합운동과 성별위계구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양 진. 1999. “한 여성운동가의 고대 산책”. 고대문화 편집위원회, 『고대문화』, 고려대학교.

엄해진. 2000a. “당신들의 두려움은 우리들의 눈물 값이다”. <여성신문> 2000년 11월.

\_\_\_\_\_. 2000b. “표간호사들을 위하여”. <여성신문> 2000년 9월

여성평우회. 1986. “한국 여성운동의 위상”. 이화 편집위원회, 『이화』,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여성자치연대. 1999. <차이의 무한한 균열을 넘어 여성주의의 과거와 미래를 성찰하는 여성운동 심포지엄> 자료집, (미간행).

운동사회내 가부장성과 권위주의 철폐를 위한 여성활동가모임. 1999a. <발족 선언문>, (미간행).

\_\_\_\_\_. 1999b. <민중대회 켜개기 행사 취지문>, (미간행).

운동사회내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준비팀. 2000. <이제는 말하자! 운동사회 성폭력>. (미간행).

이상화. 1995. “여성학 연구의 철학적 기반 - 여성주의 인식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여성철학』, 여성철학연구모임. 서울: 한울

이송희. 1992. “80년대 한국여성운동”. 부산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연구논집』, 3집.

이숙진. 1990. 「노동자계급 여성의 여성해방의식 획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이송희. 1994. 『여성운동과 정치이론』. 서울: 녹두.

이영자. 1991. “페미니스트 패러다임의 사회학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학』, 25집. 한국사회학회.

이윤상. 1997. 「여성들 사이의 같음과 다름의 딜레마 해결을 위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이재원. 1998. “연대(solidarity), 하나의 모호한 개념 - 현재의 논쟁을 중심으로”,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 2 : 학생운동의 감추어진 일상 문화』. 서울: 이후.

이정자. 1995. “해방 50년과 여성운동 : 회고와 전망 - 여성 이슈의 정책화를 중심으로”, 『현대사회』, 42호.

- 이지은. 2000. “여성’ 활동가로 살아남기, 혹은 여성 ‘활동가’로 자리찾기”. <Current Inside>, 17호.
- 임옥희 외. 1998. “기획 특집 - 차이의 정치학 : 페미니즘의 다양한 목소리”. 『세계사상』, 4호. 서울: 동문선.
- 장미경 편저. 1996. 『오늘의 페미니즘, 세계 여성운동』. 서울: 문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1997. <여성조합원 실태 및 여성관련 단체협약 실행 현황에 대한 단위노조 설문조사 및 여성조합원 의식 설문조사 보고서>, (미간행).
- \_\_\_\_\_. 2000. <노동조합 내 의사결정기구의 여성참여 확대방안>, (미간행).
- 전희경. 1998. “여성이 운동을 한다는 것은? - 우리 안의 성차별주의를 넘어 여성운동과 학생운동의 동등한 연대로”. 이재원 외.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 2』. 서울: 이후.
- \_\_\_\_\_. 1999a. “여성주의, 좌파의 새로운 싸움”. 카피레프트모임. 『읽을거리』.
- \_\_\_\_\_. 1999b. ““지금은 부재중이오니 2번을 누르신 후 녹음해 주십시오” - 페미니즘과 맑스주의, 그 절망적 과거와 모순적 현실에 대한 소고”. 시립교지 편집위원회. 『시립교지』, 24호. 동국대학교.
- \_\_\_\_\_. 1999c. “mission impossible”. 고대문화 편집위원회. 『고대문화』, 49호. 고려대학교.
- \_\_\_\_\_. 1999d.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대답을” 정정현 편집위원회. 『정정현』. 성균관대학교.
- \_\_\_\_\_. 2000. “지금, 당신 자신과 싸워야 할 바로 그때” 평화인권연대 소식지, 2000년 3월.
- 정주은. 1999. “문제제기글, 뽀뽀아줌마”. 건강한 여성들의 모임 <텃밭> 소식지, 39호.
- 정희진. 2000. “진보남성의 성폭력”.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소식지, <여성의 눈으로>, 2000년 3-4월호.
- 조순경 · 김혜숙. 1995a. 민족민주운동과 가부장제. <교육부 광복50주년 기념 학술논문집>, 제18권 여성편.
- \_\_\_\_\_. 김혜숙. 1995b. “운동권 가부장제가 여성운동가를 억압한다”. 월간 <말>, 1995년 7월.
- 조주은 외. 1999. “운동사회의 가부장적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 모색 - ‘여성활동가모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여성학 연구방법> 수업 기말페이퍼, (미간행).
- 조주현. 2000.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 성 지식 권력망 읽기에서 새 여성의 모색으로』.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조혜정. 1993. “The “Woman Question” in the Minjok-Minju Movement: A Discourse Analysis of A New Women’s Movement in 1980’s Korea”, 조형 & 장필화 편, *Gender division of Labor (In) Korea*,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_\_\_\_\_. 1994. “사회운동의 ‘주체’에 대하여 2 : ‘주변성’이 지닌 힘과 ‘다름의 정치학’”. 『내가 살고 싶은 세상』.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주경미. 1994. “80년대 부산지역 여성노동운동에 나타난 지식인 활동가의 여성문제 인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연구논집』, 5집.
- 최성애. 1994. 「여성독자노조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일 연구 - 금융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 최정민. 2000.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면 이럴 순 없다?””. 평화인권연대 소식지, 2000년 3월.
- 허나운. 2000. 「199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 ‘위기’ 담론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 허성우. 1995. 「1980년대 후반 여성 노동자 조직활동가의 여성해방의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 Barrett, M. 외. 1995. 『페미니즘과 계급정치학』. 신현옥·장미경·정은주 옮김. 서울: 여성사.
- Bartky, S. L. 1977. "Toward a Phenomenology of Feminist Consciousness", M. Vetterling-Braggin, M. Elliston, F. and English, J. (eds.), *Feminism and Philosophy*, Littlefield, Adams, New Jersey.
- Bruner, E. M. 1986. "Ethnography as Narrative", in *The Anthropology of Experience*, edited by Victor Turner and Edward Bruner,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Dean, J. 1996. *Solidarity of Strangers - Feminism after Identity Politics*, California Univ. Press.
- Elson, D. 외. 1998.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 - 페미니즘의 시각』. 서울: 공감.
- Faue, E. 1991. *Community of Suffering and Struggle: Women, Men, and the Labor Movement in Minneapolis, 1915-1945*, Chapell Hill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Ferguson, A. 2000. "Resisting the Veil of Privilege Building Bridge Identities as an Ethico-Politics of Global Feminisms". Narayan, U. and Harding, S. (eds.), *Decentering the Center: Philosophy for a Multicultural, Postcolonial, and Feminist World*,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 Indianapolis
- Ferree, M. M. 1997. "German Unification and Feminist Identity", Scott, J. W. and Kaplan, C and Keates, D (eds.), *Transitions, Environments, Translations: Feminisms in International Politics*, Routledge. New York & London.
- Griffin, C. 1989. 'I'm not a Women's Libber, but...' *Feminism, Consciousness and Identity*,

- Skenington, S. and Baker, D. (eds.), *The Social Identity of Women*, Sage Publications, London & Newbury Park & New Delhi.
- Harding, S. 1995. "Feminist Critiques of Science". 로지 브라이도티 외.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서울: 나라사랑.
- Hartmann, H. 1981. "The Unhappy Marriage of Marxism and Feminism: Towards a more Progressive Union", in *Women and Revolution*, South End Press, 김혜경 · 김애령 편, 하 이디 하트만 외, 『여성해방이론의 쟁점 - 사회주의 여성해방론과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 서울: 태암,
- Hartsock, N 1998. *The Feminist Standpoint Revisited and Other Essays*, New York: Westview Press.
- Haug, F. 1992. "Men's History, Women's Liberation and Socialism", *Beyond Female Masochism: Memory - Work and Politics*, Verso: Condon / New York.
- Humm, M. 1995. 『페미니즘 이론 사전』. 심정순 · 염경숙 옮김. 서울: 삼신각.
- Irigaray, L. 외. 1997. 『성적 차이와 페미니즘』. 권현정 편저. 서울: 공감.
- Jancar, B. W. 1978. "The Ideological-Cultural Environment", *Women under Communism*,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and London.
- Lerner, G. 1977. "Consciousness raising - 1970", *The Female Experience: An American Docu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Oxford.
- Marx, K. 1987a. 『경제학 철학 수고』. 서울 이론과 실천.
- \_\_\_\_\_ 1987b, 『자본 I-1』. 서울: 이론과 실천.
- \_\_\_\_\_ · Engels, F 1989 『독일 이데올로기』. 서울: 두레.
- Mohanty, C. T. 1992. "Feminist Encounters: Locating the Politics of Experience", Barrett, M. and Phillips, A. (eds.). *Destabilizing Theory: Contemporary Feminist Debates*,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 Palley, M. L. 1988. "Women's Organiz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Science Association Convention, Washington.
- Rich, C. 1992. "Ageing, Ageism and Feminist Avoidance", Crowley, H. and Himmelweit, S. *Knowing Women: Feminism and Knowledge*, Polity Press [in association with the Open University].
- Scott, J W 1988.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 Stanley, L. and Wise, S. 1983. "Feminism and the Social Science", *Breaking Out: Feminist*

*Consciousness and Feminist Research*,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Stefano, C. D. 1991. "Masculine Marx", Shanley, M. L. and Pateman, C. (eds.). *Feminist Interpretations and Political Theory*, Polity Press.

Tuttle, L. 1999. 『페미니즘 사전』. 유혜련·호승희 옮김. 서울: 동문선.

우에노 치즈코. 1994.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서울: 녹두.

\_\_\_\_\_. 2000. 『내셔널리즘과 젠더』. 서울: 박종철 출판사.

## **ABSTRACT**

### **The Patriarchy of Social Movements and the Formation of Feminist Identity**

Chun, Hui Kyung

Dep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history of the Korean women's movement after 1980's developed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absorptive and patriarchal ideology structure of the main-stream social movements. There have been numerous debat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movement and the women's movement, but what was regarded as the 'main-stream' was the women's movement which tried to gain its recognition of its 'progressiveness' through positioning itself within the 'total movement', and it continues into the 1990's as 'women's organization movement'. But from the beginning of the 90's, critical analysis began to emerge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 social movement which profess itself as 'progressive' is actually very patriarchal, and the 'feminists' after mid 90's, extensively challenging the patriarchy of the main-stream social movements, came to form a new feminist identity.

The focus of this thesis is to bring light on how the formation of these women's feminist identity is related to the age-long patriarchy of social movements. In feminist theory, to have a feminist identity is defined as fundamentally having a new cognition of oneself and of the world. But this does not mean that the feminist identity is singular and fixed. It is placed within the 'process' that is endlessly negotiated and reconstructed according to particular context and conditions. Learning on this theory, I viewed that the 'feminists' after mid 90's developed its feminist identity through the challenge against and delinking from the patriarchy of main-stream social movement of Korea. With this hypothesis in mind, I performed sample analysis centered around in-depth interviews with two groups that were formed after mid 90's - the 'feminists inside universities' and the 'feminists inside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The criticisms and the challenges put to practice manifested that, from the gender-blind

ideology to the male-centered culture and organizing principles of the Korean Marxist social movements, these elements form systematically intertwined structural problem. The division of roles according to gender, the male-convenient dual morality, gender perspective that degrades women and the authoritarian everyday life etc. are the patriarchal structures that lie deep inside the main-stream social movements, and the dichotomy based on meta-discourse that depreciates women's issues has the absorptive tendency to converge them into class conflict. The 'feminists' thought women's oppression as being separate and independent from the so-called 'total movement', tried to overcome the patriarchy of the former 'main-stream social movements' and have experimented with new themes and methods of mobilizing. The criticism against the patriarchy of social movements and the self-recognition of independence of the feminist movement are important indexes in describ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minist identity that came into being after the mid 90's

But through the efforts to implement and put into practice the 'independence' of the feminist movement, there emerged a tendency to define feminism as an antithesis to the patriarchal social movement, and the isolating situation of being involved in the feminist movement while continually conflicting with the main-stream social movement prevented the proper surfacing of 'difference' within feminist interpretation and culture. Despite the fact that the particular aspects of feminist identity cannot help but differ according to personal historical context, conditions and experiences of social activism, there was an obsession to maintain a singular identity of 'we' instead to manifesting and debating these differenc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6 people, I was able to see that hierarchical definition method of 'the true feminist' cannot help but give birth to exclusion, and the establishment of homogeneous identity of 'we are one' has the danger of actually de-contextualizing individual experiences and conditions. Instead, feminist solidarity can be sought for through actively manifesting and contextualizing 'difference' and 'conflict'

But despite these differences and conflict,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se feminists that occupy in the history of Korean social movements and women's movement cannot be undervalued. First of all, the fact that the university feminists showed self-identity through the emphasis of 'independence', that they created and practiced a variety of strategies and discourses, and that they extended political experiments even to the territory of everyday life,

have historical meaning. In the case of feminists in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they are important because they escaped from individual isolating situations and formed a feminist conscious, and they systemized, collectivized and organized resistance against patriarchy inside social movements. Therefore, one can conclude that the feminists who emerged after mid 90's was the appearance of a new feminist identity, on the basis that they formed their independent feminist identity through the criticisms and struggles against patriarchy of social movements and that they extensively challenged and attained notable achievements by organizing through collective action.

---

■ Key words : feminism, feminist, identity, main-stream social movement, patriarchy, independence, difference, hierarchy, contextualize, solidarity